

이목동

활기차고 정겨운 배나무골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비매품/무료
94910
9 791168 191945
ISBN 979-11-6819-94-5
ISBN 979-11-90043-99-2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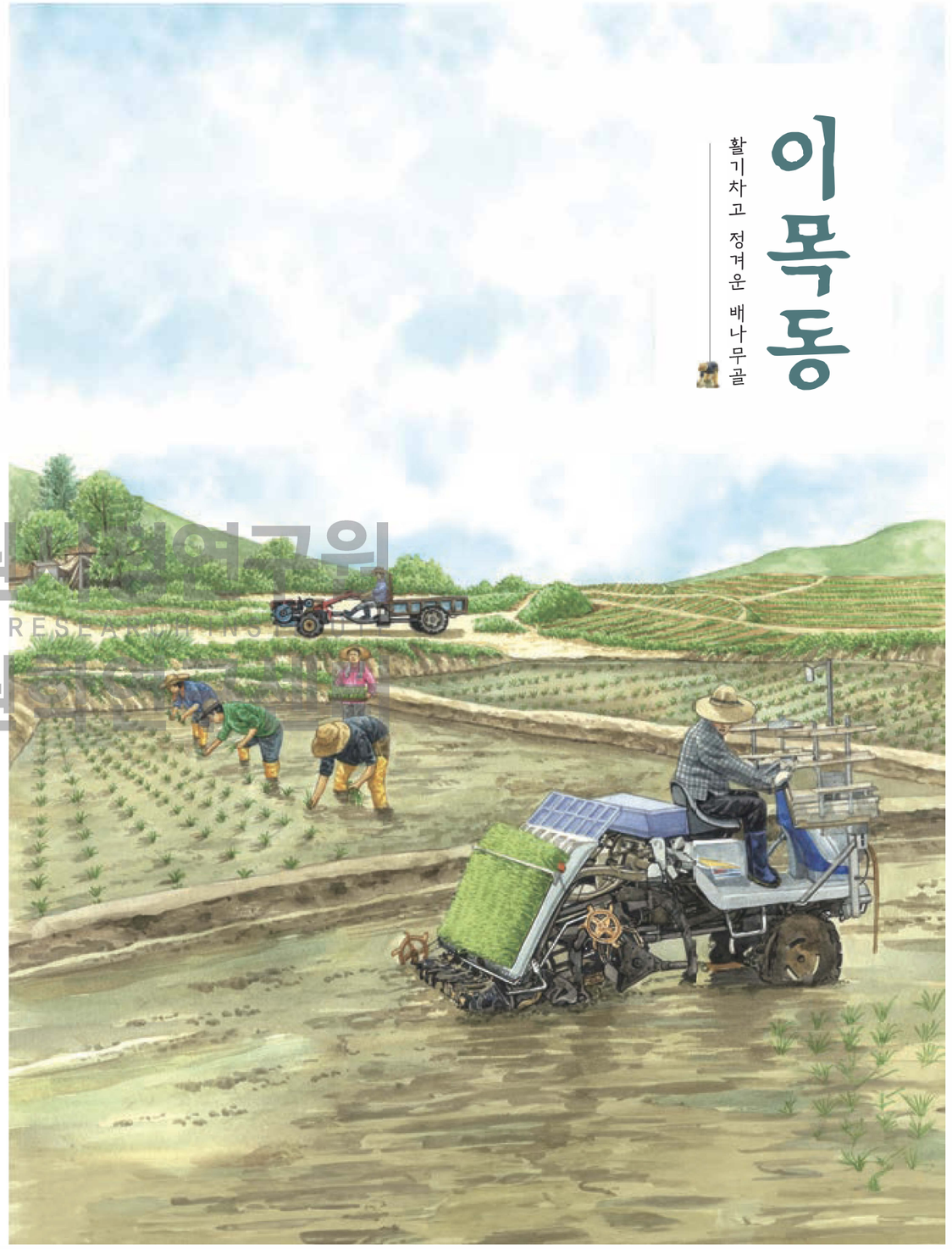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21

이목동

활기차고 정겨운 배나무골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시정연구원

이목동

활기차고 정겨운 배나무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CONTENTS

1 이목동의 지리적 환경과 도시공간

제1장 이목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006
제2장 이목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072

2 이목동 배나무골 공동체와 주민생활

제1장 이목동 문중 공동체의 형성과 가계 계승 112
제2장 문서 이데올로기와 이목동 '산지기 문서'의 주인 찾기 132
제3장 근현대 이목동의 사회·경제적 변화 164
제4장 4H구락부에서 이목동애향회까지 : 이목동 마을 공동체 활동의 변화 196
제5장 자매애로 집안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여성들 : 배나무골 며느리회 여성들의 이야기 222
제6장 변화하는 마을, 남겨진 논과 밭을 일구다 : 이목동의 농업 지속성과 농민들의 생활 262

3 이목동 배나무골 사람들의 삶

제1장 터줏대감 김인기의 지역 활동과 고향 사랑 292
제2장 이목동 아랫말 나무꾼에게 시집온 이윤호 328
제3장 피난민이지만 어엿한 이목동 사람, 김춘자 350

4 이목동의 문화공간과 산업공간

제1장 이목동의 문화유적과 노송지대 368
제2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동과 함께한 48년의 세월 432
제3장 농원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 이목동 농업공간의 재편과 해체 472
제4장 대한식품회사에서 해태유업으로, 그리고 다시 동원F&B로 510
제5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하여" :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解憂齋) 550

5 이목동의 주거공간과 주거문화

제1장 윗배나무골 유영유 가옥과 주생활 586
제2장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운영과 주민생활 632
제3장 '도심 속 작은 숲', 이목파인힐스 : 이목동 전원주택단지의 조성과 주민생활 66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부

이목동의 지리적 환경과 도시공간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이목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제2장 이목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1장

이목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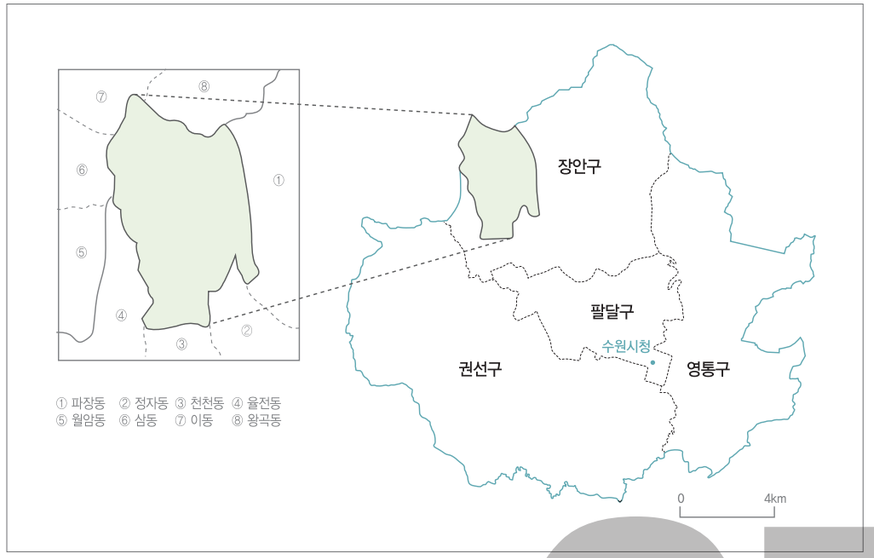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수원시의 서북부 들머리에 자리한 이목동

1) 수원과 주변 지역을 잇는 길목

이목동(梨木洞)은 수원시의 북부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경계부의 마을이다. 이목동은 수원시를 구성하는 56개 법정동 가운데 하나이지만, 행정수요를 충족할 만큼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동 자체의 행정복지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목동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파장동행정복지센터는 이목동과 파장동 등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므로, 파장동도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을은 동남쪽이 탁 트인 개활지를 통해 수원의 시가지와 마주하지만, 동쪽에서 북쪽을 돌아 서남부에 이르는 구간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을 이루고, 움푹한 분지 내부에 이목동의 중심마을이 들어서 있다. 이목동 마을이 들어선 곳은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남저북고의 지형에 들어선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모양이다.

수원시의 경계부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이목동과 경계를 마주하는 지역은 수원시 장안구의 일부 지역과 의왕시에 걸쳐 있다. 이목동의 남쪽과 동쪽이 수원시에 속하며 서쪽과 북쪽은 의왕시에 해당한다. 동쪽으로는 파장동이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정자동과 천천동, 서쪽으로는 율전동이 위치한다. 이목동의 서쪽에서 경계를 형성하는 의왕시의 구역은 삼동과 이동이고 북쪽으로는 의왕시 왕곡동이 마주한다. 수원시의 진산 역할을 하는 광교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이목동과 의왕시의 경계 역할을 하는 셈이다. 광교산줄기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이목동은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며, 산줄기 너머 수원의 북쪽에 있는 안양·과천·서울 등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한다.



수원시의 서북부 들머리에 자리한 이목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은 수원 북부지방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는 길목의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일찍부터 교통로가 잘 발달하였다. 한양과 지방의 주요 행정중심지 및 군사기지를 잇는 역로는 조선시대에 재편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양에서 수원을 지나 평택-천안으로 이어지는 삼남대로(三南大路)가 이목동의 동쪽 구간을 통과하였다.[1] 지금은 수원에서 안양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국도1호선(경수대로)이 옛 삼남대로 구간을 통과하고, 이목동의 동쪽에는 영동고속도로의 북수원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다. 영동고속도로는 이목동의 중간지대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구간에 개설되어 있다. 국도1호선은 이목동을 북쪽의 서울 방향과 남쪽의 수원시 중심시가지로 연결하는 간선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영동고속도로는 서쪽의 인천 방향과 동쪽의 용인을 거쳐 강원도 방향으로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으로 기능한다. 영동고속도로의 북수원요금소가 이목동의 바로 동쪽에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이목동의 결절성은 상당 부분 약화했을 것이다. 국도1호선과 영동고속도로가 이목동의 교통 결절성을 증대시켜 주는 중요한 교통로에 해당한다.

국도1호선은 수원화성의 동쪽에 설치된 창룡문을 지나 수원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이고, 이목동의 동남부 시가지를 통과하는 서부로는 수원의 중심시가지를 우회해 이목동과 수원의 서부지역을 지나는 남북 방향의 교통로이다. 서부로는 이목동과 파장동의 경계부인 파



이목동의 주요 도로망

이목동 초입에서 교차하는 영동고속도로, 국도1호선, 서부로(김승일 제공)



국도1호선과 장안로 사이에 형성된 시가지(김승일 제공)



지지대고개를 넘어 서울로 연결되는 경수대로(김승일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장IC를 지나 동쪽 방향으로 연결되면서 수원북부순환로를 이룬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의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고 동서 방향으로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개설된 도로로, 이목동의 동쪽에 조성된 광교신도시로 직접 연결된다. 국도1호선과 서부로 및 수원북부순환로는 이목동의 동쪽에 있는 파장IC에서 교차한다. 서부로와 수원북부순환로는 도로명에서만 구분될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도로이며, 파장IC의 상단을 고가도로(지지대교)의 형태로 통과하는 연속된 도로이다. 수원의 중심시가지를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는 수원북부순환로와 서부로가 이목동에서 서로 교차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목동의 지리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목동의 서쪽으로는 고속화도로인 봉담과천로가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고, 그 서쪽에는 영동고속도로의 부곡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다. 봉담과천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이목동의 북쪽인 의왕시 고천동의 의왕IC에서 국도1호선과 교차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목동은 수원시 내에서의 위치만 따지면 수원의 변두리에 해당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공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사방으로 향하는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수원의 관문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목동 남쪽 시가지에서 지지대고개를 넘어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모두 경수대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이목동을 경유한 후 곧장 봉담과천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한다. 즉 수원 시내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서울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승객을 태우는 장소가 이목동이다. 따라서 이목동은 수원을 벗어나는 마지막 장소인 동시에 수원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장소인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이목동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나 대중교통만으로 보면 수원의 중심시가지보다는 동의 서북부에 자리한 의왕시로의 접근성이 훨씬 양호한 특징을 가지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목동 사람들의 생활권이 의왕시와 더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목동 사람들의 통행패턴은 수원의 중심부 또는 서수원의 시가지와 강력하게 연계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수원의 시가지가 이목동과 그 주변 지역으로 확장해 옴에 따라 점차 서수원 및 수원 중심부와 연계되는 모습을 보였다.[2]

앞에서 언급한 간선도로 외에 이목동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장안로·천천로·이목로가 있으며, 이들 도로에서 파생된 소로가 시가지와 마을 곳곳을 연결한다. 장안로는 팔달구 화서동의 화서공원 서쪽에서 시작해 장안구 이목동 골짜기의 수원서광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며, 파장사거리에서 동서 방향의 이목로와 교차한다. 서호천의 율목교에서 경수대로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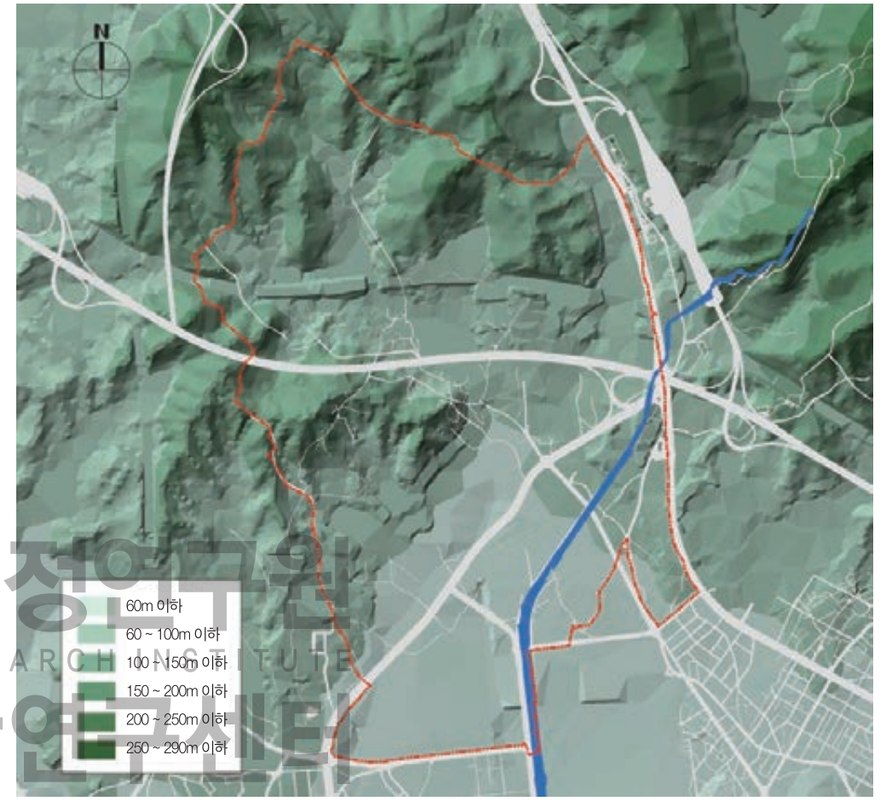
원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이목로는 이목동과 파장동을 구분하는 도로이며, 율목교에서 남북 방향으로 뻗은 천천로와 만난다. 천천로는 안죽골사거리에서 서부로와 교차한다. 도로명으로 보면 이목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인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목동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도로는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는 장안로이다. 따라서 소로의 명칭도 장안로에서 파생된 도로가 이목로 또는 천천로에서 파생된 것보다 많다.

2) 광교산에서 뻗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마을

수원시의 북쪽 경계부에 자리한 이목동은 수원의 진산인 광교산의 서쪽 말단부에 자리하는 마을이다. 수원의 시가지는 대부분 광교산의 남사면에 형성되었지만, 이목동은 광교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에 포위된 듯한 형세를 하고 있다. 광교산의 골짜기에 조성된 파장저수지에서 흘러내린 서호천의 물줄기가 마을 전면부의 저지대를 흘러 천천동을 지나 서호(西湖)로 유입된다. 이목동은 마을의 뒤쪽을 광교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감싸고 마을의 앞쪽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동시에 하천 주변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태를 취하는 마을이다.

이목동은 수원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산지가 많은 편이다. 이목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는 고도가 높지 않아서 분지의 중앙에 자리한 마을과 조화를 잘 이룬다. 산지의 주요 봉우리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해 오면서 주변의 산지를 공유해 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지명은 땅을 공유하는 두 명 이상이 공통으로 부르는 공인된 이름이기 때문이다.[3] 이목동을 둘러싼 산줄기에 있는 봉우리의 이름에는 동원고등학교 북쪽의 화산(花山, 146.2m), 지지대고개의 서쪽 최장군봉(崔將軍峰, 166m), 수원서광학교 남쪽의 옥녀봉(玉女峰, 148m), 동원고등학교 서쪽의 안산(案山), 윗배나무골 북쪽의 삼선봉(三仙峰, 134m), 영동고속도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덕성산과 망치봉 등이 있다. 이목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는 해발 100m 이상부터 정상부에 걸쳐 1972년 8월 모두 개발제한구역(greenbelt)으로 지정되어, 임야를 대상으로 한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는다. 해발고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인접한 봉우리들과 함께 이어지는 산세는 상당히 큰 편이다.

이목동의 동쪽에 자리한 광교산(光敎山, 582m)은 행정구역상 수원시 상광교동에 있으며,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갈라져 나온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의 주봉이다. 광교산줄기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변의 성남시·의왕시·용인시 등지에 걸쳐 있으며, 최고봉인 시루봉(582m)을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백운산(565m), 남쪽으로는 형제봉(448m)이 자리한다. 광교산은 수원천을 비롯하여 서호천·원천천 등 수원시를 가로지르는 크고 작은 하천을 비롯해



산지로 둘러싸인 이목동의 지형(1:5,000,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용인시와 의왕시를 흐르는 동막천·풍덕천·고천 등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광교산의 남쪽에는 수원천을 막아 건설한 광교저수지가 있으며, 이목동에서 가까운 파장동에는 파장저수지가 건설되었다. 주위에 해발고도가 높은 산이 존재하지 않아 잔구성(殘丘性) 산지의 모습을 보이는 광교산은 오래전부터 수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산이다.

산에 서식하는 식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한반도의 야산이나 해발고도가 낮은 산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종인 소나무이고,[4] 산줄기 사이에 형성된 소규모의 계곡 주변으로는 다양한 수종의 활엽수가 자란다. 광교산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의 남부에서 광교산을 바라보면 침엽수와 활엽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산사면의 식생 분포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온난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활엽수는 서식지를 산정상부로 확대하는 반면, 북방계 침엽수의 서식지는 활엽수의 침입에 의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의 임야(김승일 제공)



이목동 마을 전경(김승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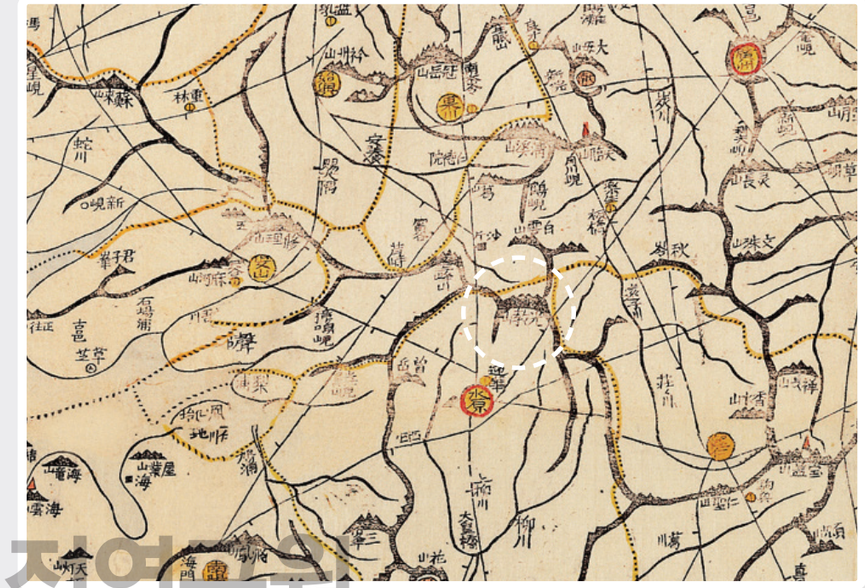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목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서식하는 식생 역시 참나무를 중심으로 한 활엽수가 대부분이며 곳곳에 소나무가 혼재하는 양상이다. 소나무는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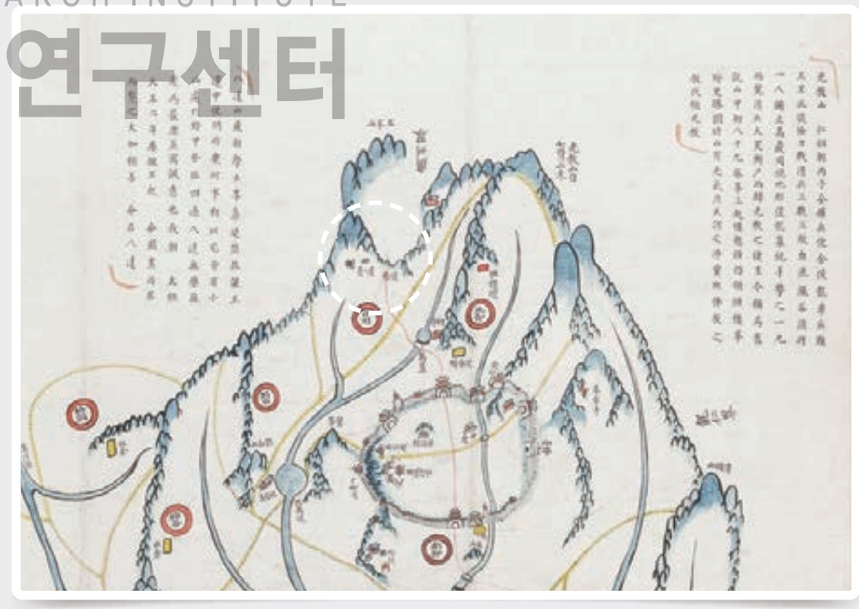
한반도에서는 도읍을 정하거나 마을을 입지시킬 때 또는 주택을 건설할 때에 지기가 좋은 땅을 찾아 시설물을 입지시키는 풍수지리사상이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다. 풍수지리사상에서는 바람을 막거나 물을 얻기 쉬운 지형조건의 충족을 위해 산줄기의 좋고 나쁨을 따진다. 광교산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수원시의 진산에 해당하며 바람을 막고 물을 얻게 해 주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역할을 한다. 이는 광교산에 대한 기록을 가진 다양한 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은 물론 경기지방이나 한반도를 그린 옛 지도에서 광교산은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일례로 『대동여지도』에서는 수원 읍치의 북쪽을 광교산 산줄기가 둘러싸고 있는 형상으로 묘사하였으며, 『수원군읍지』에는 "광교산은 광악(光嶽)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 하늘까지 뻗친 불의 기운을 부처의 혼령으로 간주하여 불교사상을 채택해 광교(光敎)라는 산 이름이 유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5] 광교산줄기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은 예로부터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되었는데, 이는 광교산이 평온하고 영원한 안식처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장소 인식은 광교산줄기가 마을을 감싸는 항아리 모양이라는 데에서 연유했고, 생명을 잉태하는 물줄기의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목동으로 뻗은 산줄기는 광교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능선에 다시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형성한 것으로, 이 능선은 파장저수장의 동북쪽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산줄기의 분기점에서 서쪽으로 뻗은 줄기는 지지대고개를 지나 이목동 일대에서 넓은 골짜기와 분지를 형성하였다. 산줄기의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송죽동과 조원동 방면으로 향한다. 이목동을 감싸고 있는 산줄기의 해발고도는 160~190m의 능선을 이루며 산줄기의 중앙부에 자리한 저지대는 해발고도가 100m에 이르지 못한다. 가장 고도가 높은 망치봉의 해발고도가 199.7m이며 산의 정상부에는 3등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다. 공동주택단지 및 동원F&B 수원공장 및 수원장안STX칸아파트가 자리한 서호천 변은 해발고도가 60m 내외로 훨씬 낮아진다. 따라서 이목동의 전체적인 지형 특징은 남저북고의 형태이며, 산줄기가 있는 서쪽이 높고 개활지가 펼쳐진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의 특징을 나타낸다.

높고 낮은 산줄기는 이목동을 둘러싸고 있는 동시에 저지대를 향해 여러 개의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다. 골짜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찍이 이 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개별 골짜기에 명칭을 부여하였다. 소규모의 골짜기에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골짜기가 주민들의 생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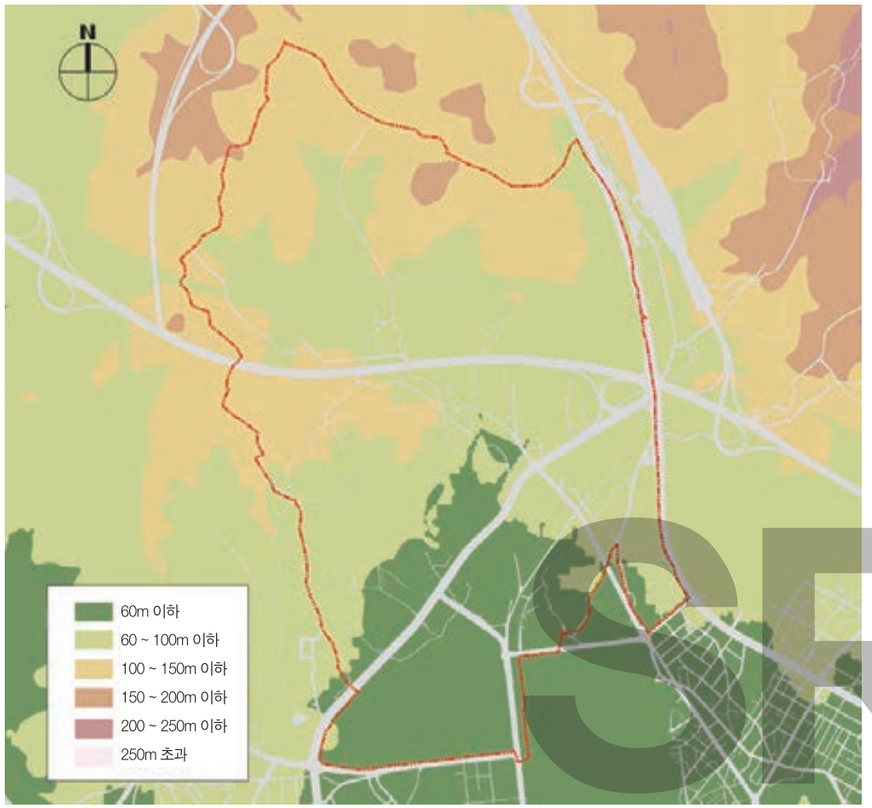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광교산



1872년 「수원부지도」에 그려진 지지현과 지지대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의 표고도(1:5,000,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매우 긴요하게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목동을 둘러싼 산줄기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의 이름은 곡산골·작은골·갓골·푸무골·정골·안죽골·함박골 등이다. 이들 골짜기는 계곡물이 흐르면서 땅을 V자 형태로 침식시킨 지형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지형에 하천의 규모도 크지 않아 많은 침식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농경에 유리한 평지가 계단식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골짜기에 조성된 농경지에서는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며, 골짜기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해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일부 논은 비닐하우스를 활용해 시설 재배지역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골짜기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골짜기는 이목천이 발원하는 곡산골이며, 이 골짜기 역시 소규모의 논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계단식으로 조성된 농경지는 이목동을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살아온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목동을 둘러싼 산줄기는 마을의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고도가 낮아지면서 산의 능선이 말의 안장처럼 움푹 가라앉은 모양의 안부(鞍部)를 형성하고 있다. 서쪽 안부의 북쪽 능선으로는 망치봉이 있고, 남쪽 능선으로는 덕성산이 있다. 이 안부는 해발고도가 약 100m에 달해 주변보다 훨씬 낮은 지점이었고, 과거 이목동에서 서쪽의 의왕시 방향으로 왕래하던 소규모의 도로가 개설된 고갯마루이기도 했다. 옛길의 흔적은 지금까지 남이 있으며, 고개의 이름은 장안말고개로 불린다. 장안말(莊義)은 고개 서쪽의 의왕시에 있던 마을의 이름이며, 장안말고개는 의왕 사람들이 수원으로 장을 보러 가던 고개라는 데에서 장고개로도 불렸다. 수원시의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 역시 해발고도가 낮은 장안말고개의 바로 남쪽에 개설되었다. 마을의 동쪽에 형성된 안부는 이목동과 파장동의 경계이며, 지지대 고개로 잘 알려진 곳이다. 안부는 고도가 주변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산 너머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발고도가 60m 내외인 서호천 주변과 아파트 단지(김승일 제공)

3) 서호천을 마주하는 마을

이목동의 동북쪽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흐르는 서호천(西湖川)은 수원시의 4대 하천 가운데 하나로 파장동 북쪽의 파장동산(367m) 골짜기에서 파장저수지를 통과한 후 서호저수지를 지나 권선구 일대를 통과하고, 고색동의 남쪽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한다. 서호천은 수원시에서만 흐르는 총연장 13.7㎞에 유역면적 30.9㎢의 지방하천이다. 화서동에 축조된 축만제(祝萬堤)의 서호를 지난다는 데에서 서호천 명칭이 유래하였다.

이목동이 포함된 서호천의 상류부는 서호천이 파장동에서 발원하여 흐른다는 데에서 파장천(巴長川)으로 불린다. 서호천 주변은 제4기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뭄에도 유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6] 이목동의 서호천 일대는 오래전부터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서호천 주변에는 많은 농경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시가지가 들어서거나 주택단지로 바뀌었다.

서호천에 합류하는 소하천에는 웃파장천·이목천·송죽천·매산천·영화천 등이 있지만, 이목동을 통과하는 하천에는 이목동 골짜기를 관통하는 이목천이 유일하다. 총연장 2.1㎞의 이목천은 망치봉의 동북쪽인 이목동 산6번지에서 발원하여 서호천의 발원지로부터 남쪽 2.5㎞ 지점인 배다리교 근처에서 서호천의 서쪽으로 합류한다. 이목천이라는 이름은 하천이 이목동을 흐른다는 데에서 생겨났으며, 1997년 9월 소하천으로 지정되었다.[7] 이목천은 유로가 넓지 않지만, 홍수 시에는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류해 흐르면서 범람에 의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하천 주변에는 주택 및 상업시설을 비롯해 일부 농경지가 분포한다.

수원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호천의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였다. 서호천은 서수원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수질이 악화했지만, 수질 개선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모하였다. 서호천이 통과하는 구간에서 수인분당선의 남쪽은 오래전부터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시가화구역으로 바뀌었다. 서호천의 이목동 구간은 하천 유로가 자연하천의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물길 주변에는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개설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된다. 하천 주변에는 대부분 시가지가 들어서 있다. 서호천을 건너는 교량에는 이목2교·배다리교·율목교가 개설되어 있다. 서호천은 이목동을 관통하는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이들 교량이 이목동과 인접한 파장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대교차로 남쪽의 서호천 동편에는 수원에 남은 유일한 야외수영장인 삼풍수영장이



이목동의 하천인 이목천과 서호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서호천(김승일 제공)



이목천(김승일 제공)

SR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있다. 삼풍수영장은 1970년대 삼풍농원 내부에 설치된 야외수영장이다. 울창한 나무숲이 수영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된 삼풍수영장은 인위적 요소보다는 자연적 요소를 가미해 조성된 곳으로서, 취사가 가능해 물놀이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립할 때에 지지대고개 근처에 심었던 노송 200여 그루가 우뚝 솟은 노송지대에 1960년대 중반 소규모의 포도농원이 들어선 이후 광교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서호천의 계곡을 결합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삼풍농원의 시작이다.[8] 1960~1980년대 이목동 일원의 노송지대에는 삼풍농원을 비롯해 20여 개의 농원이 포도밭으로 운영되기도 했으며, 농원은 수원은 물론 서울에서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전하였다.



서호천



지지대교차로 남쪽의 서호천과 삼풍수영장(김승일 제공)

2. 행정구역 변천 및 지명 유래

1) 행정구역 변천

조선시대에 수원화성이 건립된 이후의 행정구역을 정리해 1831년에 간행된 『화성지(華城誌)』에 따르면, 이목동은 수원부 형석면(荊石面) 이목동(梨木洞)으로 편제되어 있다. 당시 형석면에는 율전리·천천리 등의 6개 마을이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동(洞)은 현대에 이용되는 행정단위의 개념이 아니고 당시 마을을 일컫는 표현이다. 1899년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에 따르면, 이목동은 형석면을 구성하는 11개 마을 가운데 하나였다. 형석면의 규모가 이전보다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행정경계에 구운동 및 탑동 일대까지가 형석면에 포함되었다.

1914년에 단행된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시에 형석면과 일용면(日用面)·남부면(南部面)·북부면(北部面) 등 4개 면이 통합되어 수원군 일형면(日荊面)이 될 때, 이목동에서 이목리(梨木里)로 변경되어 일형면에 편제되었다. 당시 일형면은 수원화성의 서북쪽에 자리한 고등동·서둔동·영화동·광교동·정자동·천천동·율전동·구운동 등지의 서수원 일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구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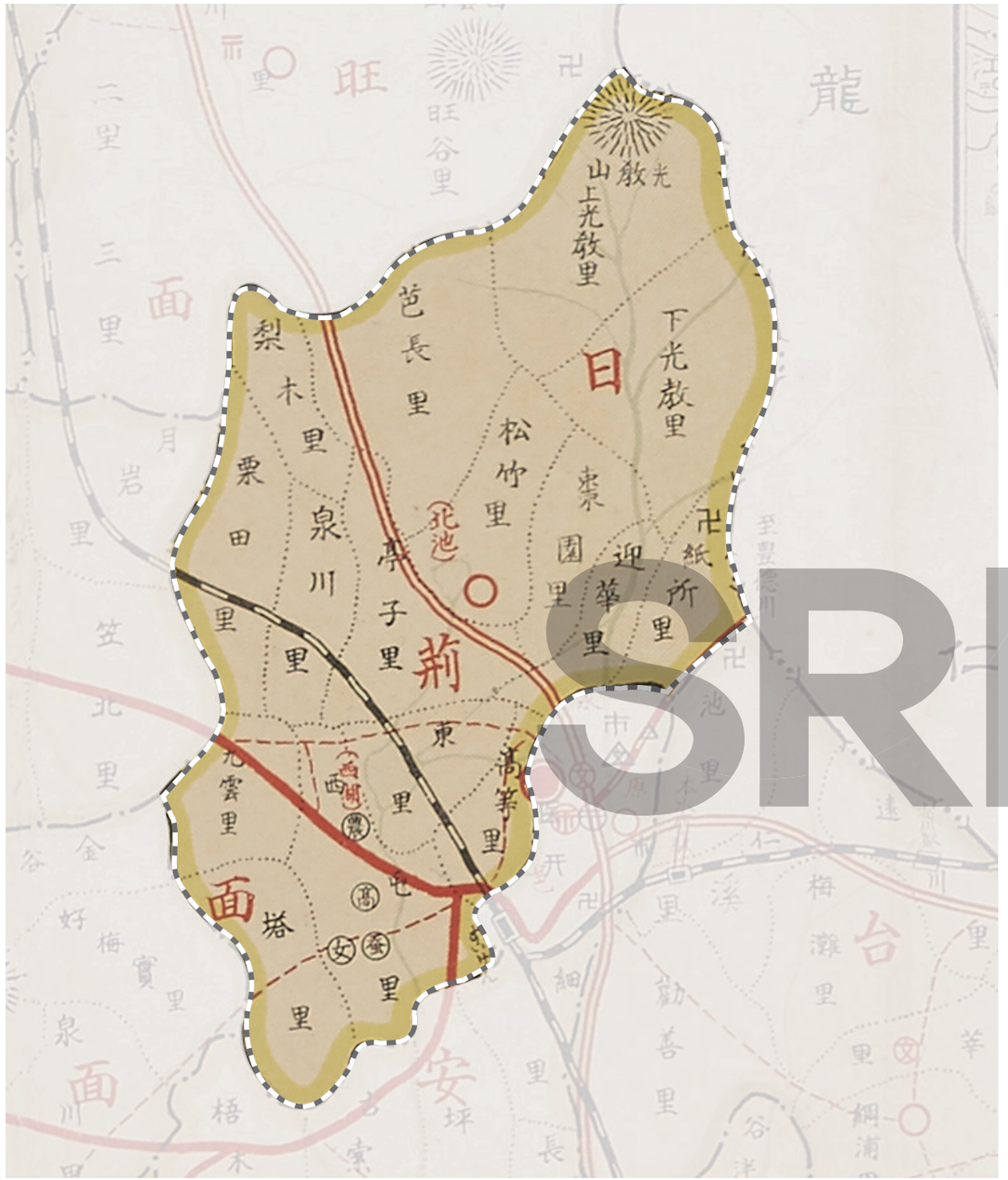
1936년에 대대적인 행정 개편을 통해 수원읍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형면에 속했던 고등리와 영화리 등지는 수원읍에 편입되었지만, 당시 중심지인 수원화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목리는 수원읍에 편입되지 않았다. 이때에 일형면과 의왕면(儀旺面)을 통합한 일왕면(日旺面)이 형성되면서, 이목리는 수원군 일왕면 이목리로 조정되었다. 1949년에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면서 수원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군의 이름만 화성군으로 변경되어 화성군 일왕면 이목리로 편제되었다. 이후 1963년 1월 1일 당시 수원시를 둘러싸고 있던 화성군 일왕면의 11개 마을과 안용면의 일부 마을, 태장면의 일부 마을이 각각 수원시에 편입되었고, 이때 이목리는 화성군 소속에서 수원시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명칭도 이목동으로 바뀌었다.

이목동은 1963년 수원시에 편입될 당시 도시적 성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원의 변두리에 자리한 농촌적 성격이 지배적이었기에 별도의 행정동을 설치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수원시에 편입될 당시 이목동의 행정업무는 파정동(芭亭洞)에서 담당하였다. 파정동은 이목동을 비롯해 율전동, 파장동, 정자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었다. 파정동은 1983년에 파장동(芭長洞)과 정자동(亭子洞)으로 행정동이 분리되었으며, 이목동은 이때에 파장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으로 편제되었다. 1988년 수원시에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이 되었다. 2022년 1월 13일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도가 시행



1872년 「수원부지도」에 그려진 형석면(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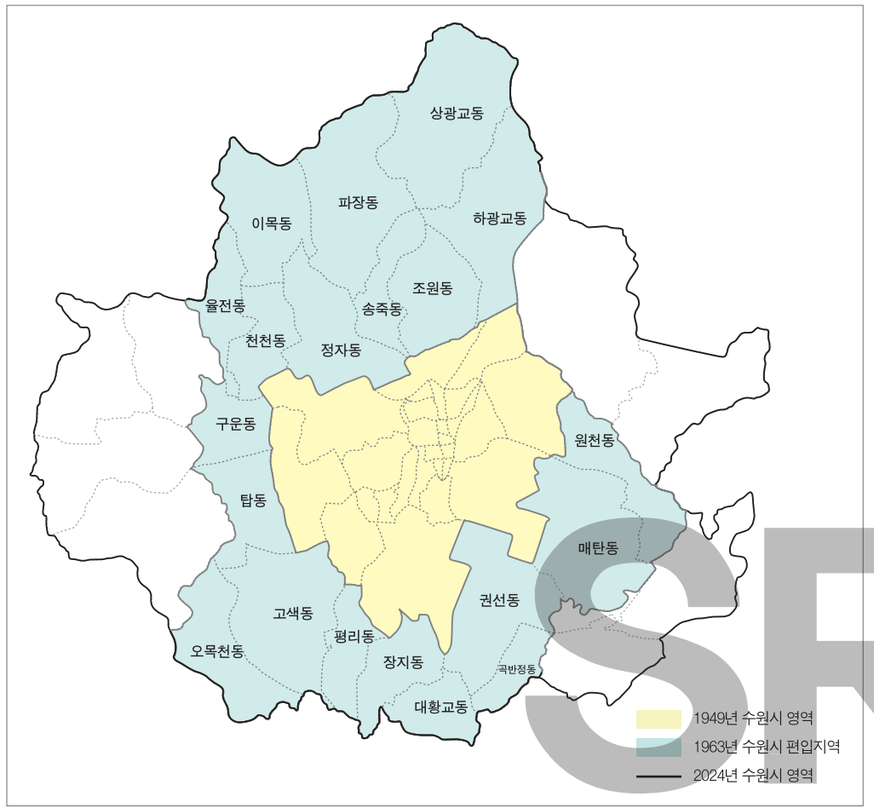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일형면



일제강점기 이목리

SRI
서원문화재연구원
SEOWON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1963년 수원시 편입 지역인 이목동



2024년 장안구에 속한 이목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됨에 따라, 수원특례시 장안구 이목동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목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법정동 명칭이 오랫동안 그 땅을 이용해 온 선조들이 부여한 이름인 반면, 행정동은 행정업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목동의 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한다면 행정동 이목동의 설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이목동의 남단 천천동과의 경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목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인구 규모가 증가한다면 행정동 이목동의 신설이 가시화할 수도 있다.

2) 지명 유래

마을의 이름인 이목(梨木)은 마을 일대에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 불리던 것이 한자화하면서 생겨났다. 이목동은 과거 배나무골로 불렸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지명이 윗배나무골과 아랫배나무골이다. 배나무골 북서쪽으로는 삼선봉과 옥녀봉이 있다. 윗배나무골은 영동고속도로 북쪽의 남사면에 자리한 마을을 일컫기도 했고, 아랫배나무골은 지지대사거리에서 이어지는 서부로와 서호천 주변에 자리한 마을을 지칭한다.[9] 마을 이름으로 이용되는 이목이라는 지명은 이목로, 이목교, 이목사거리, 이목중학교, 이목졸음쉼터(영동고속도로)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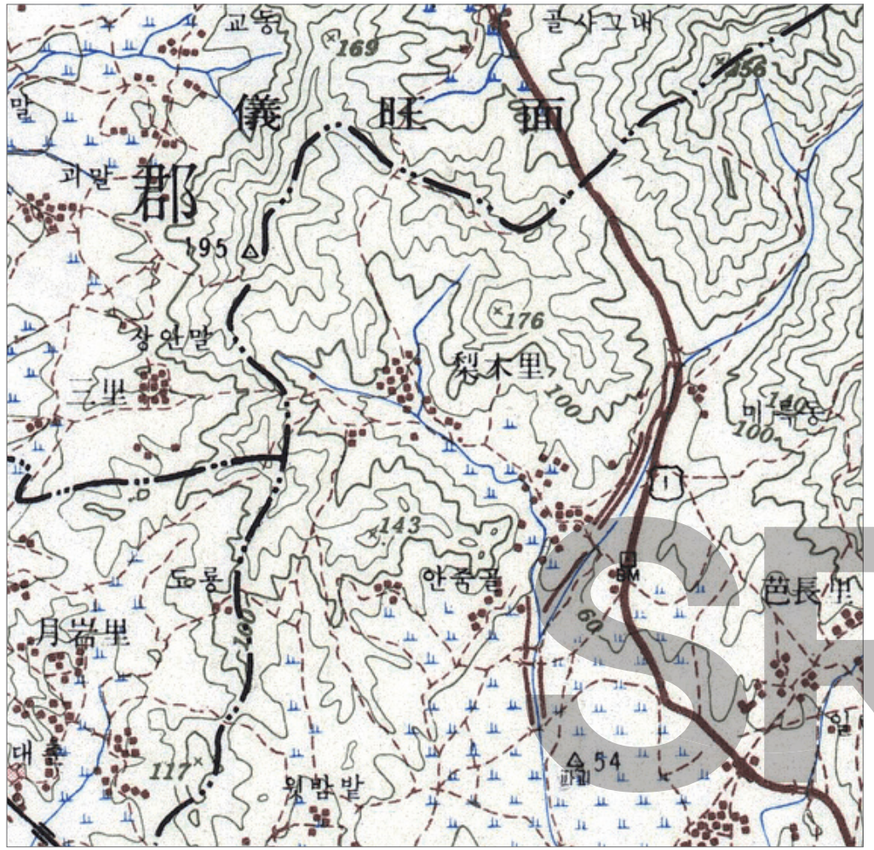
이목동 한마을 배꽃축제

사진 김진흥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960년대 이목리 안죽골

산줄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 가운데 안죽골(安竹洞)은 일명 쑥뎅이라고도 불렸다. 안죽골이라는 이름은 마을 안에 대나무가 많이 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원 지역은 평균기온이 낮아서 대나무가 자생하기에는 쉽지 않았기에 대나무와 안죽골을 연계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손들이 날이 저물면 이 마을에 있던 작은 집에서 쉬어 가기도 했다고 한다.[10] 안죽골은 골짜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거주하던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 안죽골은 19세기 후반 안지동(安支洞)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안죽골은 서부로와 천천로가 교차하는 안죽골삼거리 주변은 물론 그 북쪽의 이목사거리 남단에서 이목천과 서호천이 합류

하는 지점까지의 자연마을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목사거리 남단은 농경지와 취락이 혼재하던 농촌 경관이 사라지고 2013년에 준공된 수원장안STX칸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서호천 변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노송지대(老松地帶, old pine tree zone)라 불리는 보호구역이 있다. 노송지대는 수령이 수백 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자라는 도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곳으로,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시기는 1973년 7월 10일이다. 이 길은 1790년경 수원화성의 축성을 주도한 정조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교산줄기가 이목동 방향으로 뻗어 내려오는 중간지점에는 지지대고개가 있다. 지지대고개는 이목동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목동과 경계를 맞댄 곳에 자리한다. 지지대고개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수원으로 향하던 수원로(水原路)의 구간에 있는데, 수원로는 정



노송지대(2017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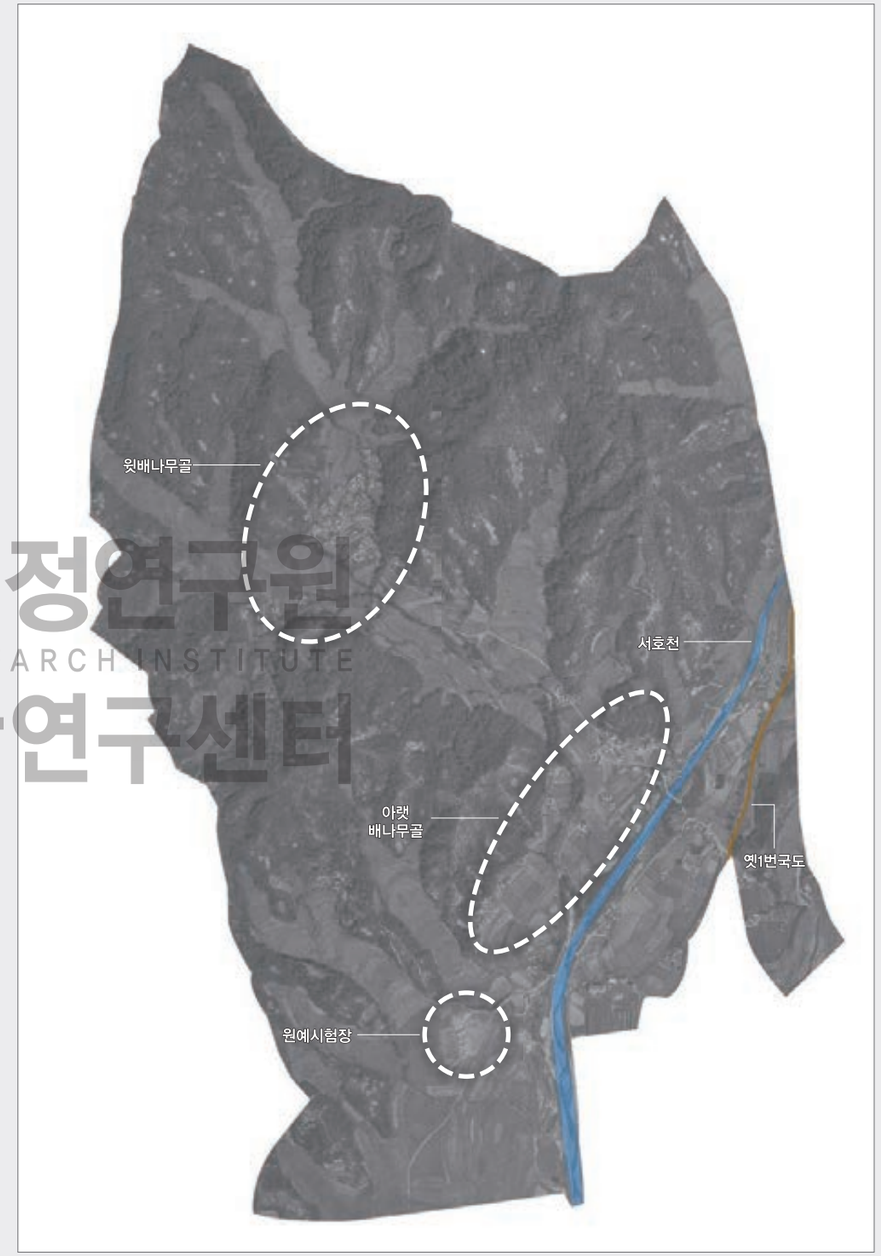
조가 아버지 묘소(현륭원)를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던 도로의 명칭이다.[11]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하던 길은 동작나루를 통해 사근내-지지대고개를 넘는 구간이었다.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부에서 지금의 국도1호선이 통과하는 지지대고개는 과거에 사그내고개(沙斤峴) 또는 미륵현(彌勒峴)으로 불렸다. 사근현은 안양천의 옛 이름인 사근내(沙斤川)가 발원하는 고개라는 의미이고, 미륵현은 이목동 동쪽의 서호천 변에 있던 마을의 이름인 미륵동(彌勒洞)에서 유래하였다. 정조는 현륭원에 참배하러 갈 때, 아버지의 묘가 내려다보이는 데도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져 "왜 이리 더딘가!"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또한 참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 고개를 넘으면 더 이상 아버지의 묘가 보이지 않아 고갯마루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머물렀다고 한다. 능을 뒤돌아보며 이곳을 떠나기를 아쉬워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르면 왕의 행차가 느릿느릿하였다고 하여 '느릴 지(遲)'자 두 번 겹쳐 지지대(遲遲臺)라고 부르게 되었다.[12] 일본이 경부선 철도를 계획하면서 안양을 지나 지지대고개를 뚫고 팔달산 뒤쪽을 관통하는 노선을 구상했지만, 수원 주민들이 지지대고개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그 결과 경부선 철도는 수원화성을 돌아 지금과 같이 군포-부곡-수원역의 노선으로 확정되었다.

3. 수원시 편입 이후 본격화한 도시화

1)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시가지 개발

이목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 이용된 시기는 아주 오래되었다. 이는 동우여자고등학교 동편 이목동 242-3번지에서 청동기시대의 집터와 함께 통일신라시대의 석곽묘(돌넛덜무덤)가 수원 지방에서 처음으로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 집터는 바닥 면적이 100.32㎡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지에 해당한다.[13] 이곳의 석곽묘는 2006년 12월 26일 수원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수원박물관의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이목동에 접한 율전동에서도 2002년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된 것을 보면, 수원의 서북부 지역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활무대로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목동의 취락은 윗배나무골에 주로 입지했으며 배나무골의 입구에 해당하는 서호천 변과 서부로에 접한 안죽골에 가옥이 들어서 있는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수원시의 도시 규모가 본격적인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확대된 시기는 서울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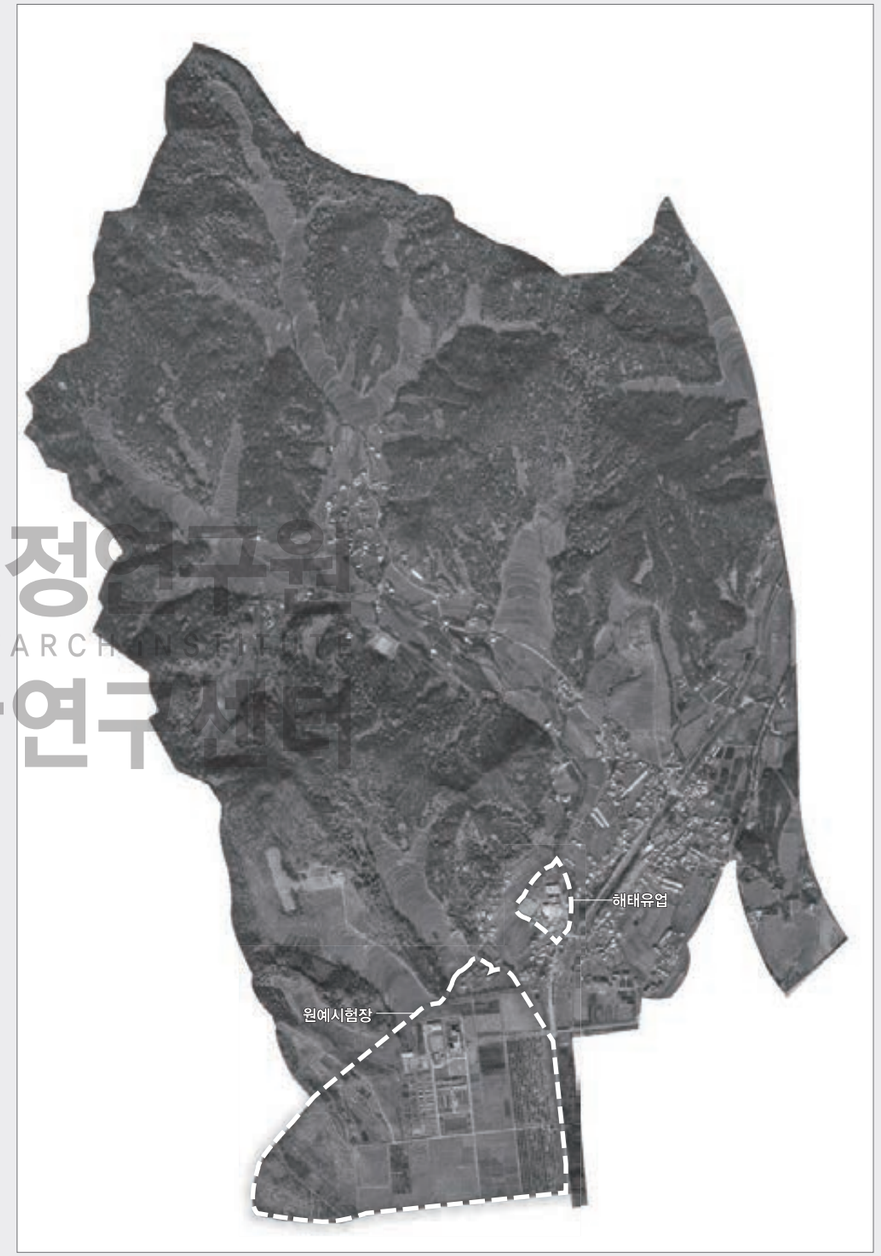


1966년 이목동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7년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개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977년 이목동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해 오고 수원이 교육 및 행정중심지로 발돋움한 1967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목동은 수원군에 속했을 때는 물론 1963년 다시 수원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수원시의 변두리에 자리한 마을이었고 수원화성 및 수원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수원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도시화와는 큰 연관이 없던 지역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목동은 여러 곳에 가옥이 들어서면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민들은 배나무골의 골짜기와 평지, 그리고 하천 변에 조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농촌적 생활을 영위해 왔다. 마을 주변에 있는 골짜기는 완사면을 이루고 있어 벼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으며, 벼농사는 이목동의 인구부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서호천 주변의 농경지는 파장동과 천천동, 율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성격을 가진 이목동의 변화를 선도한 것은 1966년에 건설된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이다. 수원시에서 유치에 공을 들였던 원예시험장이 1966년 4월 이목동의 18만 평 부지에 들어서기로 관계 당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1967년 1월 서울에 있던 원예시험장 본장이 이목동으로 이전해 왔다. 원예시험장은 서호천



선경합섬(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해태유업(1979년, 수원박물관 제공)

의 서쪽 평지와 안죽골 주변의 부지에 들어섰다. 원예시험장은 1994년 12월 원예연구소가 되었으며, 이곳에서는 300여 종의 채소류와 700여 종의 화훼류, 과수의 신품종을 개발, 재배 방법 개선, 시설 및 환경 개선, 저장 및 이용, 과수의 품종 육성 등의 연구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원예 연구의 요람으로 기능하였다.[14] 원예시험장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다. 원예시험장은 2008년 10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원시의 다른 지역에 입지해 있던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6개의 기관과 함께 2015년 2월 전북 혁신도시가 자리한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나갔다. 이목동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16년부터 친환경적 저밀 주거단지로 전환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간은 주거공간을 비롯해 상업업무 공간으로 재편됨으로써 북수원생활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1969년에는 이목동과 서호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정자동에 선경합섬(鮮京合纖)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공장은 일본 기업과 한국의 선경화섬이 합작해 설립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이 이목동에 들어서고 이 시험장의 맞은편에 대단위의 제조업 설비가 조성되면서 이목동과 정자동은 기존의 농촌적 성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목동의 남단에서는 수원시의 도시화 및 공업화의 영향이 가시화했지만, 안죽골 북쪽 구역에서는 여전히 농촌지역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1968년에는 해태유업이 이목동에 우유공장을 설립했으며, 이 공장은 2007년 동원그룹에 인수되어 현재는 동원F&B 수원공장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 공장의 위치는 원예시험장의 바로 북쪽으로 이목천과 서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서남쪽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목동 동쪽과 남쪽에 자리한 파장동과 천천동에서도 시가지가 조성되고 도시적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호천 동쪽의 파장동 방면으로 확산된 시가지 개발의 물결은 이목동으로도 파급되었으며, 그 결과 이목동의 서호천 주변에서도 시가지 개발이 진행되었고 그 인접 지역에 취락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에는 조원동에 있던 수원서광학교가 이목동에 교사를 신축해 이전하였다. 수원서광학교는 수원농아학교였다가 이목동으로 교사를 옮긴 후인 1987년 수원서광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했으며, 지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985년 12월에는 이목중학교가 신축되어 이듬해에 정식으로 개교했으며, 1986년에는 동원고등학교가 문을 열었고 1987년에는 동우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군포시 당동에 있던 계명고등학교가 장안말고개 동편으로 이전해 왔다. 1980년대 이목동은 주거단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도시화의 물결이 깊숙이 파고들지 않아 개발 가능지가 일부 존재했었다. 그러나 산줄기를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7년 이목동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동원고등학교·동우여자고등학교, 이목중학교(김승일 제공)



수원서광학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정된 지역이었기에 별도의 시가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기관의 입지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 수원의 들머리에서 진행된 간선교통망의 확충

1990년대 들어 수원의 도시 규모가 확장되고 서수원 일대에서도 도시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원의 북쪽에서 수원시 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의 들머리인 이목동을 통과하는 교통망의 개선이 필요해졌다. 본래 수원에서 북쪽의 의왕시를 지나 안양시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국도1호선이 유일하였다. 국도1호선은 수원의 중심시가지를 관통해 이목동의 동쪽인 파장동과 지지대고개를 지나 의왕시로 연결된 도로이다. 서수원은 물론 이목동에 접한 천천동 등지에서도 택지개발과 함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지대교차로에서 서남부로 이어지는 서부로가 이목동의 안죽골을 가로질러 개설되었다. 서부로는 수원시에서 화성시를 지나 오산시까지 이어지는 광역도로이며 총연장은 27.26㎞에 달한다. 도로명은 상기한 세 도시의 서부를 지난다는 데에서 생겨났다. 1994년



서부로



1993년 이목동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마을·학교 동강낸다"
반발거세 着工지연

주민, 노선변경 요구…… 실력행사

신갈~안산 高速道 水原북부 7.7km

가동 쉬재

◇교사(校舍) 바로 옆으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지나도록 계획된 등원고. 왼쪽의 수림지대가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로, 교사와의 거리가 200m에 불과하다. 【水原=金柱奭기자】

파장-이목洞등 한복판 통과
農地 20萬평 훼손… 손실 엄청나
학교땅 400여坪 파고 들어

영동고속도로(신갈–안산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양분된 이목동(『조선일보』 1988년 5월 27일)



8차로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김승일 제공)

에 개통한 이목동 구간은 경수대로와 교차하는 지지대교차로에서 파장나들목-이목사거리-안죽골사거리로 이어지며 그 남쪽의 밤꽃사거리부터는 율전동에 속한다. 개통될 당시에는 서부우회도로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2014년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서부로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 이목동 구간은 1996년 10월 4차로로 확장되었고, 이후 지금과 같은 6차로의 도로로 다시 확장되었다.

이목동을 동서로 관통하면서 윗배나무골과 아랫배나무골을 나누는 영동고속도로는 분지형태의 지형 안에 자리하고 있던 이목동을 완전히 둘로 나눈 도로이다. 일반 자동차도로가 개설되었다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목동이 단절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진출입 구간이 제한적인 고속도로는 서로 마주하는 지역을 분리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이목동의 동쪽에 북수원IC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목동의 교통 여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1971년 12월에 개통한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신갈분기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도로였지만,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신갈-인천 간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에 흡수·통합되면서 영동고속도로의 구간은 초기보다 서쪽의 인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이목동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는 1991년 11월 신갈분기점과 안산분기점을 잇는 왕복4차로의 신갈-안산고속도로(신갈-반월고속도로)로 최초 개통되었다가 2001년 5월 영동고속도로에 통합된 것이다. 영동고속도로의 이목동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상습 정체구역이어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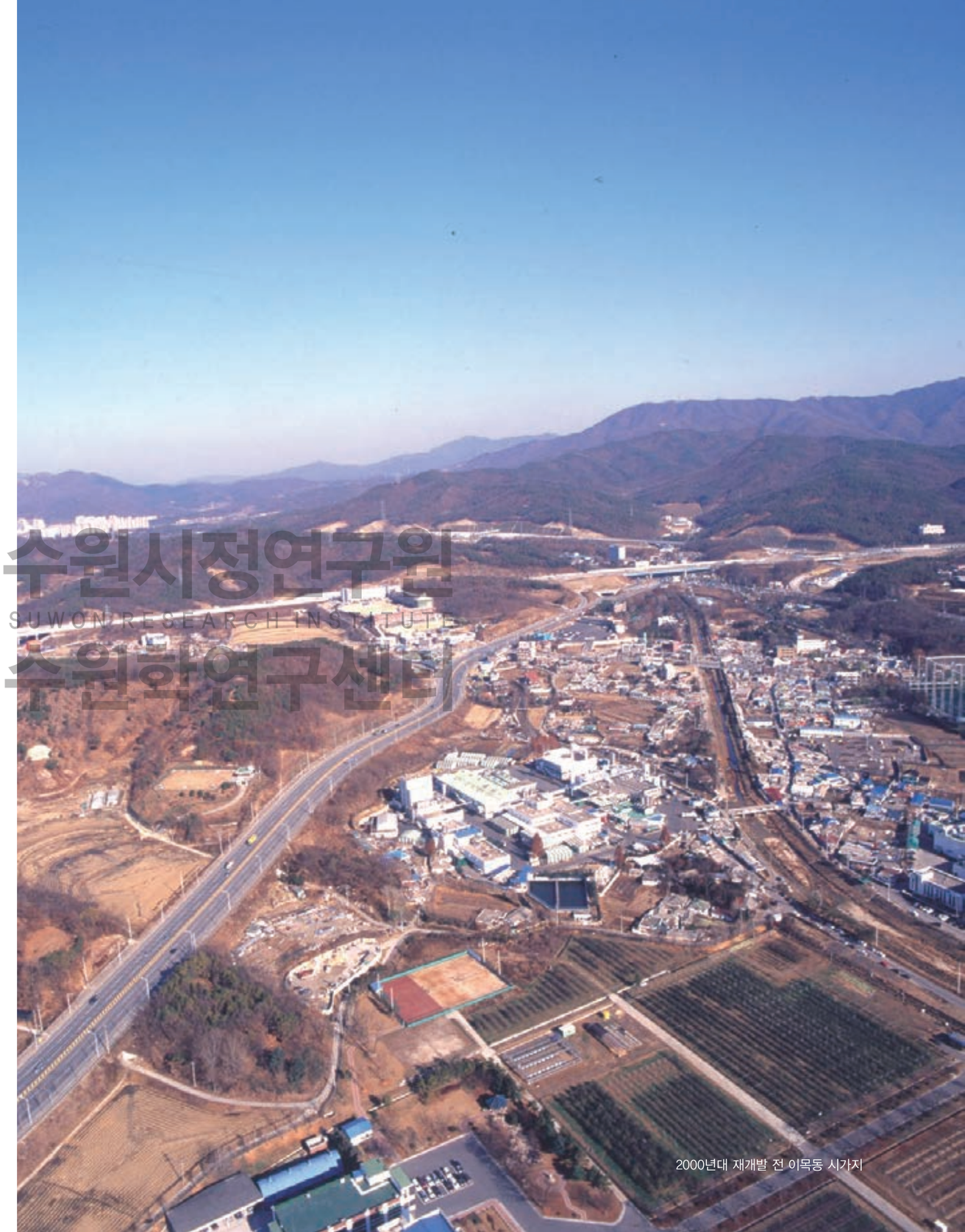
4. 도시화의 진전과 인구 증가

1) 노후 시가지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산지, 산지 사이의 골짜기에서 흘러오는 이목천, 그리고 광교산에서 흘러오는 서호천을 배경으로 아늑한 분지에 자리 잡은 이목동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빽빽한 밀집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동시에 자연환경이 거의 보존된 농촌적 모습을 동시에 보유한 전원마을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남쪽에서 밀려오는 도시화의 흐름을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던 마을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목동은 물리적 도시개발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면서, 산업의 특화도 매우 낮은 도시 주변부에 위치한 근교 주택지역의 성격을 지닌 곳이었다.[15]

그러나 마을에 건축된 주택 및 시설물도 시간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건축연대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배나무골은 물론 서호천 변에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건축연대가 50년을 넘는 건축물이 50여 동에 달하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100여 동에 달할 정도로 노후건물이 많은 지역이 이목동이다.[16] 이와 동시에 건축연대가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물도 100여 동에 이른다. 건축연대가 짧은 건축물은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2000년대 들어 시가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목동의 시가화를 선도한 것은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된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이다.

이목동에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지 않다. 장안로가 통과하는 이목2교 일대에 조성된 공동주택단지가 이목동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전부일 정도로, 이목동에서 취락의 밀집도는 매우 낮다. 이곳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가옥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이 밀집한 마을이었고 주택 사이사이에는 논과 밭이 공존하던 농촌마을의 성격이 강했으며,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도 있었을 정도로 토지이용은 조방적이었다. 서호천을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해 농촌마을의 중심지 같았던 이목동에서는 건축 시기가 오래된 주택과 건축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이목동에 건축된 신규의 아파트에는 2012년 준공된 927세대의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2013년 준공된 734세대의 수원장안STX칸아파트 1단지와 213세대의 수원장안STX칸아파트 2단지가 있으며, 서부로의 동남쪽에 자리한다. 이 구역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조성된 이목로23번길이



2000년대 재개발 전 이목동 시가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8년 이목동 시가지 전경(최호운 제공)



2008년 이목동 시가지(김진영 제공)



2008년 이목동 시가지 전경(김진영 제공)



2008년 이목동 서호천 주변 경관(김진영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재개발에 따라 신축된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와 수원장안STX칸아파트(김승일 제공)

아파트 단지와 이목동의 기성시가지를 구분하는 도로 역할을 하며, 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배다리교 북쪽에서 서호천을 통과하는 교량도 신설되었다. 서호천 서쪽의 장안로385번길도 아파트단지 건설과 함께 개설되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자리하고 있던 이목동 475번지 일원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이전해 나간 뒤인 2015년부터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종전부동산(從前不動産)이란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간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건축물과 부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4월에 시행되어 2023년 7월에 폐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에 건설된 혁신도시로 이전해 나갔고, 이목동에 있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수원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해 나갔다. 이처럼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나가면서 용도가 사라진 이전적지(移轉跡地)가 종전부동산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구역을 총 4,273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와 연립주택단지를 개발하고 동시에





2012년 이목동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



서부로 동남쪽에서 본격화한 택지개발과 종전부지(이목지구) 개발(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종전부지 개발공사 현장(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상업단지 및 업무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공사가 2022년 1월에 착수하였다. 이곳에 도시개발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5년이면 이목동은 북수원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촌적 토지이용이 지배적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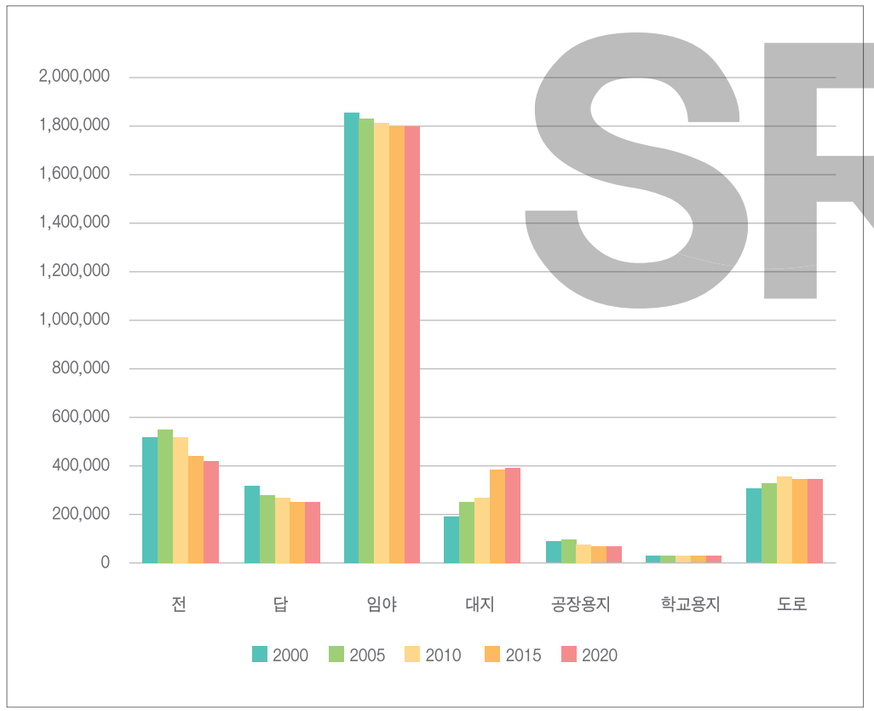
수원시의 주변부에 자리한 이목동은 도시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마을인데다가 광교산자락에서 이어진 마을 주변의 산지가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목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농촌적 성격이 강했던 이목리의 농경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토지대장』을 토대로 한 자료에 따르면 전과 답이 각각 49만 9,000여㎡와 42만 5,000여㎡에 달했으며, 1960년에는 농경지의 면적이 조금 감소해 전과 답의 면적은 각각 47만 9,000여㎡와 40만 1,000여㎡를 기록하였다.[17] 서부로 동남쪽의 부지가 과거에는 모두 농경지였다.

<표 1> 2000~2020년 이목동의 주요 지목 구성 변화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3,481,569	3,539,233	3,510,769	3,520,153	3,520,126
전	518,877	545,640	510,713	435,450	421,239
답	310,411	270,041	265,031	247,437	244,733
임야	1,864,894	1,836,932	1,818,566	1,808,066	1,805,128
대지	186,881	241,806	263,380	379,706	387,450
공장용지	79,921	91,291	69,378	60,856	61,522
학교용지	21,974	21,974	22,013	23,760	23,760
도로	297,670	318,820	346,353	336,140	344,324

자료 : 수원시, 『수원 통계연보』, 해당 연도.



2000~2020년 이목동의 주요 지목 구성 변화

이목리의 각 토지의 목적을 보여 주는 지목(地目)별 구성을 살펴보면, 이목동에서의 토지이용은 농촌적 토지이용이 훨씬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을 둘러싼 산지는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며, 산지가 형성한 골짜기 사이에는 논이나 밭이 분포한다. 2020년 기준 마을 전체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1.3%에 달할 정도로 임야가 많은 마을이다. 임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야와 더불어 농촌적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지목은 전답(田畓)이다. 전과 답의 면적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도로건설이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존 농경지가 일부 잠식당한 결과이다. 서호천 변에 분포하던 농경지는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많은 부분이 대지로 전용되었다. 이에 따라 전과 답의 면적은 꾸준히 줄었으며, 전과 답은 2020년 기준 마을 전체 면적의 12.0%와 7.0%를 차지한다. 토지이용에서 농촌적 성격을 드러내는 전·답·임야를 합한 면적의 비중은 이목동의 도시화가 진전되지 않았던 1980년 73.5%를 기록했으며, 일부 구역에서 시가지



광교산자락에 조성된 이목동 농경지(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장실문화공원 해우재문화센터(김승일 제공)



자동차매매단지 일대(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개발이 완료된 2020년에도 비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70.2%에 달하였다.

도시적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지목은 대지·공장·학교·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의 성장이 공업화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면, 공장용지의 증가가 도로나 대지의 증가를 견인하지만, 이목동은 공업화에 수반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 아니다. 즉 공장용지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이 이목동의 공장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장용지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학교용지의 면적은 2000년대 들어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종전부동산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신설 학교의 개교와 함께 학교용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목동은 마을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경지가 많아 도시공원이 많지는 않다. 경수대로 서측의 노송지대가 노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목동 마을 안쪽으로 화장실문화공원이 설치될 정도이다. 화장실문화공원 일대는 2009년 수원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화장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해우재문화센터도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수원시의 초대 민선시장을 역임했던 심재덕이 건립한 해우재(解憂齋)는 본인이 살던 집터에 양변기 모양으로 지어진 박물관이다.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대지의 면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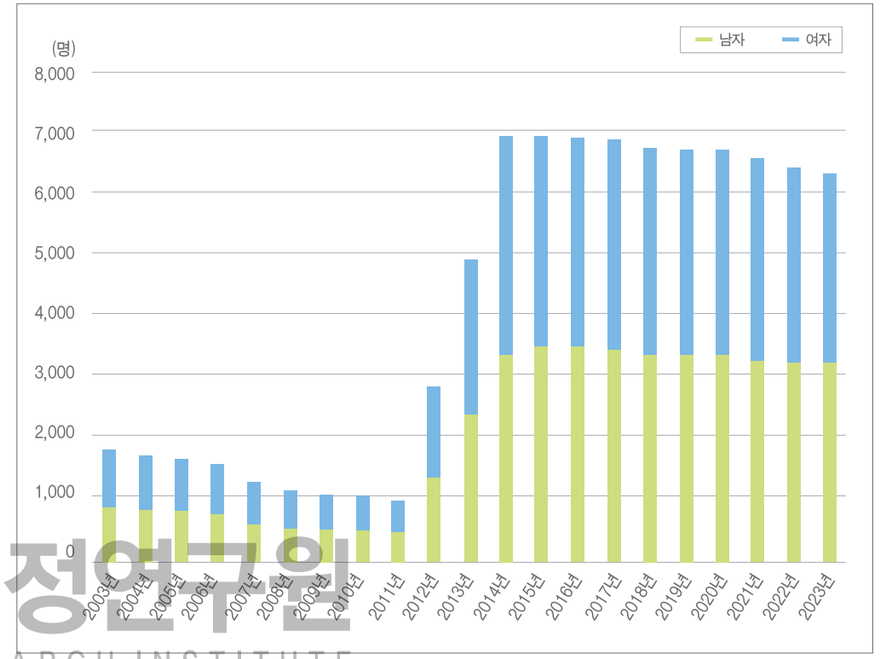
이목동 공업지역(김승일 제공)

2000년 5.4%에서 2020년 11.0%로 상승했으며, 절대적인 면적은 2020년 들어 2000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는 이목동에서 시가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지의 증가는 주택의 증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인구 증가는 교통량을 증가시키면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로의 개설로 귀결된다. 이목동에서도 도로의 면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이목동은 1963년에 수원시에 편입된 이후 뚜렷한 개발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노후 주거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확충되는 등 수원시에서 전개되는 도시화의 영향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촌적 요소가 조금씩 사라져 가는 대신 도시적 요소가 도시공간을 충전해 가고 있다.

3) 택지개발과 더불어 급증한 인구

이목동은 수원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적 성격이 지배적인데다,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도 넓지 않다. 이목동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오래되었지만, 그 땅을 터전으로 삼은 사람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조그마한 자연마을이었던 이목동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20년대 수원군 내에 있던 277개 리의 세대수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원군 일형면 이목리에는 62호가 거주하였다. 당시 수원에서 100호가 넘는 마을이 128개에 달했다는 점과 인접한 파장리(파장동)에 117호가 살았고 율전리(율전동)에 90호가 살았음을 고려하면,[18] 이목리의 마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목리에 여러 개의 자연마을이 분산해 있었기 때문에 특정 마을에 인구가 집중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1950년 농림부에서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한 기록에 따르면 이목리에서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수가 60호에 달한 것으로 보아,[19] 농업 이외에 별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목동에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주하던 세대수에는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구당 인구수가 1925년 5.1명에서 1955년 5.6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20] 이목동 인구 규모는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 1990년대 들어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음을 고려하면, 이목동의 인구 규모는 1980~1990년대에 2,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이목동의 인구는 2011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2003년의 인구가 1,750명이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의 인구 규모가 2,000명에 달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21] 인구는 2011년(937명)에 1,000명 선이 붕괴되기도 했을 정도로 일반적인 농촌지역에서 나타났던 인구 감소 현상이 현저하였다. 이목동의 인구가 증가 추세로 전환된 시기는 수



택지개발과 더불어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인구 규모(파장동행정복지센터 제공)

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가 준공된 2012년이다. 2013년에는 수원장안STX칸아파트 1단지와 2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인구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들 두 아파트 건설로 이목동 인구는 2011년 937명에서 2014년 6,685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다. 2015년에 조성이 마무리된 동원고등학교 동쪽의 이목파인힐스 전원주택단지도 이목동의 인구 증가에 한몫하였다. 이목동의 인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증가 추세를 나타냈지만, 2016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감소해 2023년의 인구는 6,303명을 기록했다. 2003년 수원시에서 차지한 비중은 0.2%이었고, 2023년에는 0.5%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인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목동의 인구가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구 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성별 인구 구성이다. 지금과 같은 시가지로 변화하기 이전, 즉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이목동에서는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sex ratio)는 2003년(남자 937명, 여자 813명) 115.3을 기록했는데, 이 성비는 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목동의 인구가 감소 경향을 보였던 201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1년(남자 534명, 여자 403명)의 성비는 132.5를 기록했을 정도로 남초현상이 심하였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이목동에서는 2011년에 이르기까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라 전입인구가 많아지고 인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성비는 100을 향해 낮아졌으며, 2023년(남자 3,150명, 여자 3,153명)의 성비는 99.9를 기록하였다.

5. 자연친화적 전원도시로 변화하는 마을

광교산에서 뻗은 산줄기에 포위되고 이목천과 서호천이 만들어 놓은 농경지를 품고 있는 수원 서북부의 이목동은 최근까지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었다.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에 자리한 마을과 산자락에 산재하던 마을은 수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도시화의 흐름과 공존하지 않고 오래전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을 배경으로 아주 느린 변화를 경험해 왔다.

도시의 주변부는 본래 중심시가지에서 밀려오는 도시화의 물결이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전선(frontier) 역할을 하지만, 이목동은 그러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목동의 남쪽에 자리한 율전동이나 천천동이 수원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이른 시기에 농촌적 성격을 버리고 도시적 색채가 강한 공간으로 탄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시화의 물결이 파고들지 않았음은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변 경관도 과거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동은 1970년대부터 마을의 남쪽 구역에서 진행된 도시개발, 마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교통망의 건설, 이목천 주변에 들어선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확장과 같은 개발 요소가 개입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의 물결이 파고들면서 이목동은 점이적 도시공간으로 변하였다. 기존 농업지대에 공장이 건설되었고 뒤를 이어 여러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입지했으며, 자동차매매단지와 같은 경제활동이 이목동으로 진입하였다. 이목동은 수원의 시가지가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본래부터 유지해 왔던 농업지역의 성격과 도시지역의 성격이 공존하는 마을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은 다양한 활동의 혼합에 의한 점이지대처럼 구성되었다. 상이한 경제활동의 입지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용은 자칫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거나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노후 시가지의 개선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행히 이목동에서는 노후 시가지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이 실시되었고



노송지대 옆 건물(김승일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개발제한구역이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목동은 수원시의 도시 성장과 함께 새로운 개발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있던 일부 제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새로운 용도로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1960년대에 조성되었던 원예시험장이 있던 자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대단위의 택지지구로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목동은 주변에 자리한 파장동·천천동·율전동과 같은 시가화 구역으로 재탄생할 것이며, 도시기능이나 도시경관의 측면에서도 인접 지역과 연속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목동이 완벽하게 시가화 구역으로 바뀔 수는 없지만, 마을의 남쪽에서부터 밀려들어 오는 도시화 및 개발의 물결을 거스를 수도 없다.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인 이목동이 가지는 최대의 강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일 것이다. 개발의 논리에 의해 기존 자연환경이 인공환경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목동의 산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대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를 보전할 수 있다. 이목동은 마을 남쪽에서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의해 신규의 도시공간이 창출되고 있지만, 마을 서쪽과 북쪽의 자연환경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도시적 공간과 농촌적 공간이 공존하는 전원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전원도시는 농촌적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지구 개발(김승일 제공)



전원주택단지 파인힐스(김승일 제공)

성격과 도시적 성격이 공존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거단지 개발에 치중한 도시개발은 자족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주거공간은 물론 상업공간, 업무공간, 레저공간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배치함으로써 이목동이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권혁재, 2010, 『한국지리-우리 국토의 자연과 인문』, 법문사, 378~379쪽.
2. 이건원·정윤남·남영우, 2009, 「수원시의 통근통행패턴으로 본 기능지역구조의 변화: 1996~2006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2), 87~101쪽.
3. 남영우·최재헌·손승호, 2020, 『한국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217쪽.
4. 고상철·신영화, 2009, 「경기도 중부지역의 식물상」,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2(1), 56쪽.
5.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17~218쪽.
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43쪽.
7.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152쪽.
8. 「서울·수도권 야외수영장」, 『매일경제』 1990년 7월 26일.
9.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279쪽.
10.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282~283쪽.
11. 수원로는 호남로에 속하는 구간이었으며, 한양에서 수원까지의 구간만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12.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286쪽.
13.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연구원, 2008, 『수원 이목동 유적』, 66쪽.
14. 한국원예학회 편집부, 1996, 「원예연구소」, 『원예학세계』 1(1), 38~39쪽.
15. 김재행·장성민·장영원·남영우, 2009, 「수원시 등질지역의 구조적 변화: 1995~2005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45~63쪽.
16.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건축물 연령정보.
1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5 :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246~249쪽.
1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수원시사』, 67~71쪽.
1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5 :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245쪽.
20. 국가통계포털(kosis.kr).
21. 이목동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이목동만의 인구통계 자료가 발표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법정동 이목동의 인구자료가 존재하는 2003년 이후의 인구 변화만을 살펴보았으며, 그 이전 시기의 인구는 인구 변화의 추이를 고려해 추정하였다.

제2장

이목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김용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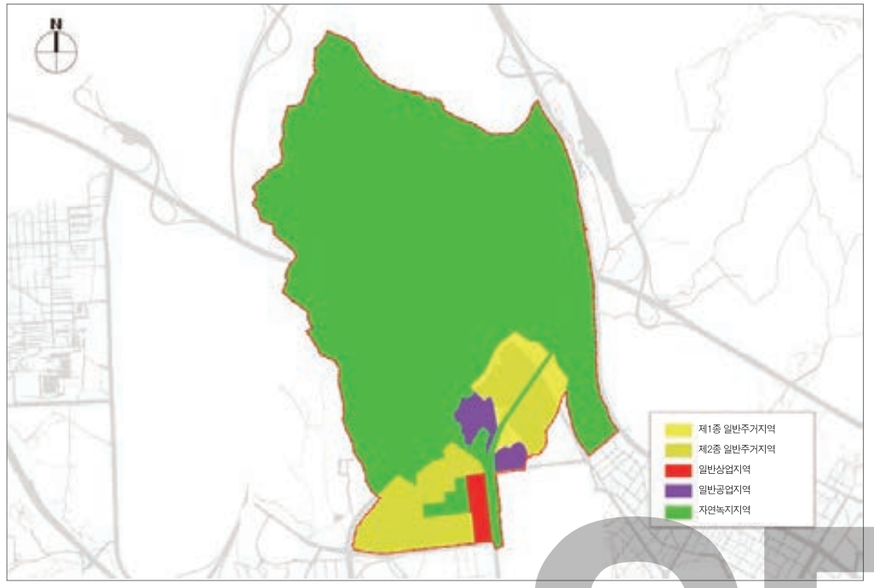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이목동의 도시공간

이목동은 수원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목동의 동서 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이목동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입지하고 있다. 또한 남쪽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노송지대와 서호천이 있고, 동북쪽으로는 지지대고개와 효행공원이 입지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환경적 요소를 갖춘 지역이다.



이목동 위치도



이목동 용도지역(「용도지역지구정보-도시지역」, 『국가공간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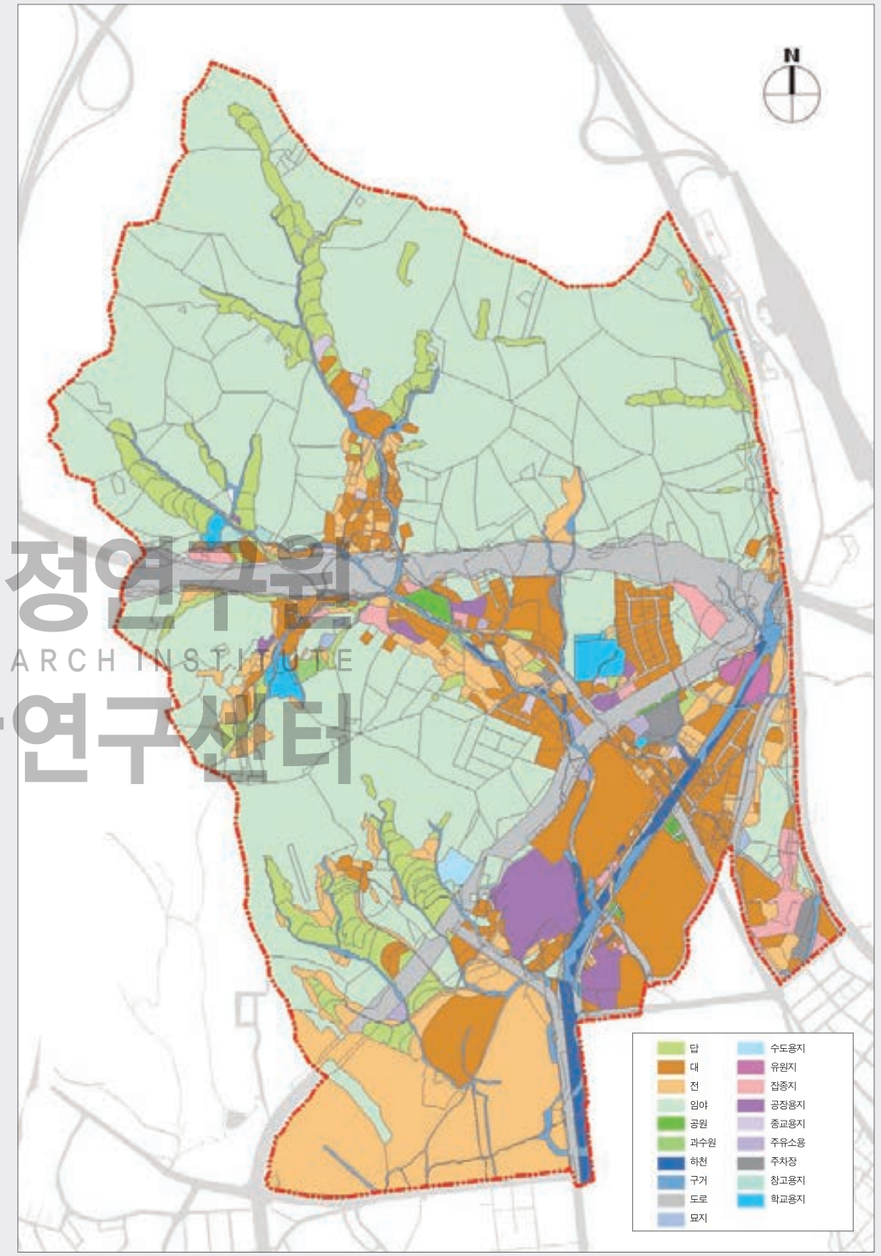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1> 이목동 용도지역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52.99	100.0	일반상업지역	3.86	1.1
제1종일반주거지역	7.21	2.0	일반공업지역	6.52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7.56	10.6	자연녹지지역	297.84	84.4

자료 : 「용도지역지구정보-도시지역」,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비고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3년 10월, 『국가통계포털』을 기반으로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이목동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8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산림지역이다. 이목동 남쪽에 주거지역이 12.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각각 1.1%와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목동 지목별 토지이용(「연속지적도형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



주유소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표 2> 이목동 지목별 토지이용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전	41.99	11.9	과수원	0.34	0.1
답	23.13	6.6	공원	0.91	0.3
대	39.00	11.0	창고용지	0.36	0.1
임야	181.58	51.4	공장용지	6.34	1.8
도로	35.16	10.0	학교용지	2.37	0.7
수도용지	1.01	0.3	잡종지	4.25	1.2
하천	3.26	0.9	종교용지	0.99	0.3
구거	8.82	2.5	주유소용지	0.69	0.2
묘지	0.28	0.1	주차장	1.65	0.5
유원지	0.86	0.2	합계	352.99	100.0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가 181.58㏊(5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田)이 11.9%, 대지가 11.05%였다. 도로가 9.96%, 하천과 구거가 3.4%, 공장용지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목은 1% 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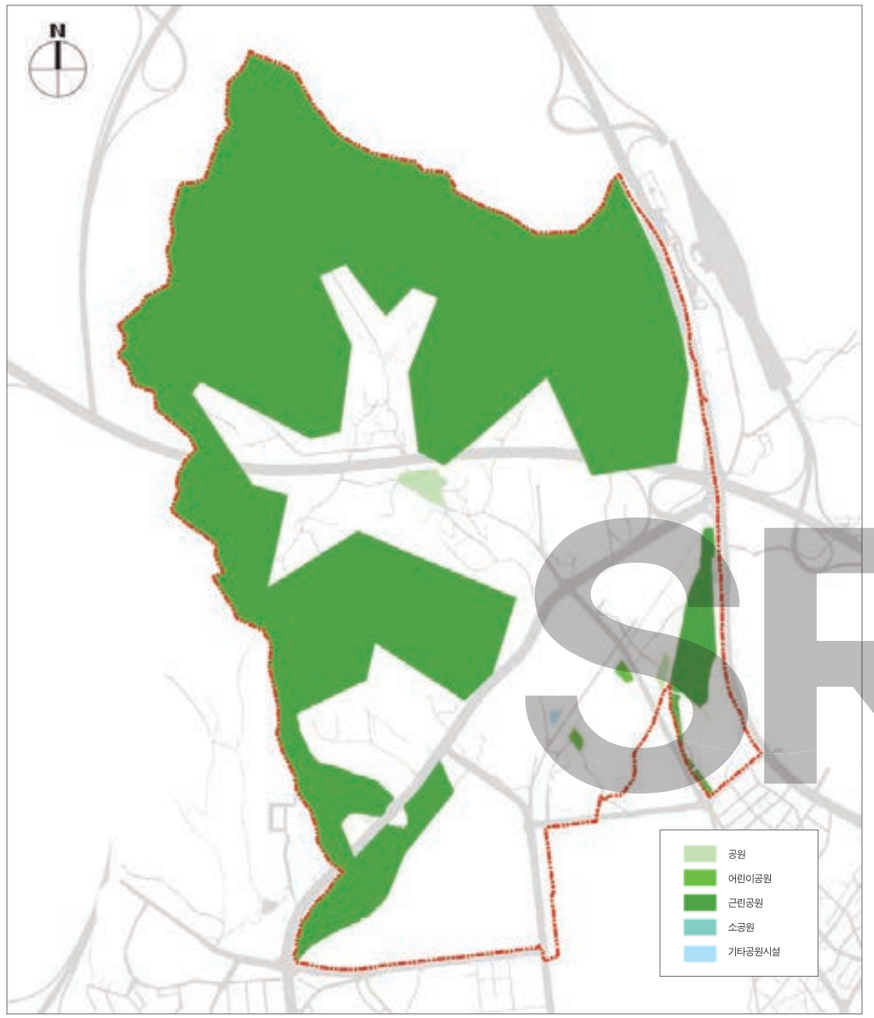


공원(노송공원)



하천(서호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이목동 공원시설(「용도지역지구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 북쪽은 대부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쪽에 수원시 양궁장과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와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이목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해우재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노송공원이 동남쪽에 있다.



어린이공원



해우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의 개발제한구역(「용도지구지역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은 수원시의 외곽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약 170.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일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이목동 취락지구(「용도지역지구정보-국토계획/취락지구」,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 취락지구의 면적은 13.44㏊로, 해당지역 내에는 단독주택과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과의 구분을 통하여 주거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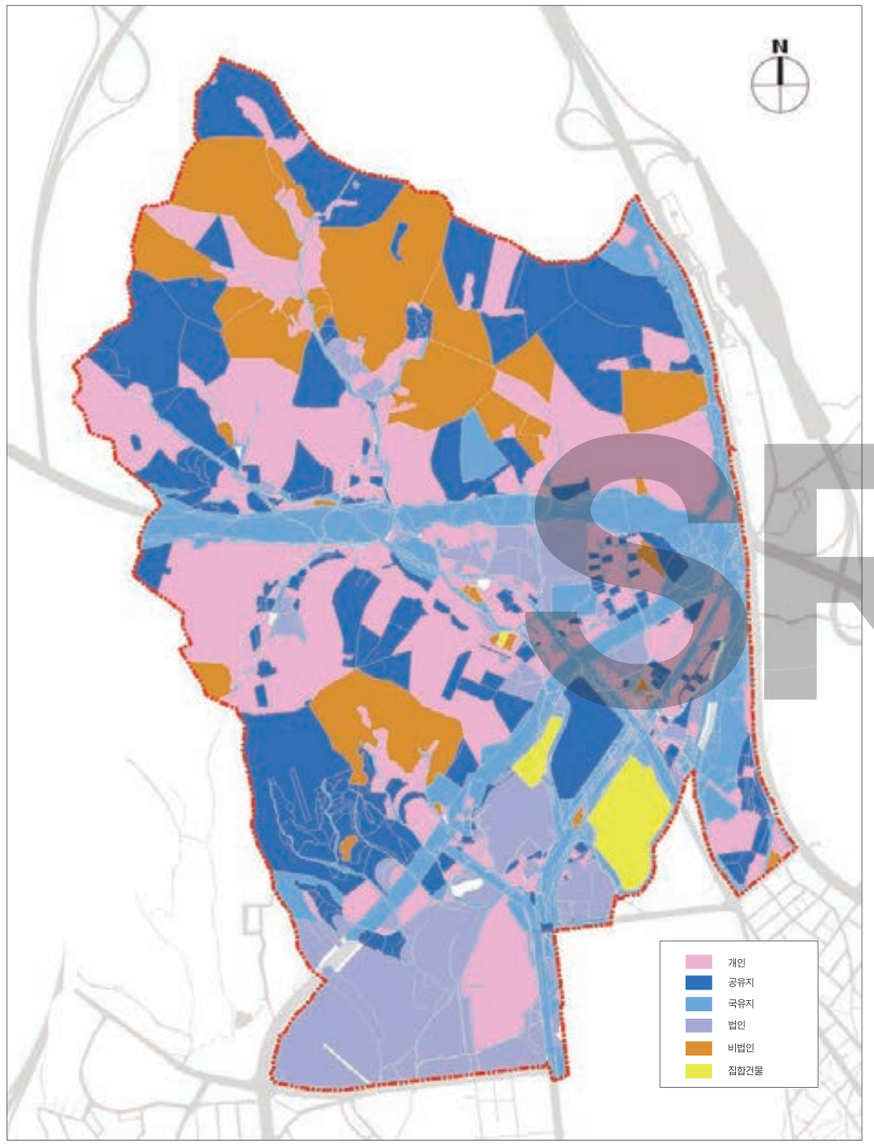
단독주택



공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이목동 토지소유(「토지대장부-토지소유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김승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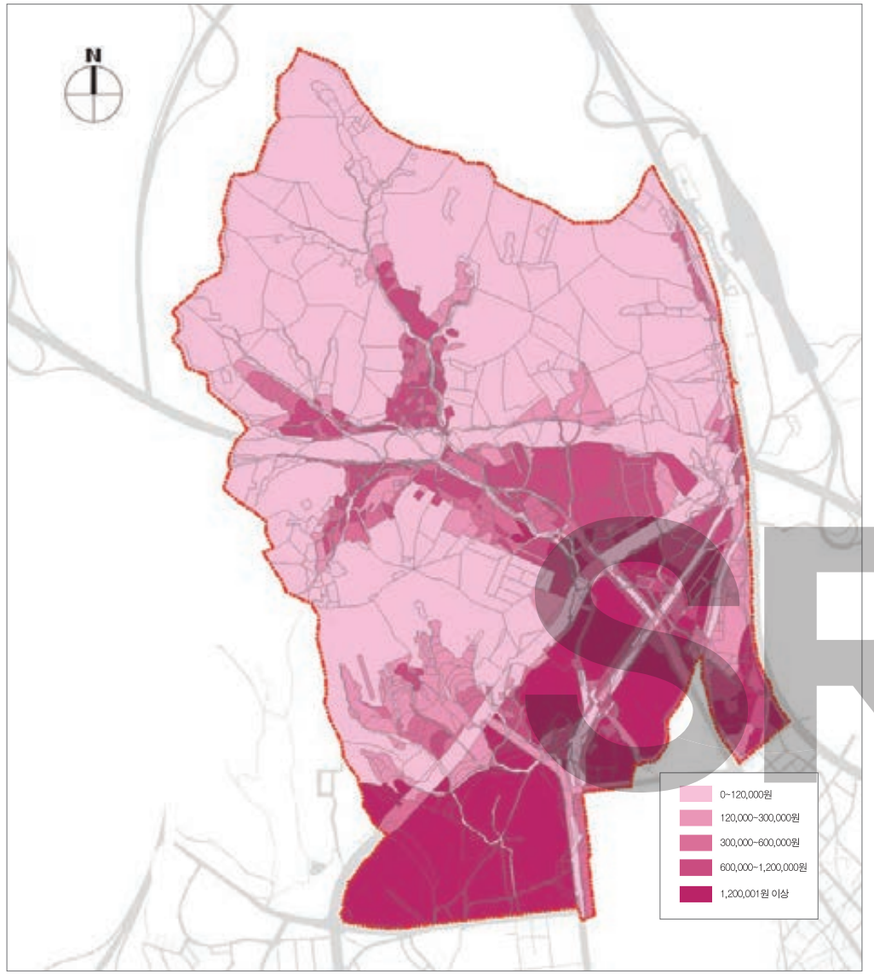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3> 이목동 토지소유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국유지	64.82	18.4	법인	43.17	12.3
개인	96.37	27.3	비법인	50.18	14.2
공유지	83.30	23.6	집합건물	14.87	4.2

자료 : 「토지대장부-토지소유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비고 : 장안STX칸1단지아파트의 경우 GIS자료상 공유지로 설정되어 있어 집합건물로 수정 후 작성.

이목동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약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이 27.3%, 비법인 14.2%, 법인 12.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 비율이 높아 법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목동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공간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표 4> 이목동 공시지가

공시지가	면적(㏊)	구성비(%)	공시지가	면적(㏊)	구성비(%)
0~120,000원	210.00	59.5	600,000~1,200,000원	33.22	9.4
120,000~300,000원	29.27	8.3	1,200,000~2,415,000원	56.30	15.9
300,000~600,000원	24.20	6.9	합계	352.99	100

자료 : 「개별공시지가공간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의 공시지가를 보면 아파트 지역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1㎡당 12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취락지역 주변은 30만~6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대부분 12만 원 이하였다.

공시지가가 낮은 이목동 개발제한구역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이목동 건축물 노후도(국가공간정보포털 GIS건물통합정보)

<표 5> 이목동 건축물 노후도

사용승인일	동수	구성비(%)	사용승인일	동수	구성비(%)
1983년 이전	144	29.7	1994~2003년	131	27.0
1984~1993년	50	10.3	2004~2023년	160	33.9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비고 :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



해우재 주변 건축물 노후도(「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아파트 주변 건축물 노후도(「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은 485개 동(무허가 및 부속건축물 포함 시 1,334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약 67%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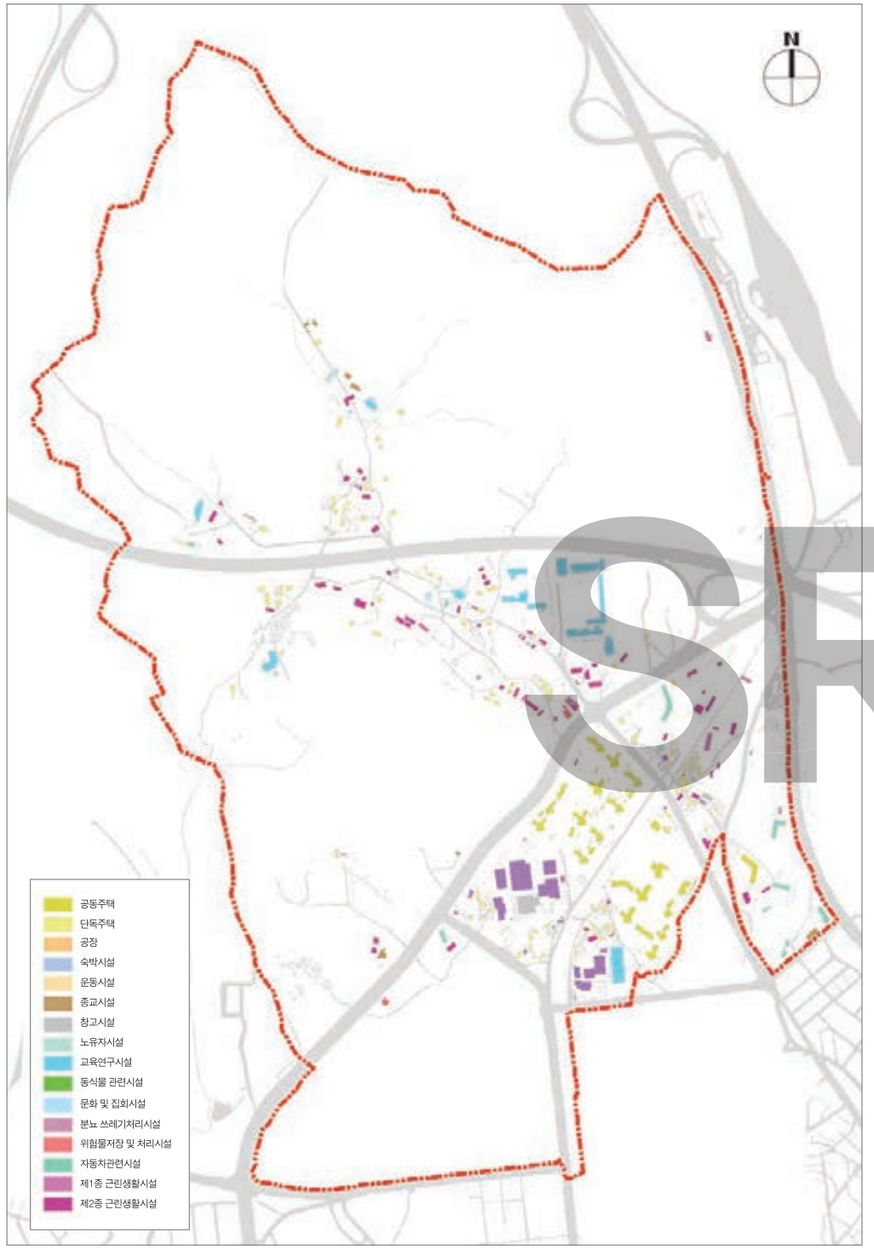


해우재 주변 건축물(김승일 제공)



아파트 주변 건축물(김승일 제공)

HOUSE RESEARCH INSTITUTE



이목동 건축물 용도(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해당건축물 현황은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이다.



해우재 주변 건축물 용도(「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아파트 주변 건축물 용도(「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 남쪽에는 공장(동원에프앤비수원공장, 씨와이뮤텍(주) 등)과 장안STX칸아파트,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심에 있는 취락지역 인근에는 교육시설(동원고등학교, 동우여자고등학교, 이목중학교 등)과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장(씨와이뮤텍)



공동주택(STX칸아파트)



노유자시설(이목경로당)



자동차 관련 시설(르노자동차)



종교시설(수원북부교회)



교육시설(동우여자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수원정자지식산업센터)



단독주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 건축물 건폐율(「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해우재 주변 건축물 건폐율(「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아파트 주변 건축물 건폐율(「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6> 이목동 건축물 건폐율

건폐율	동수	구성비(%)	건폐율	동수	구성비(%)
0~5%	215	62.5	25~30%	5	1.5
5~15%	18	5.2	30~58.52%	30	8.7
15~25%	76	22.1	계	344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비고 :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

이목동 소재 건축물의 건폐율이 대부분 2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 미만이 62.5%로 전반적으로 낮은 건폐율을 보이고 있다. 건폐율이 높은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지료에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와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건폐율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STX칸 1블록은 건폐율 16%, 용적률 225%, 2블록은 건폐율 15%, 용적률 202%, 수원장안힐스테이트는 건폐율 19%, 용적률 214%로 확인되었다.



이목동 건축물 용적률(「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표 7> 이목동 건축물 용적률

용적률	동수	구성비(%)	용적률	동수	구성비(%)
0~10%	218	63.4	50~80%	32	9.3
10~30%	42	12.2	80~164%	11	3.2
30~50%	41	11.9	계	344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비고 :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



해우재 주변 건축물 용적률(「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아파트 주변 건축물 용적률(「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 소재 건축물의 용적률은 50% 미만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지역은 대부분 200% 이상으로 나타나 주변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 건축물 높이(「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표 8> 이목동 건축물 높이

높이	동수	구성비(%)	높이	동수	구성비(%)
0~7m	69	31.7	30~80m	28	12.8
7~13m	87	39.9	합계	218	100
13~30m	34	15.6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비고 :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제외하고 검토한 자료.



해우재 주변 건축물 높이(「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아파트 주변 건축물 높이(「GIS건물통합정보」,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목동 건축물의 높이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30m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와 공장 등의 높이는 13~30m에 분포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13m 이하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이목동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표 9> 상위계획에 나타난 이목동의 개발 방향

분류	현황
2030 수원도시 기본계획 (2014)	– 북수원생활권 • 시가지 정비를 통하여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 •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지역상업, 문화, 공원기능 강화 • 우수한 자연환경(광교산)을 바탕으로 한 자연생태 보전 및 여가기능 강화 – 개발기본 구상 : 생태친환경 • 환경보전 및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생태환경 기능 부여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 북수원생활권 • 저층주거지중심의 주거환경정비 • 부도심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북수원시장 도시환경정비 가능지역 구상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2022)	– 쇠퇴분석 결과 : 파장동은 복합쇠퇴등급 7등급으로 나타남 – 북수원 재생권역 : 북측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의 쇠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저층 주거지와 연계 상업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한 환경개선 시급
수원시 2030 경관계획	– 역사문화경관거점 : 노송지대의 역사문화성 보전 및 정조대왕부터 이어져 온 진입경관거점 연계 이미지 형성 – 자연생태 경관권역 : 광교산 자연생태 소권역에 속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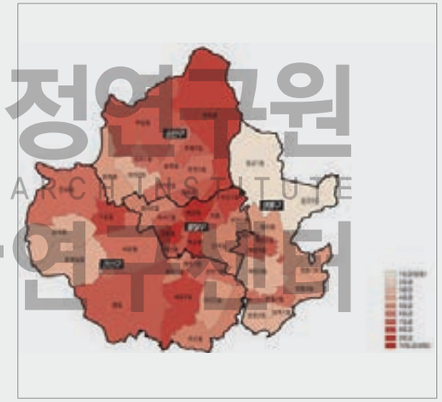
이목동이 입지하고 있는 북수원생활권은 상위계획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여가기능을 강화하며, 생태친환경적인 지역으로 개발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상위계획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광교산 자연생태 소권역에 속하는 이목동은 노송지대의 역사문화성을 보전하고 자연경관과 연계한 이미지 형성을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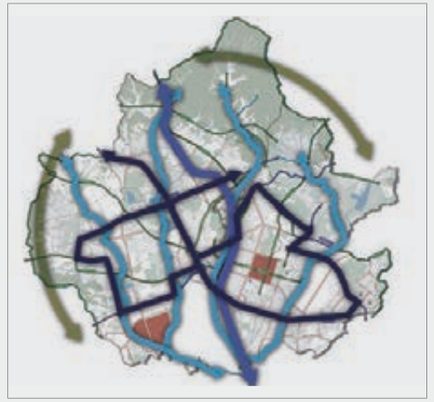
이목동에는 이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개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수원장안STX칸아파트와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다. 종전부동산 이목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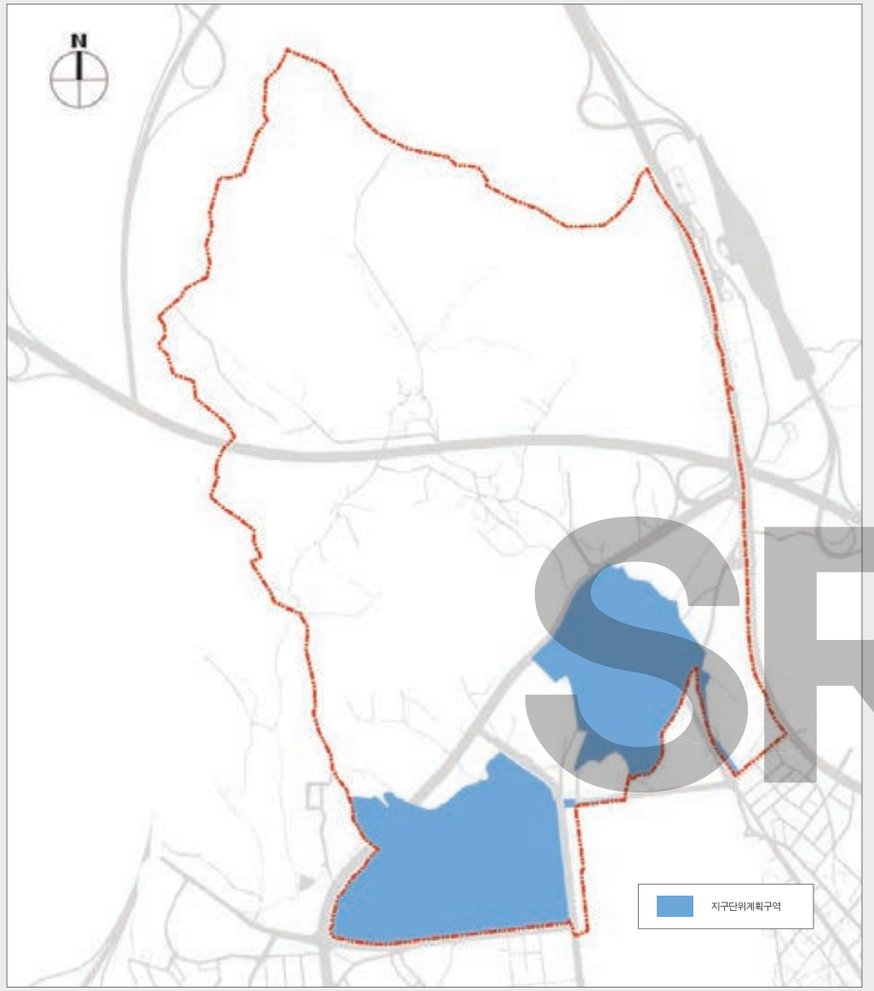
2030 수원도시 기본계획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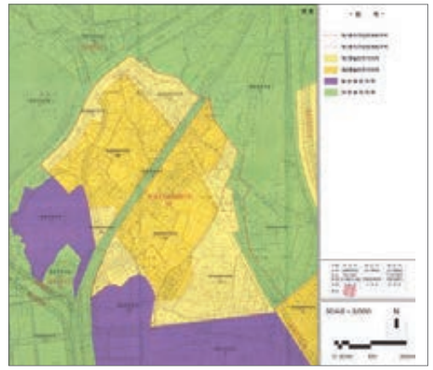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2022)


수원시 2030 경관계획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용도지역지구정보-국토계획구역」, 2023, 『국가공간정보포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이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원시 고시 제2009-1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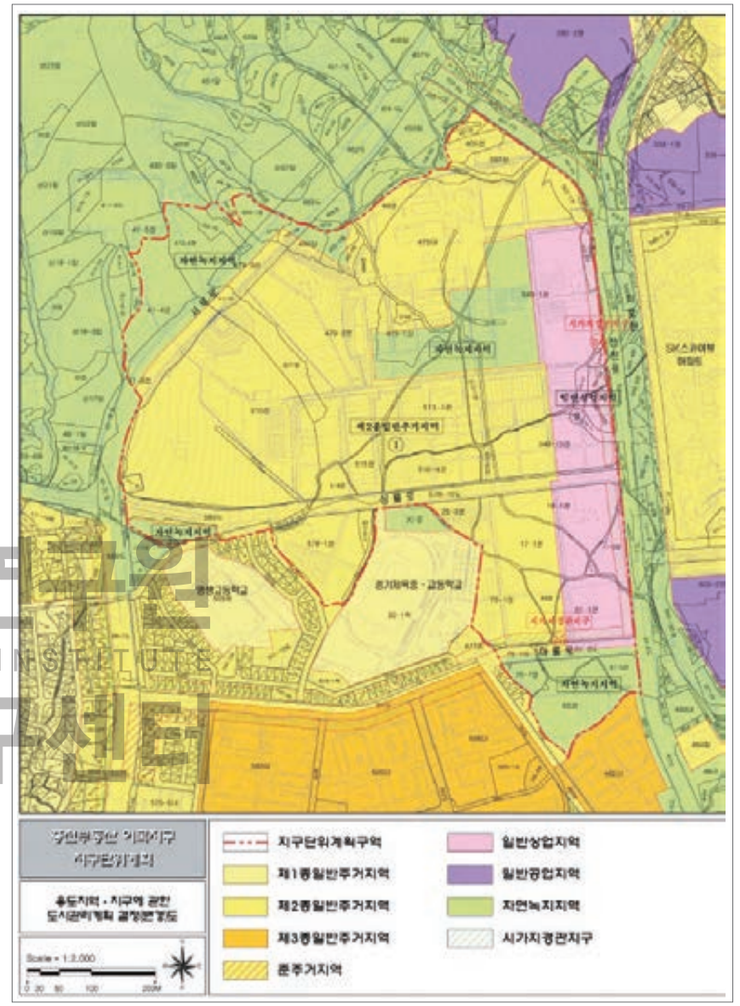
종전부동산 이목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목동 475번지 일원(면적 47만 3,721㎡)에 위치하며, 2010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다.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권 중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 2017년 구역 지정, 2022년 4월 착공, 2026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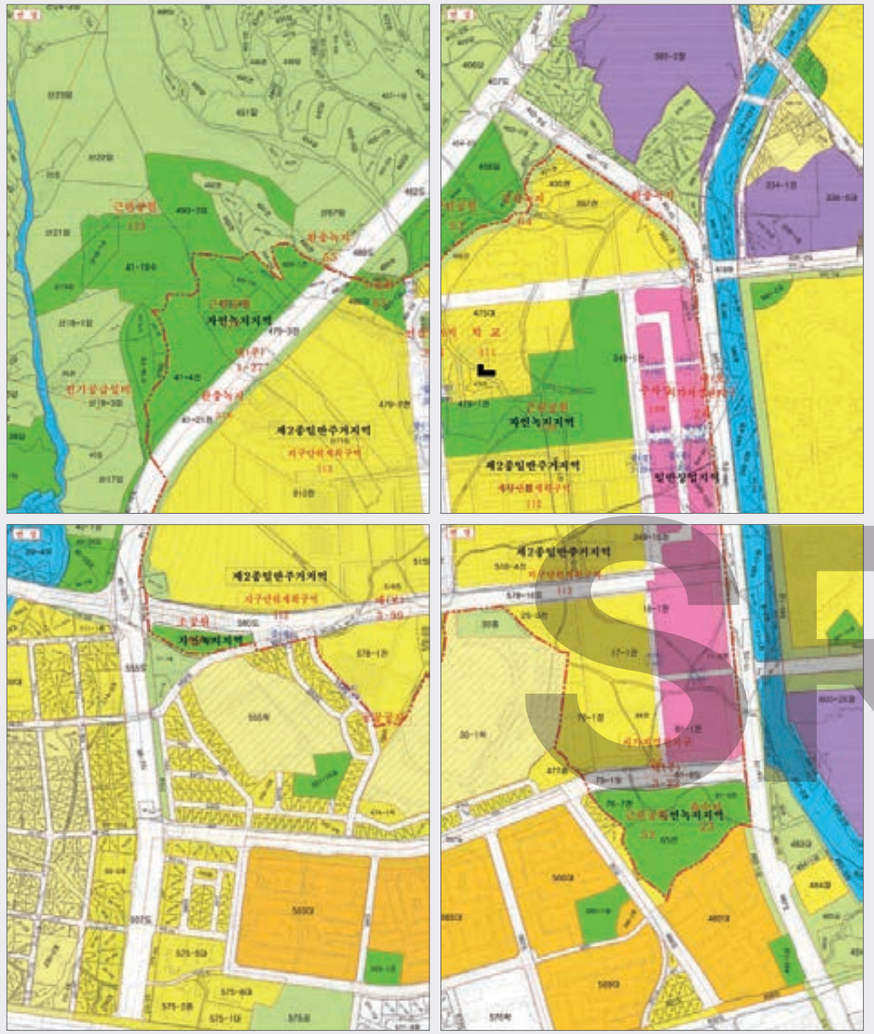
이목동 아파트 단지(이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전부동산 이목지구단위계획(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목동 475번지 일원(면적 47만 3,721㎡)에 위치하며, 2010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권 중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 2017년 구역 지정, 2022년 4월 착공, 2026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종전부동산 이목지구단위계획 고시도(수원시 고시 제2023-205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단위계획구역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2부

이목동 배나무골 공동체와 주민생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이목동 문중 공동체의 형성과 가계 계승
제2장 문서 이데올로기와 이목동 '산지기 문서의 주인 찾기'
제3장 근현대 이목리의 사회·경제적 변화
제4장 4H구락부에서 이목동애향회까지
제5장 자매애로 집안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여성들
제6장 변화하는 마을, 남겨진 논과 밭을 일구다



제1장

이목동 문중 공동체의 형성과 가계 계승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은 수원시 북쪽 경계부에 자리하며, 수원의 진산인 광교산 서쪽 말단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수원의 시가지는 주로 광교산 남사면에 형성되었지만, 이목동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을 갖춘다. 마을 앞에는 파장저수지에서 발원한 서호천이 흘러 천천동을 지나 서호로 이어지며, 하천 주변 저지대에는 농경지가 조성되어 벼농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목동 주변의 산지는 고도가 높지 않지만 마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며 각 봉우리에 이름을 붙여 불러왔다. 화산, 최장군봉, 옥녀봉, 삼선봉, 덕성산, 망치봉 등이 그 예로, 이는 지역 공동체가 산지를 공유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산지는 1972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임야 개발이 제한되었고, 오늘날에도 비교적 온전한 산세를 유지한다.

이목동 동쪽의 광교산은 해발 582m로 한남금북정맥의 주봉이자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을 비롯해 여러 하천의 발원지이다. 광교산은 오래전부터 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이목동은 산줄기가 만들어 놓은 여러 골짜기를 품고 있다. 곡산골, 작은골, 갓골, 푸무골, 정골, 안죽골, 함박골 등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생활과 농경의 터전이었다. 이 골짜기들은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계단식 논을 만들기에 적합했고, 오늘날에도 벼농사와 시설재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곡산골은 이목천의 발원지로, 소규모 계단식 논이 조성되어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이목동은 산과 물, 골짜기와 논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속에서 형성된 마을로,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자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다. 배산임수의 입지와 풍요로운 농경



이목동 문중의 주요 묘역 분포

지는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 주며, 오늘날에도 그 생활상이 이어지고 있다.

1. 남양 홍씨의 입향과 정착

이목동에 처음 터를 잡은 문중은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判中樞公派)로, 입향조는 '이헌(梨軒) 홍수득(洪守得)이다. 남양 홍씨는 본래 중국 당나라에서 건너온 당홍(唐洪) 계열과 토착화된 토홍(土洪) 계열로 나뉘는데, 이목동에 입향한 계열은 당홍 계열에 해당한다. 당홍 계열은 홍은열(洪殷悅)을 시조로 하며, 고려 말기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다수의 재상과 부마와 공신, 청백리들을 배출하며 성장해 나갔다.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는 고려 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와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를 역임한 홍언수(洪彦修, ?~1415)를 파시조(派始祖)로 한다. 그는 고려 말 중추원과 문하부(門下府)에서 활동했으며,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는 1395년(태조 4)에 조선개국원종공신으로 책록되기도 하였다. 1415년(태종 15) 그가 사망하자 조정에서는 곡식 30석을 하사하고, 경기관찰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예우를 다하였다. 홍언수는 홍약(洪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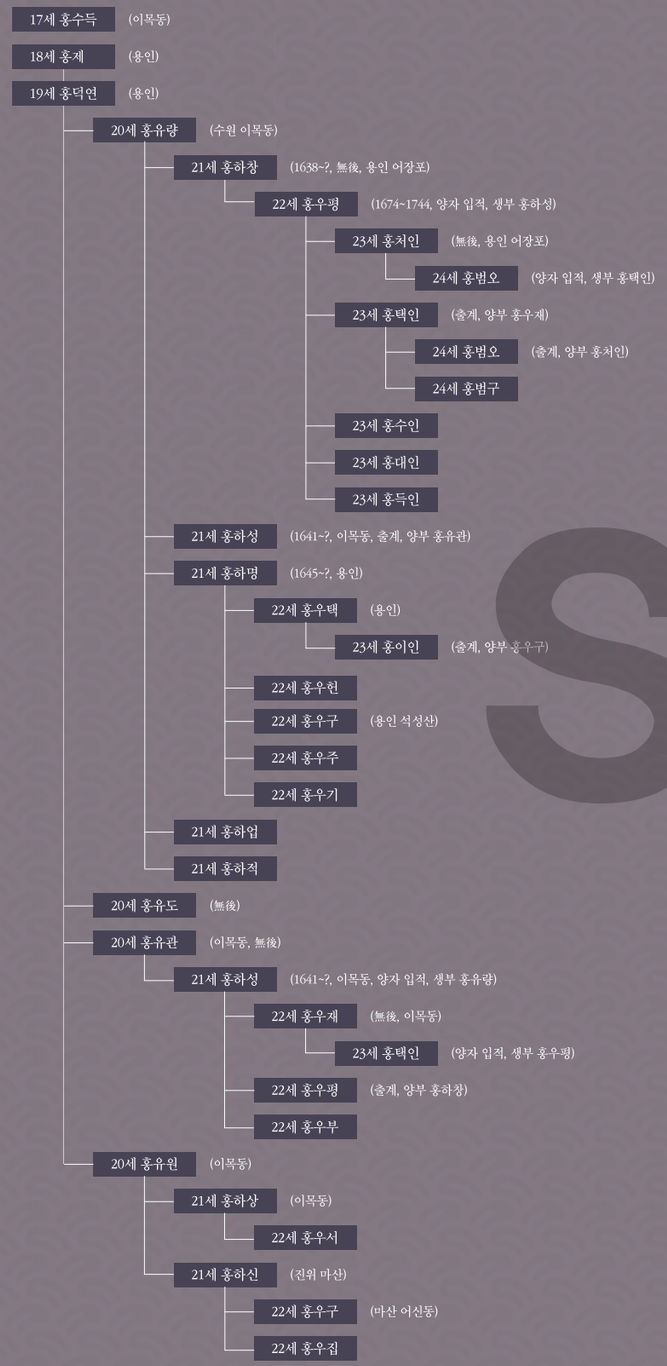
이목재(이목동 23-7번지)와 남양 홍씨 묘역(이목동 산5번지)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 이목동 입향조 도정공 홍수득 묘역(https://dldml2xhd.tistory.com/15920369)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이목동) 가계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홍적(洪迪)·홍승(洪昇)·홍해(洪海)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홍해는 태조의 궁인 화의옹주의 딸 숙신옹주와 혼인하여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었으며,[1] 후일 우군 부사직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언수의 네 아들과 홍약의 아들 홍원로(洪元老)·홍형로(洪亨老). 홍이로(洪利老) 3형제는 단종복위운동으로 큰 화를 입었다. 1458년(세조 4) 홍약이 신원되고, 후손들이 차차로 관직에 오르면서 가문의 위상을 회복해 나갔다. 14세 홍약, 15세 홍정로, 16세 홍결까지는 동두천시 생연동에 거주하면서 묘역을 조성하며 문중의 기반을 다져갔다.

이후 16세인 홍결의 여섯째 아들 홍수득이 생연동을 떠나 수원시 이목동으로 이거하였다. 도정공 홍수득은 훈련도정(訓鍊都正)을 역임하였으며, 아들 홍제(洪霽)가 임진왜란 중 수원 방어에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자, 이에 대한 예우로 순충보조공신(純忠補助功臣)에 추증되었다.[2] 이목동에 정착한 이후 홍수득의 아들 홍제가 관직에서 물러나 아들 홍덕연과 함께 사패지(賜牌地)로 하사받은 용인시 중동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였고, 이후 후손들도 무공을 세워 가문의 명성을 높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이들은 '연목 홍씨'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3] 이들은 수원시 이목동과 용인시 중동을 문중의 기반으로 삼아 양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묘역을 조성하였다.

입향조 홍수득은 수원시 이목동에 묘역을 마련하였고, 그의 아들 홍제와 손자인 19세 홍덕연(洪德演)은 용인시 중동에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후 홍제의 둘째 아들 홍덕린(洪德隣)과 홍덕연의 아들들인 20세 홍유량(洪有量)·홍유관(洪有寬)·홍유원(洪有遠), 그리고 21세 홍하성(洪夏成)과 22세 홍우평(洪禹平)은 다시 이목동 일대에 묘역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21세손 홍하창(洪夏昌)과 홍하명(洪夏明), 22세손 홍우택(洪禹澤)·홍우헌(洪禹憲)·홍우구(洪禹龜) 등은 용인시 중동에 묘역을 마련하고 있다. 22세손 홍우평(洪禹平, 1674~1744)의 경우 원래 묘역은 수원시 파장동에 있었으나, 1995년에 용인시 동백동 능안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묘역 조성뿐만 아니라 재실 운영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시정공 문중은 이목동의 이목재와 동백동의 숭천재 두 곳의 재실을 중심으로 제향을 이어가고 있으며, 판중추공세천비, 시정공문중 납골묘비도 두 지역에 동일하게 조성하여 문중의 연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홍수득의 후손들은 수원과 용인을 오가며 거주하였고, 필요에 따라 두 지역에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지역을 교차하며 묘역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후사가 없는 경우 양자를 들였기 때문이다. 19세 홍덕연에게는 아들이 4명인데, 홍유량, 홍유도(洪有度), 홍유관, 홍유원이다. 장자인 홍유량은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홍하창, 홍하성, 홍하명, 홍하업(洪夏業), 홍하



남양홍씨묘역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



남양홍문판중추공세천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적(洪夏績)이다.[4] 반면 홍유도와 홍하관은 아들이 없었고, 홍유원은 두 아들 홍하상과 홍하신을 두었다. 이에 홍유량의 둘째 아들 홍하성이 홍유관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홍유도도 후손이 없으나 양자를 들이지 않은 것은 일찍 사망한 탓인 것 같다.

그런데 홍유량의 장자인 홍하창도 아들이 없자, 동생 홍하성의 둘째 아들 홍우평을 양자로 들였다. 홍유관에게는 본래 아들이 셋이 있는데, 홍우재(洪夏績), 홍우평(洪禹平), 홍우부(洪禹敷)이다. 이중 둘째 아들인 홍우평을 장손으로 홍하창에게 입양을 보낸 것이다. 홍하성의 둘째 아들 홍우평은 홍하창의 장자로 입적되었으며, 이후 슬하에 홍처인(洪處仁)·홍택인(洪宅仁)·홍수인(洪壽仁)·홍대인(洪大仁)·홍득인(洪得仁) 다섯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홍하성의 장자인 홍우재에게 아들이 없자, 홍우평의 둘째 아들인 홍택인을 홍우재의 양자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홍하명의 아들 홍우택의 아들 홍이인도 홍하명의 셋째 아들 홍우구(洪禹龜)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어 홍우평의 장자인 홍처인에게 아들이 없자, 양자로 간 홍택인의 두 아들 중 장자인 홍범오(洪範五)를 홍처인의 양자로 보냈다.

이처럼 홍덕인의 아들 4형제 중 손이 없는 홍유도를 제외하면, 서로 자손을 양자로 주고받으면서 가계를 이어갔다. 그 결과 장자인 홍유량 계열은 용인에, 셋째 홍유관과 넷째 홍유원 계열은 이목동에 묘역을 마련하였다.

도정공, 시정공 문중은 판중추공세천비, 시정공문중납골묘비를 세우고, 이목동의 이목재와 동백동의 숭천재를 나란히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시정공 문중은 매년 음력 10월 5일과 10일에 향사(享祀)를 봉행하며, 이목재에서는 10월 5일, 숭천재는 10월 10일에 각각 제향을 올린다. 남양 홍씨 이목동 묘역은 산5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정공 문중은 묘역 정비와 사적 관리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묘역 정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94년 이목동과 1995년 동백동에서 묘비, 호석, 장명등, 망주석 등을 세우고 묘비의 음기(陰記)를 새기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1996년, 2001년, 2003년에 단계적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1997년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동백동 사패지 하단 일부가 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선영을 정리하고 일부는 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손이 있는 경우는 이장 사유를 기록한 면봉고유비(緬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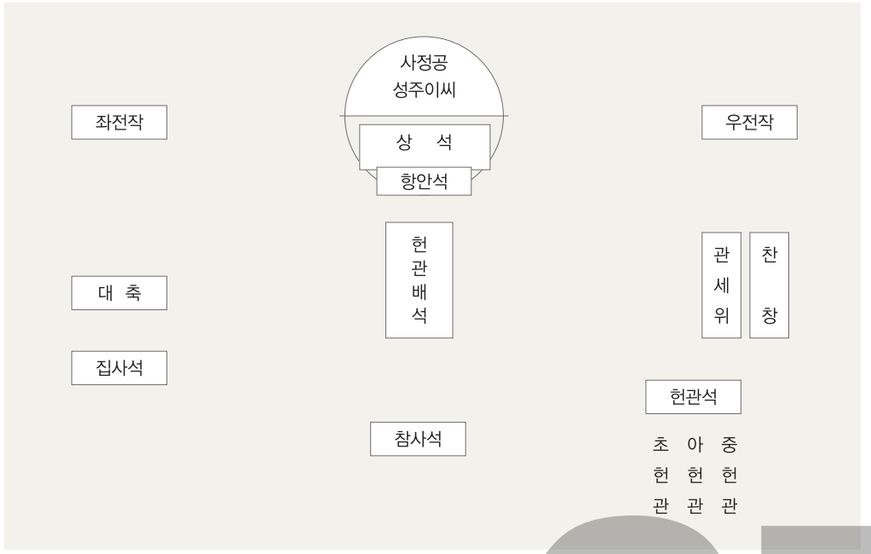
이목재(https://dldml2xnd.tistory.com/15920369)

告由碑)를 세웠으며 후손이 없는 경우는 납골묘에 합봉하여 무사방계열조추모비(無嗣傍系烈祖追慕碑)를 건립하였다. 이후 2003년에 납골묘비와 2006년에는 판중추공세천비와 이목재·숭천재가 건립되었다. 아울러 판중추공파는 1834년 간행한 『남양홍씨세보』(갑오보)를 시작으로 1920년 경신보, 1964년 갑진보, 2001년 신사보를 차례로 발간하여 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문중 계승의식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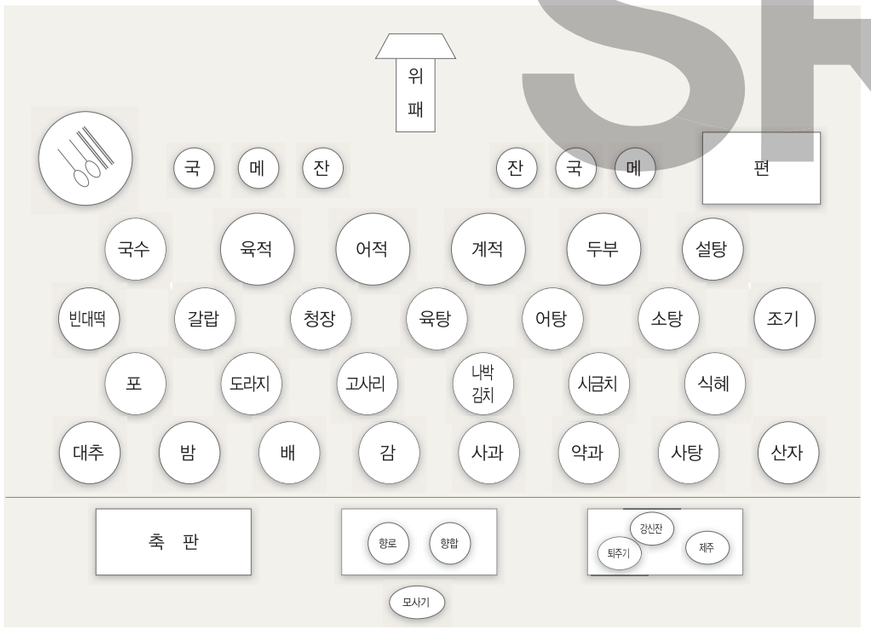
시정공 문중의 묘역 조성과 양자 관계, 그리고 재실 운영과 제향은 단순한 선산 관리 차원을 넘어 문중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목동과 용인을 오가며 조성된 묘역은 후손들의 생활 근거지와 함께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양자 제도는 가계의 단절을 막으며 한 집안, 한 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나아가 묘역 정비와 기념비 건립, 재실에서의 향사는 후손들이 조상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공동체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시정공 문중의 이러한 활동은 홍수득의 입향 후 그를 시조로 하는 문중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으며, 후손들에게 뿌리 의식을 일깨우며 문중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남양 홍씨 시제 제집사 위치도



남양 홍씨 시제 진설도

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또한 이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문중의 전통을 계승하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 후손 중 이목동에서 세거한 후손들은 크게 번창하지는 못하였는데, 20세기 초반에 이목동에 거주한 남양 홍씨는 2가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주 김씨의 입향과 정착

이목동 경주 김씨는 신라 김알지의 후손이자 경순왕의 후예로, 여러 분파가 존재하는데 그중 계림군 김균((金稛)을 파조로 하는 계림군파에 속한다. 이목동 경주 김씨는 계림군파 가운데 10세손인 갈천공 김원립(金元立)을 중시조로 하는 갈천공파의 후손들이다. 갈천(葛川)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대의 옛 지명이다. 용인에는 경주 김씨 상촌공파 계열의 공평공파와 문간공파, 그리고 계림군파 계열의 갈천공파가 크게 문중을 이루고 있다.[5]

갈천공파 시조인 김원립은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광해군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이자,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상소를 올려 맞섰다가, 미움을 받아 하옥되었다. 10년 만인 1623년 풀려나 의금부도사에 임명되고, 1627년 전주정시(全州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30년 지평이 되고 1635년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받고 헌납이 되었다. 이후 직강(直講)·예조정랑·호조정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 해운판관(海運判官)·부안현감(扶安縣監)·능주목사(綾州牧使) 등을 지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바로 군사를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하지만, 1647년 함경도 종성부사(鐘城府使)로 있을 때, 국경 백성들이 몰래 청나라 땅에 사냥하러 들어갔다가 청군에게 붙잡히자, 조정에서는 그의 죄를 물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후 경기도 용인에 낙향하여 제자를 기르며 노후를 보냈다. 병자호란 의병의 공이 있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고, 홍문관과 명예문관의 양관제학(兩館提學)과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갈곡마을에 갈천공 병자호란창의근국기념비((葛川公丙子胡亂倡義勤國紀念碑)라 칭하는 김원립창의비(金元立倡義碑)가 있다.

김원립의 현손인 14세 김록(金祿)은 이목동에 처음 터를 잡아 경주 김씨의 세거지를 조성한 인물이다.[6] 김록은 성균관 진사와 장릉(莊陵, 영월 단종의 능) 참봉을 지내기도 했다. 이목동 각곡(角谷)에 김록과 부인 영광 김씨와 합장 묘역이 마련되었고, 이후 후손들이 이목동과 파장동 일대에 묘역을 조성하면서 문중의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15세 김낙추(金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 경주 김씨 가계도(23세 김진영 작성)

- 14세 김록 (이목리)
  - 15세 김낙추
    - 16세 김성열
      - 17세 김사원
        - 18세 김영상
          - 19세 김집
            - 20세 김경식
              - 21세 김학원
                - 22세 김수기
                  - 23세 김진손
                    - 24세 김행원
                    - 24세 김시원
                - 22세 김인기
                  - 23세 김진건
                    - 24세 김붕원
                  - 23세 김진강
                    - 24세 김석원
                    - 24세 김종원
                  - 23세 김진남
                    - 24세 김도원
                  - 23세 김진명
                    - 24세 김지원
                    - 24세 김화원
                - 22세 김준기
                  - 23세 김진영
                    - 24세 김홍원
                  - 23세 김진홍
                    - 24세 김용원
                - 22세 김선기
                  - 23세 김진웅
                    - 24세 김동원
              - 21세 김학목
                - 22세 김문기
                  - 23세 김진옥
                    - 24세 김성원
                    - 24세 김동원
                    - 24세 김하원
              - 21세 김학록
                - 22세 김명기
                  - 23세 김진엽
                    - 24세 김기원
                    - 24세 김택원
                  - 23세 김진완
                  - 23세 김진무
                  - 23세 김진설
                - 22세 김한기
                  - 23세 김진만
                    - 24세 김정원
                - 22세 김찬기
                  - 23세 김진모
                  - 23세 김진군
                  - 23세 김진세
              - 20세 김광식
                - 21세 김학요
                  - 22세 김창기
                    - 23세 김진국
                      - 24세 김승원
                      - 24세 김관원
                    - 23세 김진채
                      - 24세 김대원
                - 21세 김학철
                  - 22세 김완기
                    - 23세 김진하
                    - 23세 김진홍
                  - 22세 김왕기
                    - 23세 김진백
                    - 23세 김진구
                    - 23세 김진복
                  - 22세 김정기
            - 18세 김길상 (파주)
          - 16세 김성순 (남양)
        - 15세 김낙영 (산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주 김씨 묘역(이목동 산3번지)



경주 김씨 묘역(이목동 산53번지)



2007년 경주 김씨 이목 문중 시제

樂樞)는 돈녕도정(敦寧都正), 16세 김성열이 문과급제를 하였으며, 이조좌랑(吏曹佐郞)을 역임하였다. 현재도 김록의 후손은 주로 이목동과 파장동 일대에서 문중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주하고 있다.

문중 묘역의 분포 현황을 통해서 이들의 정착과 확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목동 묘역의 위치는 각곡(角谷), 여수악(如水岳), 화산봉(花山峰), 오십곡(五十谷), 산곡(山谷), 산53번지, 산3번지, 능곡(陵谷), 첩성곡(帖星谷), 첩정곡(帖呈谷), 하촌(下村)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장동에는 파장곡, 파량곡, 미륵동, 사근곡, 용두산, 점목점 등지에 경주 김씨 묘역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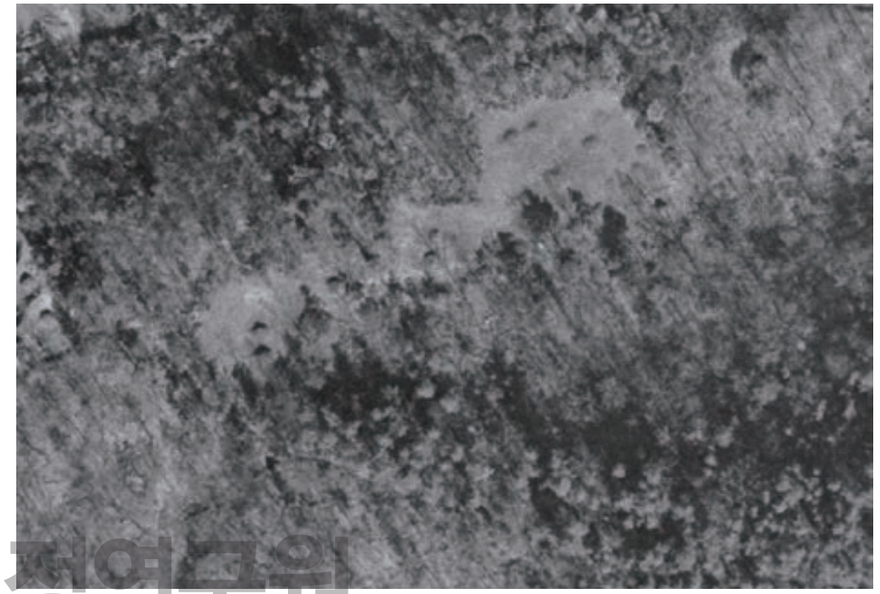
14세 김록이 이목동에 입향한 지 약 4대(100년)가 지난 시점에 현손인 김길상과 그의 아들은 모두 파주로 이전하였다. 이후 문중의 분포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金蠅里)와 축현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서신면 백미리와 상안리, 군포시 산본리, 이천시 장면 사곡동, 후곡(後谷), 지천곡(知川谷)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목동에 거주하는 경주 김씨는 몇몇 본관과 반복적으로 혼인을 맺는데, 전주 이씨, 밀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7년 경주 김씨 이목문중 기제 진설



강릉 유씨 묘역(이목동 산59번지, 1995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양 박씨, 안동 권씨, 나주 정씨, 하동 정씨, 파평 윤씨 등이었다. 김록의 후손 중 진(鎭)자 항렬 후손까지를 본다면 전주 이씨와 혼인이 제일 많았으며, 이목동에 세거하고 있는 강릉 유씨와 남양 홍씨와의 통혼 사례로 일부 확인이 된다.

경주 김씨 이목동 문중은 '시제(時祭)'를 고정일로 정해 두지 않고 있다. 세일사(歲一祀, 時享)는 해마다 토·일요일 중에서 날짜를 택해 1년에 한 번 시행하며, 기일제사와 달리 후손은 누구나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강릉 유씨의 입향과 정착

강릉 유씨는 17세기 중후반에 이목동으로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화성시 우정읍이나 봉담읍 하가등리에서 이주해 왔다. 강릉 유씨는 고려시대 유전(劉筌)을 시조로 하고, 거창계와 강릉계로 구분된다. 이중 강릉계 일부가 경기도 양주군과 화성시 우정읍을 거쳐 일부가 수원시 이목동에 정착하였다.

화성시 우정읍으로 이주한 이들은 강릉계 좌랑공 유계주(劉繼周)의 직계 후손들로 유현(劉賢)–유한명(劉漢明)–유관(劉寬)–유홍서(劉弘緖)–유찬선(劉纘先)–유만흥(劉晩興)·유만응(劉晩應)·유만기(劉晩寄)·유만희(劉晩喜)로 이어지는 계열이다. 이중 유만응이 화성시 봉담읍 건달산(乾達山) 세곡리로 이거하였고, 장자 유만흥의 아들 유상우(劉相愚)가 인근 우정읍 멱우리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확산과 묘역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이중 유만응의 손자인 유태갑(劉太甲)과 유태방 형제가 수원시 이목동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유만응의 넷째 아들인 유상우(劉相佑)는 아들이 없어, 유태갑과 유태방 형제를 양자로 들였다. 그런데 양자로 온 유태갑도 아들이 없자, 유태방을 다시 양자로 들였고, 유태방의 장자 유석하에게 손(孫)을 잇게 하였다. 유석하는 두 아들을 두었으며, 유태방의 차자 유석진이 후손이 없자, 유석하의 둘째 아들을 유석진의 양자로 입적하여 파를 이어갔다. 유태갑과 유태방 형제가 이목동에 정착하면서, 조부 유만응의 묘역을 이목동으로 이장하였다. 유만응은 원래 봉담읍 건달산 세곡리에 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되어 있었는데, 그 묘역을 이목동 산59번지로 이전한 것이다. 이로써 이목동에 강릉 유씨 문중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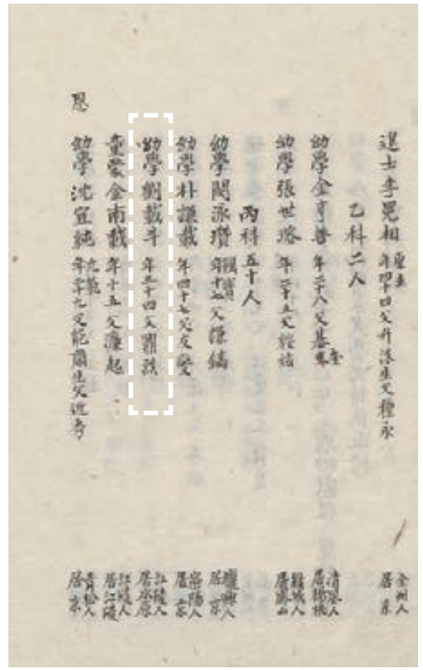


강릉 유씨 묘역(이목동 산13번지, 이목동 산14번지)



강릉 유씨 유재남의 묘역(이목동 산14번지, 유명식 제공)

강릉 유씨 주요 인물의 이력을 살펴보면 유병직(劉秉直, 1812~1895)이 통정대부행선공가감역가선대부돈녕부도정(通政大夫行繕工假監役嘉善大夫敦寧府都正)을 역임하였다. 유재두(劉載斗, 1856~1934)는 1889년(고종 2) 12월 18일에 실시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1895년 1월에 행사간원정언(行司諫院正言)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유병직의 아버지 유이원(劉彝源, 1776~1857), 유재두의 아버지 유정렬(劉鼎烈, 1834~1887)이 수직통정대부(壽職通政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수직통정대부로 가자된 사례로는 유광렬(劉光烈, 1823~1899), 유재정(劉載鼎, 1848~1909)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 수직(壽職)은 조선시대 노인에게 제수하던 산직(散職)으로, 지방관의 부친으로 70세 이상 된 자에게 매년 초에 가자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유정렬의 경우 53세에 사망하였는데도 임명된 사례로 보아,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은 듯하다.



문과 급제자 명단을 기록한 『국조방목』(권13)에 기재된 유재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태상왕의 궁인 화의 옹주의 사위 홍귀해를 우군 부사직에 제수하다." 「홍씨 무관묘역, 홍하명(洪夏明)홍우택(洪禹澤)홍우구(洪禹龜)」(https://dldml2xhd.tistory.com/15920372).
2. 「무공(武功)으로 가문의 성세를 이룬 명가(名家)」, 『용인신문』 2007년 2월 1일.
3. 「무공(武功)으로 가문의 성세를 이룬 명가(名家)」, 『용인신문』 2007년 2월 1일.
4. 홍하업과 홍하서는 홍유량의 측실 소생으로 묘역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홍하업은 3형제를, 홍하서는 4형제를 낳았다.
5. 「죽전·신갈 일대 세거 지역사회 중심씨족 "경주 김씨"」, 『용인시민신문』 2021년 8월 11일(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32).
6. 『경주김씨갈천공파보(전)』.

제2장

문서 이데올로기와 이목동 '산지기 문서'의 주인 찾기

김혁 고문서 연구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무리한 청탁'

이 글은 본래 수원시 관내인 이목동(梨木洞)의 어느 집안에서 전해 오던 고문서 단 3점을 그 동네의 현실과 관련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원학연구센터에서 고문서 연구자인 내게 전화를 걸어 이목동에서 거주해 온 고 김인기 선생님 집안에서 120년 전쯤부터 소장해 왔던 성책 고문서 2점과 배지(牌旨) 1점이 있으니 이 문서들과 연관된 이 마을에 관한 일을 집필해 주겠느냐는 첫마디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다지 큰 부담은 없었다. 이전에 양반의 선산 경영과 관련된 논문 서너 편을 쓴 적이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믿었던 탓이다.[1] 이윽고 가볍게 이어지는 전화기 저쪽의 말에서 이 연구가 그저 조선시대 양반 신분 일반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영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도 아니라는 것(이것이 일반 시대사가 아니므로)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쪽에서의 관심은 순전히 이목동이라는 구체적인 현장(place)에 모여 있었고, 이 글이 실릴 책의 주제도 이목동에 관한 지역 연구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짊어져야 할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청탁받은 날로부터 이 문서들을 이해하기 위해 끙끙댄 지도 약간 과장하자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성과도 명쾌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짐작대로였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럼에도 어째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지에 대한 변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문서들을 현실과 이어 붙이고자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 소장자가 누구인지 정도였다. 하지만 박물관에 이 유물을 기증한 그분은 정작 세상을 뜨셨고, 이 집안도 이미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으며, 이웃 사람들의 말과 기억에만 남아 있었다. 정작 산지기

이야기를 기억하고 증언해 줄 마을의 어른은 아직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마을의 어느 누구도 이 문서에 쓰인 일들까지 기억에 보존한 일은 없었다. 심지어 이 문서들을 원래 소장하였던 집안에서조차 그런 역사에 대해 오히려 당황스럽고 의아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서들의 발급자가 누구인지 참으로 오리무중이었다. 돌아볼수록 이 3점의 고문서만으로는 그 시대의 진실로 나아가야 할 길들이 모두 막혀 있는 듯이 보였다.

<표 1> 이목동 선산 경영 관련 문서 현황

연번	문서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내용	형태	크기 (세로×가로)
1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	임진년 (1892) 1월	박판서댁	이목동 묘직 산직들	묘직과 산직이 해야 할 일과 계전에 관한 내용	성책	33×28.5㎝
2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건기	임진년 (1892) 1월	박판서댁	이목동 묘직 산직들	제물과 제기의 내용과 개수 규정	성책	31.5×27.4㎝
3	배지	정미년 (1907) 1월	박보국댁	교관 김광식	교관 김광식에게 묘막의 가사와 춘모 5되지기 땅 허급	낱장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 표지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건기」 표지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길이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이러한 '무리한 청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던졌던 그 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헤아려 보았다. 가장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보아도 어쩌면 그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문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를 역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이런 무리한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오해란 문서에 실린 텍스트의 내용만으로 당시의 현실을 직접 복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철썩 같은 믿음 말이다.

하기야 지금까지 고문서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그런 길을 좇아 왔다. 고문서에 기입된 문자들을 확실성의 원천으로 간주하려 하였다. 이는 실험실에서 확실성의 근거를 구성하여 그로부터 모든 해석을 출발시키려는 오늘날 과학 연구에서 실행하는 접근방식과 흡사하다. 이러한 확실성의 근거에서 출발하려는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고문서에 기입된 내용들을 사실을 판정하는 기준이자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고문서에 기입된 것은 결코 과거에 실재하였던 사실이 될 수 없을뿐더러 더욱이 1차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커녕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2차적, 3차적일 수 있는 가공품이다. 이를 이른바 때 묻지 않은 1차 사료로 간주하는 한, 이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되거나 이미 구축된 추상적인 수준의 굳건한 정리를 그 문자의 위로 불러와서 위에서 덮어씌워서 동어반복의 해석으로 귀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문서와 현실을 말과 사물에 각각 배당하여 분리시킨 뒤에 분리된 이것들을 다시 맞추어 가늘게 연결시키려 하는 것이다.[2]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계기에 의해 이어 붙여진 연쇄로 이루어져 있는 각 문서의 내용들을 맥락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고문서도 그 지위 자체가 달라진다. 현실을 비추는 초월적인 거울이자 확실성의 근거라기보다는 이 역시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같은 사회관계의 현실에 참여하는 불완전한 구성물에 불과하다. 문서 역시 사람과 물품을 포함한 다른 것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물론 전화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적은 없지만 고문서를 통해 이목동에서의 현실을 다루고자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고문서에 대한 지위부터 재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고문서들이 과거 문서로서 유통되었던 당시에 이목동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수행하고자 하였던 선영 관리를 위해 사람들과 물건들이 얽혀 있는 방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의 임무인 듯하다. 물론 이것은 고문서를 당시의 현행하는 문서로 번역하는 고난도의 일을 거쳐야 하므로 단순한 문자 복원이나 문장 해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고문서는 관찰하고 입증하는 맥락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발급자는 이 고문서들을 통해 전에 없던 산지기 계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자 하였고 제사 음식들을 생산하려 하였다. 무엇보다 이 고문서와 주어졌던 돈 100냥, 제기들, 제

사 음식들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한 것들이다. 이 명령을 받을 묘지기와 산지기들도 이 현상을 함께 만들어낼 요소들이다. 이 중 어떤 것도 결정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다.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만약 결여되어 있다면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늘 위기에서 간신히 버텨 나간다.

2. 방법의 이상

이 과제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는 고문서의 일반 정의에 비추어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비교적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발간한 한국의 고문서 개론서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인 『한국고문서입문』에는 고문서의 성립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문서를 주고받는 쌍방(발급자와 수취자)이 존재해야 하고, 문서를 통해 표시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명백히 과거에 생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명확히 고문서라고 칭할 수 있다.[3]

위의 글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쌍방이 존재해야 하고, 문서를 통해 표시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라고 한 것은 결국 발급자와 수급자 쌍방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각자의 해석체가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석체는 미국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소쉬르와는 다른 계보의 기호학을 발전시킨 찰스 샌더스 퍼스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잘 알려져 있지만 퍼스에게 "기호는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가 결합한 3항 구조이다. 표상체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상이다. 그것은 반드시 상징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름은 비가 올 징조다. 대상체는 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다. 해석체는 일종의 아이디어나 효과, 해석, 인간 또는 기타로 형성된 부호의 의미 또는 결과이다."[4]

그에 앞서 발급자도 수취자도 문서에 포함된 수많은 기호들이 그런 기호임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야만 한다. 신호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신호등이 기호로서 작동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문서의 발급자가 수급자에게 전달되어 발신과 수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 사이에는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복잡해 보이는 실타래처럼 보이는 문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문서 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서 작용은 기호 작용(signification)의 일종으로 문서를 기호로 이해한 것이다. 기호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찰스 샌더스 퍼스가 "기호가 기호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호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이 논의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5]

이는 기호 물품의 일종인 문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문서에서 어떤 부분이 기호로 작동하는 것일까? 이것은 문서에 실린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판단하는 데 첫인상을 따지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교훈도 널리 퍼져있음에도 대개는 관행적으로 말을 섞어보기 전에 선입관에 의해 7할 이상을 결정하고 대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것이 외관상 정당한 문서로 인정받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문서가 문서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문서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문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호가 기호로서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미 망각된 문서가 작용하였을 당시의 작용을 연구해야 할 별도의 필요가 발생한다. 이것은 문서를 통한 문화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행하는 문서에 관한 것이지 고문서 연구에 대한 조건은 아니다. 위의 고문서 조건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명백히 과거에 생성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거나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문서의 조건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고문서에서는 현행 문서와의 구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산 시기가 과거라는 점만으로는 사실상 그 과거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이 과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석체가 더는 작용하지 않아서 문서 작용이 멈추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당시에 실재하였던 문서 작용이 멈추었을 뿐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망각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점이 고문서 연구에 대한 필요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어째서 고문서 연구가 문화 연구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게 된다. 만약에 그 고문서를 오늘날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문자 번역 정도로 제시되면 그만이지 이것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문서 연구의 필요조건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미 생명력을 잃은 고문서를 그것이 문서로서 문서 작용을 하였던 살아있던 당시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 문서를 처음 생산하고 소비하였던 사람들이 이 문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의도나 현실적인 효과가 성공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문서는 다른 종류의 글들과는 달리 현실과의 연관성이 매우 직접적이다. 손에 들려 전달되던 그 문서는 망치나 톱과 같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 어떤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둘째, 만약 고문서를 그러한 번역 없이 사회문화적 의미에 접근하여 무매개적인 것으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석하려 한다면, 오히려 고문서는 연구자가 처한 환경에 오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문서를 한문이나 초서 등 문자상의 난점만을 번역의 문제로 거론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그 번역이란 문서라는 물품 그 자체를 사회문화적으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고문서 텍스트의 번역은 결코 단일한 형태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사실 고문서뿐만 아니라 일반 문서에서 '무릎 밑'이라는 말을 전한다고 해보자. 이 말은 성인 남자와 어린아이가 그 문구가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실재는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 말이 가리키는 현실에서의 위상은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의 실제 길이가 현격히 다른 것과 같다. 이 고문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들은 현실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무하다면 그 기호는 현실과 격리되어 또 다른 기호를 가리킬 뿐이다. 이것은 현실이 아닌 그 현실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 제도나 통념을 가리킬 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산지기를 통제하여 선영을 운영하는 문서들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유독 끄는 것은 이 문서에 담긴 내용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당시에 이 문서가 매개가 되어 소장자 집안뿐만 아니라 이 문서들의 발급자인 박판서댁(혹은 박보국댁), 그리고 이목동 인근의 산지기 등의 사람 등과 무엇보다도 선영 그 자체와, 장소가 얽혀 들어간 시공간적 의미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고문서 이해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너무 심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고문서에는 현행하는 문서와는 달리 선천적인 결여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망각을 운명이나 현실로 인정하면 훨씬 더 관용적이 된다. 마치 전혀 다른 문화에서 이방인으로 찾아온 어느 문화 인류학자가 다른 지방의 문서에서 흔히 느끼듯이, 자기 문화에서 문서에 대해 작동하는 해석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듯이 고문서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해석체가 망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역시 다른 문화권의 어떤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활 경험 등 여러 요소가 필요로 하듯이 잊힌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서 그 자체에 적힌 문자의 해독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출생의 한계 혹은 타고난 인간 능력인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어쩌면 문화 연구의 필요도 생기는 법이다. 그 인상이 잘 연결된 이야기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문서 이데올로기

고문서는 문자로 실린 텍스트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뿐 아니라 문서 그 자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고문서의 표지만 해도 벌써부터 저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을 걸어오고 있지 않은가. 실은 이 고문서가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것은 아니다. 말을 알아들을 법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말을 건다. 교통신호등의 빨간·초록·노란 불이 기호로서 말을 거는 경우는 그것을 기호로 알아보는 특별한 사람에 한정된다. 사실 그는 언제 어디선가 교통신호등의 체계에 대해서 조건반사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잊었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봐라. 따라서 아마도 지금보다는 당시에 이 문서는 비할 수 없이 훨씬 많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거는 것을 기호효과 혹은 문서효과라고 말하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다름 아닌 해석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해석체는 어느 사람이 모든 기호를 체험하는 데에는 이전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호인 문서도 그러므로 그러한 경험에 대한 선입견을 주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에 그다지 좋은 뜻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문서들의 형태나 형식, 내용에 이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서 이데올로기라는 명명이 그렇게 그릇된 것은 아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개념은 꽤 계보가 길다.

가장 먼저 미국의 언어학자인 실버스틴의 언어 이데올로기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6] 물론 그는 이 말에 어떠한 부정적인 뜻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를 기호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이는 웹 키인이다. 그는 "기호란 무엇이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전제"라는 개념으로 변모시켰다.[7] 언어를 기호로 확장시킨 것이다.

다시 대상의 범주를 더 확대한 매튜 헐은 도상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도상이데올로기는 "사용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도상품에 대한 일련의 관념들로서 어떤 물건이 물질로서 갖는 특성이 유의미하게 기호로 여겨지는지, 어떤 행위자가 그 특성에 관여되어 있는지(또는 관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물질적인 인과관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포함한다."[8] 다시 말해 매튜 헐은 기호에서 도상(graph)으로까지 이데올로기 개념을 확장시켰다. 기호 작용이 기입된 텍스트뿐 아니라 도상품(graphic artifacts) 전체가 된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꼼꼼히 읽거나 독해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형태에 대한 선입관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빼곡히 적힌 보험약관을 읽고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드물며, 아스피린의 몇 페이지에 걸친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복용한다. 이 모든 것이 문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서야말로 전형적인 도상품이며 여기서 문서 작용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기반을 문서 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데올로기에서 찾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였다.

더욱이 이 문서의 생김새는 처음부터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전통시대에 흔히 사용하는 고색창연한 종이에 한문으로 위에서 아래로 단정하게 당시에 썼을 것임에 틀림없는 글씨가 먹색이 투명하고 뚜렷하며 게다가 관인(官印)과 흡사한 정방형의 인기가 역시 관청문서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월과 일 사이에 찍혀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형식이나 규격이 관문서와 흡사하다. 하지만 정작 이 문서는 관문서가 아니라 개인이 발급한 사문서이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인상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어째서 사적인 용도로 발급한 문서가 국가에서 발급한 것인 척하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관문서가 아니므로 굳이 위조할 명분도 없다면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표 1〉에서 소개한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의 성책 고문서 안쪽에 있는 형태적인 혹은 심미적인 특징부터 알아보자. 이때 성책 고문서는 문서의 내용이 낱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면 십수 장 이상으로 나누어 적어 책 형태로 만든 문서를 말한다. 실제의 성책 고문서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기능적인 면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문서와 유사하다는 권위를 부여해 준다.

이 문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5장은 임진년(1892년)에 작성한 것이고, 그 뒤에 이후 계사년(1893)과 정유년(1897)에 작성한 것이 부록되어 함께 묶여 있다. 추가로 수록된 부분과 기존 절목은 이름도 '계사추절목(癸巳追節目)', '정유추절목(丁酉追節目)'이라고 붙여 '계사년에 추가된 절목', '정유년에 추가된 절목'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내용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며, 오히려 이와 같이 추가로 붙이는 관행은 성책 고문서가 갖는 특징이자 이용상의 장점이다.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와 같이 추가된 부분은 형식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임진년절목은 매장마다 3개 이상의 인서가 찍혀 있는 반면, 추가된 절목은 인서가 찍혀 있지 않고 종이의 재질과 색상도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성책 고문서는 '임진년절목', '계사추절목', '정유추절목' 3개의 절목이 합쳐져 이루어진 문서이고, 형식상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지만 여기서 멈추었다. 이는 더는 규정상의 큰 변화가 없이 변경된 규정이 지속되었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절목의 규정들이 더는 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문서에는 너무나 이상하면서도 중대한 특징이 있다. 문서는 발급자가 박판서댁이고 이 문서를 수급받은 사람들이 이목동의 산지기나 묘지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문서 분류로 보자면 사인(私人) 간에 주고받은 사문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형태는 얼핏 보면 관문서로 착각할 정도로 관문서의 형태와 형식을 띠고 있다. 관문서에서 주로 사용하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 제1면(수원박물관 제공)



임진년절목(수원박물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계사추절목(수원박물관 제공)





정유추절목(수원박물관 제공)



정유추절목(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곤 하는 노란색 표지, 정방형의 붉은 인기(印記)들이 문서에 몇 개씩 정렬되게 찍혀 있는데, 홀수 개로 찍혀야 한다는 규칙과 표지에 한 개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엄밀히 찍혀 있으며,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경우 줄을 바꾸어 가장 위칸에 배치하는 대두법(擡頭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대두의 대상이 '산소(山所)'였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소가 존엄의 대상일 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주로 대두법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례는 주로 왕을 포함한 존대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예외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다른 절목에서와 같이 한문 이외에도 언문으로 작성된 번역문을 그 뒤에 싣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볼 점인데, 이 번역문에서 '산소'는 역시 격자로 표기된다.

고문서 2점의 표지는 거의 같은 형식이라서 동시에 제작되었거나 개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문서의 제작 시기는 대한제국기라서 원칙으로 하자면 5침 장정이 맞을 터이지만 현재의 상태는 4침이므로 아마도 뒤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인기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가 일제강점기 때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5침이었던 것을 훗날 4침으로 다시 묶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마도 개장이 될 무렵 이 문서에는 원래 문서에 부여된 관문서인 척하는 요소는 사라지고 오직 기능적인 면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서에 기능적인 면 이외에도 권위를 보여 주는 심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심미적인 요소는 첫인상과 같은 것이어서 일단 권위로서 받아들여지고 나면 기능적인 면만이 남을 것이다.

반면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형식으로 생산된 또 하나의 성책 고문서인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에서는 앞의 절목과는 달리 임진년(1892년) 한 해만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묘제를 치를 때 사용되는 제물과 제기 등의 물품만 기재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역시 매장마다 3개 이상의 인기가 찍혀 있다. 형식이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과 흡사하다. 그 인기는 크기가 세로×가로=8×8(㎝)의 정방형으로 '병조지인(兵曹之印)'이다. 이 역시 위격으로 병조가 아닌 사가에서 관문서의 형식을 흉내 낸 일종 가짜 문서임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묘제를 지내는 대상이 되는 산소(山所)와 산신(山神)이 각각 1위임을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물품은 산소이다. 이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였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산소가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불과 120년 사이에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산소는 지금 어느 자리를 가리키는가? 확인된 것이 없다.

이 문서의 제목에서 수원 형석면 이목동이라고 이 문서의 수급처를 적고 있는 것으로 미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 속표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루어 볼 때 이 문서의 발급자인 박팔서댁이 수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수원이었다면 굳이 수원을 쓸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그 대신 이 표지에는 '죽동(竹洞)'이라는 발급 지역과 '임진년'(1892, 고종 29) 정월이라는 발급 시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죽동은 "현재 중구 을지로2가·을지로3가·수표동·장교동·저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대나무와 대그릇을 파는 죽전이 있어 대전골이라 하고 이를 한자명으로 죽동이라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9] 여기서 죽동이라는 지명은 배지(牌旨)에 '장교(長橋)'라고 쓰여 있는 것과 짝을 이룬다. '장교'는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명동이 관할한다. 청계천의 장통교와 삼일교 사이 구간의 남쪽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종로구 관철동과 마주하고, 동쪽으로는 수표동, 서쪽으로는 삼각동·수하동, 남쪽으로는 을지로2가와 접한다."[10] 이 두 가지 지명은 거의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즉 서울이다.

교통신호등의 형태와 작동을 찬찬히 체계적으로 살피고 난 뒤에 그 불의 변화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 색들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충 보는 듯하지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가차 없고 엄격한 명령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며 가끔은 교통신호 딱지를 집으로 통고받고 가슴 아

파하고 또는 교통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그것을 어긴 형벌을 몸소 병원에서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이미 그것은 권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채찍을 통해 깊이 길들여 있다.

아마도 이 문서를 받은 수급자들은 이 문서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그 겉모습만 보고 우선 명령에 복종부터 하고자 마음먹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것은 내용을 읽기 이전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문서들의 첫인상은 일단 당시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명품을 손에 들고자 하고, 외모를 고치려 성형외과를 들락거리며 되도록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런 물품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4. 산지기의 계모임

앞서 소개한 3점의 문서 중에서 배지(牌旨)를 빼고 나머지 두 문서는 모두 2가지 언어로 쓰여 있다. 하나는 한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번역문인 언문이다. 언문은 한문을 돕는 글에서 시작하였다. 물론 오늘날 언문은 국한문 혼용을 거쳐 한글로 독립하였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보조적인 지위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한문과 번역어인 한글 두 가지 언어로 쓰는 전통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문서정책에서 기원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를 배려한 것이다. 특히 언문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더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문과 언문의 병기는 두 언어 사용자 신분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언문은 처음에는 "어린 백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류층 여성으로부터 그와 소통하기 위한 남성(남편이나 자식들)을 거쳐 하층민으로 퍼져 나갔을 것이다. 평민들이 언문을 어느 정도 익혔는지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한문 사용자보다는 더 광범위한 신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이 문서의 제작자 측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이 문서가 노리는 언문 사용의 효과는 분명하다. 이 문서는 일차적으로 묘지기와 산지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문서의 수급자들이기 때문이다.

묘지기와 산지기는 크게 수원에 속하는 사람들과 광주(廣州) 곡사근평(谷肆覲坪)에 속하는 사람들로 나뉘는데 미륵당(彌勒堂)을 경계로 한다. 곡사근평은 광주군 왕륜면 사근평으로, 현재 의왕시 오전동 지역 쪽을 가리킨다. 수원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곧 이목동에 속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묘지기인 김노용기(金奴用己) 1명, 산지기인 최흥업(崔興業), 배도치(裵道致), 이춘명(李春明), 이명준(李明俊), 염성학(廉聖學) 등 5명이며, 이노미(李老味)는 부기





절목에 기록된 묘지기와 산지기 명단(수원박물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되어 있다. 곡사근평은 장억만(張億萬), 김자근길(金自斤吉), 배상근(裵尙根) 등 3명이며 이부성(李夫成)이 부기되어 있다. 이것은 뒤에 붙은 인원이다. 수원 쪽의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이목동 쪽의 산지가 상당 부분이고 곡사근평 쪽은 그보다는 더 적은 영역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절목은 이들 인원을 조직하는 방식과, 이들을 통해 선영을 조성 관리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묘직은 주로 묘의 관리와 산의 관리를 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선영 관리가 결코 무덤에 관련된 좁은 범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영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서원의 설립과 더불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식적인 특권 중 하나였다. 이것은 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통용되던 관념이자 이념인 효(孝)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이것이 특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묘를 조성한다는 좁은 개념 때문만은 아니고, 묘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수되는 묘 주위의 이른바 송추권(松楸權, 소나무와 가래나무로 대표되는 토지와 결부된 조경권), 그것을 관리하는 묘지기, 산지기들의 탈역권(頉役權)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양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클수록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묘소 주위에 관할할 수 있는 영역도 커졌다. 그 영역은 조선 초기에 규정된 국조오례의에 원래 규정된 좁은 범위의 수호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는 풍수사상과 결합되어 좌청룡 우백호의 범주로 확대되고, 그뿐만 아니라 국(局) 내 중에서도 외청룡, 외백호의 범위까지, 급기야 그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장동 김씨와 같은 권세가의 경우 가묘(假墓)를 써서 어느 산 전체를 차지하는 집안도 있었다.

이러한 특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관리하는 산지기의 탈역자 수까지도 결정하는 데 미쳤다. 따라서 탈역자 수도 예컨대 권벌가의 경우 2~5명까지 고을 수령과의 겨루기를 통해 결정되고, 이황 종손가의 경우 10명, 송시열 집안의 경우 30명으로 각기 주장하는 수가 달랐다. 심지어는 묘촌을 형성하여 묘 아래의 고을민 전체를 군역이나 잡역의 탈역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일은 점차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대원군이 서원 철폐와 더불어 단행한 일이 묘촌의 탈역권 철폐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1]

그 결과 묘촌의 탈역권을 수령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게 된 유력한 양반들은 다른 방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도가 존본취식(存本取息)이다. 존본취식이란 양반가에서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이식행위를 하게 한 뒤에 본존을 보존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자들을 묘제나 선영의 관리에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장동 김씨의 경우 충청도 홍성군 성호리에 선영을 조성한 뒤에 존본취식의 방식을 택하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수원의 이목동은 이와는 약간의 방법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쓰는 데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문서이다. 문서 없이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대개의 문서처럼 발급 목적 내지는 사유를 가장 앞장 첫머리에 제시하였다. 이것을 기두사라고 하는 데 이 문서에서는 조금 길다.

> 위의 절목을 작성하는 일은 묘직과 신직들이 산소에서 역에 응하는 것은 대단히 많고 번거로워서 순산(巡山)·제초(除草)·식목(植木)·산역(山役) 외에도 다른 허다한 일을 하여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니, 자신의 뜻을 보여 주는 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중략) 산소에서 응역할 때의 술값이고, 또 묘직 산직의 애경 부조의 일을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12]

이와 같이 이 문서는 처음 발급되었던 1892년에 묘직과 산직에 대한 응역 규정을 묘지기와 산지기에게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절목을 통해서 박판서댁과 묘지기와 산지기들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취한 조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서의 발급자이자 명령자인 박판서댁에서 특별히 당오전(當五錢)으로 100냥을 내는 한편 묘지기 1명과 산지기 8명으로 하여금 계를 설립하게 하여 본존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만 취하는 존본취식(存本取息)의 방식으로 얻은 이자를 계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다.
> 2) 구체적으로 하면 묘지기와 산지기의 호포(戶布)와 제사에 쓰이는 각종 주가(酒價)와 노비(路費), 그리고 그들의 애사(哀事)와 경사(慶事) 시 부조금 등을 충당하도록 한다.
> 3) 한식(寒食)과 추석(秋夕)의 두 절사(節祀)를 여러 산지기가 새벽녘에 의관을 갖추고 모두 도착하여 거행하고 제사를 끝난 뒤에 돌아갈 것을 고한다.
> 4) 매일 산을 순시하며 여러 산직들은 순산패(巡山牌)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거행한다.
> 5) 처벌 규정은 계전(稧錢)을 분급할 때 반드시 세 명의 보증인을 받고, 혹시 기한을 넘기고 갚지 않으면 계임(契任)이 본댁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려서 받아낸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직의 임무는 대체로 "순산(巡山)·제초(除草)·식목(植木)·산역(山役)" 등의 일이다. 순산은 하루에 한 번 돌아가면서 산을 순행하면서 감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때마다 순산패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이목동의 현실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누가 무덤에 제사를 지냈을까? 절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은 묘지기와 산지기의 일이다. "한식과 추석 두 절사는 여러 산직이 새벽에 의관을 갖추고 모두 도착하여 거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지기들의 신분과 관련된다. 이들은 최소 의관을 갖출 정도의 신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 우선 여기에 제시된 산지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묘직과 산직에 대한 응역 규정(수원박물관 제공)



묘직과 산직에 대한 응역 규정(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제물 발기(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제기 발기(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제기 발기(수원박물관 제공)

의 인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명이다. 이 숫자는 산지기들을 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최소 호수이다. 다시 말해 상여를 질 수 있는 최소 인원이기에 동시에 마을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기 때문이다.[13]

절목에 따르면 이들은 호포의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애사와 경사를 치르는 주체이다. 이들은 이러한 기술만으로도 생활적인 자립을 전제로 한 자율적인 집단으로 구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판서댁에서는 오늘날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기 집안의 묘소 1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묘지기와 산지기의 자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영원히 대리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이 주제와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관(官), 다시 말해 관할지역 수령의 개입 여부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서울에 있던 양반 집안이 그 지역에 부재할 경우 이와 같이 존본취식의 방식을 택하고 그 결산을 봄과 가을 2번의 계회에서 시행하는 점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필요한 힘을 그 지역 수령의 공권력에 기대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존본취식에 필요한 강제력을 관에 고지하여 수령의 권력에 이용하는 대신, 계임(契任)이 본댁인 박판서댁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두드러진다.

이 제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대충의 절차와 규모는 짐작해 볼 수 있다. 항목은 크게 제물과 제기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두 상을 차리는데 하나는 묘제상이고, 다른 하나는 산신상에 차린다. 제물(祭物)과 제기(祭器)는 〈표 2〉와 〈표 3〉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2> 제물(祭物) 발기

제물	내용	
병(餠) 1그릇	쌀 5되, 적두대미 병입	송병(松餠) : 위의 떡은 약간 작게 만든다.
면(麵) 1그릇		
밥 1그릇	쌀 1되	산신의 경우 없다.
국 1그릇	소고기, 포태(泡太, 두부)	
육탕 1그릇	소고기, 미역, 청근(菁根)	
어탕 1그릇	한식에는 저합(苧蛤)을 쓰고 추석에는 북어 2마리	
간남(干南) 1그릇	전유어(煎油魚) 2마리, 소고기, 계란 5개	
육회(肉膾) 1그릇	콩팥 혹은 천엽	
포 1그릇	3조	
식해 1그릇	쌀 1되	
해(醢) 1그릇	백하해(白蝦醢)	산신의 경우 없다.
좌반(佐飯) 1그릇	조기 2마리	
적(炙) 1그릇	닭 1마리, 한식, 추석	
침채(沈菜) 1그릇	청근(菁根), 근(芹)	숙채 소용
숙채(熟菜) 1그릇	청근, 초자근	
과(果) 4그릇	산자(散子) 1그릇	20립
	생율(生栗) 1그릇	30되
	대조(大棗) 1그릇	1되 5홉 혹은 생리 10개
	건시(乾柿) 1그릇	한식에는 건시 2곶, 추석에는 생리 10개, 생시 10개
청장(淸醬) 1그릇		
조장(醋醬) 1그릇		
술 1잔	대미(大米) 1되	
참기름		
산소 1위	한식에는 백미 9되, 추석에는 백미 9되	
산신 1위	한식에는 백미 8되, 추석에는 백미 8되	
도합	한식에는 백미 1말 7되, 추석에는 백미 1말 7되	양 절기 합계 쌀 3말 4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3> 제기(祭器) 발기

제기	내 용
유발이(덮개) 1좌	국그릇(덮개) 1좌, 잔(대) 1좌, 대접 1좌, 시저 각 1건, 남저 1건
철석쇠 1건	
사향로 1좌	향합 1좌, 제주병 1좌, 잔(덮개) 1좌, 탕기 4개(면기 1, 탕기 2, 곰탕기 1), 접시 17개(과접시 4, 혜접시 1, 회접시 2, 소접시 2, 포접시 1, 공접시 7), 보아(甫兒) 2개, 종자 5개(청장종자 1, 초장종자 1, 계자종자, 1, 생청종자 1, 공종자 1)
목편기 1좌	계상 1좌, 가자 1좌, 목판 1건
제기축롱 1건	
제물행담 1건	
배석 1위	
좌면유지 2장	
식지 2장	
유둔 1건	
백목최일 1건	
목두지 1좌	
자물쇠 1건	
제상수건 1건	
사도 2병	
순산패 1건	

이와 같은 상차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문제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게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책을 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산지기를 통해 대행하고 있는 절사가 매우 풍요롭게 차려지고 있다는 것은 박판서댁의 신분이 높고 위세 있는 집안이라는 방증이다. 절사는 일반적으로 추석쯤에 1년에 한 번 세일제로 가늠하는 것이 보통이며, 한식까지 챙기는 것은 이 집안의 재력과 위세를 가늠하게 한다.

다시 이 문서를 통해 이와 같은 존본취식으로 산지기 계를 통해 선산 경영을 유지하는 체제가 실시된 이후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존본취식을 하는 기록장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을 뿐 매우 단기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역전출급전(身役錢出給秩)'에는 임진년(1892년)과 정유년(1897년) 단 2년의 기록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분명치 않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박판서댁에서 다시 발급한 배지 1점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듯하다.

5. 고문서의 주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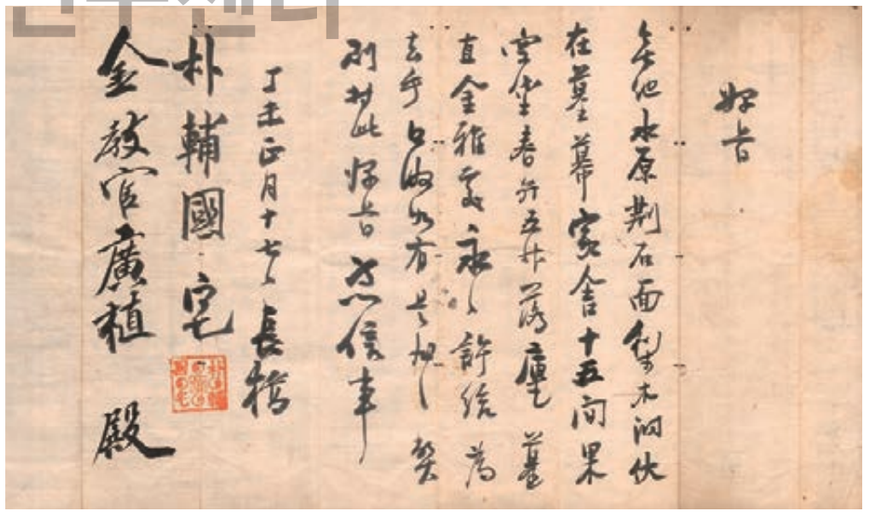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문서는 1907년에 생산된 「배지(牌旨)」이다.

배지(牌旨)
다름이 아니다. 수원 형석면 이목동에 있는
묘막의 가사 15칸과 가대(家垈) 춘모(春牟) 5되지기(升落只) 곳을
묘지기 김아(金雅)에게 영원히 주니, 일후에 만일 시비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배지를 가지고 증빙할 것임

정미년 정월 17일 장교(長橋)

박보국댁 [박보국댁신(朴輔國宅信)]
김교관광식(金敎官廣植) 전(殿)

배지는 통상 양반이 토지 매매를 할 때 노비나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는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 박보국댁(朴輔國宅)에서 교관(敎官) 김광식(金廣植)



1907년 「배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박보국댁신(朴輔國宅信) 인영

에게 묘막의 가사(家舍)와 매년 춘모(春牟) 5되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의 땅을 허급해 주고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대항 권력으로 인정하기 위해 발급된 증빙문서이다. 이쯤 되면 배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양반 집이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직접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대리자에게 보증하면서 발급한 일종 에이전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여한 물자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할 목적으로 한 증빙문서라고 개정해야 한다.

이 문서의 존재는 형식에서 조선시대 문서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殿'이라는 일본식 표기를 쓴 것 이외에도 말미에 발급자와 수급자를 동시에 쓰고 있다. 이 문서를 통해 '위에서 묘지기와 산지기로 구성된 계를 결성하여 존본취식에 의존하는 체제가 그사이 와해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배지의 수급자인 김광식은 이 문서들의 기증자인 고 김인기(金麟基, 1915~2013) 어르신의 작은할아버지이다. 김인기의 본관은 경주이고, 선조 대부터 이목동에서 세거하였다. 한 마디로 이 마을 토박이 중의 토박이이다. 선조의 묘소들도 이 골짜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인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런데 박판서댁의 선산 경영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역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묘지기의 신분에 변화가 보이기 때문이다. 지면상으로 종(奴)의 신분이었던 묘지기가 여기서는 교관(教官)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교관은 대체로 향교에서 학동들을 가르치는 동몽교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현실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전에 '김노용기'로 표기된 사람과 김광식의 관계가 핵심이다. 이것을 분명히 규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아 있지 않다. 김노용기가 김광식 집안 아래에 있던 사람일 수 있고 혹은 김노용기를 대신하여 김광식 집안이 새롭게 대신한 사람일 수 있다. 묘지기가 묘제를 거행하는 사람이므로 지체 높은 양반가에서는 가능한 한 되도록 신분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오히려 김인기 선생의 습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습관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광식 묘막 추정지(『임야조사부』, 이목리 산19번지)

김인기 옹은 1930년 수원공립보통학교(신풍초등학교의 전신)를 졸업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 농과대학 전신) 부설 실업보습학교에 진학하여 1932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수원군 반월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이후 경기도 지방산림주사와 서울대 농과대학 임업기사로 근무하였다. 1970년 정년퇴임 후 20여 년간 고향 이목동에서 개인농장인 청은농원(靑隱農園)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아쉽게도 농원을 정리하고 정자동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14]

그의 일생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름 아닌 끊임없는 기록정신 혹은 문자정신이다. 본인이 기록하고 또 기록된 것을 모으는 습관이 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지만 강한 습관은 사실상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일종 집안 내력과 직업을 통해 생겨났을 것이다.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이 마을에 자기 선조들을 대대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집안이 유학(幼學)으로 자처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분적인 현실과는 별도로 자기 집안의 자존성을 별도로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문서에 표기된 '교관(教官)'이라는 직명이 이를 말해 준다. 따라서 발급자도 그를 대우하여 '김아(金雅)'라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소 높은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배지에서 형태상 눈에 띄는 것은 '박보국댁(朴輔國宅)'이라는 택호와 그 아래에 찍힌 붉은색 인기(印記)일 것이다. 이 배지에도 다른 문서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권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기 집안을 나타내는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보국댁이라는 택호 아래에 자기 집안만의 성함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박보국댁이 과연 어느 집을 가리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을 구명하느라 이 글이 늦어졌지만 아쉽게도 이 집이 어느 집인지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였다. 보국이란 보국숭록대부를 받은 집안을 가리키고, 보국숭록대부는 문산계 중에서 정1품 하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1품의 벼슬을 받는 집안은 그렇게 많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죽동에 사는 박보국댁으로 한정한다면 이 집안을 지칭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처럼 보였다.

박판서댁이 현실적으로 어느 집안인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우연히 의왕시 오전동에 살았던 반남 박씨 집안의 사손인 분과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매우 신빙성 높은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박보국댁이나 박판서댁이 자기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어려서부터 보국댁이라는 지칭은 가끔, 박판서댁은 매우 익히 들으셨다고 한다.

덧붙여 자기 집의 경저가 이 문서에 표기되어 있듯이 죽동(竹洞)이었다는 증언도 아끼지 않으셨다. 자기 경저의 옆집이 대구 서씨인 서유구 집안이었다고 하며 자기 집안의 당색은 소론이었다는 말을 해 주었다. 박판서댁이라는 택호는 어디서 유래했냐는 질문에 이때 박판서는 호조판서를 역임한 바 있는 박사수(朴師洙, 1686~1739)를 가리킨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들을 메일로 보내어 보여 드리자 박 선생님은 매우 의아하다는 태도를 보이셨다. 자기 집안의 선산을 자신이 몰랐을 리 만무한데 오전동이나 이목동에 자기 집안의 선산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집의 묘역은 현재 의왕시 백운저수지 인근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증언이었다. 문서로도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문서들의 온 것은 모두 서울이었으므로 굳이 가까운 곳에 사는 주인이 그런 번거로움을 일삼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박 선생님 집안의 서자들이 본손을 참칭하여 이권을 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박 선생님은 말을 이으셨는데 아버님이 서자 집안과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가르침을 따라 항상 잘 지냈다고 한다. 지금 그들의 소식을 묻자, 소식을 끊고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러한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 절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 고문서가 본손 모르게 박대감댁을 사칭한 것은 아닌가 하는 혐의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박 선생님 말씀은 이 문서의 글씨가 본손 집안사람들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였다.

아마도 이목동을 포함한 인근이라면 박대감댁의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망족(望族)이라면 이름만으로도 행세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묘주가 굳이 누군지 밝히지 않더라도 서족(庶族)으로서 이웃한 본손인 박대감댁을 무난히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코 이들이 자신을 이 집안사람이라고 자처한다 하여도 사실상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모자란 것도 아니다. 다만 본손 집안에서 지금까지 아마도 서족 집안들이 자신의 선산을 자기 선산 그 너머 지역에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문서를 통해 알아차렸다는 사실에서 매우 당황스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반남 박씨 집안에서 박보국댁으로 일컬을 수 있는 또 한 집안을 꼽았다. 박정양 집안이었다. 그 집안의 묘소가 과천에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다만 『토지조사부』에 등장한 일제강점기에 수원면장을 역임한 1865년생 박세양(朴世陽)에게 주목하여 박정양 집안과 한 집안으로 놓고 보고자 하였지만 이분이 박정양 집안에 속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지번에서도 산을 소유한 전력이 없었다.

지금도 박보국댁이 어느 집인지 알 수 없다. 인근 산에 올라 함양 박씨의 어느 분 묘표를 만났고 그 산지를 크게 소유하였다는 말을 이웃한 주민에게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집이 박보국댁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후에 산지 소유의 이력을 좀 더 조사해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6. 맺음말

이 글의 청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처음부터 무리였다. 무엇보다 제시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료가 너무 적었다. 이 고문서 3점 외에 이를 이해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자원으로 삼을 만한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증거로서의 글을 뜻하는 문(文)은 물론이거니와 증인을 뜻하는 헌(獻)도 남아 있지 않았다. 오늘날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린 이목동 아랫말을 지나 아파트촌이 되는 것을 간신히 면하고 근대화의 풍상을 이겨내며 여전히 많은 토박이가 그대로 살고 있음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윗말로 들어가 보더라도, 이런 곳에서 어떻게 불과 백 년 전에 이 같은 산지기 이야기가 생산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해 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 문서 외에 유물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삼봉산 어딘가에 이 고문서들을 존재하게 하였던 근원이 되는 그 묘소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사실 지금도 어쩌면 파묘된 터만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사실상 이 묘소야말로 이 모든 현상의 연기를 가능하게 하였던 물질적 근원이다. 이 묘소가 없었다면 이 같은 고문서들도, 수많은 묘지기나 산지기도, 또 그 많은 제물과 제기도, 또 한식이나 추석 제사도, 또 이를 보존하기 위해 존본취식의 행사를 하였던 그들의 계모임도, 또 뒤에는 산지기의 집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이미 감쪽같이 종적을 감추었고 문서들만 남아 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곳을 박보국댁이 적극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명당 자리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 문서들에 들었던 최초의 의문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어째서 하필 이 3점인가 하는 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장자가 마지막까지 이 3점을 깊이 보존하였던 까닭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3점은 1900년 그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뿐만 아니라 소장자 집안의 역사와 존재를 드러내는 소중한 물품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절묘하게도 이 3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이 신기루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 즉 묘소, 묘소의 제사와 경관의 보존에 필요한 사람들 및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그리고 제기와 제물 등 제사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처럼 딱 사건의 골격만 남긴 이 3점의 고문서들은 내 능력을 포함한 지금까지 밝힌 한계 때문에 성공적인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가 끝이 아닐 것이다. 아마 미래의 어느 사람이 이 문제를 푸는 데에 다시 도전하리라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우리 지역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

註

1. 김혁, 「안동 李庭檜 집안 소장 '墓直頉役完文'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족특권의 성격」, 『법사학연구』 31, 2005;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완문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김혁, 「19세기 사족층의 '先塋景觀' 조성과 그 의미」,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김혁, 「18-19세기 향약의 실천과 사회관계의 변화-충청도 결성현 포구 마을 성호리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위의 글들에서 필자는 선영을 둘러싼, 혹은 주위 경관의 조성에 대한 권리를 서원의 건립과 경영과 더불어 양반의 전형적인 특권의 하나로 해석한 바 있다.
2. 브뤼노 라투르, 장하원, 홍성욱 책임 번역, 「2장 순환하는 지시체 : 아마존 밀림에서 흙 표본을 추출하다」, 『판도라의 희망-과학기술학의 참모습에 관한 에세이』, 휴머니스트, 2018.
3. 박성호 외, 『한국고문서입문 1』, 국사편찬위원회, 2020, 14쪽.
4. Webb Keane, "Semiotics and the social analysis of material things", *Language & communication,* Vol. 23(3), 2003.
5. Webb Keane, "On Semiotic Ideology", *Signs and society*, Vol.6, 2018.
6. Michael Silverstein,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In The Elements: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edited by Paul R. Clyne, William F. Hanks, and Carol L. Hofbauer.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9.
7. Webb Keane, "On Semiotic Ideology", *Signs and society,* Vol.6, 2018.
8. Matthew S. Hull, *Government of Paper: The Materiality of Bureaucracy in Urban Pakist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p.12.
9. 「죽동」, 『서울지명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722&docId=405280&categoryId=43722).
10. 「장교동」, 『서울지명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722&docId=404974&categoryId=43722).
11. 김혁,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완문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12. "右節目事段, 墓直·山直輩之應役於山所, 甚是浩繁, 巡山也·除草也·植木也·山役也外, 他許多事役, 不一其端, 則不可無示意之擧, 故特出一百兩錢, 使墓直·山直設立一契, 立本息利 …… 以爲山所應役時酒價是遣, 且墓直山直之哀慶扶助之節亦不可不念."
13. 정승모, 「장례와 관련한 동계의 변화와 '유학'계: 19세기후반 이후의 경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1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14. 김세영, 「수원토박이 김인기 옹의 자료수집과 기록정신」, 『기증유물로 보는 수원』, 수원박물관, 2010, 309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3장

근현대 이목동의 사회·경제적 변화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한말~일제 초기 이목리 거주 호수와 성씨[1]

20세기 초반에 작성된 『민적부』를 토대로 이목리 거주 호수를 살펴보면, 당시 이목리에는 총 55호가 확인된다〈표 1〉.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강릉 유씨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전체 55호 중 무려 22호가 강릉 유씨로, 이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이목리에서 강릉 유씨가 사실상 집성촌을 형성하며 마을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강릉 유씨 일가가 여러 갈래로 분가하여 마을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릉 유씨 다음으로는 경주 김씨와 전주 이씨가 각각 5호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의 9% 비중으로, 강릉 유씨에 비하면 소수지만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며 마을 내에서 존재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흥 민씨가 3호로 뒤를 잇고, 연안 김씨, 여산 송씨, 인동 장씨, 연안 차씨, 청주 한씨, 남양 홍씨 등이 각각 2호씩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김해 김씨, 안동 김씨, 밀양 박씨, 함양 박씨, 고창 오씨, 거창 유씨, 한양 조씨 등은 각 1호만을 차지하여 소수 성씨로 분류된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 보면, 이목리의 성씨 구성은 특정 대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분포하는 구조이다. 특히 상위 세 성씨인 강릉 유씨(22호), 경주 김씨(5호), 전주 이씨(5호)를 합치면 총 32호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에 달한다. 이는 마을 내 세력 구도가 몇몇 성씨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목리는 20세기 초반에 강릉 유씨를 중심으로 경주 김씨와 전주 이씨가 보조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는 곧 마을의 혈연적 결속이 매우 강하게 작동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강릉 유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이목리의 마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표 1> 한말-일제 초기 이목리 호주 명단과 호수

성씨	호수	비율(%)	호주 성명
경주 김씨	5	9.09	김문기, 김춘식, 김학원, 김학정, 김학증
연안 김씨	2	3.63	김긍연, 김학수
김해 김씨	1	1.82	김현수
안동 김씨	1	1.82	김훈경
여흥 민씨	3	5.45	민명호, 민영대, 민영조
밀양 박씨	1	1.82	박정학
함양 박씨	1	1.82	박수명
여산 송씨	2	3.63	송성호, 송주섭
순흥 안씨	1	1.82	안경해
고창 오씨	1	1.82	오은상
강릉 유씨	22	40.0	유경열, 유달종, 유영만, 유영헌, 유원종, 유은순, 유임종, 유재남, 유재달, 유재덕, 유재두, 유재만, 유재삼, 유재성, 유재억, 유재영, 유재정, 유재택, 유태열, 유택종, 유학종, 유한종
거창 유씨	1	1.82	유응조
전주 이씨	5	9.09	이병규, 이사덕, 이양수, 이은정, 이의수
인동 장씨	2	3.63	장서호, 장순형
한양 조씨	1	1.82	조덕재
연안 차씨	2	3.63	차관식, 차면식
청주 한씨	2	3.63	한정이, 한종교
남양 홍씨	2	3.63	홍병목, 홍익순
계	55	100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였음을 알려 주는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 1913년 건립된 이병규 선심비(善心碑)이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이 비는 1913년(대정 2)에 이장 김학원(1890~1941)이 세운 것이고 글은 정언 유재두(1856~1934)가 썼다.

〈앞면〉

里長 金學元 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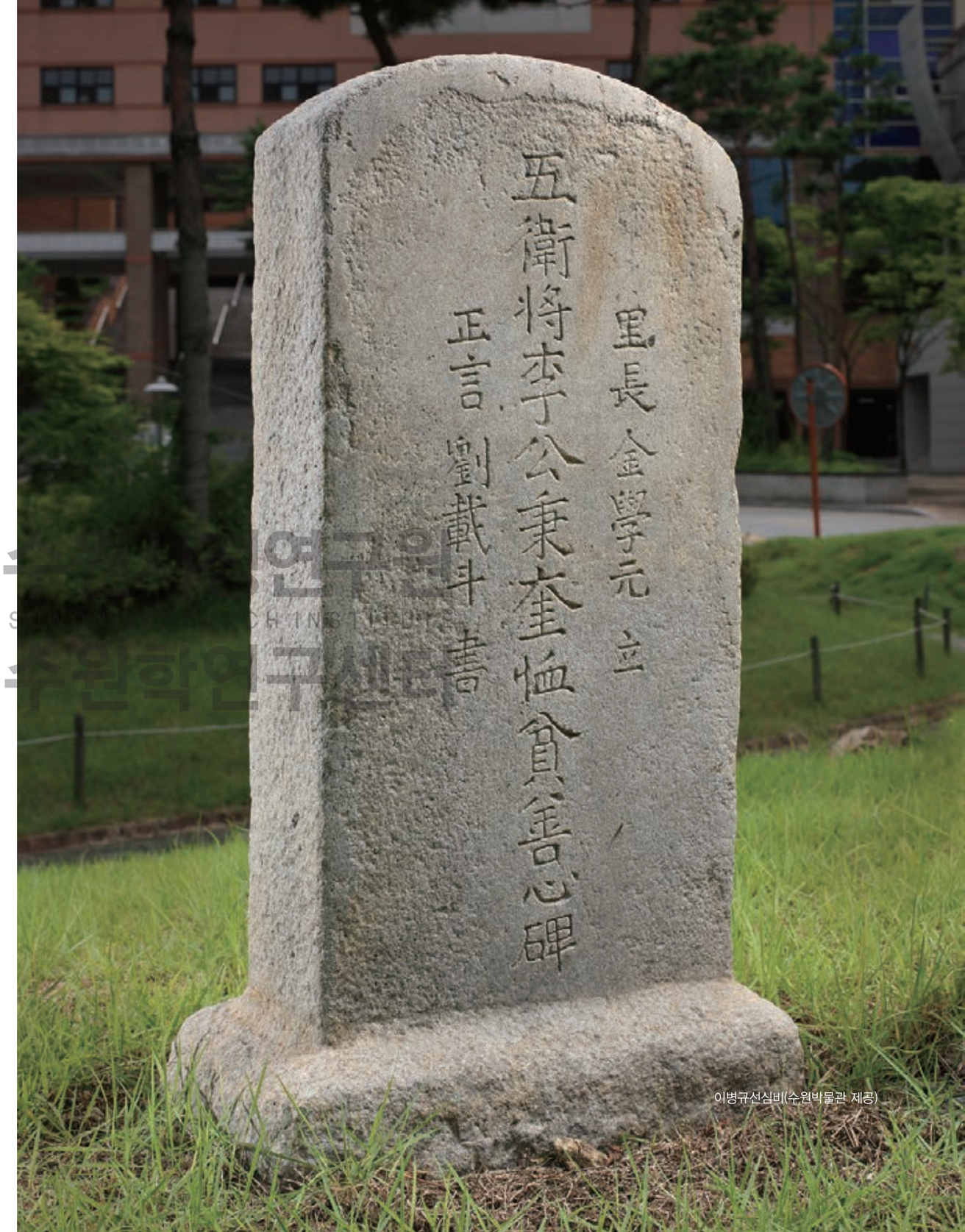
五衛將李公秉奎恤貧善心碑

正言 劉載斗 書

〈뒷면〉

大正 二年 癸丑 十月 日

水原郡 荊石面 梨木里



이병규선심비(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조선 말기에 오위장 벼슬을 역임한 이병규(1849~1934)가 1890년 무렵, 흉작으로 기근이 있을 때 사재를 풀어 마을 주민들을 구휼하였고, 그 공적을 기려 1913년 당시 이장이었던 김학원과 주민들이 이목교 옆에 선심비를 세웠다고 한다. 이렇듯 마을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주 이씨인 이병규, 경주 김씨인 김학원, 강릉 유씨인 유재두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세기 초반 이목동 거주자와 대지 소유자

연번	지번	거주자(호주) 성명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이목리 45번지	유재남	이병운	파장리
	이목리 47번지	유원종, 유재억		
	이목리 55번지	유임종	이휘래	파장리
	이목리 57번지	유태열	민의호	경성부
	이목리 59번지	유영만	유재형	이목리
	이목리 60번지	유재택	한익교	이목리
❶	이목리 63번지	유택종, 박수명, 유재만, 한정이	한익교	이목리
	이목리 64번지	유재성	유재성	이목리
	이목리 67-1번지	유재두	유재덕	이목리
	이목리 70번지	유재영, 유재달, 유경열	한익교	이목리
	이목리 72번지	유학종	유학종	이목리
	이목리 73번지	유달종	유건종	이목리
	이목리 75번지	유재덕	유재덕	이목리
	이목리 124번지	김학수, 유은순	용덕원	송죽리
	이목리 136번지	김춘식	김학원	이목리
	이목리 139번지	김학원	김학원	이목리
❷	이목리 140번지	유재삼	유재삼	이목리
	이목리 141번지	유한종	유재희	이목리
	이목리 191번지	김학증, 유영헌	이병운	파장리
	이목리 193번지	김문기	김광식	이목리
	이목리 194번지	유재정	유재정	이목리
	이목리 245번지	한종교	한익교	이목리
❸	이목리 265번지	홍병목, 홍익순	홍병목	이목리
	이목리 270번지	차관식	이창래	파장리
	이목리 279번지	오은상	박덕경	이목리



20세기 초반 이목동 거주지 분포(1966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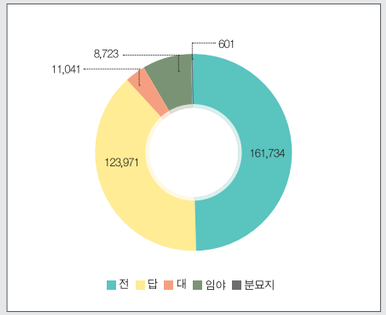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연번	지번	거주자(호주) 성명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❸	이목리 283번지	이병규	이병규	이목리
	이목리 284-2번지	박정학		
	이목리 286번지	김학정	조존규	정자리
	이목리 295번지	장서호	장서호	이목리
	이목리 301번지	장순형	장재응	이목리
	이목리 323번지	김현수, 최백흥	안양리	이덕회
❹	이목리 383번지	송주섭, 유응조, 이양수	유윤구	황해도
	이목리 392번지	민영대, 이의수	이병구	파장리
	이목리 393번지	송성호, 민명호, 조덕재, 최순봉	이병구	파장리
❺	이목리 403번지	이은정	조의현	정자리
	이목리 426번지	안경해, 이사덕	이사덕	이목리
	이목리 427번지	김긍연, 김훈경	정인소	목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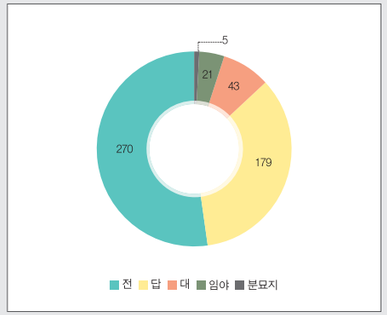
『민적부』와 『토지조사부』를 비교하면, 이목리에서는 거주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가 병존한다. 거주자와 대지 소유자가 일치하는 사례는 유재성(64번지), 유학종(72번지), 유재덕(75번지), 김학원(139번지), 유재삼(140번지), 유재정(194번지), 장서호(295번지), 이병규(283번지), 이사덕(426번지), 홍병목(265번지) 등이다. 이에 비해 거주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른 사례는 45번지 유재남(거주)-소유자 이병운(파장리), 57번지 유태열(거주)-소유자 민의호(경성부), 60번지 유재택(거주)-소유자 한익교(이목리), 124번지 김학수·유은순(거주)-소유자 용덕원(송죽리), 270번지 차관식(거주)-소유자 이창래(파장리), 286번지 김학정(거주)-소유자 조존규(정자리), 427번지 김긍연·김훈경(거주)-소유자 정인소(목감리) 등이다.

2. 일제 초기 이목리 토지 이용 및 소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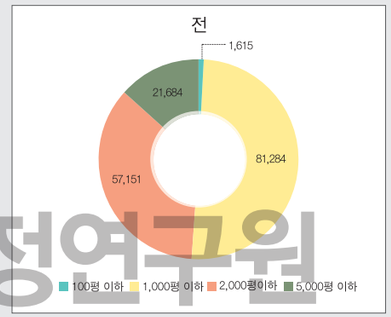
〈표 3〉은 1911년 조사된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이목리 지목별 및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과 비율을 정리한 것으로, 각 토지는 전(田), 답(沓), 대(垈),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로 구성되어 있다. 이목리 전체 토지 면적은 32만 3,115평으로, 이 가운데 전이 16만 1,734평(50.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목리의 토지 이용이 밭 중심의 농업임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답이 12만 3,971평(38.3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과 답을 합치면 전체의 약 88%에 달한다. 즉, 이목리는 논과 밭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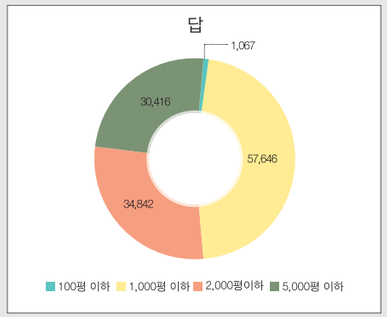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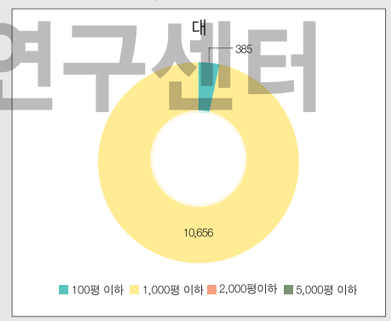
이목리 지목별 토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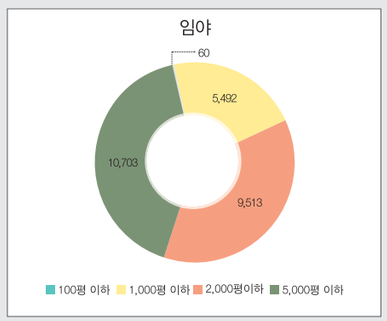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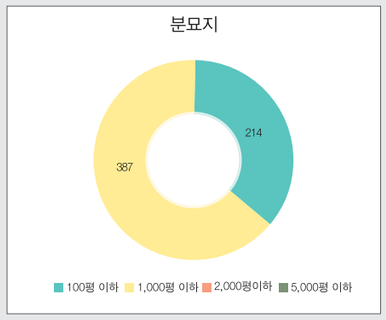
이목리 지목별 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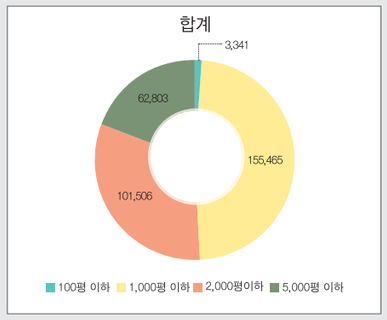












이목리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단위 : 평)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면모를 갖추고 있다. 반면 대는 1만 1,041평(3.42%), 분묘지는 601평(0.19%)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불과하다. 단 임야는 1911년 토지조사에서 확인된 면적만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이목리의 임야 면적은 『임야조사부』에 기록된 면적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목리는 국공유지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임야 4필지(이목리 201번지와 310번지, 313번지, 369번지)는 이목리 소유였다. 마을 주민들은 한말에 이병규의 기부로 이 임야가 마을재산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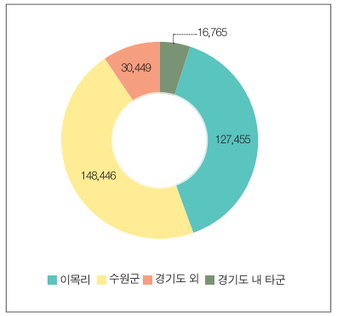
<표 3> 이목리 지목별 및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 구성

구분	전		답		대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100평 이하	1,615	1.00	1,067	0.86	385	3.49
1,000평 이하	81,284	50.26	57,646	46.50	10,656	96.51
2,000평 이하	57,151	35.33	34,842	28.10		
5,000평 이하	21,684	13.41	30,416	24.54		
합계	161,734	100.0	123,971	100.0	11,041	100.0

구분	임야		분묘지		합계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100평 이하	60	0.23	214	35.61	3,341	1.03
1,000평 이하	5,492	21.31	387	64.39	155,465	48.11
2,000평 이하	9,513	36.92			101,506	31.41
5,000평 이하	10,703	41.54			62,803	19.44
합계	25,768	100.0	601	100.0	323,115	100.0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1,000평 이하 규모가 15만 5,465평(48.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2,000평 이하가 10만 1,506평(31.41%), 5,000평 이하가 6만 2,803평(19.44%), 100평 이하가 3,341평(1.03%)으로 나타난다. 즉, 소규모보다는 중소 규모 필지가 주를 이루며, 1,000~2,000평 규모의 농지가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은 1,000평 이하 규모가 50.26%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2,000평 이하가 35.34%, 5,000평 이하가 13.41%를 차지한다. 즉, 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되,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필지가 주를 이룬다. 답은 1,000평 이하가 46.50%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00평 이하(28.10%), 5,000평 이하(24.54%)가 뒤를 이었다. 이는 논이 밭보다 조금 더 대규모 단위로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대는 특이하게도 1,000평 이하가 96.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 중심의 특성상 소규모 필지 단위로 나누어져 있음을 반영한다. 임야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필지 비중이 높다. 5,000평 이하가 41.54%, 2,000평 이하가 36.92%, 1,000평 이하가 21.31%로 분포해 있어, 다른 지목에 비해 큰 단위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분묘지는 100평 이하(35.61%)와 1,000평 이하(64.39%)로 전부 소규모 단위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족·가문의 묘역 단위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목리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단위 :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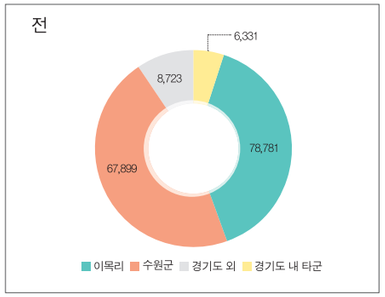
〈표 4〉를 보면 이목리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는 주로 지역 내부와 인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토지 32만 3,115평 가운데 수원군 거주자가 14만 8,446평(45.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목리 거주자 역시 12만 7,455평(39.45%)을 소유해 두 집단이 합쳐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경기도 외 거주자는 3만 449평(9.42%), 경기도 내 타군 거주자는 1만 6,765평(5.19%)에 불과하여 외지인의 소유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이목리 토지가 기본적으로 수원군과 이목리 주민들의 생활 기반 위에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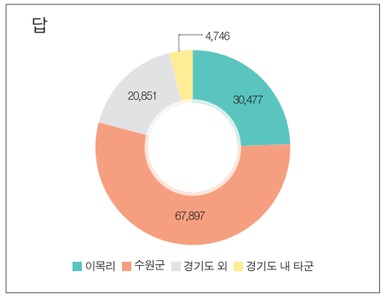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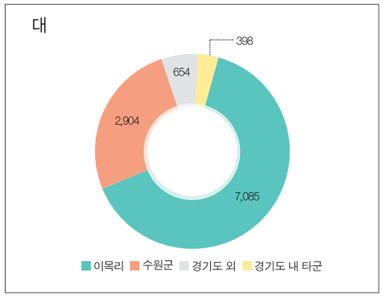
<표 4> 이목리 지목별 토지 소유자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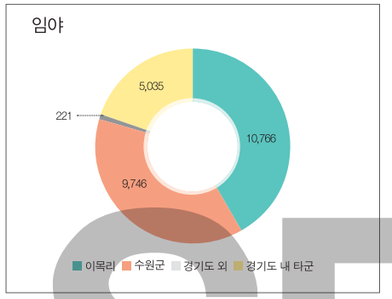
거주지	전		답		대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이목리	78,781	48.71	30,477	24.58	7,085	64.17
수원군	67,899	41.98	67,897	54.77	2,904	26.30
경기도 외	8,723	5.39	20,851	16.82	654	5.92
경기도 내 타군	6,331	3.91	4,746	3.83	398	3.60
합계	161,734	100.0	123,971	100.0	11,0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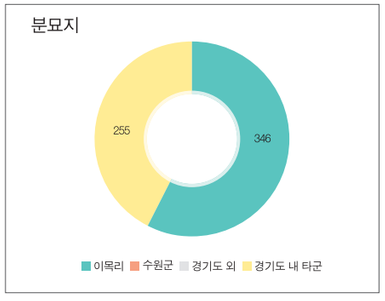
거주지	임야		분묘지		합계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이목리	10,766	41.78	346	57.57	127,455	39.45
수원군	9,746	37.82			148,446	45.94
경기도 외	221	0.86			30,449	9.42
경기도 내 타군	5,035	19.54	255	42.43	16,765	5.19
합계	25,768	100.0	601	100.0	323,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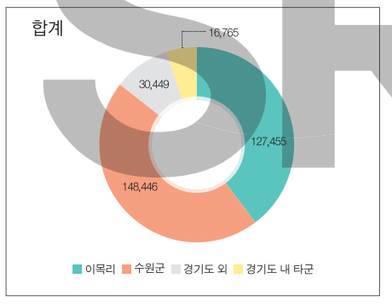












이목리 지목별 토지 소유자 거주지(단위 : 평)

지목별로 나누어 보면 특징이 더욱 분명해진다. 전(밭)은 이목리 주민이 7만 8,781평(48.71%)을 소유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수원군 주민도 6만 7,899평(41.98%)을 차지해 지역민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밭농사가 자급 기반으로서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답(논)은 수원군 주민이 6만 7,897평(54.77%)으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이목리 주민은 3만 477평(24.58%)에 불과하였다. 더 나아가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가 2만 851평(16.82%)을 차지해, 쌀 생산 기반인 논은 외부와의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밭은 마을 내부 생활과 직결되었지만, 논은 외부 세력과도 경제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대(집터)는 이목리 주민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1만 1,041평 가운데 7,085평(64.17%)을 이목리 주민이 소유하여 거주 공간이 지역 내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야의 경우에는 다소 분산적이다. 이목리 주민이 1만 766평(41.78%)을, 수원군 주민이 9,746평(37.82%)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타군 주민도 5,035평(19.54%)을 소유해 산림 자원이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분묘지는 이목리 주민이 346평(57.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내 타군 거주자가 255평(42.43%)을 소유했다. 이는 선산의 성격을 반영하며, 생활과 의례 공간이 주로 지역 내부에서 관리되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목리의 토지 소유 구조는 지역적 기반과 외부 연계가 공존하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 준다. 전과 대, 분묘지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활과 자급적 농업의 토대가 되었으며, 답은 외부 거주자의 소유 비율이 높아 쌀 생산을 매개로 외부 경제와 연결되었다. 임야는 비교적 다양한 거주자 집단이 소유하여 산림 자원이 외부와 교류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목리는 단순히 내부 자급만을 추구하는 마을이 아니라, 내부 결속과 외부 경제적 연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농촌사회의 성격을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이목리 대토지 소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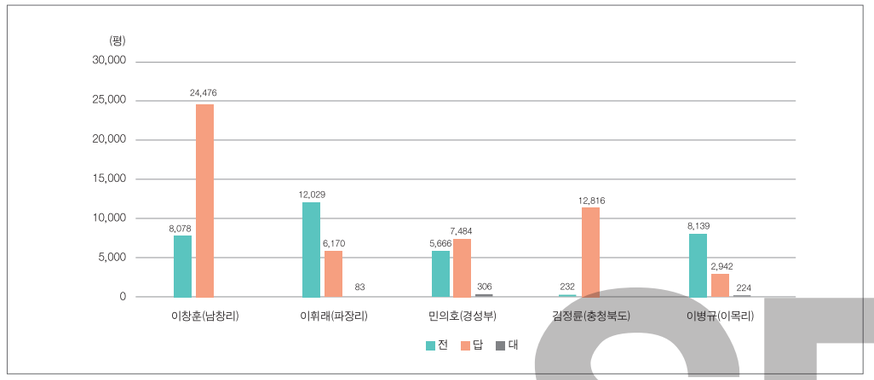
(단위 : 평)

소유자	전	답	대	합계
이창훈(남창리)	8,078	24,476		32,554
이휘래(파장리)	12,029	6,170	83	18,282
민의호(경성부)	5,666	7,484	306	13,456
김정륜(충청북도)	232	12,816		13,048
이병규(이목리)	8,139	2,942	224	11,305
합계	34,144	53,888	613	88,645

〈표 5〉에 나타난 이목리 대토지 소유 현황은 토지 소유의 집중과 외지 지주의 우세라는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8만 8,6457평으로, 이목리 전체 토지 면적인 32만 3,115평의 27.4%를 5명이 소유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남창리 출신의 이창훈으로 3만 2,554평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파장리의 이휘래가 1만 8,282평, 경성부의 민의호가 1만 3,456평을, 충청북도 청안군 부내면 거주자인 김정륜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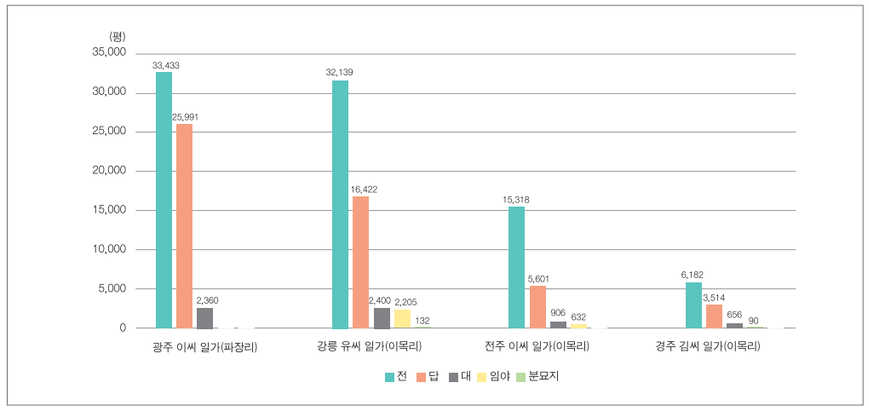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만 3,048평을 소유하였다. 그다음으로 이목리의 이병규가 1만 1,305평을 차지하여, 이목리 거주자 중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목리는 마을 내부 지주보다 외부 출신의 대토지 소유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점유하였다. 토지 지목을 살펴보면, 전체 8만 8,645평 가운데 전이 3만 4,144평(38.5%), 답이 5만 3,888평(60.8%)으로 나타나 밭보다 논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이목리 전체 토지 지목이 답보다 전이 더 우세하고, 이목리 거주 지주들이 전을 더 많이 소유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목리 대토지 소유자

〈표 6〉 이목리 토지를 소유한 유력 집단을 확인해 본 결과, 파장리 거주 광주 이씨 일가가 6만 1,784평으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이목리의 강릉 유씨 일가가 5만 3,298평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 외에 전주 이씨 일가는 2만 2,457평을, 경주 김씨 일가는 1만 442평을 각각 소유하였다.



이목리 토지 소유자(유력 집단)

<표 6> 이목리 토지 소유자(유력 집단)

(단위 : 평)

소유자	전	답	대	임야	분묘지	합계
광주 이씨 일가(파장리)	33,433	25,991	2,360			61,784
강릉 유씨 일가(이목리)	32,139	16,422	2,400	2,205	132	53,298
전주 이씨 일가(이목리)	15,318	5,601	906	632		22,457
경주 김씨 일가(이목리)	6,182	3,514	656		90	10,442
합계	71,754	45,927	5,416	2,205	222	125,524

〈표 7〉에 따르면 파장리 거주 광주 이씨 일가는 이목리 토지 총 6만 1,784평을 소유하였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이는 이휘래로, 전 1만 2,029평, 답 6,170평, 대 83평을 합쳐 총 1만 8,282평을 소유하였다. 이는 광주 이씨 일가 전체 소유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광주 이씨 집안 내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대지주임을 보여 준다. 이어서 이창래가 전 2,628평, 답 4,103평, 대 1,034평 등 총 7,765평을 보유하였으며, 이병구도 답 6,893평을 중심으로 총 7,453평을 소유하여 두 번째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이병관(6,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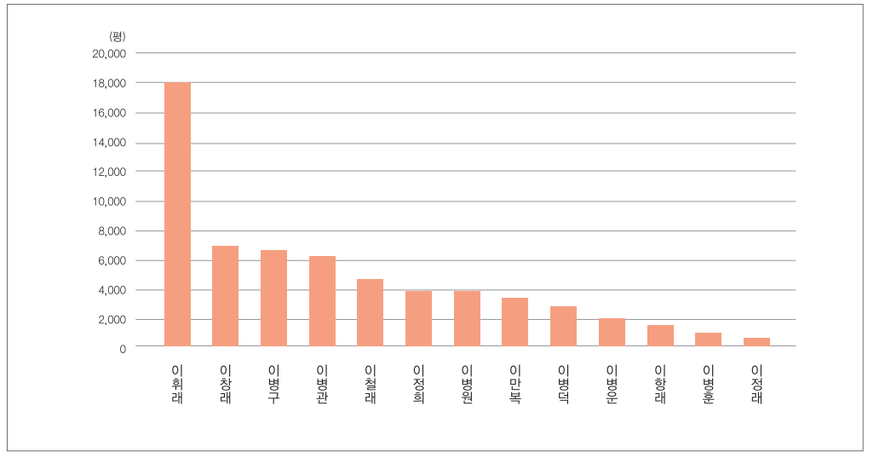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7> 광주 이씨 일가(파장리)의 이목리 토지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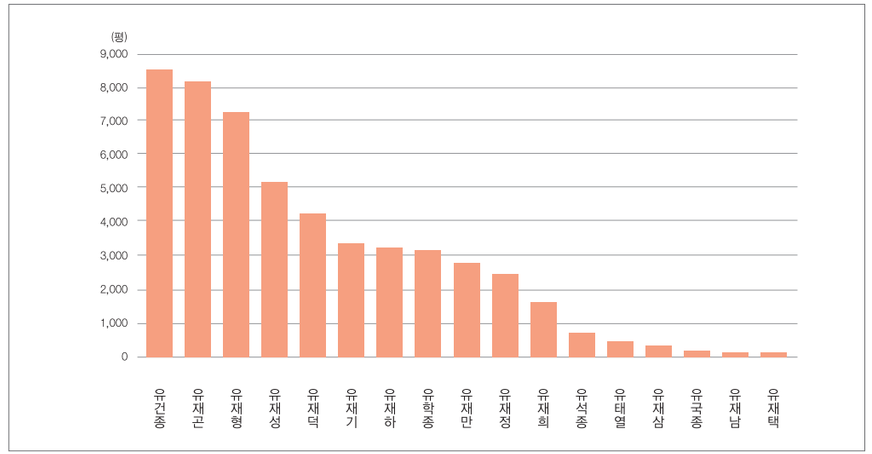
(단위 : 평)

소유자	전	답	대	합계
이휘래	12,029	6,170	83	18,282
이창래	2,628	4,103	1,034	7,765
이병구	560	6,893		7,453
이병관	1,190	5,762		6,952
이철래		5,356		5,356
이정회	3,048			3,048
이병원	2,052	818		2,870
이만복		2,666		2,666
이병덕	2,625			2,625
이병운	1,331		683	2,014
이항래	1,114			1,114
이병훈		741		741
이봉래	523			523
이정래		375		375
합계	33,433	25,991	2,360	61,784

비고 : 「토지조사부」에서 이목리에 토지를 소유한 파장리 거주 이씨(14명)의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 14명 중 이만복과 이정희의 본관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광주 이씨 일가(파장리)의 이목리 토지 소유



강릉 유씨 일가의 이목리 토지 소유

평), 이철래(5,356평)가 각각 5,000~7,000평 규모를 보유하면서 중견 지주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정희(3,048평), 이병원(2,870평), 이만복(2,666평), 이병덕(2,625평), 이병운(2,014평) 등은 2,000~3,000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였으며 중소 지주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씨 일가의 토지 소유가 단순히 몇몇 핵심 인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항래(1,114평), 이병훈(741평), 이봉래(523평), 이정래(375평) 등은 1,0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광주 이씨 일가 내부에서도 토지 소유 규모의 뚜렷한 위계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파장리 광주 이씨 일가는 이휘래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상위층, 5,000~7,000평대의 중견층, 2,000~3,000평대의 중소 지주층, 그리고 1,000평 이하의 소규모 소유층으로 구분되는 다층적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동일 성씨 집단 내부에서도 경제적 위계와 토지 소유의 집중·분산이 동시에 나타났음을 보여 주며, 이목리 토지구조에서 파장리 거주 광주 이씨 일가가 차지한 비중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을 시사한다.

〈표 8〉은 이목리 토지를 소유한 강릉 유씨 일가의 지목별 토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강릉 유씨 일가의 이목리 토지 소유 현황은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토지 면적은 5만 3,298평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전이 3만 2,139평으로 전체의 60%를 넘고, 답이 1만 6,422평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즉 전체 토지의 90% 이상이 농경지라는 점에서 강릉 유씨 일가는 이목리에서 전형적인 농업 기반 마을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대(집터)는 2,400평, 임야는 2,205평, 분묘지는 132평으로 농지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다.

<표 8> 강릉 유씨 일가의 이목리 토지 소유

(단위 : 평)

소유자	전	답	대	임야	분묘지	합계
유건종	3,809	4,864	141			8,814
유재곤	5,238	2,847	298			8,383
유재형	3,207	1,621	272	2,145		7,245
유재성	3,693	1,149	345			5,187
유재덕	2,747	964	619			4,330
유재기	1,816	1,971				3,787
유재하	2,414	894				3,308
유학종	2,648	436	138			3,222
유재만	2,919					2,919
유재정	1,297	1,129	210			2,636
유재희	1,532		224			1,756
유석종	254	378				632
유태열	190	123			132	445
유재삼	131		153			284
유국종	154					154
유재남	39			60		99
유재택	51	46				97
합계	32,139	16,422	2,400	2,205	132	53,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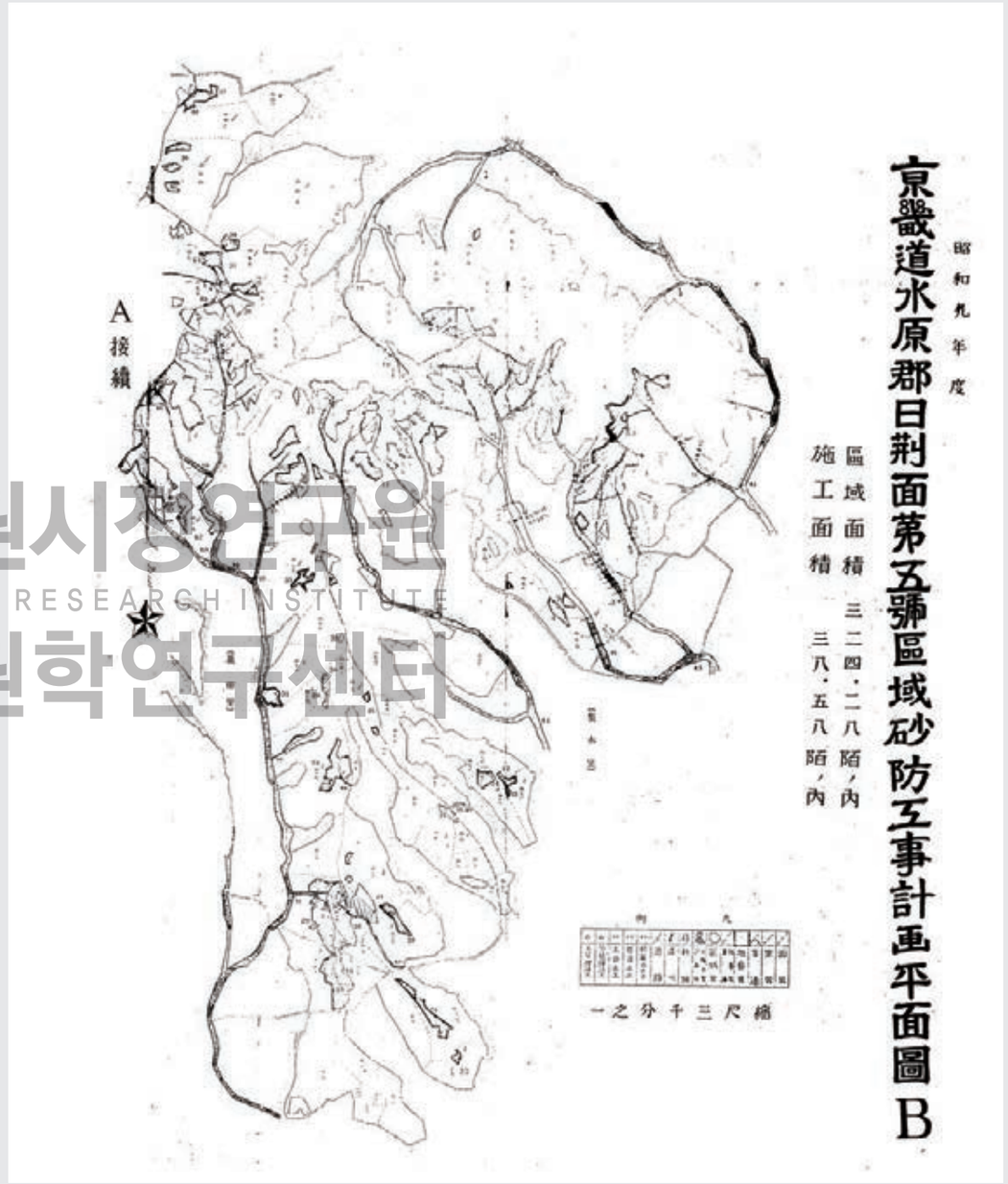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유건종, 유재곤, 유재형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유건종은 총 8,814평을 소유하여 일가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특히 답(논) 4,864평으로 논 중심의 대지주적 성격이 강하다. 유재곤은 전 5,238평과 답 2,847평을 포함해 8,383평을 보유하였는데, 밭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재형은 전과 답 외에도 임야 2,145평을 소유하여 총 7,245평을 갖고 있었는데, 일가 중 임야 소유 규모가 가장 크다. 이처럼 세 사람이 합쳐 약 2만 4,000평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일가 전체 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 소유가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 뒤를 이어 유재성(5,187평), 유재덕(4,330평), 유재기(3,787평), 유재하(3,308평), 유학종(3,222평), 유재만(2,919평) 등이 3,000~5,0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들은 전과 답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는 대지나 임야를 포함해 생활과 농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반면 유재정, 유재희, 유석종, 유태열 등은 1,000~2,000평대 규모를 소유하며 상대적으로 중간 계층의 지위를 보여 준다. 이와 달리 유재삼(284평), 유국종(154평), 유재남(99평), 유재택(97평) 등은 3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는데, 이는 같은 일가 내에서도 소유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재남은 전 39평과 분묘지 60평만을 갖고 있어, 단순한 생계보다는 가문의 선산 관리 차원에서 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밭은 유재곤, 논은 유건종, 임야는 유재형, 대지는 유재덕이 가장 많이 소유해 각기 다른 성격의 토지 중심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강릉 유씨 일가 내부에서도 토지 이용방식이나 생활 기반이 서로 다르게 자리 잡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3. 1930년대 광교산 산림 관리와 서호천 정비

이목리는 광교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광교산 삼림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미 훼손되었으며, 1920년대 후반에는 연료 채취와 천재지변의 반복으로 광범위한 산림 황폐화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광교산은 민둥산으로 전락하였고, 매년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로가 막히고 홍수가 발생함으로써 농지가 황무지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재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사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은 수원읍, 일왕면, 반월면 등 1읍 2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공사비 12만 4,451원이 투입되었다. 임야 2,095두렁(陌)에서 사방공사가 이루어졌고, 325두렁에서 구체적인 토목공사가 실시되었으며, 약 141만 그루의 식수가 조림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유림은



1934년 일형면 제5호 사방공사계획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치산치수지비(수원박물관 제공)

보안림으로 편입되어 산림 관리체계에 편입되었다.[3]

이어 1936년부터 1939년까지는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총공사비는 1만 2,000원이었고, 이 중 5,000원은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 공사 구간은 이목리에서 서호 입구에 이르는 지역이었으며, 연장 3,000m에 달하는 제방이 축조되고 13개소의 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1939년 3월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역 내 주요 하천은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4]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수원 지역의 농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치산치수의 기초 작업이었다. 사업의 효과로 지역 주민들은 홍수와 토사 유출로부터 벗어나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의 황무지화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문은 동시에 사업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즉, 산림의 장기적 유지와 수자원 관리의 합리화가 병행되어야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1939년 6월 일왕사방임시업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매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치산치수사업이 완료되자 이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1941년 10월 25일 수원군 일왕면장 이석래(李奭來)가 '치산치수지비(治山治水之碑)'를 건립하였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간자 요시쿠니(甘蔗義邦)가 비석의 앞면에 '治山治水之碑'라는 글씨를 남겼고, 비문은 장두병(張斗柄)이 썼다. 이 비석이 처음 세워진 장소를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파장사거리 북동쪽 도로변(이목동 869번지)으로 옮겨졌다가 2021년 6월 수원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치산치수지비는 사방사업의 완공을 축하하고 성과의 의미를 기념하고자 건립되었으나, 이 비의 건립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사업은 지역 농업 기반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그 근본적 목적은 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식민지 경제를 강화하고 일제의 수탈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치산치수지비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1930년대 수원 농업이 직면한 환경적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여 주는 사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적 개발과 수탈구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4. 1950년대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전개와 성과

1950년대는 한국사회가 전쟁과 전후 복구라는 거대한 격동 속에 놓여 있던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기의 수탈구조에서 벗어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지만, 곧 이어진 6·25 전쟁은 전국의 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농토는 유실되었고, 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옥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농민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개혁을 통해 이목리 경지의 46.6%인 12만 4,685평이 분배되었으나, 이 중 46.1%인 5만 7,539평이 전매되었는데, 이는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포기하고 농지를 팔아버릴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나타낸다.

<표 9> 이목리 분배농지 현황

총경지		분배농지		비율(%)	
필지수	면적(평)	필지수	면적(평)	필지수	면적
580	267,630	245	124,685	42.2	46.6

자료 : 『통합분배부』; 『토지대장』.

<표 10> 이목리 분배농지 중 전매매농지 현황

필지수				면적(평)			
불변	전매매	계	전매매율	불변	전매매	계	전매매율
138	107	245	43.7%	67,146	57,539	124,685	46.1%

자료 : 『통합분배부』.

이 시기 농업 기반이 취약한 농촌마을은 토지의 척박함과 자본의 부족, 교육 기회의 결핍, 사회적 연대의 와해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는 국가 재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간구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농촌에서는 국가정책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동과 실천을 통해 자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왕면 이목리에서 전개된 농촌계몽운동이다. 이목리는 해방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 기반이 약하고 소작농이 대부분인 가난한 농촌마을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마을 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실천의 중심에는 농민 김수기와 같은 지역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1)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전개[5]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출발점은 농업 생산의 근간인 '종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



1950년대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을 이끈 김수기와 그의 형제들(김진영 제공)
왼쪽부터 김선기(넷째), 김인기(둘째), 김준기(셋째), 김수기(장남)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 농민 김수기는 외부 기술이나 지식 없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마다 벼이삭 중 가장 알차고 좋은 이삭을 선별하여 다음 해 농사에 사용할 씨앗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우수한 이삭을 따로 모아 분리된 모판에서 키우고, 그 모를 다시 구분된 논에 심어 실험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반복한 과정에서 이목리에서는 기존의 정부 공급 종자보다도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종자가 개발되었고, 주민들은 그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따라 하기 시작하였다. 김수기의 종자 개량운동은 마을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농촌경제의 안정과 자산 축적을 위해 이목리는 유축농업에도 집중하였다. 마을 전체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소, 돼지, 닭, 오리, 토끼 등이 집집마다 일정 규모로 길러졌다. 각 가정에서는 별도의 닭장과 돼지우리를 마련하였고, 이는 위생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수원금융조합은 이목리를 특별지도부락으로 지정하고, 영농자금 100만 환을 융자함으로써 유축농업 확대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이목리는 1954년 기준으로 소 45두, 돼지 112두, 닭 911수 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자산 축적과 유기질 비료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소득 증대 활동은 식산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식산계는 종자 개량, 모판 운영, 퇴비 제작, 영농법 개선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농민 간의 기술 교류와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목리는 협동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조합원들은 생활과 생산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와 공동이용을 실천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농촌은 중간 유통 상인에 의존하여 생활물품을 조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의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목리에서는 공동구매 체계를 도입하여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물자의 목록과 수량을 미리 조사한 후, 청년 대표를 선발해 수원 도매상 또는 생산공장에 직접 구매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마을의 자본 낭비를 줄이고 소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히 주민 간의 신뢰와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목리의 협동조합운동은 농기구의 공동 이용에서도 잘 나타났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비싼 농기구를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웠으나, 이목리는 마을 공동기금을 통해 최신식 농기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를 순번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농기구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마을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었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력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산림 보호와 녹화 활동이었다. 해방 이후 전국 대부분의 산과 들이 벌거숭이로 변했던 시절, 이목리만큼은 비교적 울창한 숲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산림계의 지속적 활동 덕분이었다. 김수기와



김수기 자택에 설치된 이목동산림계(1990년대, 김진영 제공)

청년들은 '산이 푸르러야 농사가 잘된다.'는 소신 아래 겨울철에도 화롯불을 들고 다니며 산을 순찰했고, 산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흙둑을 쌓아 외부인의 무단 벌목이나 가축 방목을 막았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산림 녹화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선도적 녹화운동 사례였다. 그 결과, 이목리 산림계는 1952년 농림부로부터 산림녹화 공로자로 선정되어 공식 표창을 받았다. 산림계는 산을 감시하고 벌목을 금지하는 감시기구의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산림계의 활동은 마을 공동체가 협력과 책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목리 주민들은 마을의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다. 길이 없고 진흙으로 질척거렸던 마을 안길은 공동작업을 통해 정비되었으며, 논밭 사이의 도로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직접 닦았다.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굵은 통나무를 걸쳐 다리를 만들고, 마을 중심 도로를 마차, 지프차, 트럭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길가에는 버드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 등이 줄지어 심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서 생활자원의 확보와 농외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었다. 이런 조경적 요소와 결합된 마을의 외형은 농촌을 '지저분하고 가난한 공간'이 아닌, 정갈하고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모범농촌방문기에 소개된 이목리(『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김수기의 농촌계몽 활동이 신문에 실린 것을 기뻐하는 동생들의 글과 축하 편지(김인기, 『농은위업보도집』, 195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이목리 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이목리 일대 산림만 푸르고 울창하게 유지된 상태이다.

탄생시켰다.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은 매우 진보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당시 상황에서 김수기는 방과 부엌, 마루 사이에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 중앙에 촛불 하나로 세 공간을 동시에 밝힐 수 있도록 설계한 자작 조명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유리창 앞에는 철망을 씌워 파손을 방지하였고, 이는 자원 부족 상황 속에서의 창의적 대응의 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또한, 퇴비 확보를 위한 화장실 개량도 진행되어, 인분의 일실을 막는 구조로 재설계되었다. 이러한 세심한 생활 기반 정비는 마을 전체의 위생과 농업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이목리의 농촌계몽운동은 종자 개량에서 시작해 축산 진흥과 산림 보호, 마을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전개되었다. 또한 그 모든 과정은 정부 주도의 관료적 시책이 아니라, 농민과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천한 자립적 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집결체는 이목리를 단기간 내에 모범농촌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후 정부의 표창과 언론의 주목을 통해 전국 농촌에 귀감으로 전파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목리에는 70여 세대, 약 4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벌였다. 식산계, 산림계, 협동조합, 4H구락부, 강습소, 자치회 등으로 구성된 이목리의 공동체 조직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립과 문화 진흥의 기반으로도 확장되었다.

이목리는 강습소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문맹 퇴치와 농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농한기에는 강습소에서 성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글을 깨친 농민들은 문서 작업, 간판 제작, 표어 작성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마을의 자치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1950년대 이목리에는 초등학교 졸업생 56명, 재학생 70명, 중고등학교 재학생 15명, 고등학교 졸업생 5명,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4명에 이를 정도로 향학열이 높았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교육에 대한 태도와 의지를 잘 보여 준다. 여러 신문 구독과 라디오 보급도 이러한 문화적 수준 향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신문 21부와 라디오 5대가 마을에 배달되고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정보 접근성과 사회의식 수준이 평균 농촌을 훨씬 능가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목리 주민들은 당시 정부나 교육기관의 공식 지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4H운동을 수용하였다. 이목동 토박이인 이병일은 낙후된 농촌의 생활을 향상하고 기술 개량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4H운동의 발상지가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 경기도 군정관이었던 찰스 앤더슨은 한국에 4H운동을 도입하였다. 이병일에 따르면 그의 부친인 이동수는 대학 졸업 후 농촌계몽운동을 펼치던 중 앤더슨과 협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하여 4H운동의 확산을 주도하였다. 이동수의 노력으로 이목리의 4H활동은 매우 활성화되었고, 1959년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에서 이목4H구락부의 이동수 외 17명은 대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이동수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중심인물이 되었다.

마을의 청소년들은 4H구락부를 조직하였는데, 4H구락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식의 확산'에 있었다. 당시 이목리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다수였으나, 4H구락부를 통해 교육받은 청소년들은 새로운 농업 지식, 위생 개념, 조직 운영 원리를 자연스럽게 성인 세대에 전달하였다. 예를 들어, 한글을 배운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거나, 영농기술을 배운 청소년이 가축 사육이나 작물 재배방식을 부모 세대에게 알려 주는 등의 지식 역전현상이 마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2)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성과와 의미[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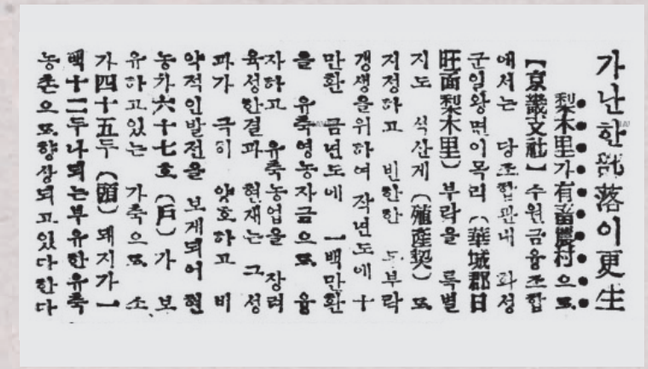
1950년대 초중반 이목리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농촌 자립 모델로 평가받았다. 마을 내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은 여러 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이러한 성과는 농림부의 공식 표창과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전국 농촌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확산되었다. 이목리는 농업 생산성과 생활환경, 공동체 협력구조, 교육과 문화 수준 등 모든 부문에서 발전을 이룬 '전방위적 모범농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장 뚜렷한 성과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었다. 이목리는 한정된 토지 자원과 열악한 토양 조건 속에서도 종자 개량과 집약적 경작, 퇴비 증산, 유축농업의 결합을 통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끌어올렸다. 당시 한국 농업의 평균 벼 수확량은 1단보당 약 2.5석이었으나, 이목리는 3.5석이라는 목표치를 끌어올렸다. 김수기를 중심으로 한 종자 선별과 시험 재배, 그리고 정밀한 재배기술의 보급은 마을 전체의 영농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이는 국가적 맥류 다수확 경진대회에서 김수기가 1등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1956년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3만 5,000환을 수상하며, 지역 농민으로서는 드물게 전국적 표창을 받은 인물로 기록되었다.

이목리의 산림 보호와 녹화운동도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952년 농림부는 이목리산림계가 수행한 산림 보전 활동과 자발적 녹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국 산림 녹화 공로자와 단체 표창 명단에 이목리를 포함시켰다. 이는 당시 전국 대부분의 산과 들이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목리가 울창한 수풀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산림의 식생 회복과 농업 기반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졌다.

생활환경 개선에서도 이목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을 내 도로가 정비되었고, 통나무 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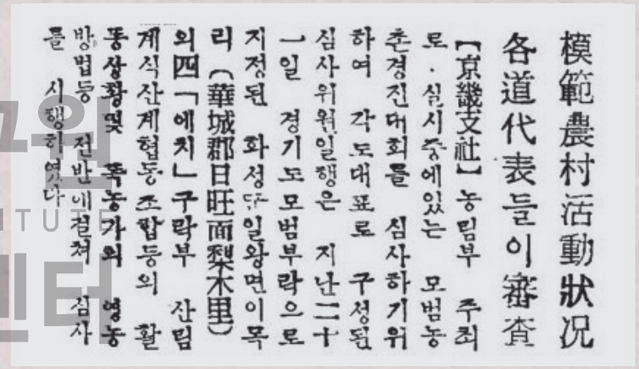


가난한 部落이 更生

梨木里가 有畜農村으로

【京畿文社】 수원금융조합에서는 당조합관내 화성군일왕면이목리(華城郡日旺面梨木里) 부락을 특별지도 식산계(殖産契) 또 저정하고 빈한한 동부락 갱생을 위하여 작년도에 十만환 금년도에 一백만환을 융자하고 유축농업을 장려육성한결과 현재는 그성과가 극히 양호하고 비약적인발전을 보게되여 현재 농가六十七호(戶)가 보유하고있는 가축으로 소 가四十五두(頭) 돼지가 一백十二두나되는부유한유축농촌으로향상되고있다한다

이목리 유축농업 육성(『조선일보』 1954년 10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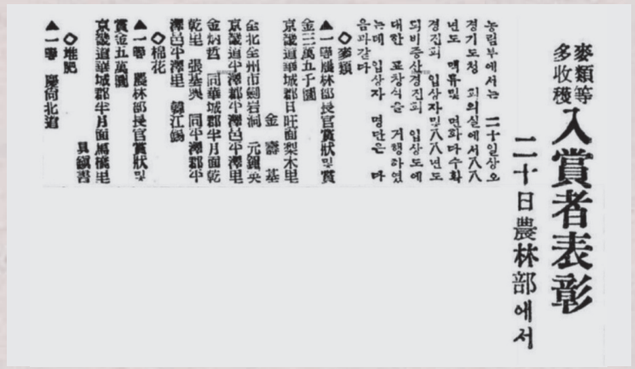


模範農村活動狀況

各道代表들이審査

【京畿文社】 농림부 주최로 심사중에있는 모범농촌경진대회를 심사하기위하여 각도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일행은 지난二十一일 정기도 모범부락으로 지정된 화성군일왕면이목리(華城郡日旺面梨木里)에 도착 심사를 시행하였다 이에앞서 전방법등 전반에걸쳐 심사

이목리 4H구락부와 식산계 활동(『조선일보』 1954년 11월 25일)



麥類等多收穫 入賞者表彰

二十日農林部에서

농림부에서는 二十일상오 경기도청 회의실에서八八년도 맥류증산경진회 입상자및八八년도 맥작개량 모범부락 입상자에 대한 표창식을 거행하였음과같다

◇麥類

▲一等 農林部長官賞狀및賞金三萬五千圓 京畿道華城郡日旺面梨木里 金 鐘 基

金北金州市橋谷洞 元鍾奕 京畿道水原郡半月面乾金洞 同華城郡半月面乾里 張基奭 同水原郡水原邑中興洞 鄭江鎬

◇棉花

▲一等 農林部長官賞狀및賞金五萬圓 京畿道華城郡半月面鳳儀里 具鎭書

◇地肥

▲一等 慶尙北道

맥류 다수확 1등상을 수상한 이목리 김수기(『조선일보』 1956년 6월 21일)

리, 감나무와 밤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닭장과 돼지우리, 콘크리트로 개량된 화장실 등은 당대 농촌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특히 생활공간의 위생화와 질서정연한 마을 구조는 언론에 의해 "나치 독일의 국도계획을 연상시킨다."고 표현될 만큼, 시각적으로도 체계적이고 청결한 마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생활 기반의 정비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이목리를 실제 현장 심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성과로 이목리는 1954년 농림부 주최 전국 모범농촌경진대회 심사 대상 마을로 선정되었다. 각 도에서 파견된 심사위원단은 이목리를 직접 방문하여 4H구락부, 산림계, 식산계, 협동조합, 독농가의 영농방식 등 전반적인 마을 운영구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이목리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1955년 5월 31일 제1회 전국모범부락경진대회에서 최종 수상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마을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양시켰다.

이목리의 성과는 정부의 공식 표창 외에도, 여러 언론매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이목리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하며, 이 마을이 보여 준 농업, 산림, 축산, 교육, 문화 전반의 변화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1955년 1월 9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목리를 심층 취재한 장문의 탐방기가 실렸으며, 해당 기사에서는 이목리를 "자연을 극복하고 자활의 길을 열어 가는 모범농촌"으로 표현하며, 당시 전국 농촌의 현실에 비해 그 성과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표어판, 사방으로 뚫린 도로, 철망으로 보호된 촛불 조명, 창의적으로 지어진 축사, 그리고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등은 '희망의 마을'이라는 언론의 수식어를 가능케 한 장면들이었다.

이처럼 1950년대 농촌계몽운동은 생활 개선과 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가구당 농지 면적이 협소하고 영세 소농구조였던 한국 농촌은 낮은 농업 생산성 등으로 획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농촌계몽운동은 소득 증대의 구조적 조건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농촌을 빈곤의 틀 속에 묶어두었고, 농업보다 도시 산업 부문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젊은 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를 촉발하였다. 1960년대 들어 본격화된 산업화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농촌의 실패와 인력 유출을 토대로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은 경제 발전의 주변부로 고착되었고, 1950년대 농촌계몽운동은 자립적 농촌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산업화의 전사(前史)로 남게 되었다.

註

1. 『민적부』와 『토지조사부』 참조.
2. 『토지조사부』 참조.
3. 이동근, 「수원(水原)지역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본 식민지의 초상-수용수리조합기념비(水龍水利組合紀念碑)와 치산치수지비(治山治水之碑)」, 『수원문화사연구』 7, 2005, 220~225쪽.
4. 이동근, 「수원(水原)지역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본 식민지의 초상-수용수리조합기념비(水龍水利組合紀念碑)와 치산치수지비(治山治水之碑)」, 『수원문화사연구』 7, 2005, 220~225쪽.
5. 「산림녹화공로자 농림부서 표창」, 『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가난한 부락이 갱생, 이목리가 유축농촌으로」, 『조선일보』 1954년 10월 12일; 「모범농촌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1등은 경기, 4H구락부경진대회 폐막」, 『조선일보』 1959년 12월 2일.
6. 「산림녹화공로자 농림부서 표창」, 『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모범농촌활동상황, 각 도대표들이 심사」, 『조선일보』 1954년 11월 25일; 「모범농촌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모범부락에 시상」, 『조선일보』 1955년 5월 31일; 「맥류 등 다수확 입상자 표창」, 『조선일보』 1956년 6월 21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4장

4H구락부에서 이목동애향회까지

: 이목동 마을 공동체 활동의 변화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자치와 협동의 문화를 실천해 온 지역이다. 조선 말기, 흉작에 굶주린 이웃을 위해 사재를 털어 구휼에 나선 이병규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의 공덕을 기리는 '선심비'가 1913년에 세워지면서 이목동의 공동체 정신은 문헌과 기념물로도 확인된다. 이후 해방을 거쳐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은 농촌 계몽운동과 협동조합 활동에 앞장섰으며, 4H구락부를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과 자치적 실천을 도입하였다. 나무를 심고 산을 지키며, 청년회와 같은 자생적 모임을 만들어 마을의 혼사와 초상, 치수와 개발에까지 주도적으로 나선 이목동 사람들은 마을을 살아 있는 공동체로 일구어 나갔다. 이러한 자치의 흐름은 1971년 '이목동연합회'로 조직화되었고, 수십 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유대를 바탕으로 2019년 '이목동애향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오늘날까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기억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이목동 마을 공동체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연도	활동
이병일	1959년	이목동애향회 총무, 이목동회 부회장, 용두회 회원
김웅기	1959년	이목동회 회장, 전 이목동연합회 회장, 용두회 회원
이성룡	1938년	노송회 회원
한건수	1952년	이목동애향회 부회장
하순덕	1950년	이목경로당 부회장, 이목동 통장
김춘자	1941년	이목경로당 회장

이목동 마을 공동체 활동

1890년대
오위장 이병규, 사재를 풀어 구휼 활동

1913년
이병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선심비' 건립(수원박물관 소장)

1952년
노송 보호 활동으로 농림부 애림공로 표창 수상

1954~1955년
농촌계몽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전개, 이목리가 모범농촌으로 언론에 보도

1955~1956년
마을 주민들이 서호천 뚝방 조성 등 치수사업 직접 수행

1959년
이목4H구락부, 경진대회 1등 수상

1960년대
청년회, 노송회 등 마을 소모임 활성화

1971년
18개 소모임을 바탕으로 이목동연합회 창립

2010년대
아랫마을 재개발 추진(장안힐스테이트·STX칸아파트 입주)
연합회 소속 단체 수 18개→6개로 감소

2019년 12월 26일
이목동애향회 창립총회 삼풍가든에서 개최

2019년 5월 19일
이목동연합회 마지막 행사 및 이목동애향회 창립 모임

2013년
마을재산 찾기 소송에서 승소
약 1,000평의 마을 토지를 되찾음

2010년~현재
이목동 경로잔치, 한마음 잔치로 열림
장학금, 경품, 초청공연 등 풍성한 행사 진행

2011년
원주민 모임 이목동회 창립, 마을재산 찾기 소송 제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4H운동이 활발했던 이목리

이목동애향회 총무인 이병일는 수원시 이목동(당시 이목리)이 낙후된 농촌의 생활을 향상하고 기술 개량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4H운동의 '발상지'라고 설명하였다.

이병일 : 4H 도입이 1940년대 후반(1947년 3월), 해방 후 농촌운동이 시작되었죠. 농사를 짓더라도 발전적으로 하자고, 새마을운동의 전신이지.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고, 4H는 민간 자치활동이고. 그 당시 미국에서 (4H운동을) 창시한 앤더슨(Charles Anderson, 미군정기 경기도 군정관)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저희 아버님(고 이동수)이 그 당시 대학까지 나와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하다 앤더슨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호로 시작했어요. 앤더슨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과 논의를 많이 하고, 저희 아버님은 먼저 그 전에 농촌 계몽 활동을 했으니까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리더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어딜 가든 전국 유지들은 우리 아버지 이름 대면 다 알 정도지. 책에는 경기도가 발상지라고만 나오지만, 수원시에서도 이목동이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4H운동이 이목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는 없었지만, 과거 신문기사는 이병일의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농림부 주최로 실시 중에 있는 모범농촌경진대회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도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 일행을 지난 21일 경기도 모범부락으로 지정된 화성군 일왕면 이목리의 4H구락부 산림계 식산계 협동조합 등의 활동 상황 및 독농가의 영농방법 등 전반에 걸쳐 심사를 시행하였다.〈「모범농촌활동 상황, 각 도대표들이 심사」, 『조선일보』 1954년 11월 25일〉

또한 이목리는 1955년 농림부가 개최한 제1회 전국모범부락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개 모범부락에 선정되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1] 이목리가 모범농촌 활동으로 수상했음을 알리는 기사 등을 통해 4H운동의 중심에 이목리가 있었음은 짐작해 볼 수 있다. 1955년 「모범농촌 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신문기사에는 당시 이목리와 마을 청년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 그들은 창의와 노력과 협조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하고 자활의 길을 열었다! (중략) 수원에서 서울 쪽으로 경수가도를 10리 북으로 달린 곳에 울창한 수풀이 있다. (중략) 적어도 몇 십 년 이상은 묵어 보이는 울창한 수풀이 아담스럽게 들어서 있는 남향받이 아늑한 언덕 아래 수십 채 초가집이 저

이목동산림계

마다 평화를 상징하는 듯 소담스럽게 들어앉았다. 이곳이 기자가 찾아간 이목리 모범농촌이다. (중략) 길가에는 어디를 가나 나무가 서 있는데 서울 태생인 기자에게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버드나무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또 복숭아나무 같은 것도 보인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는 소위 과일나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고 보면 포도원도 있고 또 (중략) 집집마다 꽤 큰 닭장이 따로 지어져 있고 (중략) 돼지우리 칸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것 같다. (중략) 돼지우리가 있는 대문 옆 사랑방 툇마루 기둥에 일왕면 이목리산림계의 간판이 붙어 있다. 이 집이 김수기 씨 댁이다. (중략) 그는 제일 먼저 종자계량운동을 했다. (중략) 개천가 논뚜렁 밭 언덕에다 감이나 복숭아 앵두 밤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수입의 증가를 꾀하였다. (중략) 언젠가 모르게 동리 사람들도 김씨의 본을 따라하였다. (중략) 해방이 되자 발 벗고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그 첫 공동작업으로 동리 안과 논밭 사이에 길을 닦고 뚝을 쌓고 다리를 놓고 우거진 뒷산 1백7십여 정보의 수풀을 지키는 것이었다. (중략) 김씨는 동리 청년들과 함께 번을 짜서 순산(巡山)을 시작했다. 추운 겨울에는 화롯불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순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중략) 전국의 산과 들이 모두 다 헐벗어 벌거숭이가 되어도 이곳만은 홀로 우거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장날이면 수원까지 동리 젊은 청년을 대표로 보내서 공동구입을 하도록 했다.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중간 상인에게 이윤을 주지 않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중략) 정부에서 권하기도 전에 한글 공부를 시작해서 문맹퇴치운동을 하고 청소년 지도를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의 성인 교육운동인 강습회와 4H클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목리는 정부에 한발 앞서 농군인 자기 자신들을 위해 농촌문화진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농가 66세대에 공무원, 교원 등 반농가 내지 비농자 5세대까지 넣어 71세대 455명의 부락민은 협심 합력해서 70정보의 논과 82정보의 밭과 170여 정보의 산을 가꾸고 36두의 소와 114두의 돼지와 911수의 닭과 오리 토끼까지 쳐가며 협동조합 4H클럽, 식산계, 산림계, 강습소 등 공동조직체를 가지고 부락회관까지 지어 단결된 공동생활로서 부락 전체의 자활의 길을 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10년 전의 빈촌 이목리에는 지금 대학 출신이 2명, 대학 재학생이 2명, 고등학교 출신이 5명, 중고등재학생이 15명, 초등학교 출신이 56명, 초등학교 재학생이 70명이나 되는 향학열에 불타는 부유 모범촌이 되었다. 이 마을은 한국 농촌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모범농촌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김수기 사랑방 툇마루 기둥에 걸려 있는 '이목동산림계' 간판(1960년대, 김진영 제공)

김응기는 이 기사에 등장하는 김수기를 잘 알고 있었다.

김응기 : 지금 살아계시면 백열 살이 넘었죠. 이분이 이병규 할아버지 선심비 세운 김학원 씨 아들이죠. 이목동연합회 초대 회장 했던 김진선 씨의 아버지고.

신문기사와 마을 주민 이병일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4H운동이 들어오기 전 이미 이목리에서는 농촌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자체적으로 있었고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단합정신은 1950년대 4H운동을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이목리의 4H운동은 이동수의 노력과 주민들의 호응으로 매우 활성화되었고, 1959년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에서 이목4H구락부의 이동수 외 17명은 대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10월 28일부터 개최되었던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는 닷새 동안의 다채로운 업적 다투기 행사를 마치고 2일 상오 그 막을 내렸다. 이날 상오 10시 30분부터 대회장인 삼일당에서는 폐회식과 아울러 시상식이 있었는데 경기도 이목4H구락부 이동수 씨 외 17명의 자원지도자에게 농림부장관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模範農村探訪記

希望을 創造하는 사람들

梨木里에서 文濟安記

限定된 속에서 最大成果

그들은 創意와 努力과 協助의 힘으로 自然을 克服하고 自活의 길을 열었다!

한名의힘 全部落을振興

面貌를 一新한 十年前의 貧村

모범농촌방문기에 소개된 이목리(『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4H 俱樂部를 援助

앤더슨氏來韓

농촌부흥의 원동력이랬는 청소년의 구락부인 四H「에이치」(four H) 구락부 운동을 적극원조하기위하여 미국인독지가 「앤더슨」(六〇)씨가 지난二일 내한하였다 그런데 「앤더슨」씨는일찌기 경기도지사로있으면서 경기도내에四H「에이치」구락부운동을 맨처음으로 시작하여 농촌청소년 지도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간인으로써 재차내한하여 한미재단계통으로 四「에이치」구락부 운동을 적극원조하게되었다고한다

한국에 4H운동을 도입한 앤더슨 내한 (『조선일보』 1954년 8월 6일)

部門別 進境 俱樂 4H 幕閉會大

京畿은 一等

지난十월 二十八일부터 개최되었던 중앙 四「에쳐」구락부경진대회는 일반과제 품평회의 시상자一백五十여명의 청소년부원들에게 각각상장과 부상이수여되었다 도별종합입상점수에의한 순위는다음과같다

▲一등 경기 농림부장관상
▲二등 경북 농사원장상
▲三등 충남 〃

1959년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에서 전국 1등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목4H구락부 (『조선일보』 1959년 12월 2일)

部門別 進境 俱樂 4H 幕閉會大

京畿은 一等

【京畿支社】 수원 화성군농사 俱樂部 이목리 4H 농산물 품평회는 지난一일부터 三일간四H구락부농산물 경진대회가 열렸다 동경진회에는 각종농산물六백四十점이 출품되였는데 수상한 四H구락부는 다음과같다

▲一등 청해 二등서둔 三등 화산
▲二등 당일 二등 구문천二里 三등 이목리
▲水原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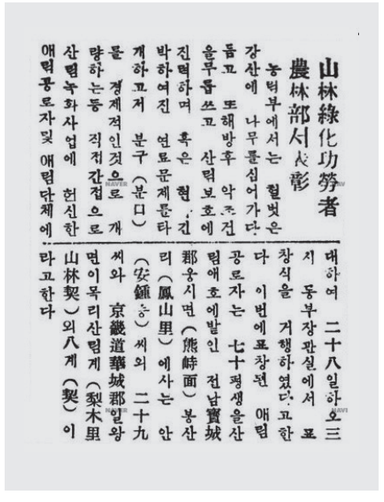
1961년 화성군4H구락부 농산물경진대회에서 3등을 수상한 이목4H구락부(『조선일보』 1961년 11월 4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로부터의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업적경진을 비롯한 아홉 가지의 각종 경진대회의 입상자 55명 및 일반과제 품평회의 시상자 150여 명의 청소년부원들에게 각가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조선일보』 1959년 12월 2일〉

이목리 4H운동에 대한 소식은 1961년 "4H구락부 농산물 경진"[2]에 각종 농산물 640점을 출품했고 이목리가 여기서 "3등을 수상했다."는 기사로 이어진다.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1960년대 이목리 마을 사람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기사는 찾을 수 없지만, 이병일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4H활동이 활발했음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병일 : (마을 사람들이) 돈 되는 거 심자고 권유하러 다녔어요. 그게 딸기, 포도예요. 보리고개 있을 땐 딸기, 포도 심자니 야단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먹을 것도 없는데 딸기, 포도라니. 하하하.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재배를 시작했어요. 이목동에서 딸기, 포도가 제일 먼저 난 곳이야. 그게 62~63년 정도 될 거야. 딸기, 포도 심어 놓고 퍼지기 시작했어.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65년부터 한 15년 동안은 엄청났어요. 돈이 엄청 됐어요. 딸기, 포도로 이목동이 최초로 유흥가가 된 거야. 수원시에.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 어르신들은 딸기, 포도 먹으러 안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봄이면 딸기 한 상자 가지고 가서 먹고. 수원농촌지도소에서 가져갔지. (중략) 전국적으로 4H 하는 데 딸기, 포도 했어요. 자랑스럽지.


山林綠化功勞者
農林部서表彰
농림부에서는 헐벗은 강산에 나무를 심어가다듬고 또 해방후 악조건을 무릅쓰고 산림보호에 진력하며 혹은 현재 긴박하여진 연료문제를 타개하고저 분구(분口)를 경제적인것으로 개량하는등 직접간접으로 산림녹화사업에 헌신한 애림공로자및 애림단체에 대하여 二十八일하오三시 동부장관실에서 표창식을 거행하였다고한다 이번에표창된 애림공로자는 七十평생을산림애호에발인 전남寶城郡웅시면(熊峙面) 봉산리(鳳山里)에사는 안(安鍾승)씨외 二十九씨와 京畿道華城郡일왕면이목리산림계(梨木里山林契)외八계(契)이라고한다

산림녹화공로자 표창을 받은 이목리산림계(『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한편, 노송지대는 마을 주민들의 애향심과 단합심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노송지대는 정조가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러 다니는 길에 내탕금 1만 냥을 내려 소나무 500그루를 심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3] 현재 지지대비(遲遲臺碑)가 있는 지지대고개 정상(이목동 산72) 주변 경수대도를 따라 약 5㎞에 걸치는 구간에 지정노송 34주, 후계목 580주가 식재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한건수 : 이목동이 (수원에서) 노송이 남아 있는 유일한 동네죠. 파장동은 노송을 다 땔감으로 썼는데 이목동은 꽹과리 치며 야경 돌며 노송을 지켜냈죠.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애썼음을 보여 주듯 과거 신문기사는 이목리가 애림(愛林) 공로로 농림부 표창을 받았다고 전한다.

농림부에서는 헐벗은 강산에 나무를 심어 가다듬고 또 해방 후 악조건을 무릅쓰고 산림보호에 진력하며 혹은 현재 긴박하여진 연료문제를 타개하고저 분구를 경제적인 것으로 개량하는 등 직접간접으로 산림녹화사업에 헌신한 애림 공로자 및 애림 단체에 대하여 28일 하오 3시 동부장관실에서 표창식을 거행하였다. (중략) 경기도 화성군 일왕면 이목리 산림계〈「산림녹화공로자 농림부서 표창」, 『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경부선 건설로 "깡그리 뽑힐 뻔"했으나 수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지켰고, 한국전쟁 후에는 땔감으로 잘려 나갈 뻔했으나 이목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낸 것이다.

2. 18개 소모임에서 이목동연합회로 발전하다

1960년대 중반 이목동에는 청년회를 비롯한 소규모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다. 청년회가 가장 먼저 생기고, 이어 노송회가 만들어졌으며 "후배들이 많이 늘어나며 넝쿨회, 청우회가 이어 생겼다."고 한다.

이윤호 : (청년회 시작이) 60년대여. 66년도에 시집오니까 청년회 한다고 밥 하래잖아. 저녁. 그리고 부침개도 부쳐 주고 그랬죠.

소모임은 계속 증가하여 총 18개가 조직되었는데 청년회, 노송회, 넝쿨회, 청우회, 대우회, 협동회, 우정회, 배나무회, 진우회, 동우회, 선우회, 용두회, 34회, 동주회, 인우회, 청송회, 39회, 45진우 등이었다. 김웅기도 27살 무렵 마을의 동년배들과 함께 용두회를 만들었다.

김웅기 : 우리 버스 타고 내리는 데를 용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회원이 15명 정도 됐어요. 선배 형님들이 친목 단체하고 동네일 보고, 공 차고 하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이런 모임들은 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다지면서 혼인, 초상, 환

SRI 수원시장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0년 대소사를 함께 치르는 이목동 주민들(김진영 제공)

갑 등과 같은 주민들의 대소사를 함께 치렀고 마을 일을 돌보는 데도 앞장섰다. 이병일은 이목동에 마을 모임이 활발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사랑하고 함께 돌보는 애향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병일 : 이목리는 대동회보다 더 발전된 주민자치가 아주 옛날부터 실현됐다고 보시면 돼요. 할아버지에게 듣기로 1890년대 조선 말기부터 주민자치 활동이 있었대요. 동네 모든 대소사 (함께)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진 거죠. '갑자기'가 아니고. 그전엔 동네 대소사 막론하고 동네 분들이 치러 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 토목공사가 있다거나, 애경사가 있다거나, 어떤 수입 발이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동네 전체가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는 보지 못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이목동에 큰 개울이, 서호천의 양쪽 뚝방이 우리 주민들 손으로 그 전체 뚝방을 만든 거예요. 그게 1955~1956년 정도? 여기 동네 특성이 아주 옛날부터 물이 많아서 수해가 많고, 옛날에 민둥산이어서, 수재가 나면 다 쓸려가서. 동네가 엉망이 돼요. 치수사업 다 주민이 한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없어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접어들며 이목동 일대에는 농업진흥청 원예시험장(1967년), 대한식품회사 수원공장(1968년),[5] SKC 수원공장(1978년) 등이 설립되고 마을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소모임도 18개로 늘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모임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다수의 모임이 되었던 것은 각 모임이 나이별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김응기 : 나중에 세대가 변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됐고, 또 후배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략) 형하고 동생하고 한 조직에서 친구 하게 할 수 없으니 기수가 차이가 나고 그 기수마다 조직이 만들어진 거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회하고 노송회는 연배 차이가 안 나요. 그다음 기수부터 연배가 조금씩 젊어지지. 그다음 기수가 넝쿨회, 넝쿨 밑에 청우. 청우 밑에 대우. 대우 밑에가 협동, 협동 그다음에 우정.

다른 기수들은 모두 나이 차이가 나는 반면, 청년회와 노송회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는 청년회는 이목리 토박이 중심으로, 노송회는 추후 외지인이 늘며 외지인 중심으로 조직된 모임이기 때문이다. 즉 "청년회는 본동 사람(토박이)이 많고, 노송회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성룡의 말처럼 두 단체는 나이가 아닌 마을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후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차이에 따라 만들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50~1960년대 이목동의 청년들은 이미 마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외지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지며 이들을 중심으로 노송회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노송회 회원 16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90% 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인들"이었다. 노송회를 만들자고 처음에 의기투합한 사람은 이성룡과 전범학이었는데 이들은 각각 쌀장사와 세무서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노송이 좋아서 노송회라고 지었고, 우리도 뭔가 푸르르게 한 번 뭘 해 보자."는 취지로 외지인이 중심이 된 이목동 마을 모임을 만들었던 것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청년회의 텃세 같은 것은 없었다.

이성룡 : 그때 당시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느라고 그런 건 없었어. 텃세라는 건 없었어. 혼상갑(혼인, 초상, 환갑)들 이렇게 같이 하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 10월 10일 이목동·파장동 점등식(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이목동 소교량 건설(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년회와 노송회는 각각 한 달에 한 번 회비를 걷고 친목 모임을 가졌다. 청년회는 주로 회원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모였고, 노송회는 여러 군데 식당을 바꿔 가며 만났다. 그러던 중 두 단체가 "일 년에 한 번 파장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자.' '공을 차자.' 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김웅기)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목동연합회의 시작이었다.

김웅기 : 1회, 2회 내가 듣기로는 이 두 팀(청년회와 노송회)이 공차기를 하셨고, 3회 4회 때는 4팀이 같이 했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들었어. 넝쿨회가 들어오고, 청우회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우회에 들어오고 5회부터는 그랬을 거예요.

이성룡 : 연합회 구성할 때는 각 친목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동네 분들 전체를 모셔서 마을잔치처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또 운동하고, 상품도 준비해서 주고 그랬어요.

1971년 조직된 이목동연합회는 마을잔치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갔다. 또한 마을 일을 도와 가면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김웅기 : 이제 옛날에 사람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는 여기 연화장처럼 이런 화장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 매장을 하잖아요. 그럼 매장을 하려면 산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산에 가면은 터를 닦고, 그때는 지금처럼 포크레인, 굴착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작업을 다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마을 청년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일을 전부 다 말끔하게 하니까 장례 치르는 데서 수고비를 몇 만 원에서 몇 십 만 원씩 내놔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2012년 이목동 아랫마을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김웅기는 용두회 활동을 하면서 이목동연합회 총무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15개 연합회 소속 단체가 함께 개최한 체육대회였다. 연합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주민들 간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김웅기 : 당시 700명이 참가했죠. 아마 90년대쯤 될 거예요. 노인들은 공 굴리기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특히 노인네들은 남싯줄로 선물 낚는 것 같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셨죠. 왜 그러냐면 노인 양반들이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넘어질 확률이 많아. 잔디밭도 아니고 그래서. 축구는 젊은 사람들만 하고, 30대 40대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들이 마을을 떠나거나 고령화되어 돌아가시면서 회원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동년배끼리의 모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회원 충원이 안 되어 해산하는 모임이 생겨났다. 10여 년간 연합회 활동을 했던 김웅기도 1990년대 중반에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이목동을 떠났었던 경험이 있다.

이성룡 : 결혼했을 적에 부조도 하고, 기부금도 만들고, 사고 없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올림픽 지나고 회원이 점점 줄어들었지, 이사 가고, 나이 들고. 1990년도인가, 92년도에 해산돼 버렸어요. 한 10명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분을 전부 노나 줬어요.

또한 아랫마을의 경우 2010년 무렵부터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2012년 입주, 927세대)와 장안STX칸아파트(2013년 입주, 947세대)가 건설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연합회 소속 모임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3년 '제39회 이목동 경로잔치' 및 '이목동 한마음축제'에 참석한 주민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3년 제39회 이목동 경로잔치 및 한마음축제

김웅기 :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개발돼 가지고 연합회에 실질적으로 가입된 단체가 6개 단체밖에 안 되었어요. 18개에서.

연합회는 '이목동 경로잔치' 또는 '이목동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가입 단체와 회원 수가 줄어들면서 연합회 행사는 격년에 한 번 개최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연합회 행사에 오히려 "돈을 많이 들여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2014년 경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경품으로 고급 자전거 10대, 햅쌀 20㎏ 20포, 신라면 20박스 등이 마련되었고 초청공연도 있었다.

3. 이목동회의 마을재산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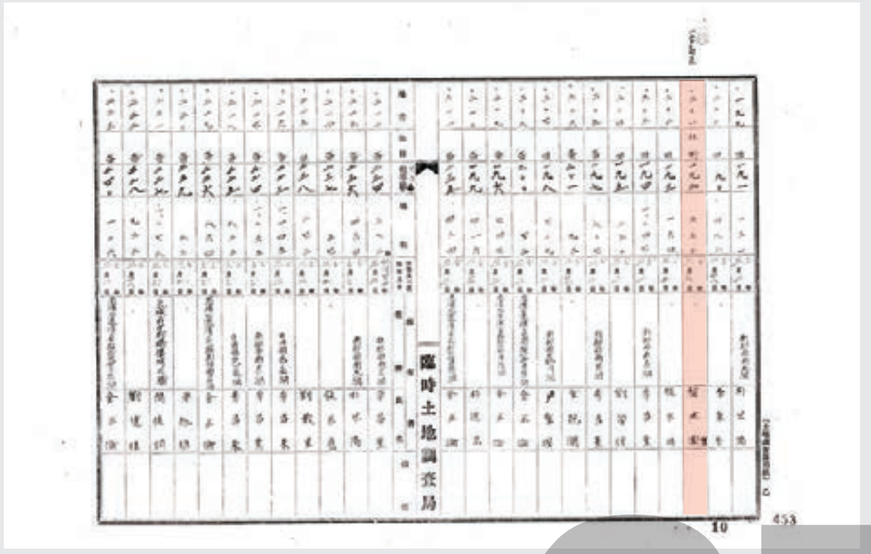
이목동 주민들은 경로잔치와 마을잔치를 매우 풍성하게 개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풍족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이목동회의 마을재산 찾기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목동회는 마을 소유였다가 시유지로 흡수된 토지를 찾기 위해 2011년 조직된 단체로, 회원 자격은 이목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마을 주민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목동 주민들이 되찾으려고 한 마을재산은 1911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목리' 소유로 기재된 임야 4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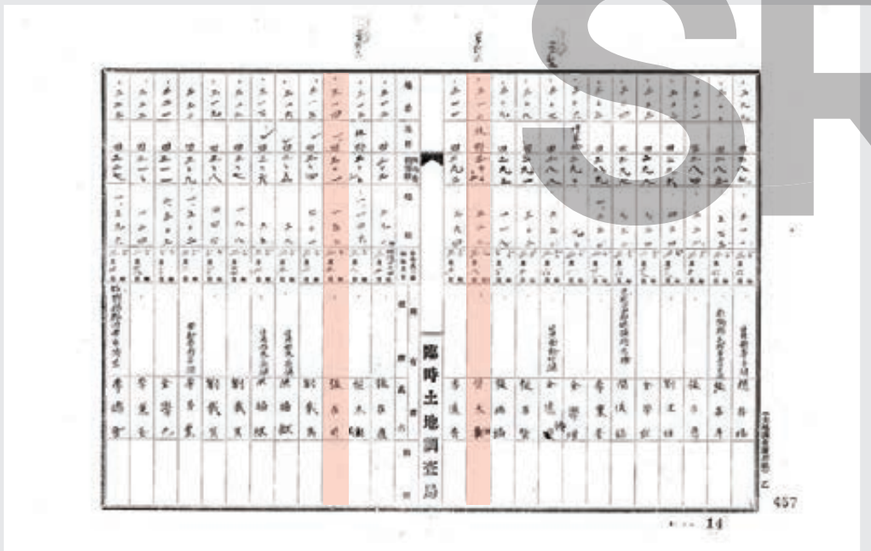
<표 2> 1911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목리 소유 토지

지번		지목	지적(평)	소유자	비고
이목리	201	임야	650	이목리	소송
이목리	310	임야	320	이목리	소송
이목리	313	임야	1,146	이목리	
이목리	369	임야	536	이목리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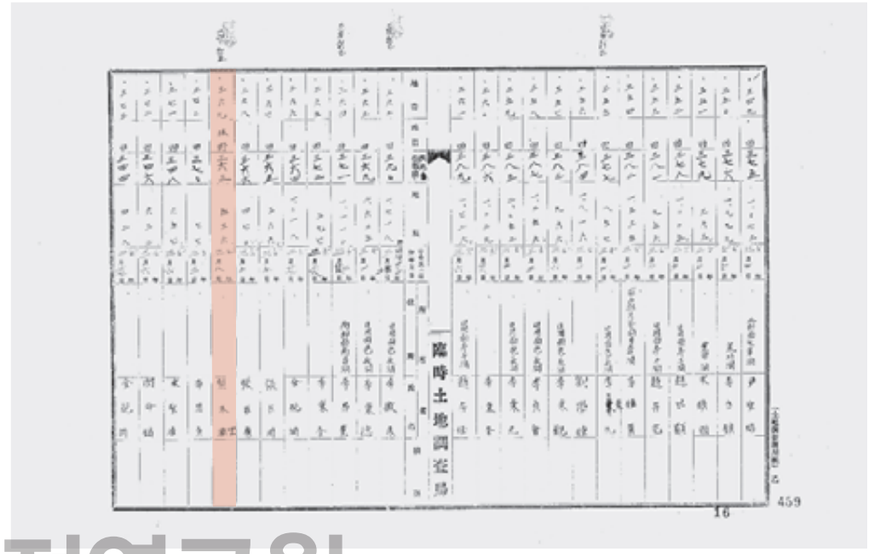
1911년 당시 이목리 소유였던 임야는 1969년 시유지로 변경되어, 이 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이에 김웅기 등은 이목동회를 조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리 소유 임야 201번지와 310번지, 313번지(『토지조사부』, 1911)



이목리 소유 임야 369번지(『토지조사부』, 1911)

김웅기 : 이게 토지조사부인데, 여기 보면 이목리 땅이에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념 싸움하고, 먹고 살기 급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식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땅 찾기에 대한 협동심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고속도로 만들기 전에 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 이름으로 된 땅도 많았었고, 주인 없는 땅도 있었고, 그때 이목리 땅도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국가에서 가져갔어요. 동네에다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시 소유 토지로) 1969년도에 등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목동회를 만든 거예요. 예전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어디 어디에 땅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았거든요.

이목동회는 마을 소유 토지를 되찾기 위해 2011년 소송을 벌였고 고등법원에서 조정합의로 승소하였다. 수원시 소유로 변경되었던 토지 중 약 1,000평을 되찾았다.

이병윤 : 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옛날부터 청년회 같은 단체 활동을 했던 증거가 다 있어서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런 예가 없지. 우리가 자료 다 찾아서 제출했고 어르신들 증언을 토대로 해서 승소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려받은 땅에 대해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기보다는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6년 이목동회에서 주관한 척사대회

이병일 : 찾은 땅 거의가 고조부 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땅도 있었지만. 그런데 내 땅 찾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도) 소유권을 포기한 거지요 사실. 그만큼 단합이 잘 된다는 거지요. 이런 예가 없어요.

이렇게 이목동회의 마을재산 찾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마을에는 운영할 수 있는 공동재산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것이 2011년 이후 연합회 소속 단체와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재정적으로 풍족한 연합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고, 아랫마을[6] 이목경로당(장안로 398번길 13) 앞으로 1억 원을, 윗마을 이화경로당(장안로478번길 55)에도 1억 원을 기부하여 두 경로당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찜질방까지 설치한" 노인정이 되었다.

4. 이목동연합회에서 이목동애향회로

1971년 조직된 이목동연합회는 2019년 5월 19일 이목동애향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8년 동안 45회 연합회 행사를 치르며 마을 주민의 친목과 단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합회가 애향회로 탈바꿈한 데에는 이목동을 떠난 주민까지 "보듬어" 이목동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김응기 : 2010년대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약 200가구가 다 이주를 했어요. 그분들은 고향은 이목동인데 여기가 개발됨으로 인하여 수원이나 인근으로 이사를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목동이 고향인데 돌아올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보듬어야겠다고 1971년도부터 이어지던 연합회를 다시 만든 것이 애향회죠. "200여 가구 그분들을 모두 감싸고 이목동 전체 원주민들이 같이 고향에 대한 정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형제간, 선후배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친목 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 가지고 애향회라는 단체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2019년 5월 19일 이목동연합회의 마지막 행사이자 이목동애향회 창립 모임이 이목중학교에서 열렸다. 김응기에 따르면 "300명 정도 예상하고 뷔페를 맞췄는데 약 400~500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이목동애향회 창립총회가 삼풍농원 내 삼풍가든에서 열렸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적극적인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경로당 행사를 후원하거나 수재민 돕기에 기부하거나 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목동애향회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3년 이목동애향회 정기총회





2019년 이목동애향회 창립총회



2024년 이목동애향회가 개최한 백수 축하잔치

김춘자 : 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 계획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애향회에서 보조들을 해 주셨어요. 식사로 해 주셨어요. 애향회에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분들 식사를 했어요.

또한 경로당 어르신 백수 축하연과 경로당 척사대회도 후원하였다. 2019년 창단 이후 애향회는 수재민이나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수재민에게 현금 300만 원 기부",[7] 2021년에는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 전달"[8]하였다. 2022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 100만 원을 행복복지센터에 전달"[9]하였고, 2023년에는 "사랑의 온정나눔 성금 300만 원을 기부"[10] 하였다. 신문기사를 통해 애향회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 150여 명의 이목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목동애향회'는 지역 내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단체로 (중략)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뉴스피크』 2021년 9월 16일〉

마을 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목동의 발전을 위해 단합해 오던 오래전의 소규모 18개 모임은 1971년 이목동연합회가 되고, 2019년 이목동을 떠난 주민까지 보듬은 단체로 거듭난 애향회는 이제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애향의 마음을 오래도록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애향회 소속 회원만의 노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힘을 보탠 회원들의 가족, 특히 음식을 하던 여성분들의 노고도 컸을 것이다. 현재 이목경로당 부회장이자 통장 일을 맡고 있는 하순덕(1950년생)은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연합회가 열리던 과거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 **하순덕** : 그땐 파장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렀거든요. 행사를 치를 때 그때는 다 돌아가면서 맡은 단체에서 내빈 음식을 준비했죠. 내가 그때는 감자탕 끓였어요. 그때는 연탄불이었죠. 곤로(석유풍로) 끌고 가고, 집에서는 연탄불에 밤새 끓였죠. 각각 단체는 자기가 먹을 거 준비하고 내빈 것만 그 행사 주관했던 단체가 준비했어요.

이목경로당 회장 김춘자(1941년생)는 이 모든 일이 "즐거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설비가 열악하고 출장 뷔페 같은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 음식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애향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에는 주민들의 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던 회원 가족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50여 명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이목동애향회는 친목, 봉사, 기부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데, 2023년 현재 회장은 홍재윤(1950년생), 부회장은 한건수(1952년생), 총무는 이병일(1959년생)이다. 점점 인원이 줄어들지만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참석을 독려하고"(김웅기) 있다. 그리고 외지로 나간 주민들과 청장년층이 계속 참여해 준다면 "앞으로 10년 이상 애향회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상회나 지역 주민의 모임과 활동은 물론 지역마저 소멸해 가는 이 시대에 마을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하고 마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기에 이목동애향회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註

1. 「모범부락에 시상, 31일 경기도청에서」, 『조선일보』 1955년 5월 31일.
2. 『조선일보』 1961년 11월 4일.
3. 「역사기행 16: 철도사」, 『한겨레』 1993년 12월 24일.
4. 「역사기행 16: 철도사」, 『한겨레』 1993년 12월 24일.
5. 대한식품공사는 1960년대 초 네덜란드 메디락 우유 회사와 기술제휴 및 원료공급을 받아 '비만우유'를 생산했는데, 1968년 이목동에 "연간 분유 1천 3백 14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우유 처리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변모하는 재벌등기(70), 대한식품」,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6. 이목동에 소재한 동원고등학교(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26-1) 근처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북쪽은 윗마을, 남쪽은 아랫마을이라고 부른다.
7.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집중호우 수재민을 위한 기부릴레이」, 『경기중앙신문』 2020년 8월 18일.
8. 「이목동 애향회, 수원시 파장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뉴스피크』 2021년 9월 16일.
9. 「이목동 애향회, 장안구 파장동에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나눔성금 전달」, 『새수원신문』 2022년 9월 13일.
10. 「이목동 애향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나눔' 성금」, 『뉴스Q』 2023년 9월 22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5장

자매애로 집안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여성들

: 배나무골 며느리회 여성들의 이야기

정아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수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이화경로당에서 만난 여성들

이화경로당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78번길 55 벽돌로 지어진 단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의 입구에는 하나의 간판과 하나의 명패가 달려 있다. 입구 위에는 큼지막한 문자들로 '카네이션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입구 왼편에 내걸린 나무 명패에는 고즈넉한 글자체로 '이화경로당'이라 쓰여 있다. 입구를 등지고 뒤로 돌아서면 별안간 어둡고 휑한 굴다리가 보인다. 굴다리 위로는 1990년대에 개설된 영동고속도로가 뻗어 있다. 굴다리는 고속도로를 떠받치는 축대를 뚫어 통로로 만든 것이다. 어두운 굴다리가 불러일으키는 건조한 인상과 다르게, 이화경로당을 지나 윗마을로 들어서면 단층 주택들과 갖은 채소들이 자라나는 밭, 나무, 들꽃, 야트막한 산의 정경이 펼쳐진다. 영동고속도로가 들어서기 전인 1980년대까지 굴다리가 있던 일대는 농경지로 들어차 있었다. 경로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동원고등학교(1985년 설립)도 농지가 있던 자리이다. 듣고 보니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 이목동으로 거처를 옮긴 그들의 기억 속 농경지가 겹쳐 보이는 듯하였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짝지어 점심을 준비하는 여성 어르신들이 인사로 반겼다. 이화경로당은 여성 회원들이 돌아가며 평일 5일간 점심을 책임진다. 이야기를 청해 들으러 방문한 2023년 10월 13일, 식사를 하던 여성들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며 방문객의 끼니를 챙겨 주었다. 뽀얗게 우러난 미역국, 새콤한 무생채와 열무김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란말이. 지척의 땅에서 직접 기르고 뽑은 채소들과 숙련된 조리 실력이 신선하고 정겨운 맛에 담겨 있었다.


김기순


유병숙


김계순


홍효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시기	출생지역	혼인 및 이주시기	비고
김기순	1940년대	화성시	1960년대	배나무골 며느리회 회원
유병숙	1950년대	군포시	1970년대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이주
홍효숙	1950년대	의왕시	1970년대	배나무골 며느리회 회원
김계순	1950년대	고양시	1970년대	배나무골 며느리회 회원

고된 농사일의 고충은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에서 단골 소재이다. 후루룩 짭짭 맛있고 빠른 소리 사이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10월은 깨와 고구마를 비롯하여 제철 채소들을 밭에서 거둬들이느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안부를 나눈다. 고구마를 얼마만큼 수확했는지,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서로의 상황을 확인한다. 오늘 오지 못한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없는 사람을 챙긴다. 서로를 향한 이 돈독한 말들은 오랜 시간 마주본 사이에 다져진 것일 터이다.

이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 글쓴이가 만난 여성들은 결혼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이목동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목동 집안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들과의 인맥으로 남성을 소개받아 20대에 혼인하였다. 그렇게 낯선 이 동네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홀로 와 휘말리게 된 낯섦과 생경함, 그리고 고투는 여성들이 함께함으로써 든든한 기억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끈끈한 관계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글은 네 명의 여성들이 기억하는 경험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이야기는 선명한 일화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과거는 말할 수 없는 시간으로도 가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은 장면보다 먼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감정은 때로 기억하고 말하기를 중단시키기도 한다. 기억하기가 말하는 과정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말하는 이가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표시다. 이 짧은 기록에는 그러한 쉼표를 지나친 경험뿐만 아니라 기쁨과 희열의 얼룩도 그려져 있다.

2. 친정의 기둥, 딸

농사를 짓는 어머니와 아버지, 서너 명이 넘는 형제들 사이에서 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거들며 형제들을 챙겼다. 부모의 농사일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공장 제조업 종사 등의 업종이 이들의 선택지로 있었다.

1940년대에 화성의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기순은 10살 연상인 큰언니가 시집을 가자 집안의 맏딸 노릇을 해야 했다. 연상의 남자 형제도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돌보아야 할 일들은 그의 몫이었다. “쪼그맸을 때부터” 외양간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먹이는 데 필요한 풀을 베러 다녔다. 동생들도 집의 ‘막일’을 함께하곤 했지만, 부모는 조금 더 크고 힘이 센 그에게 일을 더 시켰다. 청소년 시절에 하던 집안일을 떠올리던 그는, 생각하면 힘들어서 말을 더 잇기 어려워하였다.

그에게 학교에 간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로 기억되었다.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고 이후



1960년대 김기순의 친정집(김기순 제공)



김기순의 친정 식구들(김기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처녀 시절 김기순(앞줄 왼쪽)과 친구들의 용주사 야유회(김기순 제공)

진학을 멈춘 것은 집 밖에서 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도와 가계에 보탬이 될 오빠가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부모가 5남매의 교육을 책임지는 건 힘든 일이었다. 그에게도 학교란 물리적인 힘과 시간을 요했고 쉽지 않은 상대였다. "국민학교가 얼마나 먼지, 그냥 산 너머로 걸어다녔"다는 말에 큰 강조가 따라붙었다. 어린 김기순은 아침 7시에 일어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1시간 거리를 걸어 등교하였다. 그럴 땐 '용랑굴 꼭대기'를 꼭 지나야 했다. "문둥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 곳을 아이 혼자서는 무서우니 할아버지가 데려다줬다. 손녀를 유독 예뻐한 할아버지는 그가 어쩌다 크레파스나 도시락을 빠뜨리고 갈 적이면 먼 길을 헤쳐 손녀에게 가져다주었다.

1950년대 군포시에서 태어난 유병숙은 위에 두 오빠를 둔, 일곱 남매의 첫째 딸이었다. 중학교를 마친 그는 고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많다 보니 예전에는 딸들을 많이 공부시키지 않고 중학교까지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유병숙은 고등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막 굴뚝을 붙들고 울었"다고 한다.

유병숙 : 그냥 막 굴뚝 붙들고 울었어요. 저렇게 애들 교복 입고 나가는 거 보면 속이 상해서 맨날 굴뚝 붙들고 울어서 엄마가 불쌍해 가지고 나오면 굴뚝 붙들고 울더래.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는 중학교를 마치고 남자 형제들을 대신해 집안에 생활비를 보태야 했다. 아버지의 친구가 소개해 준 군포역 부근의 제조업 공장에 열일곱 살에 취업했고, 20대 중반까지 9년간 일을 했다. 이 공장은 유리병 제작을 발주하는 곳이었다. 유병숙은 유리병에 기업의 로고를 프린팅하는 발주처들을 다니며 검수하였다. 불량품을 솎아내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받기 위해서였다. 만약 유리병에 로고를 잘못 찍었다면 그가 닦아 지워야 했다. 공식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지만 잔업을 하는 날엔 밤 10시까지 매여 있어야 했다. 잔업과 검사 모든 걸 책임졌다. 하지만 그 일들이 "재밌었다." 그 재미의 장면에는 직장 동료들과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활달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집안의 아들들을 책임지는 그에게 자유로운 이동은 온전히 혼자가 되는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동생들의 성장은 뿌듯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유병숙이 처녀 시절 취업했던 한국병유리(1970년대, 안양상공회의소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유병숙 : 이제 오리 하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검사 [책상 두드리면서] 이런 것도 책임져야 돼요. (중략) 오리는 이제 6시까지 다 끝나면 또다시 10시까지 하는 거. 잔업을 하는 거지.

면담자 : 잔업은 어떤 거 해요?

유병숙 : 저기 왜 불량 나온 거 그걸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 병을 또 또 찍어요.

면담자 : 또 써야 되니까 지우는 거구나. 그러면은 생활력이 엄청 강하셨겠어요.

유병숙 : 그래서 (중략) 잘만 벌어다 드려서 동생들 가르쳤다니까. 보람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밑 동생 고등학교 때 전체 반장이라 잘 이렇게 졸업할 때 가 보니까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무사 동생도 반장만 계속했어.

면담자 : 어머님이 다 키우셨네요.

유병숙 : 그래서 그게 너무 보람 있었어요

1950년대 의왕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홍효숙은 부모가 혼인 후 8년 만에 낳은 첫째 딸이었다. 바로 아래 여동생과 그 아래 여동생, 그리고 13년 터울인 남동생까지 4남매,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일가가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아버지는 큰형의 아들을 뒷바라지해 대학에 입학시켰지만, 딸의 교육은 마다하였다. 홍효숙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설득한 건 작은아버지였다. 부모는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나가 작물을 팔아 자녀들 학업을 뒷바라지하였다. 홍효숙은 엄마가 지게를 이고 안양과 영등포 등지의 시장으로 나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학했다고 한다. 여자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해 3학년 무렵에 취업을 시도하였다. 면사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수원시 매산동에 있던 공기업에 지원해 이직하였다. 그곳에서 8년을 근무하다 20대 중반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1970년대 직장 재직 당시 홍효숙과 여동생 (홍효숙 제공)

1950년대 고양시에서 태어난 김계순은 증조할아버지부터 자신의 5남매인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서 밥을 짓고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밭일을 도왔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고, 동네의 단짝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곤 했다. '동생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은 더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그 뜻이 곧 내가 동생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 아버지가 할" 테고, 내가 할 일은 원가족으로부터 내몫의 생계를 떼어내어 내가 운용해 가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농사로 생계를 꾸리는 건 힘든 일이라 반대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다른 일을 권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 친구의 지인을 통해 서울 어린이대공원 부근의 봉제공장에 취업하였다. 니트에 구멍이 났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17살 무렵, 철야 작업으로 공장의 한켠에서 잠들어야 하는 서먹한 느낌을 지금도 몸이 기억한다. 1970년대였다.



중학생 시절 김계순(김계순 제공)

김계순 : 우리 가니까 나이도 어린데, 나하고 또 같이 또래가 같이 간 애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언니들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밥 먹었는 데 가서 그냥 막 저기 철야 작업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 처음에 잠이 안 오더라.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다 똑같아지지.

김계순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아주머니 집에서 살다가, 공장이 있던 구의동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였다. 고향에 있던 여동생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취집에 와서 함께 살며 일하였다. 음식은 본가에서 갖다 먹기도 하고 해먹기도 하고, 어머니가 김치 하는 것을 본 기억으로 김장도 해먹었다. 친정과는 떨어져 있지만 엄마의 손맛이 참고서가 되어 준 셈이다.

공장이 구파발로 이전하자 김계순도 동생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 2~3년 정도 일하였다. 그 후 공장이 남가좌동 모래내 부근으로 이사하여 그곳으로 출퇴근하다 그만두고 작은아버지 내외가 운영하던 식료품·건어물 가게에서 1년 정도 일을 도왔다. 그러다 다시 시골(고양시)로 가 부모의 농사일에 돕다가 20대 중반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처녀 시절 김계순(김계순 제공)



친구와 함께(김계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김기순의 결혼



유병숙의 결혼



SRI 수원사회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홍 효 숙 의 결 혼



김 계 순 의 결 혼



3. 시가의 기둥, 며느리

당시 혼인 상대는 일반적으로 고향 지역의 이웃 관계를 통해 소개받는 식이었다. 김기순은 고향에서 남편의 고모로부터 중매 소개를 받았다. 남편은 8남매(5녀, 3남) 중 위로 누이가 있는 장남이다. 남편은 9년간 인근 선경합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시부모의 농사를 도왔고, 김기순도 결혼 후 시부모와 함께 주로 농사를 지었다. 친정에서 갈고 닦아 온 농사일을 연장해서 하게 된 셈이다. 농사일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계속 "찾아서" 해야 하는 일이다.

면담자 : 그럼 어머님 여기 와서도 농사일을 주로 많이 지으셨어요?

김기순 : 계속 농사일이지.

면담자 : 주로 어떤 농사일 많이 하세요?

김기순 : 아니, 배농사 밭농사 다.

면담자 : 아까 댁 앞에 있는 밭도 어머님네 거고요?

김기순 : 응 그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저 산에.

"돈 나올 데가 없는" 시골에서 밭은 환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로 여겨졌는데, 김기순은 "애들 공부를 마쳐야 하"기에 산에서 나무들을 캐고 다 갈아엎어 밭을 만들었다('따비를 넌다'고 한다). 모낼 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지만 밭을 일구는 것은 가가호호의 일로 다루었다. 남편의 형제들을 "결혼 다 시켜" 출가시켰기에 밭을 일구는 건 김기순과 남편이 도맡았다.

김기순이 시집와 가사를 하던 때는 수도도,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시댁 가옥 안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타레박질') 집안일을 했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끈 매서 김치를 우물 안에 채워다 먹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섯 시누이를 포함한 대가족의 음식을 챙겨야 했다. 하루걸러 김치를 담갔다. 식구들이 결혼해 나가도 김기순이 아이를 출산하면 아홉 식구, 열 식구를 못 면하면서 대가족의 규모는 유지되었다.

김기순 : 아휴, 어려웠지. 시누가 여섯이여. 하나 출가하고 나머지 다 시누야.

면담자 : 그럼 다 같은 집에 사셨어요?

김기순 : 같은 집에 살았지.

면담자 : 그때는 다 대가족으로 하셨구나. 그럼 시누 밥도 다 직접?

김기순 : 당연히 하지. 식군데.



김기순의 시댁 식구(김기순 제공)

유병숙의 경우 시아버님의 6촌 여동생이 고향의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4대 독자인 아버지와는 의형제 격으로 지내던 이였다. 유병숙에게도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다. 작은어머니처럼 엄청 따른 이였다. 이렇게 서로 막역한 사이에서 "며느리감 하나 아주 좋은 애가 있다."고 앞으로 시부모가 될 이에게 중매를 했다.

이목동의 아랫마을로 시집온 유병숙은 외며느리였다. 아랫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장수마을'이라 불릴 만큼 오래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고 기억한다. 유병숙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을 50년간 모셨다. 90세 넘어서까지 무병장수한 시부모님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병숙이 부양해야 했던 사람은 비단 시부모만은 아니었다. 결혼하자마자 그는 시가 식구 11명과 함께 살았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을 무렵 가계를 이끌어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결혼한 지 6~7년 되었을 즈음, 자전거를 타고 전자제품을 나르다가 정자동 선경합섬 앞에서 큰 사고를 당하였다. 자동차 밑에 깔린 그를 발견한 건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었다. 그 이후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전자회사 공장을 운영하던 오빠에게 전자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유병숙의 시부모님과 가족(유병숙 제공)



효부상을 수상하는 유병숙(유병숙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장을 인수받아 23년간 운영하였다. 시가 부근 70평 밭에 3층 집을 짓고 지하는 공장으로 만들어 5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이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였다.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납품하는 일을 맡았다.

유병숙은 공장 운영을 지속하면서 시누이들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시누이들이 살던 화성의 궁평리보다는 이목동이 교육여건이 나았기 때문이다. 시누이들이 직장 다니며 일하느라 자녀 교육을 올케언니에게 위탁한 셈이 되었다. 이목동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진학시키고 싶은 시누이들의 부탁 때문에 유병숙은 6살과 9살 된 조카들을 돌보게 되었다. 당시 유병숙은 공장 운영을 책임지면서도 "어른들 밥 차려 드리랴, (조카들 때문에) 도시락 그냥 6개 쫙 싸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그 말 한마디를 전하는 목소리에 애처로운 기색이 담겼다.

그는 아랫마을에서 효부상을 일곱 개나 탈 만큼 효심 있는 며느리로 이름난데다가 11년간 통장 일을 했다. 통장 임기가 2년인 걸 감안하면, '11년'이란 세월은 마을에 '책임을 지고'서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남편도 그렇지만 함께 산 시아버님도 마을 사람들과 술잔을 나누길 좋아하는 애주가였다. 그래서 통장인 그의 집에는 동장들, 사무장들이 자주 방문했고 시아버님은 그들에게 꼭 "며느리 칭찬을 하고 싶어" 했다. 유병숙은 손님치레를 마다하지 않았다.

> **유병숙** : //년을 이제 통장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장님 놀러 오시면 밤새고 가고. 그러면 아버님이 칭찬을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효부상을) 7개 탄 거지(웃음). 시장님한테 막 누구한테 누구한테 구청장님한테. (중략) 그래서 흐뭇했어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홍효숙은 이목동이 친정인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 남편의 고향이 이목동이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홍효숙은 다니던 회사가 질려서 그만 다니고 싶었고, 중매로 우연히 남편을 만나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의 회사가 자리한 영등포 소재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와 함께 이목동의 시댁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다. 때는 197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자면 이 주변에



1979년 홍효숙의 시어머니(왼쪽에서 두 번째),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홍효숙 제공)

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다. 남편은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이목동의 집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홍효숙 :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 내가 뭐 황당한 거야. 와 보니까 또 집도 뭐라 그럴까, 오막살이 같은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

넓은 터에 단촐하게 들어선 슬레이트 지붕 집에서 그는 혼자서 살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난처한 상황일 땐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하였다. 시어머님의 관대함도 때로는 격려가 되었다.

홍효숙 : 막막하긴 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밥 한 번 안 해보고 왔는데, 직장 다니다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상하고, 이렇게 뭐 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딱 나한테 맡기는 거야 그냥. (…) 그래서 내가 웬만큼 다 내가 응용해서 하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거야. 하다못해 깨소금 볶은 것도 그냥 볶은 거야 씻지도 않고.

홍효숙 :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어. 왜 그러냐면 내가 반찬을 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빠가 아유 이거 짜다 그러면 짜면 적게 먹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지 뭘 그러냐 그래. 그럴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착하셨어. 잘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알려 주지 않는 살림을 새댁 홍효숙은 친정어머니와의 통화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도움을 청할 곳조차도 혼자서 알아 봐야 했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했다. 그렇기에 "좌우간에 힘들었다."는 말이 유독 강조되어 들렸다.

김계순은 안양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던 남편과 결혼해 기거하다 남편이 이목동 부근의 기업인 해태유업(현 동원F&B)에 취업하면서 아랫마을로 이사와 살기 시작하였다. 그



김계순 시어머니의 생신날(김계순 제공)

러다 윗마을에 땅을 가진 시누이에게서 땅을 받아 집을 지어 봄 무렵에 이주하였다. 그 또한 1970년대 후반에 아랫마을에 들어와 보았던 풍경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서호천이 흘러내려 가는 곳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했다.

대부분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이 동네에서 김계순은 1980년대, 농사 대신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친정엄마가 보기에 사위는 밤까지 일하고 사돈어른(김계순의 시어머니)은 애들을 봐줄 수 있는데, 딸애도 가계에 보탬이 될 몫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친정 돼지를 물려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고향 일산에서 암퇘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 길러 "새끼를 내가지고 늘리고 늘리고" 했다. 처음에는 집 앞에서 몇 마리 정도로만 기르다, 본래 다른 사람이 돼지 사육장으로 운영하던 곳을 인수해 거기서 100여 마리까지 사육하였다. 그곳이 지금은 이화경로당이 지어진 자리이다. 농장 규모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에서 몇 마리 키워도 목돈이 되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와서 돼지를 직접 구매해 도축했다고 한다.

회사에서 3교대로 일하던 남편은 퇴근 후 농장 일을 겸하였다. 그러나 '상품'으로서 돼지를 관리한 건 김계순이었다. 그는 '돈계부'를 쓰고 돼지의 출산을 모두 관리하였다. 돈계부는 일종의 돼지 장부인데, 돼지를 수정시킨 날, 출산일, 새끼 출하 날짜를 기록하는 수첩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 새끼 관리는 친정에서 엄마가 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손수 하기는 처음이었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를 수건으로 닦고 탯줄에 실을 매어 끊는 방법은 친정엄마가 하던 것을 보아 두었던 기술이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자녀들이 중학교 진학 전까지 돌보며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분뇨들은 농사짓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지만, 벌레들이 생기고 냄새도 심해 나중에는 신고도 당하였다. 그렇게 1980년대에 사육장을 접었다. 나름의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들도, 대가족을 부양하던 여성들도 가족의 먹을 입을 챙기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4. 혼자가 아닌 며느리들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낯선 풍경의 동네에서 시댁 식구들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이런 여성들에게 서로 안면을 트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며느리회의 조직이었다. 홍효숙은 그때를 1984년으로 기억한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배나무골(윗마을)에는 50호 정도의 가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홍효숙 : 애들이 크고 나가지고 좀 커서 유치원 같이 생길 때 여 동네 사람들이 저기를 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사람들 친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며느리 친목회를 만든 거야. 시어머니를 모신 사람이 열세 명인가 네 명인가 친목회를 했어요.

그 시작은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민선 1~2기 수원시장)의 아내인 고(古) 백정자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또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였다. 홍효숙은 그를 인심 좋고 후덕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홍효숙 : 잘해 주셨어. 거기서 막 정월보름날이 생신이셔. 그 할머니(백정자의 시어머님)랑 심 시장님이랑 생일이 똑같애. 그럼 거기서 해우재에서 옛날 먼저 있던 집도 좋았어요. 거기서 막 윷놀이하고 그랬어, 상품 걸어 주고 그 시장님이. 동네 위해서. 그래서 재밌었어, 우리. 며느리들 초대해가지고 신랑들하고 다. (중략) 보름날 당신 생일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애쓰셨지.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이사 온 김계순은 김기순과 백정자가 함께 다니면서 며느리들과 시부모님들을 만난 장면을 떠올린다. 며느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며느리 대 며느



동네媤父母 함께모시며 孝道

「배나무골」 며느리會

水原시 …13명이 모여 친자매처럼

異色모임

시어머니와함께 觀光…버스서 춤도 "덩실"

老人공경 앞장 3년째

자신들이 만든 같이 경로당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있는 시아버지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요리를 서로 맛보고 있는 배나무골 며느리회 회원들. <金雲나기자>

배나무골 며느리회를 소개하는 기사(『경향신문』 1987년 3월 16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9년 며느리회 회원들(김계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리가 아니라 며느리가 모시는 시부모님과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김계순 : (며느리회 같이 하자는 며느리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님께)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에미는 아직 어리다."고 아직 응 어렵다고 저기 했는데 (며느리들 측에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어머님이) 다니라고. (하략)

이처럼 새댁인 며느리들은 시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했다. 그렇지 못한 며느리 여성들은 여전히 집의 생계 활동을 중점으로 살았고 집 밖의 여성들과의 연결을 꾀하기 어려웠다.

김계순 : 00 씨는 안 했어.

면담자 :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기순 : △△는 나이가 어렸고.

김계순 : 나이도 어렸지만 어른들이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랬잖아요. 우리 에미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면담자 : 아! 허락을 맡아야 해요?

김계순 : 근데 어 그렇지. 내 마음대로 그게 저기 안 됐었잖아. 어른들 다 집에 있으니까. 근데 "아 괜찮다고 그냥 같이 나오게 하지 뭐 저기냐."고 이제 며느리 친목회니까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낸 거지 내보내려고 안 하잖아 어른들이.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설령 다른 며느리들을 만나 "보고 듣는 게" 있어 집안의 사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집안을 시끄럽게 할까 봐, 시가 살이에 대한 '나쁜 소리'가 막 나올까 봐 새댁일수록 더 단속에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성, 새댁 등은 시부모의 단속으로 참여가 어려웠다. 이를 갓 시집온 어린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집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희귀하고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어른들이 다 함께 집에 계셨고 그 돌봄을 며느리가 전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며느리에 대한 가사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김기순의 경우, 가계 운영에 필요한 돈은 시어머님의 지갑 속에 있었지만,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살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결정하는 것은 며느리의 역할이었다.

면담자 : 그러면 시어머님께서 주로 그 통장 관리를 하신 거예요, 돈 관리? 가계 운영 돈 관리?

김기순 : 그렇지.

면담자 : 그러면 어머님께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말씀 드려야지 사 주시는 건가요?

김기순 : 응응.

면담자 :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살림은 어머님이 하시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물건이 필요해요라고는 말씀 드려야지 사 주시는 거.

김기순은 남편만 보고 타지에 온 새댁은 친정 부모가 보고 싶어도 바로 갈 수가 없었고 기껏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었다.

면담자 : 그러면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 여기 혼자 오셨다고 했었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김기순 : 보고 싶어도 못 가잖아.

면담자 : 일해야 되니까요?

김기순 : 아니 여기서 이제 보내면 다 돈도 들고 그러니까는. 친정에 가면 빈손으로 가? 다 돈도 들고 그러니



며느리회 회원들(김계순 제공)

까는 친정에를 잘 안 가지 친정에 잘 안 갔어.

면담자 : 그럼 진짜 여기 가족들(시가 식구들)하고만 거의 관계를 맺고 사셔야 하는…

김기순 : 응, 애들 기르느라고. 애들 애 챙기느라고. 그전에 또 저기잖아 애기 낳고 기저귀 일회용 안 쓰고 [강조]다 빨고 그냥. 그거 다 해야잖아요. 삶고 그냥. 그 할 일이 많지. 옛날에 비누도 하얀 비누가 없어서 볏 찌면, 겨비누라고 있어 검은 비누. 쌀겨에다가 양잿물 넣고 만들어.

면담자 : 그거 직접 다 만드셨어요?

김기순 : 응응.

그의 집을 자주 찾는 이가 백정자였다. 백정자의 남편인 심재덕 시장은 김기순의 남편과 선후배 간이어서 친분이 있었다. 백정자에게는 아마도 외지에서 와 낯선 동네에서 그나마 안면을 트고 친밀한 집이 김기순네였을 것이다. 백정자는 자주 김기순네를 찾았다. 그러다 며느리들이 모여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었다.



200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심재덕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며느리회(김계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기순 : 그래서 우리 모여서 차나 한잔 먹자 그랬어. 우리 모여서 차나 한잔 먹자. 그래서 몇 번 모이다가 이제 모임을 만들어.

모임은 백정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새댁이 아니고 애들도 크니까' 시부모님의 단속도 누그러졌다. 백정자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시부모님은 집안의 며느리들이 서로 모이는 것에는 열려 있었다.

김기순 : 그때는 조금 저기 어른들이 조금 완화됐었어. 세월이 완화가 된 거여. 조금 이렇게 됐었어,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들도 죄 먹었잖아.

면담자 : 한 40~50대니까?

김기순 : 애들도 크고. 점점 완화가 된 거지.

면담자 : 그러면 새댁 때가 가장 힘드셨겠네요.

김기순 : 그렇지. 그때는 이제 못 만났지. 애들이 이제 컸으니까 이제 모였지. 처음 왔을 때는 안 되지.



2000년대 며느리회 어버이날 행사(홍효숙 제공)

며느리회의 공통된 가입조건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였다. 시부모님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연을 맺어 참석하였다. 모실 시부모가 없는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그 대신에 둘이 함께 사는 노인들을 어머니로 대신해 모임에 같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여성들은 8~10년 차이가 났고,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며 아니기도 했다. 상관없이 "형님", "동생(동서)" 하며 서로를 불렀다. 김기순과 백정자가 형님 라인, 홍효숙과 김계순 또래는 막내 라인이었다. 형님들이 주로 장을 볼 땐 그 아래 동생뻘들은 형님들을 돕거나 총무 등을 분담하였다. 김기순은 2대 총무, 홍효숙은 며느리회의 마지막 총무를 맡아 했다.

친목회로 만나는 시간은 동네에서, 각자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서로를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밥을 해먹고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가사도 함께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거나 경조사를 챙겨 가족 행사를 같이 치렀다.

홍효숙 : 우연히 만나가지고 시어머니 모신 사람들만, 왜 큰일이 많잖아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큰 행사가 있잖아, 뭐 칠순 잔치든가 환갑잔치든가 그러면은 가서 도와주는 걸로 했어. (중략) 초상나시고 할 적에. 그 다 했어요. 왜냐면 친목회 좀 돈을 모아가지고 한 집에 프라이팬을 사주거나 들통을 하나씩 사줬어. 그럼 큰일 때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 그러고 놀러도 가고 막. 시어머니 모시고 온천 가서, 수안보 온천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막 그랬어. (중략) 막 춤추고 놀고 그랬어. 밥 해 가져가서 다 해고 그랬어.

며느리회는 며느리들이 중심적인 연결망이 되어 펼쳐진 활동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온천 여행을 가고, 큰 방에 빙 둘러앉아서 아들이 시부모님을 업는 광경을 같이 웃으며 즐길 수 있었다. 여행 가는 버스에서는 시어머니끼리, 남편끼리, 며느리끼리 옹기종기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1980년대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수안보온천에 갔을 때도 며느리회에서 음식을 마련해 갔다. 얼마나 푸짐했으면 다른 관광객들이 감탄을 내보일 정도였다.

김기순 : 매운탕을 이만한 냄비에다 다 하나씩 해가지고 갔는데 수안보 온천 갔는데 사람들이 구경꾼이 얼마나 많은지. 좋아 보인다고.

백정자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모임의 며느리들은 그의 집에 모여 "밥 하고 찌개 하고 음식 하고 전 부치고 그런 거 다" 함께 하였다. 1986년 김계순의 시어머님 회갑잔치 때에는 유행하던 해파리무침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댁 친지가 얼마 없어 조촐해질 것을 걱정하여, 며느리회 여성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과방을 준비해 왔다. 6·25전쟁 당시 남편을 잃고 피난 내려와 홀로 고생하신 시어머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서울에서 낙지와 아나고까지 공수해 와 한껏 대접하였다.

김계순 : 과방이라는 게 음식을 준비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 가져온 음식 있잖아요. (회갑잔치를 위해 예약한 식당에서) 기본으로 갈비탕 나오잖아요. 갈비탕 김치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낙지도 준비하고 또 저기 샐러드나 해파리나 그런 거 추가로 준비했잖아요. 그걸 음식을 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담아서 주는 거야. 그릇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우리 따로 일회용 그릇 준비해가지고.

그 덕분에 한껏 성대한 잔치를 치렀다. 시어머니는 김계순에게 "니네가 이렇게 나와서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고 너무나 좋아하셨다. 김기순의 시아버님 장례도 집에서 치렀는데 며느리회의 회원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와 초상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7년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며느리회 수안보온천 여행(김계순 제공)



1989년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며느리회 수안보온천 여행(홍효숙 제공)

치렀다. 친목회 회비로 나눠 가진 프라이팬, 그릇 등을 장비로 챙겨 와 잔치나 장례처럼 큰일을 치를 때 음식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였다. 서로 품앗이를 하는 관계도 물론 마을에 있었지만, 며느리들의 모임은 달랐던 점이 있었다. 며느리들은 가사의 힘듦과 짊어져야 했던 고단함을 며느리회의 '관계 맺기'로 풀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전히 가사와 가족 돌봄을 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갇히지 않고 집 밖으로 확장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 관계가 준 새로움은 '소통'의 기쁨이었다. "여자들끼리 모이니까" 재미있었다는 말의 속뜻에는 아마 그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홍효숙 : 처음엔 시집와서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니까 좋지. 좋았어. 그래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서 밥 차려서 먹고 막 그랬어. 돌아가면서 계속.

시집온 직후에는 가족 구성원을 떠받치는 돌봄의 일이 무엇인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쳐나가야 하는지 몰라 난처했을 테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겪고 있을 이들과 어울리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무척 든든하고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아직 서로 속도 잘 몰라서 완전히 미더울 수는 없었지만, 함께 만나는 시간이 거듭되면서 점차 '우리들끼리'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생겼다.

김기순 : 그래도 조심스럽지.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뭐 흉보거나 그런 건 안 했어. 사람이 똑같잖아. 서로 조심스럽지. 만날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속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래서 좀 서먹서먹했지.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번 만나고 이제 차 먹고 이제 맥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맥주도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구경도 못했는데 [화색을 띄우며] 거기(며느리회)는 조금 그런 게 소통이 됐잖아. [웃음] 그래서 먹자. 그러고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하략)

또한 가족의 큰일을 모여서 치르고 여럿이 함께하는 게 당연함이 되니 그야말로 힘이 되었다.

김계순 : 누구나 일 있으면 다 같이 하죠.

김기순 : 무조건 내가 너네 집에 큰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다 하는 거야. 무조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세월의 기둥, 자매애

며느리회 모임은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남자들이 주관하는 부부 모임에 흡수되었다. 이들은 그때를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무렵으로 기억한다. 며느리회 모임에 부부가 동반하기도 했지만, 활동의 주목적이던 시부모님의 돌봄 의무에서 여성들은 벗어났고, 며느리회 여성들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이다음 세대의 며느리들은 시가와 떨어진 지역에서 독립된 생활을 살아가고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돈독한 관계는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이 생기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다. 며느리가 시댁으로 거처를 옮겨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야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새댁 시절을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위상도 달라진 시대에, 그들은 그저 늘 해 온 것처럼 함께 경로당에서 밥을 나누고 고스톱을 치며 여가 생활을 즐긴다.

이곳이 그리운 장소가 된 까닭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세월이 온전히 남아 있기에 그렇다. 홍효숙은 몇 해 전 윗마을에 살던 집을 팔고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그럼에도 매일 이곳 경로당에 나와 윗마을 사람들을 만난다. 이 동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립기 때문이다. 홍효숙은 이 분위기를 '자매애'라고 표현하였다.

홍효숙 : 다 형님이고 동서고. 언니고 동생이고 그러는 거 같은 자매애 같은 분위기가 나가지고 좋다고.

약 15년 전에 아랫마을에서 살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받고 윗마을로 이주한 유병숙도 친인척 관계없이 '윗사람들한테는 다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가 형님, 동생으로 부르는 이들에게 느끼는 마음 또한 자매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랫마을은 홍씨, 이씨 집안 사람들이 많은 동네이지만 윗마을과 가리지 않고 며느리들과 남편들이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이때는 이목동의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았다. 그의 기억 속 이목동은 아랫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의 모습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유병숙은 이 좋은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 멀리 가지 않고 윗마을로 이사하였다.

홍효숙 : 좋아요. 살기 좋아. 살기 좋은 동네야 여기. 그래서 떠나기가 싫지. 그리워.

이들이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은 꾸밈과 과장 없이 이들이 서로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부부 모임으로 변화된 며느리회(2011년, 김진흥 제공)



함께 여행을 떠난 며느리회 회원들(2003년, 김진흥 제공)



해우재 척사대회에 참석한 며느리회 회원들(2008년, 김진흥 제공)



며느리회 윷놀이(2011년, 김진흥 제공)





며느리회 윷놀이(2011년, 김진흥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3년 이화경로당 전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윗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화경로당

함께 엮은 경험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얼굴도 모르는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흉흉한 갈등을 겪는 도심에서 살다 보니 이처럼 당연한 이웃 사이가 존재하는가 싶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 여성들의 오붓한 식탁에서 마주앉아 정성스레 차려 주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여운이 남는다.

이 여성들은 시가로 이주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 이들이 펼친 일은 직접 찾아서 해야 하는 농사와 매일의 끼니를 궁리하고 지어내야 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가계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친정으로부터 자원을 받아 기초부터 일구는, 말 그대로 건설적인 일까지를 망라한다. 그들이 집안의 경제에 기여한 과정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농사일, 공장 경영을 하면서 친족들이 함께 먹는 밥까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서로에게 기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집안의 경사에 필요한 가사와 시부모님을 돌보는 활동을 협력의 방식으로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자매애'는 시부모와 시댁 성원들에게 종속될 수 있었던 여성들이 새롭게 만든 관계 맺기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적인 일상의 시간에서 함께 기워낸 새로운 틈들이 이 세월에 녹아 있다.

제6장

변화하는 마을, 남겨진 논과 밭을 일구다

: 이목동의 농업 지속성과 농민들의 생활

송지영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학술연구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이목동 농업의 변화

이목동의 농업 상황을 알려 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수원문화원에서 2008년 출간된 『수원 사람들의 의식주(衣食住)』에서 과거 농업에 대한 정보를 일부 싣고 있다. 이 책은 파장동 주민의 구술을 통해 파장동 농업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쟁기와 소를 이용해서 4월 말에 보통 두 번 정도 논을 갈았다. 논을 갈고 난 뒤에는 써래질을 하고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는 보통 하지를 전후로 3일 안에, 논 한쪽 모판에 볍씨를 뿌려 물모를 심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내기는 품앗이로 이루어졌는데 부유한 농가에서는 농사에 돈을 주고 품을 사기도 했다. 소를 키우지 않는 농가에서는 소를 빌리고 품으로 갚았다. 모내고 보름 후에는 호미를 사용하여 김을 매고 약 열흘 정도 후에 손으로 훔쳤다. 논을 맨 뒤에는 피사리, 피 뽑기를 하다가, 추석이 지난 보름쯤 후에 벼를 베었다.

일제강점기 파장동에서는 팔달과 풍옥 등의 벼를 재배하였다. 추수한 벼는 논두렁에 널어 놓고 말려서 우마차에 싣고 집으로 왔다. 벼 타작은 손으로 하고 절구에다 여러 번 찧어서 먹었다. 가을에는 보리를 심었는데, 골을 다듬어서 보리 씨앗을 넣고 검은 대로 흙을 덮었다. 보리논은 음력 3월이 가기 전 2월 말경에 한두 번 매었고 파장동에서는 음력 5월 중순까지 보리를 베었다. 보리를 타작할 때는 나무 혹은 평평한 곳이나 바닥에 자리개질로 했다. 보릿고개 시기에는 덜 익은 보리를 솥에다 찌고, 그것을 절구에 찧어 먹었다. 이후 통일벼나 안남미 등이 출시되면서 식생활이 바뀌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소리를 했다. 논을 맬 때나 훔칠 때 소리꾼이 먼저 소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이 따라서 하는 방식이었다. 소리는 선소리를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경기민



일제시기 이목리 농경지

요인 양산도(陽山道)나 방아타령을 주로 했다.

『수원시 통계연보』에서도 농업 상황을 일부 알 수 있다. 1964년 이목동의 농지 면적 조사가 실시되었고 1965년부터는 파장동을 기준으로 작물의 종류와 생산량 조사가 있었다. 1965년 이목동의 인구는 726명(113가구)이었다. 이 중 농업에 종사한 인구는 남자 90명, 여성 81명이었다. 농작물 생산에 대해선 파장동, 이목동, 천천동, 정자동, 율전동이 함께 조사되었는데 쌀, 보리, 콩뿐만 아니라 무, 배추, 고추, 마늘, 양배추, 오이 등도 재배되었다. 주민들은 과일 중에서 복숭아, 포도, 감을, 특용작물로 들깨, 참깨, 피마자를 재배하였다.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다.

1974년 이목동의 인구는 2,197명(남성 1,140명, 여성, 1,057명)이고 전체 521가구 중 76가구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목동이 속한 파장동은 수원에서 평동(639호) 다음으로 가장 많은 571농가가 있었으며 평동·서둔동과 함께 전답, 과수, 채소, 특용작물, 고등원예,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파장동(이목동 포함)에서는 무, 배추, 양배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고추, 가지, 토마토, 마늘 등이 재배되었고, 이 중 호박, 참외, 수박, 가지, 토마토, 파, 마늘은 수원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았다.

1980년 이목동의 밭은 52만 6,089㎡, 논은 32만 3,745㎡로, 이목동은 밭농사 위주의 농업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목동에서는 무, 배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고추, 가지, 토마토, 파, 마늘, 당근, 시금치, 딸기, 상추가 재배되었다.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자두 등이 특용작물로 참깨와 들깨가 재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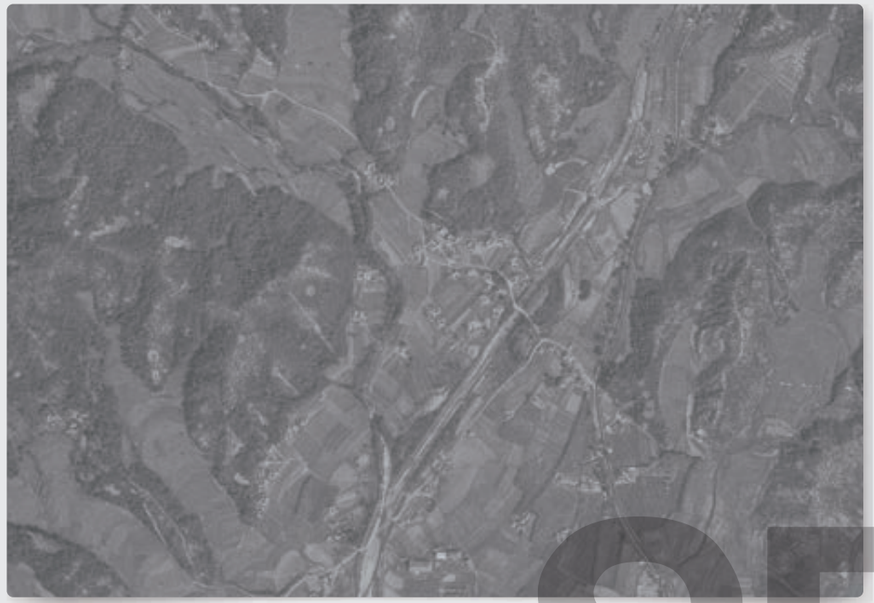
1982년부터 『수원시 통계연보』는 동별 원예작물 생산량만 알 수 있게 되었는데, 파장동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업 생산 현황은 1983년부터 수원시 전체(1990년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단위의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 농산물의 수매 및 유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 통계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목동의 논은 23만 7,978.0㎡, 밭은 42만 1,323.7㎡이다.

임야가 180만 3,364.2㎡이며 대지가 182만 2,788.1㎡이다. 밭은 장안구에서 상광교동(43만 2,200㎡) 다음으로 가장 넓으며 논은 장안구에서 가장 넓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과거에 비해 이목동의 농업 규모가 축소된 상황이다.



1972년 이목동 괴목정교 부근 농경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6년 밭과 논으로 이용되는 농경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85년 소규모 공장과 주택의 증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근교 농업(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7년 농원과 주택 증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93년 도로와 학교용지의 증가와 농경지의 감소(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도 노령화되었다. 이런 상황에 이목동의 현재 농업을 살펴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목동에는 토박이 인구가 많고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도시에서 한평생 한 지역에서 살며 농사를 짓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목동에서 태어나서 평생 농사를 지어 온 두 농부, 장덕근과 유예식의 구술을 통해 이목동의 농업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랫마을 농부 장덕근의 농사 이야기

2023년 10월 필자가 이목동 토박이 농부 장덕근과 인터뷰 약속을 잡던 날에도 그는 벼베기 일정 때문에 인터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행히 인터뷰 전에 미리 추수가 끝난 덕분에 비가 오는 날 이목동 자택에서 장덕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밭에서 만나야 하는데, 비가 내려 그럴 수 없어 아쉽다고 했다.

장덕근은 1940년 이목동에서 태어났다. 장덕근의 조상은 조선 중종 때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목동으로 이주하였다. 장덕근의 부모는 이목동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가 어린 시절 이목동에는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다. 여느 이목동 사람들처럼 장덕근의 가족도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다. 농사로만 살기가 어려워서 이것저것을 등에 지고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도 했다.

장덕근의 윗세대는 모여서 하우스 농사를 같이 짓기도 했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목동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촌지도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소수가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농촌지도소에 함께 다니며 농업 발전을 함께 꿈꿨다. 딸기 재배도 농촌지도소에서 권유하였다. 부인인 이윤호는 농촌지도소에서 EM용액을 보급하고 사용법을 알려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에 EM용액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목동에는 1960~1970년대 딸기 재배농가가 많았는데, 당시 이목동 사람들은 딸기 모종을 사서 노지에 심었다. 장덕근은 이목동에서 비교적 늦게 딸기를 심은 축에 속하였다. 딸기는 처음 심어 본 작물이었지만 그의 이웃이었던 가시돌농장에서 딸기 재배법을 알려 주고 도와준 덕분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었다. 현재 가시돌농장이 있던 곳은 절이 되었지만, 한때 농장은 지역에서 제법 큰 포도와 딸기 과수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인적이 없는 노송지대에 매대를 차리고 딸기를 파는 바람에 잘 팔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딸기를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

논농사는 윗마을에서 주로 많이 했다. 윗마을에서 논을 가는 날에는 아랫마을 인력도 동원되었다. 장덕근도 논을 갈러 윗마을로 갔었다. “그땐 딸딸이(농운기)로 갈아 줬었지. 그때만 해도 딸딸이로 갈아 주니까 윗마을이고 뭐고 안 간 데가 없지.” 장덕근은 경운기로 논을 갈아 주느라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는 이 지역에서 논에 바로 심는 ‘물벼’를 가장 먼저 재배한 사람이기도 하다.

> **장덕근** : 1년에 한 번 쓰는데 큰 농기구 이게 뭐야? 논 갈구 모내 주고 그러는 건 다 남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기야 반은 우리 농사지은 거, 반은 가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다면, 50만 원은 사람들 거야. 그 기곗값이 비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일 안 하면 농약 뿌리고 그러고 우리가 안 하면은 사람 써서 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저기야 남는 것도 없어.

이목동에서는 지금까지도 소수에 의해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2004년부터 농협에서 직접 수매 중이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 올해는 수원농협이 총 세 가구가 추수한 쌀을 수매하였다.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농사에 앞장섰던 장덕근도 농사 규모가 많이 줄어서 농기구도 갖고 있지 않다. 지금은 농기구를 가진 사람이 와서 장덕근의 논농사를 돕는데, 그렇다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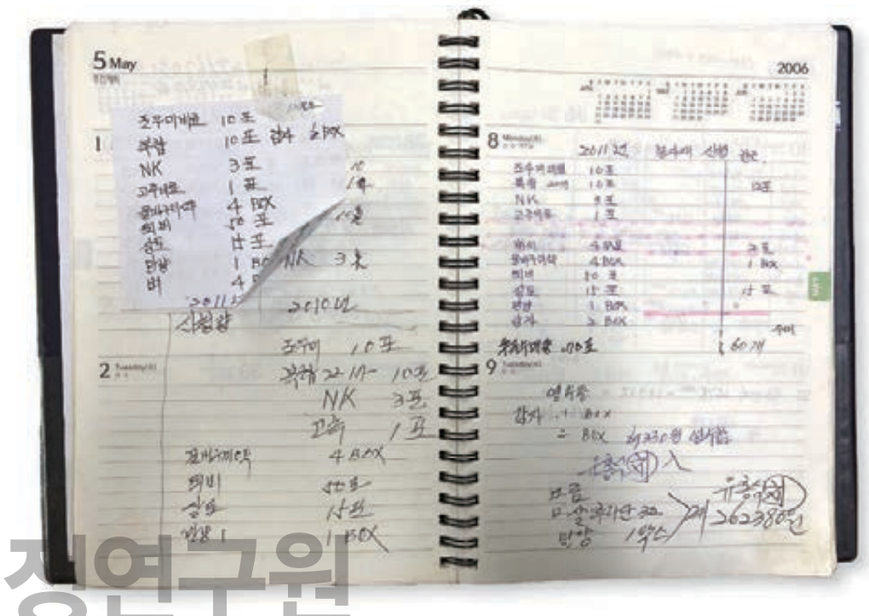


1971년 산골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덕근(장덕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를 몰고 있는 장덕근(장덕근 제공)



2006년 농자재 구입부(장덕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니 농사를 지어도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요즘엔 인건비가 비싸서 일당으로 최소 8만 원은 줘야 한다. 하지만 구한 인력이 8만 원 가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장덕근의 농사는 가족 농사로 남았다. 장덕근 부부가 연로해지면서 자주 논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잡초를 잡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장덕근의 농사는 주말에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는 편이다. 장덕근의 부인 이윤호는 그저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소일거리 삼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국토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덕근 부부는 밭에서 키운 야채를 주로 시장에 가서 팔아 왔다. 다른 작물과 달리 감자는 동네에서 팔았다. 수원에 있던 선경직물 공장에서 감자를 많이 사 갔다. 감자가 인기가 많다 보니 벌이가 좋았다. 장덕근는 감자를 판 돈으로 괘종시계를 샀고 딸기를 팔아서 손수레를 샀었다. 언젠가는 산에서 토끼를 잡아서 닭을 사고 닭이 난 달걀을 병아리에서 닭으로 만들어 다시 팔아 돼지를 산 적도 있다. 지금은 자식들과 나눠 먹고 남은 야채를 팔기는 하지만, 시장에다 내다 팔지 않고 인맥을 동원해서 비공식적으로 팔고 있다.

장덕근은 평생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지만 자식들이 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잠시 직장 생활을 했던 적도 있다. 농사만 지어서는 자식을 가르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고려합섬에서 10년 정도 근무했고 벽돌공장에도 4~5년 다녔다. 장덕근의 아내 이윤호는 농약공장 등에도 다녔다.

장덕근 부부의 1년은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바쁘다. 2월에 마늘, 양파 걷고 3월에 모종 심는다. 못자리를 만든다. 5월에 모내기하고 초에는 봄 채소를 심는다. 이웃들과 나눠 먹을 고구마와 옥수수도 심는다. 콩도 시기에 따라 달리 심는다. 완두콩은 3월, 강낭콩은 5월 다르다. 노란 콩과 울타리콩은 그 뒤에 심는다. 콩도 제철이 있다고 철에 맞는 콩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8~9월에 김장 채소를 심는다. 10월에 양파, 마늘을 심는다. 보리를 심어서 보리 엿기름과 보리굴비를 해 먹는다.

장덕근 : 너무 일찍 심어도 안 되고 우리 조상님들이 절기는 진짜 잘해 놨어. 옥수수를 심어도 절기에서 딱 맞춰서 따게 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편 『조선일보』 2006년 10월 19일자 '리포터가 뛴다' 코너에 "장씨네 벼 베던 날"이라





장덕근 이윤호 부부

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주인공인 장덕근은 2006년 10월 13일 논에서 벼를 타작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추석 전부터 벼를 베는 날을 미리 잡고 주변에 '통고'하여 품삯을 안 받고 일할 '일꾼'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돈을 안 받고 일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과거 딸기밭, 포도밭 시절부터 함께 놀며 성장한 장덕근의 60년지기 동네 친구들이 품삯을 받지 않고 추수를 돕는다. 이들 모두 여든이 넘은 이들로 현업에서 손을 뗄 만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장덕근의 가장 큰 농사 일손이 되어 주었다.

황금빛 들판에서는 장덕근의 가족과 친구가 탄 콤바인이 논 가장자리부터 돌며 벼를 탈곡하였다. 장덕근의 아들은 벼 베는 날을 위해 회사에 휴가를 냈다. 당시 평균 연령 67세인 1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콤바인에서 논둑으로 볏단을 날랐다. 이날 오후에 정미소로 직행한 장덕근 부부가 재배한 쌀은 수원농협이 최고 등급으로 인증하는 '특다'를 받았다. 장덕근은 바쁜 농사철마다 도와준 동네 친구들 덕이라고 친구들에게 추수의 영광을 돌린다. 이날 장덕근의 친구 김진영은 "덕근이네 벼 베는 날은, 우리들이 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고 했다. 농사일에 빠질 수 없는 새참도 함께 했다. 이날 새참 메뉴는 콩을 넣은 찹쌀밥, 아욱국 등 푸짐한 상이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장씨네 벼 베던 날(『조선일보』 2006년 10월 19일)



장덕근의 밭일을 돕고 있는 친구 김진영

3. 윗마을 농부 유예식의 농사 이야기

이목동 윗마을에는 과수원이 많았는데, 유예식(1950년생)의 부모도 과수원을 했었다. 포도를 주로 키웠고 후에 딸기도 재배하였다. 물론 마을 사람들처럼 밭농사도 했다. 유예식의 집에는 도라지밭도 있었는데, 윗마을 도라지는 마을에서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좋았다. 유예식은 학교에 다녀오면 책가방 놓고 앉아서 어른들의 농사에 풀 뽑는 일을 도왔다. 딸기 농사를 지을 때는 상자에 포장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

유예식 :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딸기 농사, 포도 농사 같이 해서. 딸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상자에다가 다 하나 일일이 하나씩 재 가지고 남문, 산양상회로 팔러 가고 그랬는데, 다음 날 버스로 가든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정도죠 뭐. (중략) 이제 포도 농사는 그 몇 년도인지 영하 한 20도 이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나무가 얼어 죽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포도를 안 했죠. (중략) 워낙 기온이 낮다 보니까, 나무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눈이 살아있어야 이름의 싹이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열매가 만든 건데 그게 모르니까 이제 지하로.

1970년대 몹시 추웠던 어느 겨울 이목동 포도나무가 모두 죽게 되면서 더 이상 포도 농사는 짓지 않았다. 현재 이목동에는 사단법인 한국포도회가 있어 이곳이 포도 재배가 성행했던 곳임을 알려 준다. 한국포도회는 1980년에 창립된 조직으로, 2002년 사무국을 이목동 475번지로 이전하였고, 2004년에는 한국포도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였다.

유예식 : 딸기는 안 해요. 딸기는 해야 수지가 안 맞으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딸기 과수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일을 벌이기보다, 있는 농작물이든지 하여튼 있는 논밭 이건 놀지 않는 거 지금 일 벌이면 힘들어서 못 해요.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 이목동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는 없다. 1950년생인 유예식이 현재 이목동 농부 중 막내이다시피 하니, 오늘날 이목동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농사라는 일이 모두 체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논밭 농사와 달리 과수원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노년의 농부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유예식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이목동의 대여섯 가구와 함께 모여 버섯을 재배하였다. 현재 해우재 아래쪽이 모두 버섯단지였다. 이목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와서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 경작을 크게 했었다. 유예식에게는 버섯재배에 능통한 친구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노송지대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유예식의 부모(유예식 제공)



1972년 이목동 노송지대 밭(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이목동 벼 수확을 마친 논(수원박물관 제공)



2023년 이목동 모내기를 마친 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있었는데, 율전동에 살던 그 친구의 권유로 느타리버섯을 키웠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붕에 단열재를 넣어 보온력을 높였다. 원목재배가 대신 볏짚을 이용해서 재배했다. 작목반을 조직해서 같이 재배하고 공동 출하하였다. 농사일은 품앗이로 함께 했다.

유예식 : 느타리버섯 볏짚으로 했었고 볏짚을 묶어서 적셔서 쌓아 놓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썩은 걸 또 잘라서 일단 이단 삼단 재배사에다가 쭉 앉혀서 아까 살균을 한다고 그랬지요, 살균해서 버섯 종균을 그 안에 다 넣어요. 그리고 한 달이고 40일 정도 되면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섯 농사는 하우스 단지에 큰불이 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대지라고 그래 가지고, 버섯 종균 섞은 솜. 이거를 쭉 얹혀 놓고 살균한다고 그래요. 살균. 통로에다가 화전 세 개짜리 화덕을 쭉 늘어놓고 불을 피워요. 그러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열기로 살균하다가 과열이 되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버섯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가 보니 화재 피해가 컸다. 당시 입은 금전적 손해도 제법 컸을 텐데, 유예식은 그저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었다고 한다.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불난 것도 그때 또 구조적으로 그런 상태니까 지금 같으면 다르죠. 또 기계화 뭐 다른 기름을 때서 이렇게 열을 올리던가 뭐 좀 그렇게 하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줄 몰랐으니까." 같이 버섯을 키우던 사람들 중 외지에 나가서 버섯 농사를 계속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버섯 재배를 중단하였다. 유예식도 화재 사고 이후로 더 이상 버섯 농사를 짓지 않았다.

유예식은 한우를 키웠던 적도 있었다. 많을 때는 20여 마리까지 키웠지만 사료가 비싸서 풀을 베다가 소를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근데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소 키운 사람들이 재미를 못 봤다."고 한다.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나서 버섯도 재배하고 소도 키우며 한평생 농사와 같이 지내 온 유예식은 지금도 농사를 짓는다. 이제는 잠시 쉴 때도 되었건만 논과 밭에서 보내는 그의 일상은 여전히 분주하다.

유예식 : 밭은 항상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바빠요. 밭은 일이 많아. 그리고 팔 수 있을 만한 작물이 그전에는 옛날에는 뭐 콩도 심고, 참깨, 들깨, 마늘, 양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고추밖에 수입이 난 게 없어요. 그래서 고추농사 주로 하고. 또 감자 좀 심고. 또 한쪽에 고구마 좀 심고. 또 그 안에 자리가 나면 옥수수도 심고.


유예식

고추는 단골 관계의 아주머니들에게 판매한다. 해마다 고추를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 유예식은 매년 팔 수 있는 양만큼만 고추를 재배하였다. 과거에는 재배한 농작물을 시내 상회에 납품했지만, 현재는 상회에 위탁판매를 하면 농사짓느라 고생만 하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직거래로 팔 수 있는 만큼만 재배한다. 쌀은 농협이 전량 수매한다. 가족과 친지들 나눠 먹고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유예식은 농사지을 때는 인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예식은 자신이 추수한 벼를 직접 방아로 찧는다. 이목동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방아를 갖고 있었다. 집에 방아가 있으면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다. 방아가 없는 사람은 해우재 옆에 있던 방앗간을 이용하였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요즘엔 집에 방아를 없앤 사람도 많다. 오늘날에는 용주사 가는 길목의 방앗간을 이용한다.

농사에는 여전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없다 보니 품앗이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품앗이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저씨와 동생벌 되는 일가친지들이다. 동네 친구들도 많이 와서 도와준다. 필자와 만나기 며칠 전에도 들깨를 추수했는데 동네 친구들 덕분에 한 시간 만에 끝냈다고 한다.

유예식은 이목동 농부 중 가장 바쁘다. 그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목동 동네 농사에는 모두 유예식의 농기계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필자와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서 연락이 잘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유예식 : 이 동네 처음에 경운기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내 이 3년 후배가 그거를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모레 개울에서 장마지고 나면 계속 모레 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게 계속 개는 농사는 농사를 계속 농사하는 데 조금 지었고 나는 후로 가진 돈이 없으니까. 경기를 못 살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철탑이 보이죠. 철탑이 하나 들어섰는데 저 위 그거를 내가 운반하는 걸 맡았어요. 그러면은 경운기로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서 돈 한 200여만 원 빌려서 사 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경운기 끌게 된 거야. 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모내기를 하는 유예식(이정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후로 트랙터 샀고, 또 콤바인 샀고, 벼 심는 이앙기 샀고. 동네 농사를 지어 줘야 되니까. 옛날엔 다 손으로 심었지만 차츰차츰 발전을 해서 기계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계를 산 거죠. (중략)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경운기 샀다고 그랬죠. 경운기 사게 되면은 거기에 물론 운반하는 것도 있지마는 가는 쟁기 있어야 되고. 로타리 땅 부시는 로타리 기계도 있어야 되고. 부품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붙여서 갈기도 하고, 다리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농기구를 모았기 때문에, 마을 농사엔 유예식이 갈 수밖에 없다. 유예식은 자신이 갖고 있던 농기계로 이목동 사람들의 농사를 돕고 있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다. 정당한 비용을 받지만, 이웃이 간단한 일을 부탁할 때에는 그냥 해 줄 때도 많다. "양이 많으면 액수가 좀 크고, 적으면 아주 조그마한 거는 가서 그냥 다 해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이지 뭐.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니까" 마을에서 오래 알아 온 사람들과 달리 외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받기도 한다.

농기계 사용법은 농촌지도소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웠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농기계 활용 교육 프로그램은 각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와서 배웠다. 농기계 사용자에게는 정부에서 면세유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눠 주는 티켓으로 구입한다. 각 농기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배당량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정해져 있다.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농촌지도소, 수원농협에서 기사를 보내 주었다. 유예식은 친구에게 농기계 수리를 맡긴다.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야. 농기구 수리. 이게 수리하고 중개해서 팔기도 하고, 그 친구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나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이제 그는 유예식에게 친형제나 다름없다. 맛있는 거 있으면 불러서 나눠 먹기도 하고 농사지은 것을 나눠 주며 가깝게 지낸다.

현재 그는 이목동 영농회 회장이다. 영농회 회원은 20~30명 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20여 명이다. 외지 사람이 이목동에 땅을 사서 조합원이 된 사람도 있다. 농협에서 행사가 있으면 조합원을 소집해서 함께 가서 교육을 받는다. 식사를 같이할 때도 있다.

유예식의 한 해 농사는 4월부터 시작된다. 가을에 심었던 마늘밭을 걷고 비료를 준 후 못자리를 준비한다. 못자리는 비닐하우스에 한다. 5월 중순에는 모를 심고 고구마,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을 심는다. 오이 모종, 배추 모종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쓰기도 한다. 가을에는 추수한 후 고구마를 캐고 월동할 마늘을 심는다.



이목동 감자밭(이정재 제공)

4. 이목동 농업의 미래

이목동의 농경지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원래는 윗마을 가는 길 공장도 다 논이었고 아랫마을 아파트 단지는 밭이었다. 장덕근은 "다 줄었죠. 동네 농사꾼이 없는 게 그래서 없는 거예요. 농지가 없으니까. 그냥 놀게 돼"라며 과거에 비해 10% 이하도 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장덕근의 밭도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대를 이어 살던 집도 두 차례에 걸쳐 도로로 수용되어서 2016년 지금의 집을 지었다. 현재 이목동에서 땅을 지키고 있던 농부들은 언젠가 농업에서 은퇴할 것이다.

외지에서 살면서 이목동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반갑지만 섭섭할 때도 많다. 올해 유난히 비가 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논밭에 나갔지만 외지 사람들은 밭에 오지 않았다. 긴 세월 세상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땅과 환경도 바뀌었다. 특히 기후 변화로 농사력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장덕근 : 지금 농사철이라, 지금 말이지만 한로, 상강. 지금 한로 때잖아요. 한로가 뭐냐면 24절기에 한로 때면 뭐를 심어야 되는데 그만큼 추위가 있을 텐데 없어. 그러면 아직도 여름 기온이 있을 때가 있잖아. 여름 기온이 있을 때가 있고. 맞아. 그래서 언제 즈음이면 뭐 심어야 되는데, 늦춰도 좀 늦춰도 괜찮은가 봐.

유예식 : '자연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걸 느껴요. 물론 일기예보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는 거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거 뭐 1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 자연환경.

그뿐만이 아니다. 해충과 농약도 변하였다. 유예식은 1년에 사용하는 농약이 10가지 정도 된다고 했다. 농약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던 이윤호는 해충마다 여러 농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이윤호 : 옛날에는 내가 한국농약, 천지산업 농약회사 몇 번 다녔는데 한 번만 주면은 죽었는데, 이제는 안 죽어. 아니 약을 가지각색을 해 가지고 아유. 얘한테는 요거, 쟤한테는 저거. 안 되지. 한 번에 주는 거로 해야지. 아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무슨 벌레는 무슨 뭐 그 맛들이 틀리잖아. 약마다 틀려 가지고. 맞아 이거 주면 이거 죽이고 나면, 또 다른 벌레가 생기잖아. 또 약을 사야 되고. 팔아먹을라고.

장덕근은 밭에서 재배하는 씨앗을 대부분 직접 받아서 심는다. 배추만 씨앗을 사서 심고 있다. 오랫동안 직접 받아서 심어온 오이는 특히 더 맛있다고 자랑했다. 장덕근과 이윤호를 만난 날 실제 오이를 먹어 보니 엄청 아삭하다. 오이김치가 시간이 지나도 물컹거리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다. 호박도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재래종을 재배한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품종이 아니라서 판매는 하지 않고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해 심고 있다.

유예식 : 야채 값뿐이 아니라 농산물 값이 다 싸요. 아니 커피 한 잔에 뭐 4,500원 밥 쌀값하고 비교하면 은 천지 차이야. 너무 비싼 거야.

세월이 흘러 2023년 10월도 장덕근의 추수 현장에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이 글을 위해서 필자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던 날에도, 벼 베는 일정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 추수를 끝냈다며 흔쾌히 만남에 응했다. 인터뷰 도중에 장덕근은 수원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추수 인사 전화를 받았다. 이윤호는 장덕근이 전화를 받는 틈에 "우리 조합장 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 산골짜기 밭(김승일 제공)



이목동 산골짜기 밭(김승일 제공)



수확물 말리기



수확한 고추 말리고 손질하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되게 좋아."라며 과거 부부와 4H클럽에 함께 다녔던 사이라고 했다.

인터뷰 날에도 원래는 깨를 털어야 했는데 비가 와서 작업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친구들이 연로해져서 지금은 수원에 사는 자녀들이 농사일을 돕고 있다. 필자와 인터뷰했던 그날도 장덕근의 집에는 그의 자식들이 모였다. 장덕근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밭도 구경하고 밭에 가서 함께 점심식사를 했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2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마치고 장덕근 부부는 못내 아쉬운지 손수 농사지은 쌀과 갖은 채소 반찬으로 한 상 가득 차려 맛있는 점심 식사를 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필자를 밭에 데려갔다. 밭에는 장덕근의 자녀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유예식 : 그리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힘이 좀 부친다.' 요거고. 욕심을 좀 앞으론 부리고 싶어도 이젠 좀 욕심은 부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대인관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인심 잃지 말고 있는 거 좀 베풀고 나눠 주고. 요번에도 모두 방아 쌀 방아를 쪘지만, 와서 도와주는 친구들 아저씨들 한 자루씩 두 자루씩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요거 끝나면 나눠 줘야지. (중략) 나는 아직까지 이해심을 잃지 않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한테 뭐 아저씨뻘, 동생뻘 아까 왔던 친구도 도와주고. 동네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줘요. 엊그제도 들깨를 베었지만 혼자 하면 하루 종일 할 걸, 한 시간 만에 끝냈으니까. 그 덕분에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지.

유예식은 이목동의 자랑거리로 동네 인심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목동 토박이들이 지금까지 동네를 지키고 있어서 마을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농지 면적도 줄고 농사지을 때 들리던 소리도 사라졌지만, 농사를 함께 짓던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서 이목동을 지킨다. 장덕근의 딸이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심었다는 밭둑의 꽃처럼, 꽃 같은 마음이 이목동에 남아 있다.

제3부

이목동 배나무골 사람들의 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터줏대감 김인기의 지역 활동과 고향 사랑

제2장 이목동 아랫말 나무꾼에게 시집온 이윤호

제3장 피난민이지만 어엿한 이목동 사람, 김춘자

제1장

터줏대감 김인기의 지역 활동과 고향 사랑

김세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연구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이목동에서 나고 자란 수원의 터줏대감 김인기

수원 토박이 김인기(金麟基, 1915~2013)는 1915년에 수원군 형석면(荊石面) 이목리(梨木里) 139번지에서 경주 김씨 계림군파 21대손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김학원(金學元)과 어머니 함안 이씨 사이의 4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성장하여 이목동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경주 김씨는 오랫동안 이목리에서 세거하였으며 김인기의 부친은 일찍이 마을 이장을 지내며 마을 일을 진두지휘하였다.

이목동은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이라고 불리다가 이를 한자로 표기한 지명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수원부 형석면 지역으로 수원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1831년(순조 31) 간행된 『화성지(華城誌)』에 형석면에는 6개 동이 속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촌(新基村) · 율전(栗田) · 천천리(泉川里) · 탑현동(塔峴洞) · 방축동(防築洞) · 이목동(梨木洞)이 그것이다. 1899년(광무 3)에 발간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도 이목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형면(日荊面) 이목리가 되었고 1936년 일형면과 의왕면(儀旺面)이 통합되자 일왕면(日旺面) 이목리가 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 화성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김인기는 1930년 수원공립보통학교(신풍초등학교 전신)를 졸업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전신) 부설 실업보습학교에 진학하여 1932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수원군 반월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이후 경기도 지방삼림주사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업기사로 근무하였다.

김인기는 서울대학교 재직 당시 그의 꼼꼼한 성격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역사에 남을 큰 공을 세웠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관악산연습림은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에 자리하여 생산

자료로 보는 김인기의 일생

수원박물관 제공



1915년
이목리 출생



1924년(10세)
수원공립보통학교 6학년



1932년(18세)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 실업보습학교 졸업



1933년(19세)
경기도 종두시술생 임명



1934년(20세)
결혼



1935년(21세)
반월면 산업지도원 임명



1937년(23세)
반월면 서기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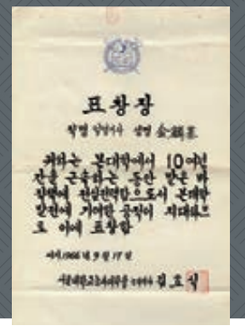
1938년(24세)
경기도지방삼림주사보 합격



1946년(32세)
서울대학교 관악산연습림 촉탁



1949년(35세)
동양유리공업주식회사 사원 임명



1966년(52세)
서울대학교 10년 근속 표창



1967년(53세)
관악산연습림장 직무대리



1970년(56세)
서울대학교 정년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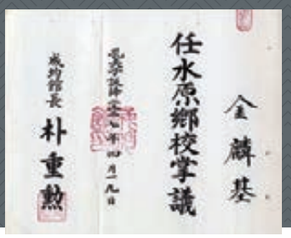
1970년(56세)
서울대학교 22년 근속 표창장



1972년(58세)
대통령 표창장 수상



1979년(65세)
경주김씨수원화성지구종친회 이사



1986년(72세)
수원향교 장의 임명



1995년(81세)
이목동노인회 고문 추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일제강점기 송탄유 생산기술 전습회 전습생(수원박물관 제공)



全景

ニ共ト人〇ニ生習傳ニ會習傳ヲ術技産生油炭松ルナ要重モ放下戰決



이목동에 거주하던 김인기 친족 나들이 기념 사진(수원박물관 제공)

성이 떨어졌고, 위치도 도심지와 인접하여 무분별한 입산자들의 출입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해당 땅을 정부에 반납하였고, 1965년 해당 부지는 국유화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이창복 교수가 관악산수목원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 연구용으로 사용했던 이력이 있는 관악산연습림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유화된 관악산연습림 부지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농대 연습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황당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관악산연습림의 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 소유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20년간 관리하였던 500만 평의 국유림 중 70만 평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보식원(保殖院)이라는 단체의 원장 박원희는 1964년 시흥군청 및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허위 임야 소유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70만 평을 사유지로 둔갑시켰다. 시흥군청 및 안양읍사무소의 공무원들은 가짜 소유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1964년 8월 26일 해당 허위 문서를 근거로 보식원이 국유림을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하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5명의 공무원과 보식원 원장 박원희를 포함한 민간인 5명도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탁금 5만 원을 내고 풀려났고, 이후 전 시흥군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격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며 서울대학교와의 법정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國有林70萬坪가로채
가짜 私有證明만들어
始興郡직원등 10名을 拘束

서울대 농대 연습림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조선일보』 1966년 2월 17일)

당시 서울대학교는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찾으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경기도청 지하창고에서 『조선총독부 관보』(공식 문서)를 뒤지는 작업까지 하던 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인기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냈다. 서울대학교는 재판에서 해당 관보를 증거로 활용하였고,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판결로 서울대학교는 연습림을 되찾았다. 1967년 관악산연습림이 설치된 후 김인기는 관악산연습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연습림 환원 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인기는 1960년대 후반 정년퇴임을 앞두고 노후 생활을 설계하며 농원 운영을 구상하였다. 수목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과 당시 시대 흐름에 맞춘 선택이었다. 1960년대는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고, 국토를 보호하자는 산림녹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시기였다. 당시 이목동은 수원의 변두리에 속하여 토지가 저렴하였기에 김인기는 넓은 땅을 구입한 후 아들들과 함께 밭을 개간하였다. 1970년 은퇴 후 김인기는 고향인 이목동에 본인의 호를 넣은 '청은농원'(靑隱農園)을 경영하였다. 농원 초창기에는 산수유, 회양목, 탱자나무, 꽃나무 등을 재배하여 꽃장수와 조경업자에게 판매하였다. 1960~1970년대 이목동에는 여러 농원들이 생겨났고, 규모가 확장되었다. 김인기는 이목동에서 20여 년간 청은농원을 운영하였으나 영동고속도로가 들어서며 아쉽게도 농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자동으로 이사하여 수원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 갔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젊은 시절 김인기(앞줄, 수원박물관 제공)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인기(수원박물관 제공)



김인기의 어머니와 4형제(김진영 제공)



공로상 수상(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로상을 받은 김인기(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환원 공로 대통령 표창장(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파수꾼

정들었던 농원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손수 돌보던 나무들은 고심 끝에 후학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모교인 신풍초등학교를 비롯해 이목중, 동원고 등 인근 학교에 기증하였다. 이목동의 토박이로 살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자식과도 같은 나무들을 흔쾌히 기증하는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컸던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율전약수터 조성도 김인기의 행보 덕분이었다. 그는 자주 오르내리는 길가에 무방비로 버려진 약수터를 1984년부터 홀로 새벽부터 괭이를 들고 나아가 가꾸기 시작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그의 뜻에 동조하여 함께 '율전약수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멘트 보수도 하고 청소도 하며 꽃도 심어 아름다운 약수터를 만들어냈다. 덕성산 산자락에 위치한 율전약수터는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수원시에서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로 지정하여 주변 주민들이 산책이나 등산을 하면서 약수를 즐기거나 떠가기도 한다.

김인기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이렇듯 아주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목동 노



은퇴 후 운영했던 청은농원 앞에서(수원박물관 제공)



1989년 율전약수회 활동(수원박물관 제공)



율전약수회 야유회(수원박물관 제공)

인정에서 한문 서당을 열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옛 할아버지들처럼 한자와 예절을 꾸준히 교육시켰으며, 교통안전과 거리질서를 위해 '거리질서 자원봉사대'를 조직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김인기가 지역을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펼친 활동은 '노송지대 살리기 운동'이다. 노송지대는 지지대고개에서 옛 국도를 따라 자리한 소나무 식수지역이다. 이곳의 200년 이상된 소나무들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花山)으로 옮기면서 신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원화성을 축성하고 이를 가꾸고자 특별히 현륭원 식목관에게 내탕금 1,000냥을 내려 심은 것이다. 처음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식수하였으나 대기 및 토질의 오염과 차량 진동 등으로 점점 고사하여 많이 훼손되었다. 김인기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이목동 노송지대의 수령 깊은 소나무들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노송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섰다. 1990년 12월부터 수원시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와 호소문을 수백 통 보냈다. 80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김인기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노송지대 살리기 총력

후계목 식재·엽면살포등 지속관리

수원화성과 함께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노송지대(老松地帶). 정조대왕의 수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식재된 소나무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한국화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고령화되고 공해와 병충해에 시달리면서 고사한 경우가 많아 지난 73년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될 당시 137그루였던 것이 이제는 52그루만 생존,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그동안 노송보호를 위해 영양제를 주사하고 후계목을 심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노송 보호 대책을 수립, 보호 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고령화로 쇠약해진 노송들을 병충해 및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노송지대의 풍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후계목 식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시는 우선 1차적으로 노송후계목 10주를 내년 4월까지 식재하고 이후 계속해서 후계목을 심어 나가기로 했으며 노송들에 대한 수세 회복 및 병충해 방지, 뿌리기능 강화를 위한 뿌리 수술 및 토양개량, 생육을 보호하기 위한 엽면살포 작업을 내년 9월까지 마친다.

또 노송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시비작업을 계속하며 삼풍가든에서 용머리 사이 1천75㎡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노송지대는 다시 옛날과 같은 명성을 되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이웃 우리시 「노송(老松)지기 할아버지」 김인기옹

"자연유산 내몸처럼 아껴야"

수원은 한국에서도 집계를 달리 잡고 명백난을 견디는 소나무, 회화나는 고려에도 불구하고 노송살리기 등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김인기옹(83)에 수원시 노송감독관, 수원문화상 지역사회모임 등의 모습을 적 살았다.

「수원의 노송은 정조때부터 보살펴 심함이 없는 아주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수원의 긴 신의 기능이나 다름없는 정화운동 공해속에 내버려두고 방치해도 있을뿐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가꾸고 있기는 하지만 내 힘을 사람들이 아름으로 더 아껴야 합니다.」

이목마에서 농장을 경영했던 김옹에게는 이곳에서 소나무들과 함께 자라난 어린시절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그래서일까 노송지대의 소나무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소나무뿐 아니다. 수원에 대한 애착이 크기에 관계 사소한 일부 파괴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신문에 보고 이 때문에 불쾌하면 서러울 정도의 진노의 분이 된다.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라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의 별명 같명과 서럽. 때문에는 수원을 비롯, 전국 각 시회에 남녀 각종 학생시와 부고들이 과일에 쓰여 관리되고 있다. 이는 시민 들로 부터라면 깊은 보답 이외에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본 받을 만한분이 살펴본 표가 된 계산해야 할 부분을 권장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수원뿐만이 아니다. 경주 불국사와 춘계 고산의 해안계곡, 대둔산 도립공원 등의 노송과 수목이 보존상에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 개선하겠다는 등 답을 받았는가 하면 천연기념물 제30호로 관리되고 있는 화성시 신갈나무의 그기가 안내문에 실못 기재되어 있음을 수정했다.

「당부한 것은 당연히 고쳐야 지요. 이 늙은이 말을 귀담아 들 어주고 시정해 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어디 나를 위한 일인가. 수원과 이 나라를 위한 일이지.」

김옹은 시의회사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20일 수원시문화상을 수상했다. 김옹같이 한평생을 애기해 가꿈은 아름다울 뿐 기도 별처만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평소 예절과 효를 가장 중요한 생활덕목으로 삼고 있는 김옹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교훈삼아 후손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옹의 무사독필 정도로 엄격하게 시켜했다.

「늙기는 늙었나 봅니다. 예절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제는 살펴하구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같이 첫째도 아이들도 그런 날 관련해 하는 것 같이 좋습니다.」

어제만 특별한군입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의 일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녔는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글 송인화〉

김인기의 노송지대 살리기 활동을 다룬 기사(「늘푸른 수원」 제55호, 1997년 12월 3일)



노송지대 살리기 모임에 참여한 김인기(수원박물관 제공)

노력이 알려지면서 '노송지대 살리기 시민'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1997년 11월 26일 수원시문화상 지역사회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김인기에게 '수원시 노송감독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1997년 11월 26일 수원시문화상의 지역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유서 깊은 노송지대에 대한 김인기의 노력은 관계 기관의 관심을 환기시켜 수원시에서도 이들 나무를 보호하는 데 힘쓰게 되었으며, 후계 나무를 심는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마련하게 하였다. 당시 1997년 12월 수원시의 기관지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사가 2건 보도되었다.

먼저 「노송지대 살리기 총력-후계목 식재·엽면살포 등 지속관리」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원화성과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노송지대(老松地帶). 정조대왕의 수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식재된 소나무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한국화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고령화되고 공해와 병충해에 시달리면서 고사한 경우가 많아 지난 73년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될 당시 137그루였던 것이 이제는 52그루만 생존,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
> 이에 우리시는 그동안 노송 보호를 위해 영양제를 주사하고 후계목을 심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노송 보호 대책을 수립, 보호 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고령화로 쇠약해진 노송들을 병충해 및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노송지대의 풍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후계목 식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시는 우선 1차적으로 노송 후계목 10주를 내년 4월까지 식재하고 이후 계속해서 후계목을 심어 나가기로 했으며 노송들에 대한 수세 회복 및 병충해 방지, 뿌리 기능 강화를 위한 뿌리 수술 및 토양개량, 생육을 보호하기 위한 엽면 살포 작업을 내년 9월까지 마친다. 또 노송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시비 작업을 계속하며 삼풍가든에서 용머리 사이 1천75㎡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노송지대는 다시 옛날과 같은 명성을 되찾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원시의 노송지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뒤이어 수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6년 6월 28일 노송지대를 점검하고 있는 심재덕 시장과 김인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1995년 4월 11일 노송지대와 이목동 부근 쓰레기수거에 나선 김인기와 주민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7년 제14회 수원시문화상의 지역사회봉사상 수상(수원박물관 제공)



1997년 수원시문화상 지역사회봉사상 상패
(수원박물관 제공)



2001년 경주 김씨 수원시종친회 공로패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시 노송감독관이자 수원시문화상 수상자인 김인기에 대한 소개와 인터뷰 기사가 “우리시 노송지기 할아버지 김인기 옹--자연유산 내몸처럼 아껴야”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수많은 한파 속에서도 절개를 잃지 않고 몇백 년을 견디는 소나무. 8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송 살리기 등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김인기 옹(83세 · 수원시 노송감독관, 수원향교 장의)의 모습은 그 소나무를 꼭 닮았다.

“수원의 노송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들어 있는 아주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수원의 정신적 기둥이나 다름없는 것을 온갖 공해 속에 내버려두고 돌보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가꾸고 있기는 하지만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아껴야 합니다”

이목리에서 농장을 경영했던 김 옹에게는 이곳에서 소나무들과 함께 지내던 어린 시절이 향수처럼 남아있다. 그래서일까 노송지대의 소나무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소나무뿐 아니라, 수원에 대한 애착이 크기에 관의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건의해 왔고 이 때문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잔소리꾼이 됐다.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방안 장롱과 서랍, 책장에는 수원 등을 비롯, 전국 각 시장에 보낸 각종 탄원서와 투고들이 파일에 묶여 관리되고 있다. 이는 시정된 것과 미시정된 것으로 나뉘어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 시 문화재 안내문의 잘못된 표기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지적하고 있었다. 비단 수원뿐만 아니다. 경주 통일전과 충북 괴산의 화양계곡, 대둔산 도립



김인기가 여러 관계 기관에 보낸 각종 건의서(수원박물관 제공)

공원 등의 노송과 수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 개선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천연기념물 제30호로 관리되고 있는 용문사 은행나무의 크기가 안내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 몇 차례의 재측정 끝에 내용을 수정했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지요. 이 늙은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시정해 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어디 나를 위한 일인가. 수원과 이 나라를 위한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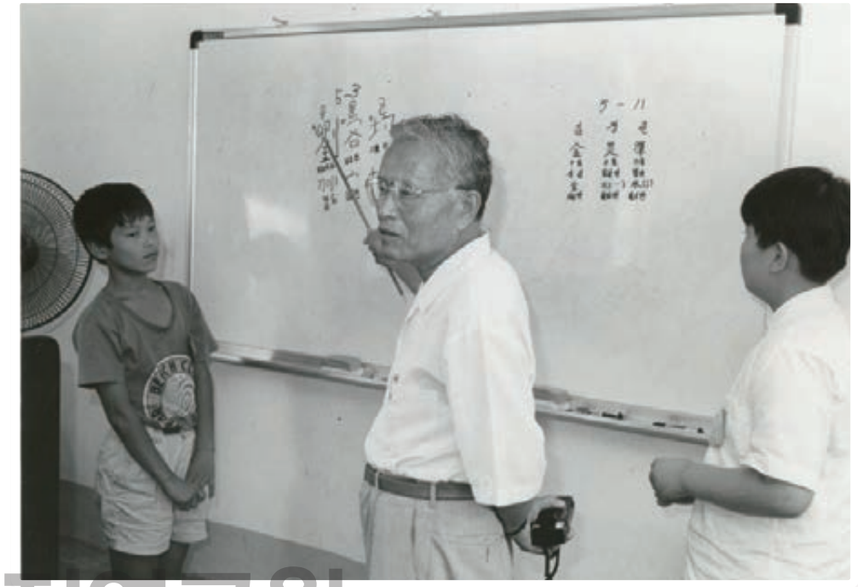
김 옹은 사회봉사부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6일 수원시문화상을 수상했다.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가끔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관에서 인정한 것이다.

평소 예절과 효를 가장 중요한 생활덕목으로 삼아온 김 옹은 수원향교의 장의로 지내면서 방학이면 어린이들에게 한문과 생활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가정교육 시 손주들이 '호랑이 할아버지'라며 무서워할 정도로 엄격하게 시켜왔다.

"늙기는 늙었나 봅니다. 애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이제는 싫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같이 못해요. 아이들도 그런 날 편안해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어쩌면 독불장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의 일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는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김인기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에서 실천된 노송지대 살리기 운동 덕에 현재 노송지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쉼터이자 안식처가 되어 있다. 노송지대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보낸 건의서와 신문, 잡지에 투고한 글과 서류들을 모아 놓은 것만 서류철로 7권이 넘는다.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김인기

김인기의 관심은 소나무뿐만 아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여행을 하더라도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다. 특히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안내문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즉시 사진을 찍고 기록하여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받았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인기는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끝없이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특히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는 한 때 '잔소리꾼'으로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김인기의 관심과 사명감은 수원을 넘어 전국의 관공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꼭 통보받아 낼 정도로 매우 투철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정시킨 사항은 이목동 버스정류장 이름, 융건릉 이름의 재해석,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둘레와 수고 재측정, 경주 선덕여왕릉 안내판 제작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김인기의 애정과 봉사는 또 다른 방면으로 연계되었다. 수원향교 장의(掌議)로서 예절과 충효 교육에도 힘껏 노력하였다.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충효교육과 예절교육을 가르치면서 정조대왕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를 일깨우는 효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효원의 고장 수원'을 지켜내고자 하였다. 이렇듯 김인기의 삶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이어져 왔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소소한 일상의 기록이 역사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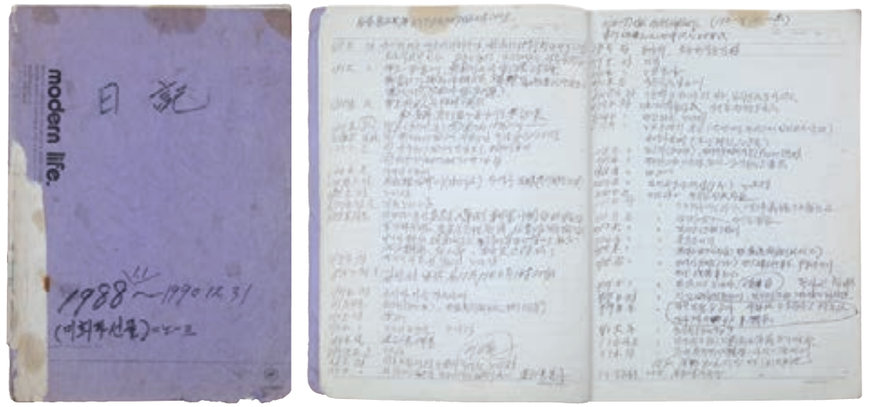
김인기의 일상은 기록으로 시작되어 기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전에도 방문객을 맞으면 으레 종이와 사인펜을 꺼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종이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깨끗한 새 종이가 아니라 달력 뒷면이나 광고지 뒷면의 백지를 묶어 사용하는데 아마도 가난한 시절의 물자 절약이 습관화된 것 같다.

노령으로 청력이 떨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용이한 필담을 종이에 써내려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중에 가보면 만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과 그날 나눈 대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후 문서철로 보관되어 있어서 그의 기록 정신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만남 이후 스스로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김인기의 기록 습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 일기이다. 그가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기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박물관에 기증된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일기장 4권에는 매일 매일의 소소한 일상과 함께 날씨도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다. 빼곡한 그의 글씨를 보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일상을 지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김인기의 기록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관심까지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곧 많은 건의서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었고, 그에 맞는 필요한 자료 수집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주요 관심사에 대한 신문기사의 스크랩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일찍이 김인기의 이런 고집스러운 자료 수집과 기록 정신은 6·25전쟁 때 피난길에서 생긴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수집과 기록을 수시로 해 오던 그는 일생의 기록 문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사에 대한 서류 등을 그냥 두고 피난을 떠날 수 없어 텃밭에 묻어 두고 갔다고 한다. 낙동강 하류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은 그 기록물들이 오늘날 수원시의 역사 자료로써 크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노고 덕분이다. 한말의 교지를 비롯한 각종 고문서, 고서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호적자료, 행정 및 경제생활 자료, 신풍초등학교의 전신인 수원공립보통학교 졸업장 등을 포함한 근대교육 자료가 모두 이때 김인기의 노력으로 인해 보존된 것이다. 그중에서 모교인 신풍초등학교와 관련된 자료는 신풍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때 기증하였다.

수원박물관도 김인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수집한 자료가 기증됨으로써 수원의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세밀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꼼꼼히 정리하고 수집하여 둔 대표적인 자료를 몇 가지 예로 들자면, 먼저 일제강점기부터의 호적, 임명장, 월급봉투, 여권, 병원 처방전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사 기록물뿐만 아니라



김인기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작성한 개인 일기(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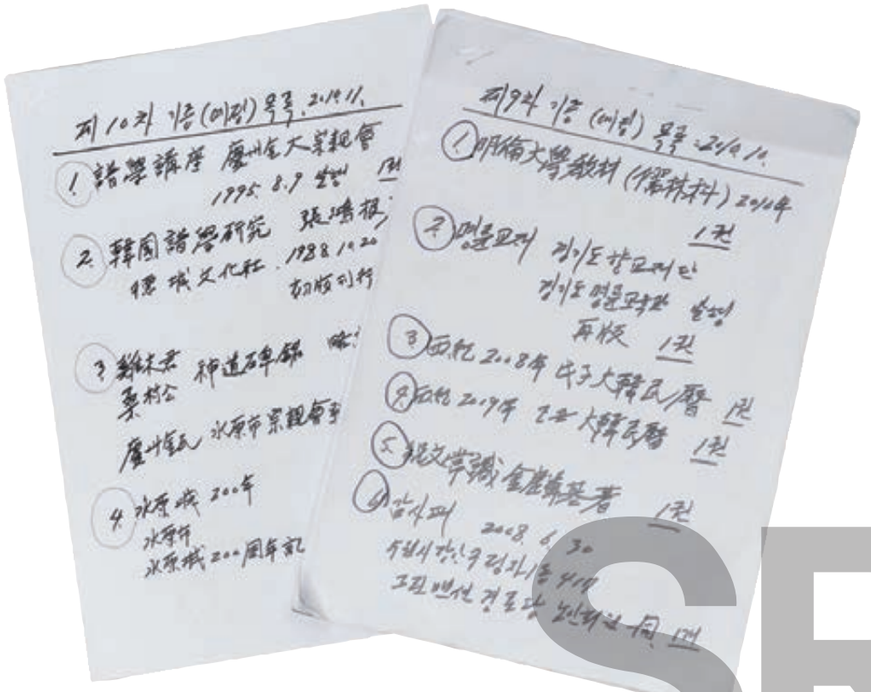


김인기가 직접 제작한 신문 스크랩북(수원박물관 제공)
1993년 1월 28일부터 1997년 7월 25일까지의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아버지 김학원의 편지와 엽서 하나하나, 아버지와 자신이 읽던 각종 고서와 족보, 그리고 하다못해 일제강점기 때 쓰던 빈 용지까지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의서와 그에 대한 처리 내용 서류들, 신문스크랩,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각종 단체의 회의록 등은 각각 내용에 맞게 분류하고 묶어서 제각각 서류철을 해두었으며 맨 앞에는 해당 제목을 쓰고 쪽마다 번호도 매겨 두었다.

김인기는 이렇게 수집하고 기록하여 정리해 둔 자료를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김인기가 직접 기록한 기증 목록(수원박물관 제공)

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매번 기증할 유물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기증 목록을 손수 2부씩 미리 작성해 두고 나서야 박물관에 연락했던 김인기의 행동은 얼마나 수집과 기록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창 자료 기증을 하던 때에도 이미 90세를 훌쩍 넘긴 그의 이런 투철한 기록 정신을 보자면, 문득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세계적인 기록문화유산의 저력이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때도 많다. 개인의 일상적인 소소한 기록과 수집물은 바로 역사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생생한 증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인기의 기록 정신과 자료 수집은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생을 정리하겠다며 그간 수집하고 기록해 둔 소장 자료를 일일이 다시 꺼내서 점검하던 김인기의 역사 만들기는 생을 다하도록 계속되었다.

4. 수원 토박이 김인기의 기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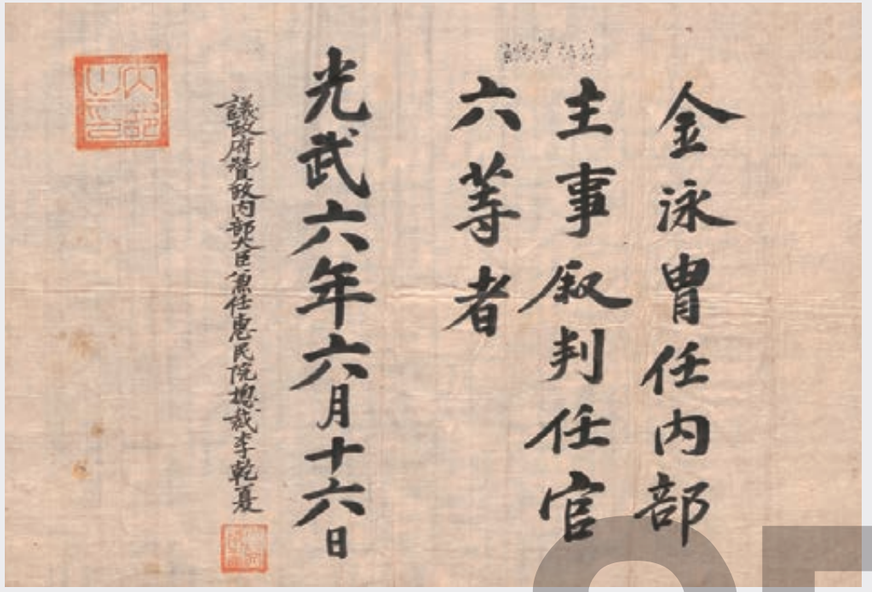


1987년 김인기와 정을희 부부(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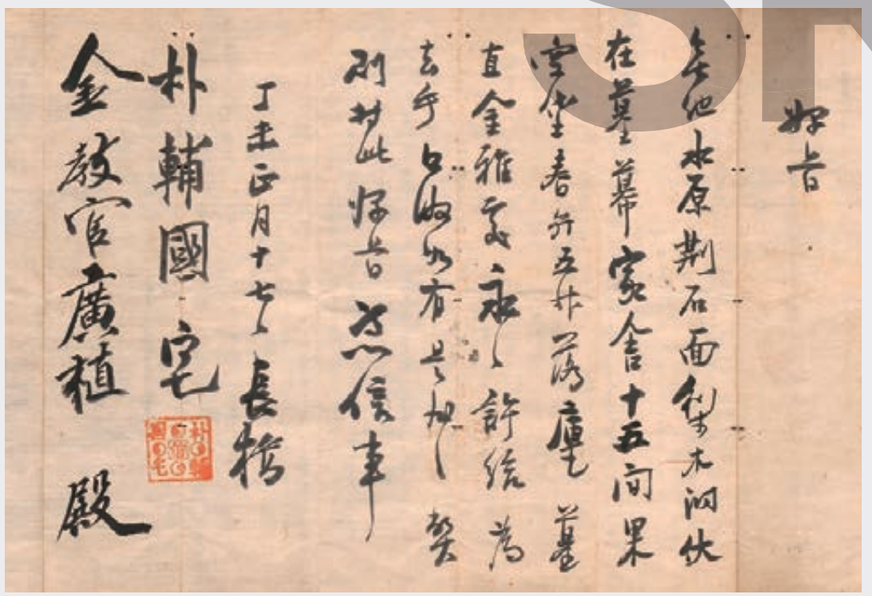
김인기는 수원박물관 개관 시점인 2008년부터 유물을 기증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무렵엔 95세를 넘기며 여생을 정리하기 위한 기증에 열심이었다. 이 무렵 김인기의 부름에 담당자로서 다급히 달려갔던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그의 전화를 받으면 그가 살고 있던 정자동 그린맨션으로 급히 박물관 유물 상자를 싣고 달려갔다. 그는 박물관 70여 명의 기증자 가운데 최고령자였다. 김인기는 당시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억력을 자랑하였다. 필자에게 전화를 걸 때에도 항상 통화목적을 먼저 알린 후 우리가 언제쯤 방문할지를 물어보았고, 몇 시에 몇 명이 오는지도 꼭 확인하였다. 이후 정자동으로 찾아가면 함께 해로하던 동갑내기 부인 정을희는 늘 차와 간식을 준비해 필자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이곳에 갈 땐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그 차와 간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을희는 늘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남겼으면 왜 남겼는지를 묻곤 하였다. 첫 방문 때에는 이런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몇 차례 방문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되었다. 아무리 연로하여도 남편의 손님 접대를 내 일로 알고 미리 준비해 두고 손님이 무엇이 불편하지나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아내 된 도리라고 여기어 음식을 남기면 마음에 걸려 하는 것이었고, 사전에 몇 명이 방문하고 몇 시에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손님 접대에 만전을 기울였던 우리네 옛 어른들의 아름다운 풍속이 몸에 배인 탓이었다.

박물관의 신세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인기와의 첫 만남을 대비해 늘 미리 준비해 두는 몇 가지가 있었다. 바로 이름을 묻고 나면 반드시 자신이 따로 마련한 빈 종이에 기록을 하였다. 한자로 된 이름과 본관, 나이와 소속, 심지어 결혼 유무까지 기록되었는데, 예를 들면 "金世英孃 1972年生 金海金氏 安敬公派 水原博物館 韓東旻 博士와 같이 勤務, 未婚" 이런 식이다. 한자 문화가 익숙한 시대를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더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가 하얀 종이, 까만 사인펜, 돋보기를 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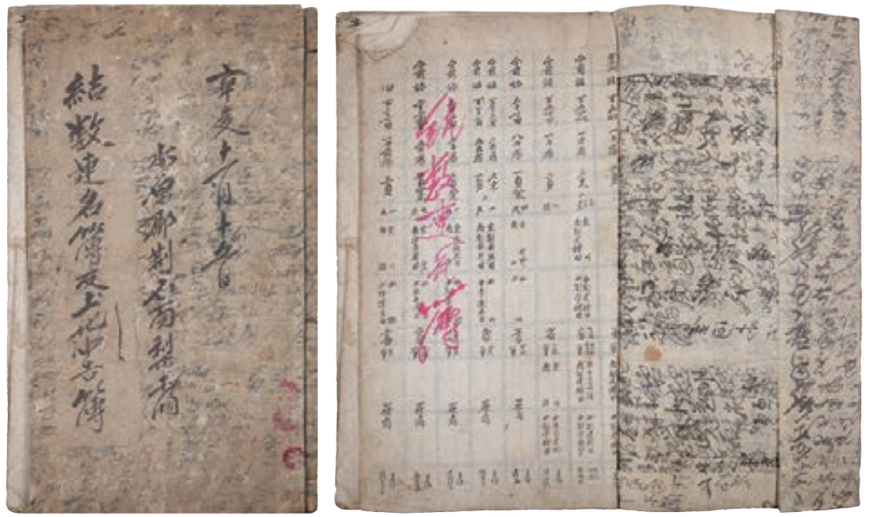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2년(광무 6) 김영주 내부주사 및 판임관 6등에 임명장(수원박물관 제공)



1907년(정미년) 교관 김광식에게 묘막의 가사와 춘모 5되지기 땅 허급하는 배지(수원박물관 제공)



일제 초기에 작성된 『수원군 형석면 이목동 결수연명부급토지신고조사부』(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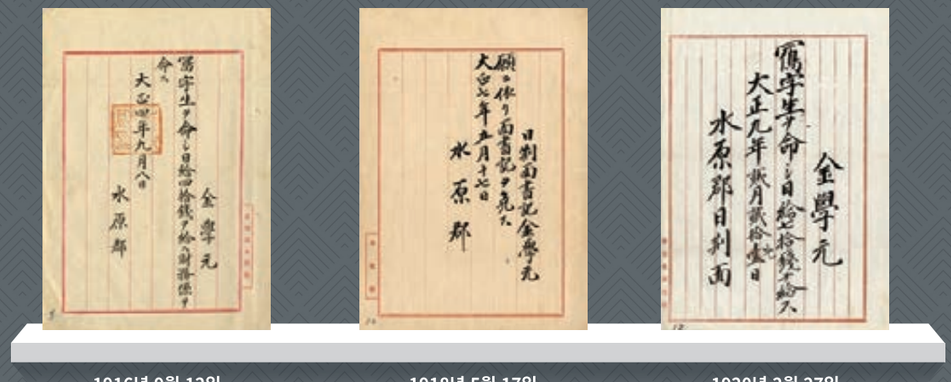
며 필자에게 평생 모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기증은 다양한 분야의 자료였다.

이목동에서 1915년 태어난 김인기는 다양한 자료 700여 점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그의 꼼꼼한 기록과 정리는 당대를 사는 우리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생애를 온전히 보여 주는 이력서를 정리한 '이력서 묶음'은 일련번호를 매겨 흩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아버지 김학원의 대한제국기 이력서부터 시작한 이력서 묶음은 이목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들 집안의 뿌리를 온전히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력서 묶음과 호적철, 그리고 사진첩 등은 개인의 착실한 기록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인기의 기증 유물 중 이목동의 역사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기록물은 서울 죽동에 거주하는 박판서댁의 이목동 묘역과 관련된 것이다. 박판서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수원부 형석면 이목동에 조상의 묘역을 조성한 선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 이목동에 묘역을 조성한 박판서댁의 묘제(墓祭), 곧 제례의식 때 사용되던 제기와 제물에 대한 고서와 묘지기·산지기 간의 응역(應役)과 계전(稧錢)에 대한 규정을 한문과 국문을 병기한 문서가 주목된다. 말미에는 묘지기와 산지기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매 장마다 인장이 찍혀있다. 이들 자료는 이목동에 세거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사대부 묘역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어 조선

김인기가 수집한 부친 김학원의 임명장과 해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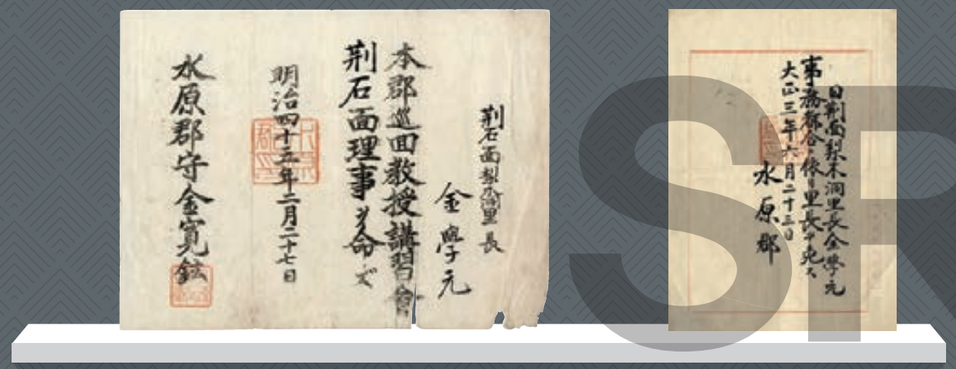
수원박물관 제공



1916년 9월 12일
수원군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일형면 서기 임명장

1918년 5월 17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20년 2월 27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1912년 2월 27일
수원군수 김관현이 형석면 이목동 이장
김학원에게 수여한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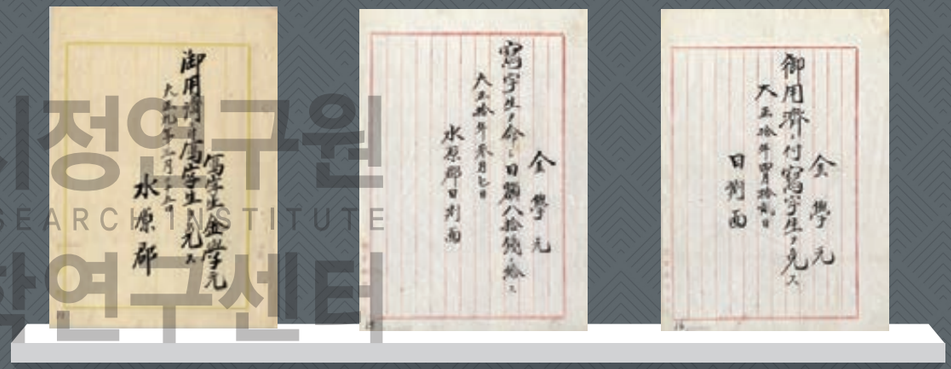
1914년 6월 23일
경기도 수원군에서 일형면 이목동 이장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15년 9월 8일
수원군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1915년 11월 15일
수원군에서 사자생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16년 4월 4일
수원군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일형면 감시고원 임명장



1920년 3월 25일
수원군에서 사자생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21년 3월 7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1921년 4월 12일
수원군에서 사자생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21년 6월 3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김학원에게
수여한 사자생 임명장

1932년 7월 8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수여한 해임장

1937년 4월 25일
반월면에서 산업지도원 김인기에게
수여한 해임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인기가 수집한 부친 김학원의 월급 및 상여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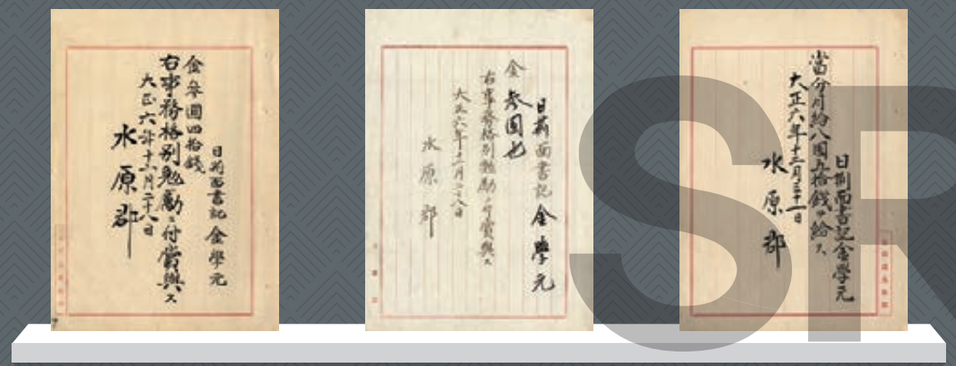
수원박물관 제공



1923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26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28년 12월 31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17년 12월 28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17년 12월 28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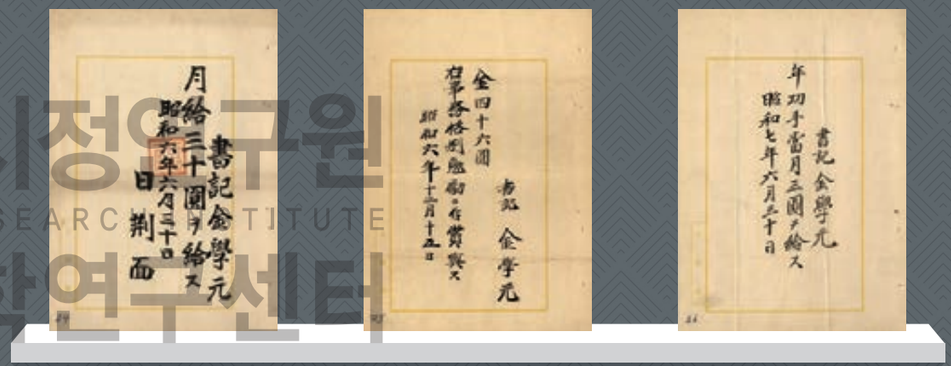
1917년 12월 31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21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22년 3월 31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22년 12월 15일
수원군에서 일형면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31년 6월 30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1931년 12월 15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상여통지서

1932년 6월 30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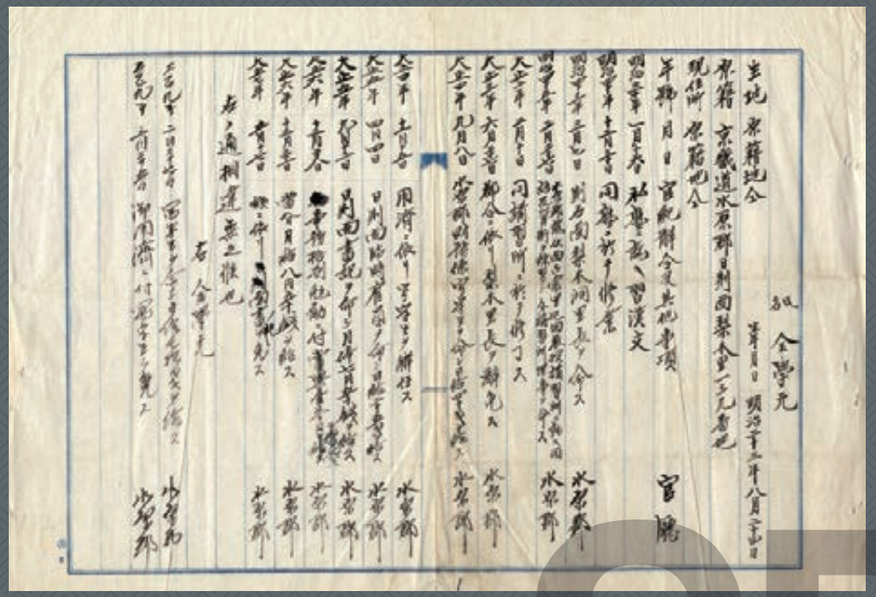


1932년 7월 8일
일형면에서 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월급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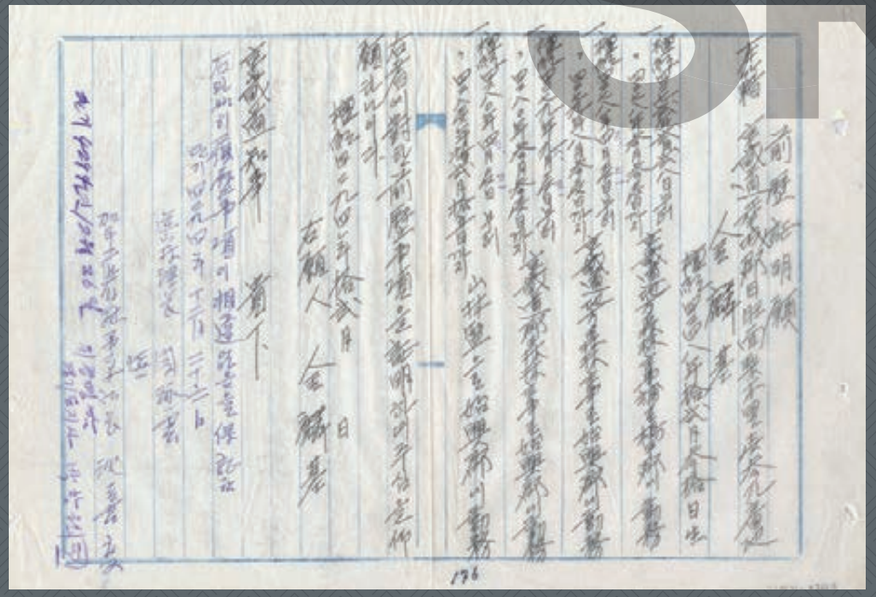
1932년 7월 30일
수원군 일형면에서 원서기 김학원에게
발급한 퇴직급여금통지서

1932년 8월
일형면 직원 일동이 김학원에게
은배 1대를 근정했다는 내용의 증정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인기가 수집한 아버지 김학원의 이력서(수원박물관 제공)



1961년에 작성된 김인기의 전력증명원(수원박물관 제공)



김인기가 작성한 서류철(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8년 수원박물관 유물기증식(수원박물관 제공)

후기 수원 지역의 사회경제사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이처럼 집안 대대로 가전되어 오던 조선 후기 자료는 선조들이 지켜온 삶의 터전인 이목동에 대한 기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자료를 기증한 김인기는 수원 토박이로서 지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틈나는 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며 삶의 갈피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뒷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범상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고루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보통의 각오와 노력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수원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사람들은 여타의 사람들과 다른 자부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상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가 반드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다. 이목동에서 400여 년을 넘게 살아온 김인기도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와 우리들에 대한 긍지로 이어지는 것이니, 수원과 수원 사람들에 대한 풍부한 자료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만큼 김인기의 기증 유물도 주목받아 마땅하다.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터전에서 생존을 위한 고단한 삶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역사적 자료에 대한 방치를 가져왔다. 먹고사는 것이 우선시되면서 황금만능시대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터전을 향해 대이동을 시작하였다. 먹고사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아이들 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향도의 시대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수원도 급격하게 팽창하여 어느덧 인구 120만 명이 넘는 대도회지가 되었다. 수원의 전통적인 동족 마을의 해체와 아파트로 대표되는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3대 이상 '화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오래된 것들은 실용적인 것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잃은 채 버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버리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는 후손들이 누려야 할 또 다른 역사를 훼손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김인기처럼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역사적 자료와 우리 당대에 이미 쓸모를 잃어버린 것들을 고이 보관하였다가 박물관에 기증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행위인 셈이다. 경제적 가치를 떠나 우리 시대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후손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위한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김인기와 같이 수원 사람들과 수원의 모든 것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은 후손들에게 선조로서 당대의 우리 것들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인 것이다. "어디 나를 위한 일인가, 수원과 나라를 위한 일이지."라는 생전에 이른 김인기의 한마디 말씀이 그의 자료 수집과 기록 정신에 대한 철학이자 후손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대변한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2장

이목동 아랫말 나무꾼에게 시집온 이윤호

이태영 전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인천 아가씨, 이목동 아랫말로 시집오다

이윤호는 1945년 인천 옥련동에서 농사꾼 부부의 둘째로 태어났다. 고향 옥련동은 인천항 근처의 해안가 마을로 수인선 송도역과 미군 저유시설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농사도 짓고 피복을 파는 보부상도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다. 아버지는 농사지어 수확한 쌀이나 농작물을 장에 가져가, 장사할 피복으로 바꿔오곤 하였다. 무거운 짐 보따리를 가지고 집에서 5분 거리의 송도역에서 협궤열차를 타고 장에 다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그녀와 형제들은 농작물을 지게에 져 송도역까지 옮겼다. 아버지가 장에서 피복을 가지고 돌아오면, 다시 송도역에 나가 피복을 지게에 실어 집까지 왔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혼자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인 피복 꾸러미를 집까지 굴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농사일과 보부상을 겸하며 고되게 사셨고, 가족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힘썼다.

한국전쟁으로 그녀는 1년 늦은 아홉 살에 송도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전쟁 이후라 천막이나 나무 그늘에서 70여 명씩 모여 수업을 들었다. 다들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이었으므로 그녀는 국민학교 졸업 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언니는 중학교를 나오는데 그녀는 그러지 못하니 조금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인 은하수학교를 2년 정도 다녔다. 은하수학교에는 학생이 30명 정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학생도 있었다. 선생님은 국군이었고 영어뿐만 아니라 윤리 등 전 과목을 가르쳤다. 그녀의 부모는 배움을 이어 가기 위해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이윤호를 말리는 대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딸을 염려해 수업이 끝날 때쯤 학교로 데리러 오며 자상하게 딸을 챙겼다.

그녀는 결혼 전까지 집에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왔다. 밭에 참외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처녀 시절 이윤호(1960년대 초반)

원두막에서 참외를 팔기도 하였다. 은하수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였다. 집안일과 농사일뿐만 아니라 갯벌에 나가 맛이나 조개도 캐다 팔았다. 그녀가 아침에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오면 어머니는 이웃들과 그것들을 까서 신포시장에 팔러 갔다. 어머니가 장에 못 가면 그녀는 형제들과 10리가 넘는 신포시장까지 걸어가 조개를 팔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 기운이 없어 조개를 많이 못 잡았다고 하였지만, 2년이나 주경야독하는 독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하셨던 부모님과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안타깝게 기억하였다.

이윤호는 고향이 이목동 윗말이던 큰어머니의 중매로 이목동 아랫말 토박이에게 시집왔다. 혼담이 오갈 때 남편이 그녀의 인천 옥련동 집을 방문하면서 이윤호 부부는 서로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순진해 보였던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선을 본 둘은 결혼을 약속하였고, 남편은 그녀의 집에 다시 한 번 찾아와 함께 약혼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녀는 혼수로 당시에 유행하던 호마이카(formica) 장롱과 이불 두 채를 준비하였다.

결혼식 날짜는 1966년 12월 31일로 그해 마지막 날이었고, 장소는 과거 수원 중동사거리 조흥은행에서 수원극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던 문화예식장이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이윤호와 가족들은 송도역에서 수인선 첫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와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 이윤호는 신랑의 가족들과 수원 이목동 아랫말 집으로 왔고, 신부의 가족들은 수원역에서 다시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인천 송도역으로 돌아갔다. 신랑 집 마당에서는 친척 및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은 잔치 음식으로 국수를 먹었다. 신랑과 신부는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고, 신혼여행 없이 집에 머물다 3일 후 신부집으로 인사를 갔다.

이윤호가 시집왔을 때 이목동 집은 방 두 개와 큰 마루가 있는 초가로 남편이 군대 갔을 때 시아버지가 새로 지어 꽤 컸다. 하지만 대문이 아닌 싸리문에다 수숫단에 가시나무를 넣어 만든 울타리가 쳐져 있어 허전하였고, 집 주변은 다 돌무더기에다 사람 사는 집이 많지 않았다. 그녀의 고향 인천 옥련동 옥골의 가옥은 대부분 한옥이었고, 이목동보다 풍요로운 동네였으므로 비교가 되었다.



이윤호와 남편의 결혼 전 약혼기념 사진(1966년 9월 19일)

결혼 전 그녀는 신랑 될 사람이 나무꾼으로 나무를 해 팔러 다니면서 수원농고를 졸업하였다고 들었다.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에 그러한 신랑에게 시집가면 고생 없이 살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시집온 지 1주일 만에 결혼하면서 받은 패물을 팔았다. 결혼식 후 그녀는 시부모가 빚을 내서 아들의 결혼식과 잔치, 며느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빚에 대한 부담을 참을 수 없어 예물로 받은 석 돈짜리 금반지를 미련 없이 내놓고 빚을 갚게 하였다. 금값은 팔 때가 살 때보다 낮아 밑지는데, 다행히 그사이 금값이 올라 본전을 받고 팔았다. 시아버지는 시집의 사정을 알고 선뜻 패물을 팔아 빚을 갚게 도와준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다.

그리고 그녀는 금반지를 팔고 남은 돈으로 송아지를 사게 하였다. 시집와서 보니 시집은 농사철에 남의 집 도짓소를 빌리고 그만큼 그 집 일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너무 속상하였다. 소가 있으면 우리 집 농사뿐만 아니라 남의 집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좋은 소는 못 사고 제일 싼 까만 얼룩의 어린 소를 샀다. 어린 젖소를 1년 넘게 키워 제법 큰 소가 되자, 그 젖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윤호의 결혼식(1966년 12월 31일)



얼룩소를 팔아서 다시 산 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를 팔고 얼룩소를 사 왔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얼룩소에게 일을 가르치니 소가 일을 곧잘 하였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소를 빌려 쓰기 위해 집으로 와 일해 주었고,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2. 새댁의 고달픈 시집살이

남편은 2남 3녀 중 장남이나 세 명의 시누이는 모두 출가하여, 이윤호는 시부모와 막 중학생이 된 시동생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집은 항상 시누이네 조카들로 북적였다. 방 하나는 시부모와 시동생이 함께 사용하였고, 다른 방 하나는 이윤호 부부가 사용하였는데, 조카들이 오면 부부는 조카들과 함께 방을 써야 했다. 신혼부부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다. 이것을 안쓰럽게 여긴 시아버지와 남편은 개울에서 돌을 지게로 져 와 집 앞에 쌓고 거기에 흙으로 담을 쌓아 올려 부부가 지낼 방과 외양간 등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흙담



집 앞에서 시동생(중간), 시누이네 조카(우측)와 함께



집 마루에서 윗말 시누이네와 함께(1970년대 초)



10촌 형님과 함께 찍은 사진



시아버지 회갑연에서(1968년)
뒷줄은 시동생과 남편·이윤호, 앞줄은 시부모님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방은 결국 시누이네 조카들이 차지하였고, 부부는 벼 가마를 쌓아 놓은 건넌방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출가 후 어렵게 사는 딸들과 그 외손주들을 각별하게 챙겼다. 그렇다 보니 시누이네 조카들은 외가에 자주 왔을뿐더러 방학 때는 한 달씩 오래 머물러 있어 이윤호를 힘들게 하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농사일로 나가니 조카들을 챙기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몫이었다. 끼니마다 밥해 주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까지 해 주니 일이 많았다. 방학에 오래 있으면 쌀도 많이 들었다. 조카들은 통학을 집이 아닌 외가에서도 해 도시락까지 싸 주었다. 이렇게 조카들 때문에 힘드니 남편은 아이들을 인천 옥련동 외가로 보내지 않았다. 아이들이 외가로 가서 며칠 지내면 처가 식구들도 불편하고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못 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윤호의 아이들은 외가를 모르고 자랐다.

시아버지는 동네에 일 보러 다닐 때 며느리를 종종 데리고 다닐 정도로 예뻐하였다. 결혼 다음 해 이윤호는 첫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바닷가에서 성장해 생선을 자주 먹고 좋아하던 그녀는 임신 후 생선이 먹고 싶었다. 시아버지가 그러한 며느리의 사정을 알고 동태를 사 왔는데, 돈이 없어 두 마리도 못 사고 한 마리를 사 왔다. 그 동태 한 마리를 솥에 넣고 끓이면, 집에 온 조카들까지 온 가족이 한 점의 살도 대가리도 없이 다 먹어 버렸다. 식구는 많고 동태는 한 마리뿐이니,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겨우 국물만 먹을 수 있었다. 먹고살기 어렵던 시절 조카들까지 와 있으니 항상 음식이 부족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그렇게 동태 국물만 먹은 후 너무 맛있고 기운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윤호는 아이 넷을 낳는 동안 산후조리를 한 번도 못 하였다. 첫째에 이어 둘째도 딸을 낳았으니 시부모 눈치가 보여 산후조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셋째는 아들을 낳자 시부모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면서 시누이에게 산후조리를 맡겼다. 그러나 산후조리를 해 준다고 온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하던 농사일을 한다고 집 밖에만 있어, 산모인 이윤호가 시누이와 함께 온 조카들까지 밥해 먹이고 빨래까지 해 주니 산후조리는 고사하고 일만 되레 늘었다. 빨래는 집 우물에서 물을 퍼서 하는 게 힘들어 냇가에서 하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가 산후조리도 못 하고 냇가에 나와 빨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동네 창피하니 힘들어도 집 우물에서 하였다. 넷째인 막내딸 출산 후에는 병원에서 분만한 일이 미안해 산후조리를 못 하였다. 이윤호의 친정 부모는 딸이 출산하였다는 소식에 산후조리를 해 주고 싶어 왔지만, 사



이윤호의 자녀들



이윤호의 시부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돈 눈치가 보여 잠시 앉아만 있다가 갔다. 딸네 집에 쉽게 오지 못하였던 친정어머니는 시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나 딸네 집에서 묵고 갈 수 있었다.

3.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시부모

시어머니는 딸들과 외손주들에게 잘하였다. 동네에는 밭 매주고 품삯 받는 일이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남의 밭을 매주고 품삯을 받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모아 외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었다. 시어머니의 딸과 외손주에 대한 사랑은 병환으로 몸이 불편해도 계속되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항상 깐깐하고 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넷째를 임신한 이윤호가 농사일하는 식구들의 참으로 밥을 해 머리에 이고 가다가 그만 양수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양수가 미리 터지니 며칠 집에서 진통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많지 않고 병원비 부담이 커 가정 분만이 보편적이었고, 그녀 또한 앞서 아이 셋을 집에서 낳았다. 이러다 산모도 아기도 잘못될 것 같으니 식구들은 산모를 수원 종로에 있던 유일산부인과로 데려갔다. 산모는 병원에서 무사히 딸을 출산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병원 분만으로 예상치 못한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예전에는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하는 일이 이따금 있었으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분만 중 사망할 것을 염려하였던 탓에 며느리와 손녀가 살아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결코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엄격할 뿐이지 모진 분은 아니었다.

시부모는 같은 해 세상을 떠나셨다. 시어머니는 병환으로 4년을 고생하다 가셨고, 그 시간은 이윤호에게 힘든 기억이었다. 시어머니가 맡아 하였던 농사일과 시어머니 간병, 집안일 등이 모두 그녀의 몫이 되었다. 다행히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 병간호에 도움을 주었다.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다 이윤호가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울 때면 동서가 와 도와주었고, 간병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 주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다. 시아버지는 당시 아흔셋으로 연세도 많은데, 암이 다른 장기에도 전이돼 수술해도



시아버지 회갑연 잔칫상과 시부모님(1968년)



시아버지 회갑연에 참석한 친지들(1968년)



이윤호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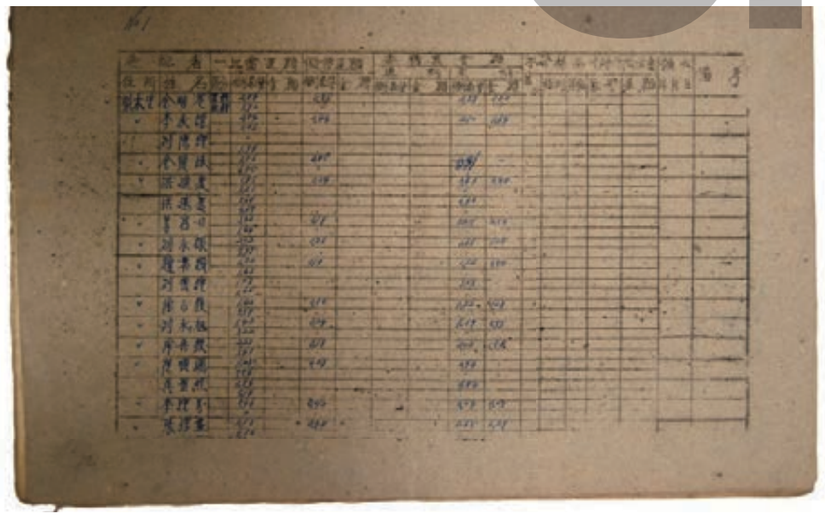
완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를 눈치챈 시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하여 입원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었지만,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아픈 사람들이 지역 의료원에 몰리면서 수원의료원 입원은 쉽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수원의료원에 보름 정도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 의사의 예상보다 오래 사시다 그해 8월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석 달 후인 11월에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이윤호는 시집살이로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시부모를 원망하다가도, 시부모가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다."며 오히려 눈물짓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녀에게 시부모는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엉겨 있는 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녀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기둥이기도 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 힘겹게 일군 이목동 아랫말 터전

이윤호가 시집올 당시 시집에는 논이 열두 마지기 정도 있었는데, 논농사를 짓고 나면 시아버지는 벼를 공출 보낸다고 가지고 나갔다. 겨울에 먹을 쌀 조금만 남기고 다 들고 나가니 봄에는 쌀이 없어 조밥을 먹어야 했다.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물으니, 시아버지는 "그게 땅값 나가는 거"라고 하였다. 이야기인즉 시아버지는 농지개혁 때 농지를 분배받아, 그 농지에서 수확한 쌀인 현물로 지가를 상환하고 있었다. 상환은 1984년까지 30년 넘게 이어졌다. 어렵게 농사지어 타작까지 한 쌀을 오랜 기간 다 가져가니 고생스러웠다.

시집은 대대로 이목동에서 살아왔고, 선산도 이목동 동원고등학교 인근이며, 시아버지는 5대 독자였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경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동네에 돌무더기가 쌓여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 있으면 그 돌을 싹 치워 밭을 만들었다. 그렇게 땅을 일구어 놓으면 땅 주인이 나타나 땅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은 이윤호가 시집오기 전에도, 시집오고 나서도 있었다. 이렇게 힘겹게 살던 시아버지는 농지 분배로 농사지을 땅을 장만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땅값을 갚아 갔다. 농사지어 수확하면 조금만 남기고 대부분을 상환으로 보내느라 고되었지만, 내 땅에서 맘 편히 농사지을 수 있었다.



분배 농지의 가격을 수확한 농작물로 상환하는 이목동 주민들(『하곡정산대장』, 1951)



1970년대 초 딸기밭에서 찍은 가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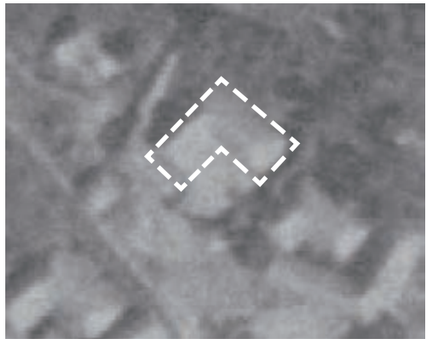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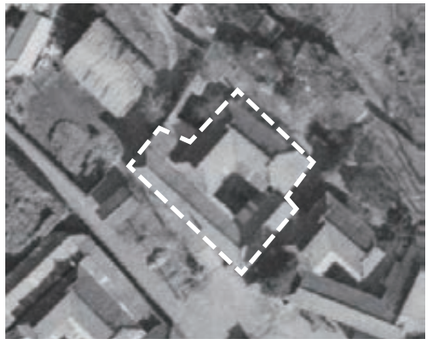
이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온 이윤호 부부는 이목동 아랫말을 떠나지 않고 현재의 집터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이윤호가 시집오기 전의 집은 동네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온 날 무너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만큼 오래되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군대 간 사이 그 집을 방 두 개와 큰 마루가 있는 초가로 새로 지었다. 시집온 후 이 초가의 방이 부족해 시아버지와 남편은 돌과 흙으로 담을 올려 방과 외양간 등을 더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흙담 방과 외양간은 얼마 못 가서 무너졌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70년대 초 이목동 청년회에서 운영하던 시멘트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사서 바깥채를 짓고, 기와지붕으로 개량한 후, 건축 인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의 노력으로 지어진 집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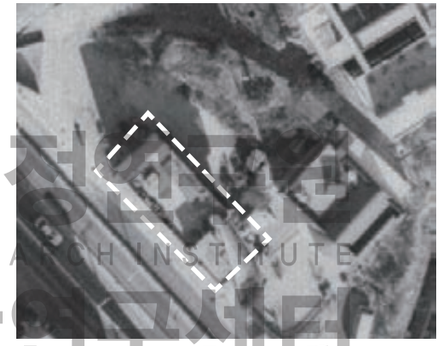
집 주변으로 장안로가 설치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집터가 수용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과정을 반복하는 시련에 부딪혔다. 토지 수용으로 1990년대 새로 집을 지은 후에 시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애국가도 부르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0년대에도 토지가 수용되어 부부에게는 토지 수용 보상비 문제, 건축비 부

이윤호 가옥 주변의 변화




1960년대 초가('ㄱ'자 초가집)


1970~1980년대 바깥채 중축과 기와 지붕 개조


1990년대 신축한 가옥


2016년 다시 신축한 가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족 문제, 도시가스 · 상하수도 설치 문제 등의 여러 고충이 따랐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토지 보상비에 대해 오해하는 것도 답답하였다. 도로 공사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비는 예상과 달리 적었고, 보상비를 받으면 집을 헐고 신축하는 데 전부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주택 신축 공사 시에는 토지 보상비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어 시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의 의지와 다르게 멀쩡하게 살던 집이 헐리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지켜보던 이윤호는 속상해 울기도 하였다. 그렇게 집터는 도로에 수용되면서 300여 평의 대지는 이제 80여 평만 남았다.

2000년 이후 이목동에 대형 민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부의 농경지도 수용당해 농사지을 땅도 줄었다. 예전에는 쌀, 보리, 조, 수수, 열무, 파, 콩, 딸기 등 이것저것 다 농사지었지만, 요즘에는 농협에서 농작물을 잘 받아 주지도 않고 농지도 줄어 조, 콩, 파, 옥수수 등만



초가집 마당에서 찍은 가족사진
좌측부터 이윤호와 작은딸,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이다.



도로 개설로 부지가 수용되어 신축한 주택(2004년)



시멘트 벽돌을 얻어다 지은 가옥 전경



2016년 도로 부지 확장에 따라 또다시 신축한 가옥(2023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 노인회에서 이윤호에게 수여한 표창장(1991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이윤호에게 수여한 효행상(1991년)

농사짓고 있다. 최근에 조를 심은 것은 농사꾼인 이윤호의 자녀들이 조와 수수도 구분하지 못해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이윤호는 농작물 판로가 예전 같지 않아 경작지 옆에 천막도 없이 현수막만 깔아 놓고 수확한 농작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정성으로 재배하여서 그런 것인지, 300여 평에서 수확한 옥수수도 사나흘이면 다 팔린다. 그녀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았고 농지도 여전히 남아 있기에 농사일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나이 들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지만, 아직 아픈 데 없고 건강하다며 힘겹게 일군 이목동 아랫말의 터전에서 농사꾼으로 부지런히 살고 있다.

5. 이목동 아랫말에서의 삶에 녹아들다

결혼 당시 남편은 산에서 나무를 해 파는 나무꾼, 농사짓는 농사꾼, 무료로 동생과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청년회와 농촌지도소 회원, 이목동 아랫말을 담당하는 통장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남편을 보고 이윤호는 본인도 무언가를 해야겠다 싶어 부녀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목동에는 부녀회가 없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목동 부녀회 설립을 장려하자, 이○숙 등과 이목부녀회를 결성하고 총무를 맡았다. 이목동 윗말과 아랫말의 부녀자들로 회원 수가 40명 정도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녀회 회원 집에 모여 밥을 해 먹으며 친목을 다졌고, 이틀에 한 번씩 윗말과 아랫말을 번갈아 청소하였다. 동네 청소도 해 주고 집마다 쓰레기도 치워 주면서 주민들에게 청소비를 받아 노인정에 기부도 하고, 불우이웃도 도왔다. 그녀에게 부녀회 활동은 힘든 시집살이를 벗어나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부녀회비에 대한 부담으로 회원 수도 줄고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어, 이제는 10여 명의 아랫말 부녀자들만 부녀회를 지키고 있다며 아쉬워하였다.



이목동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이윤호

1980년대 중반 동원고와 동우여고가 차례로 개교하면서 타지에서 온 학생들로 이목동 아랫말에 하숙집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윤호도 생계를 위해 하숙을 쳤다. 새로 지은 집은 방이 4개였는데, 그중 2개 방에 미닫이를 설치해 4개로 만들어 하숙생을 들였다. 하숙생들의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챙기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주었다. 빨래도 해 주고, 비가 오면 우산도 가져다주었다. 남편은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EBS 교육방송을 녹음하였는데 그것을 하숙생들에게도 듣게 하였고, 하숙생이 다쳐 등하교가 어려우면 자전거에 태워 직접 등하교도 시켰다. 처음에는 하숙생이 많지 않았으나, 그녀의 하숙집은 입소문이 나서 8명까지 늘었다. 이천에서 온 남학생도 있었고, 안양에서 온 자매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녀, 시누이네 조카, 하숙생의 도시락을 한 번에 17개까지 싸기도 하였다. 하숙생들은 졸업 후 행사 등으로 다시 모교를 방문하면 그녀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다. 그녀는 먹고살기 위해 하숙을 쳤지만, 하숙생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고마웠다.

이윤호는 이제 노인이 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며 지내고 있다. 그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목동 아랫말경로당은 그녀의 시아버지가 건립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던 곳인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과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목동 아랫말에 대를 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마을의 사랑방인 이목경로당 앞에서

어 살고 있으니 이목경로당도 대를 이어 이용하고 있다. 그녀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른 누구보다 이곳에 큰 애정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목동 아랫말에 대한 마음도 같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윤호는 이목동 아랫말이 익숙하고 편하였다. 이목동 아랫말 토박이에게 시집온 그녀에게 이 마을은 낯선 동네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자주 다녔던 외가가 수원과 가까운 안양이었고, 그녀와 남편을 중매한 큰어머니는 이목동 윗말 강릉 유씨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종사촌 또한 이목동으로 먼저 시집와 살고 있었다. 이윤호에게 이목동은 이렇게 인연이 있던 동네였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스스럼없이 이목동 아랫말에서의 삶에 녹아들었고, 이목동 아랫말 사람이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목동 아랫말에서 대대로 살아온 어느 인동 장씨 집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3장

피난민이지만 어엿한 이목동 사람, 김춘자

이태영 전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평양에서 개성-김포-평택을 거쳐 수원에 정착하다

김춘자는 고향이 평양으로 한국전쟁 당시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다. 1941년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와 언니,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양조장을 운영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살기 어려워져, 식구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왔다. 작은아버지가 해방 후 남쪽에서 육사를 졸업하고 한국전쟁에서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이력으로 인해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려 산속에 숨어 지내는 등 고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1·4후퇴 때 김춘자의 가족과 친척 20여 명은 함께 기찻길을 따라 걸어서 내려왔다. 그녀의 부모님은 피난길에 식구들이 헤어질까 염려되어 어린 자녀의 몸을 끈으로 연결하여 이동하였다. 김춘자는 당시 열 살이었으나,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 극한의 피난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폭격 소리, 철도 다리에서 사람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 폭격 맞아 죽은 소를 끓여 먹었던 일 등 피난길은 말도 못 하게 힘들었다.

피난길 중 가장 큰 사건은 아버지가 대동강을 건너다 얼어 죽을 뻔하였던 일이다. 집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동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다리가 끊어져 강물 속을 걸어서 건너야만 하였다. 열아홉 살, 열네 살이던 오빠와 언니는 스스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지만, 아직 어린 김춘자와 여동생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제일 먼저 김춘자를 업어 건네주고, "요 자리에 고대로 있어라."라고 하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식구들을 기다리다가, 열여섯에서 열일곱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강을 건넌 후 사망하는 것을 보았다. 1월의 혹한에 강물에 몸을 담그고 건너다 몸이 얼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도 딸을 업어 건네주고 다시 돌아가 짐 보따리를 옮기는 등 반복해서 강물에 몸을 담가 걷다 보니 몸이 그 사람과 똑같이 변하였다. 놀란 식구들이 불을 피우고 아버지의 몸을 주



1963년 친구와 함께

물러 주자, 다행히도 아버지는 몸이 다시 따뜻해지면서 살아났다. 어린 나이에 피난길에서 아버지의 생사를 오가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김춘자네는 개성을 지나 김포에 도착하였고, 서울로 가려고 하였으나 한강 다리가 무너져 있는 바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평택 송탄면 서정리까지 왔다. 그러다 청북면 백봉리 어느 과수원의 빈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안중 지역에서 배급을 준다는 이야기에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미군이 잘못 쏜 공포탄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백봉에서는 겨울만 지내고 나왔다. 이북에서 같이 넘어온 이가 수원에서 장사 일을 한다고 하여, 아버지는 식구들을 데리고 그이를 따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왔다. 이때 김춘자의 나이가 열한 살이었다. 같이 피난 온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김춘자네 여섯 식구는 수원 북수동에 정착하였다. 불안하고 고단한 피난길을 접고 수원에 안착한 삶을 살게 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영화국민학교 제2회 졸업생이 되다

김춘자네는 북수동 수원남중학교 옆 판잣집에 자리를 잡고 겨울을 두 번 났으나, 식구가 많다고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다. 다음에는 북수동 우시장 자리에 돼지 팔던 막을 집으로 지은 곳이 비어 있어 그곳으로 옮겨 몇 년을 살았다. 아버지는 수원에 와서 처음에 검은 엿으로 사탕을 만들어 팔았고, 나중에는 오빠와 수원장, 발안장 등 오일장을 돌며 옷을 팔았다. 옷 장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지동 제일교회 근처 땅을 조금 샀고, 김춘자네는 그 땅에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지동에는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였다. 피난민들은 땅 주인한테 한 지번의 땅을 쪼개서 샀는데, 그러다 보니 토지를 측량해 보면 땅이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1964년 스물네 살 때의 김춘자

김춘자는 외숙모가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 학교에 넣어 줘 수원종합국민학교에 들어갔다. 수원종합국민학교는 수원육군병원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였으나, 김덕○ 교장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 새로 지으면서 영화국민학교가 되었다. 학교를 지을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도 들으면서 공사 일을 돕기도 하였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입학하였기에 1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두 차례나 월반하며 입학 후 4년 만에 영화국민학교 2회 졸업생이 되었다. 이후 매향여중에 입학하였으나, "딸들은 공부 많이 해 봤자 쓸모없다."라는 아버지의 반대로 2학년 때 중퇴를 한 후 열일곱 살부터 서울 을지로4가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던 외삼촌네서 숙식하며 일하였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정주영이 주도한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같은 이북 사람이라며 외삼촌이 공장을 정리하고 돈을 대면서, 김춘자는 다시 수원 지동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원호원의 구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하였다. 원호원에서는 보모를 하였는데, 창룡문 건너편 과부촌의 엄마들이 원호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직업 재활을 위해 일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챙기는 일이었다. 그 일을 스물한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 하다가, 기아산업에 있던 친구 오빠가 남편을 소개해 주면서 스물다섯에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충남 아산 영인면 사람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이던

형의 소개로 기아산업에 다니고 있었다. 기아산업은 자전거를 만들어 팔다 1960년대부터 삼륜 트럭을 만들었고, 남편은 기아산업 공장 내 예비 검사장에서 생산된 트럭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남편의 직장인 기아산업 공장이 서울 영등포에 있어 신혼살림은 신길동에서 시작하였다.

3. 선경합섬 취업으로 이목동에 와 살다 집도 장만하였지만 ……

김춘자는 결혼 후 서울 신길동에서 둘째 시누이를 모시고 살았다. 둘째 시누이는 이혼 후 서울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손이 없어 막내 남동생인 남편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결혼할 때 올케인 김춘자에게 패물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시누이와의 한집살이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김춘자는 시누이의 지인이 용산에 아파트 지을 때 쓸 일본 수입재 산다고 해 시누이에게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로 정부가 당시 진행 중이던 건설 현장을 엄격하게 감리하기 시작하자, 지하에서 2층까지 올라갔던 용산 아파트 공사는 '재건축 명령'에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다니던 기아산업에 사표를 내고 나왔고, 첫 아이였던 아들이 네 살에 죽고 둘째인 딸을 낳았을 때였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용산 아파트 공사 중단 문제로 형편이 어려워진 시누이는 서울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정리하고 파주 용미리 부대 근처에 다시 다방을 차렸다. 김춘자 부부는 시누이를 따라 파주로 갔다. 그러나 시누이가 새로 차린 다방은 사단이 아닌 연대 근처라 장사가 안되었다. 먹고살기 어려우니, 김춘자는 동네에서 생선을 대야에 이고 다니며 파는 이를 따라 생선을 팔기 시작하였다. 장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남편이 알고 찾아와 그녀가 팔던 생선이 담긴 고무대야를 내던지고 사라졌다. 이 일로 속상한 나머지 그녀는 세 살 된 딸을 데리고 수원 지동 친정집으로 왔다. 그렇게 친정에 와 지내다 버스에서 우연히 어릴 때 한 동네 살던 동생 태○을 만났고, 선경합섬에서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던 태○은 김춘자의 사정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선경합섬에 취업하게끔 도와주었다.

남편이 선경합섬에 취업하자, 김춘자네는 1971년 7월 파장동으로 와 살다가 그해 12월 이목동으로 왔다. 부부는 처음 이목동에 들어와서 차씨네 조그만 사랑방에 세 들어 살았고, 김춘자도 선경합섬 구내식당 주방에서 일하느라 지동 친정집에 딸을 맡겼다. 그러다 남편은 한일합섬 공장이 조원동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경에서 7명의 공구리 패를 꾸리고 나와 한일합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한일합섬 공사 이후 동네 김종○의 소개로 파장동 삼익아파트, 서울 을지로 지하도 등의 공사도 맡았다. 김춘자는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면서 선경합섬 식당 일을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그녀는 이목동에 와서 딸 한 명을 낳은 후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친정에 있던 큰딸도 데려와 딸 넷을 돌보며 지냈다. 차씨네 사랑방에 월세로 7년을 살다가 한 동네 홍씨네 전세로 이사도 갔다.

남편의 공사 일로 돈을 모아 좀 여유가 생기자, 이전 집주인 차씨가 냇가 저쪽으로 땅이 좀 있으니 사라고 해 그 땅을 평당 10만 원에 구매하였다. 거기에 집을 짓고 1980년부터 살았다. 이목동에 들어온 지 9년 만에 내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다. 남편은 공사 일을 계속하였고, 다음 해에는 부산에서 공사를 한다고 20여 명의 인력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남편은 공사를 못 하고 데리고 간 사람들 먹여 살리기만 하다 보니 돈만 까먹고 올라왔다. 남편이 까먹은 돈은 김춘자네 것도 있었고, 남편이 중간중간에 돈을 부쳐달라고 해 남에게 빌린 것도 있었다. 1982년 남편은 부산에 내려간 지 1년 만에 쫄딱 망해 집에 돌아왔고, 김춘자는 아들을 출산하였다. 아들을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빚 때문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아이 다섯을 돌보며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그래서



1977년 선경합섬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둘째 딸 중학교 졸업식(왼쪽부터 김춘자, 둘째 딸, 첫째 딸, 조카)



둘째 딸(오른쪽에서 두 번째) 초등학교 졸업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

김춘자는 집을 판 돈으로 빚부터 갚았으나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집은 팔렸으니 비워줘야 했다. 돈을 빌려줬다 받은 사람들이 김춘자가 남편도 없이 아이 다섯을 데리고 그러고 있으니 "딴 사람 같으면 도망갔다."라며 사글셋방을 얻으라고 돈 50만 원을 갖다주었다. 그 돈으로 아이 다섯을 데리고 셋방을 얻을 수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동네 하천 부지의 시유지에 판잣집을 짓고 살라고 해, 그 돈 50만 원으로 시유지에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집을 짓고 1983년부터 살았다. 집 짓고 사는 곳이 시유지였으므로 수원시가 조사해 사용료를 받았는데, 김춘자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시유지에 살며 수원시에 사용료를 내었다. 그곳이 시유지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 집을 팔고, 그 옆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사용료를 내며 살아온 것이다.

4. "일흔한 살까지 내가 식당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아이 다섯에 막내아들은 돌도 안 되었을 때이니 먹고살 길이 막막하였다. 그래서 영복여

중 2학년이던 큰딸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기로 하고 휴학계를 제출하게 하였다. 큰딸이 휴학계를 내고 오는 날 김춘자는 자식 공부 하나 못 가르치는 자신의 상황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식당 일하던 옆집 아주머니와 식당 일을 구하러 북문에 나갔다 개업한 지 3개월 된 풍년집이라는 밤 장사하는 식당의 구인을 운 좋게 보고 야간에 일하기로 하였고, 큰딸은 밤에만 동생들을 돌보니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12만 원을 받았는데, 두 달 만에 16만 원으로 올랐다. 일하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을 때 지동에서 업어 키우던 동네 동생 국○이가 직원들과 풍년집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술집 골든타워의 총지배인이던 국○이가 직원들이며 가수들을 풍년집에서 밥을 먹게 해 매상을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이북 사람이던 중앙약국 사장 김인영이 풍년집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다. 김인영은 김춘자가 초대 청년회장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다시 만났을 때는 민정당 경기도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번에는 김인영이 도당 사람들을 불러와 매상을 올려주었다. 그러자 김춘자의 월급은 풍년집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60만 원이 되었다. 김춘자는 월급 60만 원 중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썼고, 채권자들에게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주면서 빚을 다 갚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집에 돌아와 있었다. 돌도 안 되었던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였다. 남편은 그동안 손해 본 걸 만회하기 일해 일을 잡으러 다녔다





영화동 풍년집



1997년 여행에서 남편과 함께

며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구 사는 셋째 누나네 가 있으니, 일이 조금씩 들어온다고 다시 일한다고 나갔고, 집으로 생활비를 보내 왔다. 그러다 아들이 8살이 되었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동네 주민의 소개로 평택 미군 부대에서 4~5년 정도 일하였다.

김춘자는 풍년집 사장이 안양시청 후문에 2호점을 내면서 거기 주방장으로 갔으나, 계산대에 있던 사장의 처제가 주방장인 김춘자의 월급이 자기보다 많다고 시기해 2년 정도 다니다 그만두었다. 그 후 경찰서 앞 북일식당에서 일하다 1994년 이목동에 이목식당을 차려 내 장사를 시작하였다. 학교 선생들도 오고, 정연진열 직원들도 와 장사가 잘되었으나, 정연진열이 망하면서 점점 장사가 안 돼 5년 만에 식당을 정리하고 인계동에 있는 남의 식당에서 일하였다.

그러다 인계동에서 삼겹살집 하는 김춘자의 셋째 딸이 "남의 식당에 다니지 말고, 엄마가 와서 점심 장사를 해라. 대신에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저녁 장사하는 거를 도와줘라"라고 해서, 딸네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하고, 딸네 저녁 장사 때는 주방 일을 맡았다. 아줌마를 한 명 두고 딸네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열여섯 명이 왔다. 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여성 집



둘째 딸 졸업식



막내아들 졸업식

러더니 근처 국세청, 은행, 삼성증권 등의 직원들이 많이 와서 시간제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30분씩 끊어 40명씩 손님을 받아 120명까지 받았다. 점심만 팔아도 장사가 너무 잘 되었다.

그렇게 4년 7개월 정도 딸네 식당에서 일하였는데, 딸이 식당을 못 하게 돼 그만두는 바람에 또 내 장사를 접었다. 그 후 파장동 시장 아주머니가 영통에 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와서 좀 일해 달라고 해 거기에서 또 남의 식당 일을 5년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김춘자의 나이는 어느새 일흔이 되었다. 김춘자는 나이가 드니 몸도 힘들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다 끝났고 하여 일흔한 살에 식당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남편이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간 후 아이 다섯을 데리고 빚까지 갚으며 살아야 했기에 시작한 식당 일을 30년 가까이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는 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일흔한 살까지 내가 식당에서 그러고 살았어요."

5. 지역의 일꾼으로 살다

김춘자는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해 식당 일을 오래 하였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그녀의 다섯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부족하였어도 잘 자라주어 그중 넷이 대학을 마쳤다. 특히 막내아들은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돌도 안 되었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는 데 급급해 챙겨 주지 못하였지만, 너무나 잘 자라주었고 대학 졸업 후 장교로 군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김춘자는 아이들 다 키우고 식당 일도 정리하였으니, 이제 이목동 아랫말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실은 그것이 아니라, 1971년 이목동으로 이주한 후부터였다. 그녀는 이목동으로 들어온 후 줄곧 마을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어울려 살아왔다. 여든이 넘은 그녀는 지금도 이목동 아랫말과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현재는 아랫말경로당의 회장을 맡아 하고 있고, 이전에는 경로당 부회장을 맡았으며, 그 이전에는 10년간 아랫말에서 반장 일도 보았다. 그리고 이목동 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일도 맡아 한 지역의 일꾼이다. 그녀가 활달하고 발이 넓은 탓도 있겠지만, 그녀가 어려울 때 이웃에게 받았던 도움에 대한 고마움도 있을 것이다.

김춘자는 지동에 살던 열일곱 살 때 이목동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하느라 이목동을 처음와 보았다. 그때는 이 동네 집이 열 채도 안 되었는데, 1971년에 이주해 오니 집이 많아져 있었다. 공장이 생기면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일하러 온 타지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었고, 무허가 집들도 많이 지어졌다. 남자들은 주로 공장에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역 행사와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왔던 이목동 여자친목회



이목동 여자친목회 친목 여행



이목동 남자친목회 '우정회' 가족 여행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일하였는데, 특히 해태, 선경에 많이 다녔다. 이목동은 1960년 이전만 해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으나, 그 후 공장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사람들도 그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오기 시작해 인구가 늘어난 동네이다. 김춘자네도 그러한 이유로 처음 이목동으로 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김춘자는 이목동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수원이 고향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 당시 피난 내려와 김포-평택을 거쳐 정착한 곳이 수원 북수동-지동이고, 결혼 후 서울-파주를 거쳐 다시 정착한 곳이 수원 이목동이다. 중간에 일과 결혼으로 잠깐 타지에서 살았지만, 열한 살에 수원으로 왔으니 수원에 살기 시작한 지 70년이 넘었고, 서른 살에 이목동으로 들어왔으니 이목동에 살기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다.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원에서, 이목동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김춘자는 어엿한 수원 사람이며, 이목동 사람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4부

이목동의 문화공간과 산업공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이목동의 문화유적과 노송지대
제2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동과 함께한 48년의 세월
제3장 농원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제4장 대한식품회사에서 해태유업으로, 그리고 다시 동원F&B로
제5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하여”



제1장

이목동의 문화유적과 노송지대

유중현 수원시 학예연구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은 파장동과 함께 수원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며,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수원 북부의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북쪽에 있는 수도 서울과 수원을 잇는 교통로로서 이 지역의 중요성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목동에 남아 있는 주요 문화유산들도 교통의 요지라는 지역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들이 많다.

먼저 이목동에는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선사시대 및 삼국시대의 유적이 있다. 특히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던 시기의 유구와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이 지역이 진출 루트로 중요시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과거 아버지의 묘를 찾아 수원을 다녀갔던 원행 길의 흔적도 빼놓을 수 없다. 정조가 길을 따라 심었던 소나무, 그리고 정조의 효심을 기려 세운 지지대비 등이 그것이다. 옛길 관련 유적들은 이목동의 지리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한때는 노송지대를 따라 과거 수원에서 재임했던 지방관들의 선정을 기록한 선정비(송덕비)가 세워져 있기도 했다. 선정비가 현재도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노송지대와 함께 이목동의 경관을 구성했던 요소이기도 했으며, 수원의 의미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이목동의 매장문화재

이목동은 호매실지구나 광교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발굴이 시행된 곳은 아니지만,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 옛날 수원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대부분 신라의 한강 유역



이목동의 매장문화재 확인 지역(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진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정조의 화성 건설 이전의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수원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 이목동 유물산포지

1999년 9월 기전문화재연구원(현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에 걸쳐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목동에서 유물이 흩어져 있는 유물산포지 3곳이 발견되었다. 이는 문화재 조사를 통해 이목동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밝혀낸 첫 사례이며, 이후 이목동에서 진행되는 조사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목동 유물산포지 1은 장안구 이목동 424번지에 위치한다. 2023년 현재 서부로가 지나는 안죽골삼거리 서측 구릉에 위치해 있다. 유물산포지 서쪽에는 삼성가의 선영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사 결과 토기와 분청사기 하단부의 파편이 채집되었다.

이목동 유물산포지 2는 장안구 이목동 196-1번지 일대에 소재한다. 영동고속도로 아래 얕은 구릉에 위치했으며, 서쪽에는 화장실문화 전시관인 해우재, 동쪽에는 동원고등학교가



이목동 유물산포지 1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023년 유물산포지 1



이목동 유물산포지 2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023년 유물산포지 2



이목동 유물산포지 3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2023년 유물산포지 3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있다. 조사 당시에도 주변에 고물상 및 민가가 들어서 남은 면적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2023년 현재에는 더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미개발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시 조사를 통해 토기와 자기 파편 등이 발견되었다.

이목동 유물산포지 3은 장안구 이목동 산31-3번지 인근에 위치한다. 영동고속도로 북쪽에 있으며 유물산포지 2와 영동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형세이다. 2023년 현재까지도 조사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토기 및 자기 파편과 기와편이 채집되었다.

2) 수원 이목동 유적

2003년에 조사된 수원 이목동 유적은 장안구 이목동 242-4번지 일원에 위치한 유적이다. 조사 지역은 동우여자고등학교, 이목중학교 동쪽에 붙어 있는 구릉지이다. 당시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제토작업이 진행되던 중 현장답사를 진행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처음 발견하였고,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접수한 문화재청에서 통보한 조치 사항에 따라 동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 현재 이 지역에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수원 이목동 유적 전경(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수원 이목동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삼국시대(신라) 1호 석곽묘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삼국시대(신라) 2호 석곽묘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조사 결과 이목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삼국시대(신라) 석곽묘 2기, 고려-조선시대 묘 5기, 시기 미상의 수혈(竪穴, 구덩이) 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민무늬토기 및 어망추, 가락바퀴, 석촉 등 청동기시대의 것에서부터 삼국시대의 굽다리접시, 뚜껑, 병, 주발 등 각종 토기류, 그리고 송나라 동전 숭녕통보(崇寧通寶), 철제 가위, 관못, 청동숟가락 등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내 남동쪽 능선부인 해발고도 83~85m에 위치한다.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삼국시대(신라) 석곽묘가 주거지 내부퇴적토 및 바닥층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이다. 주거지의 남쪽 끝벽이 일부 유실되었으나 모서리가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원형을 유지했다. 주거지 전체의 규모는 길이 1,610㎝, 너비 700㎝, 최대 깊이 64㎝이며 집자리 바닥의 규모는 길이 1,520㎝, 너비 660㎝로서, 바닥 면적이 100.32㎡에 해당하는 초대형 주거지이다. 동쪽 벽에서 출입 시설 흔적으로 보이는 돌출부가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기둥구멍 15개, 저장공 12개, 화덕자리 2개, 소형 수혈 1개가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는 평면 형태 및 규모, 시설물, 출토 유물 등을 주변 유적과 비교 분석하여 청동기시대 전기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1호 석곽묘는 남사면 하단부 해발 84m에 위치하는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 구덩식돌곽무덤)이다. 수혈식석곽묘는 시체를 무덤에 수직으로 넣도록 옆으로 트인 입구가 없이 돌로 네 벽을 짠 무덤을 의미한다. 이 석곽묘는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돌벽이 3~5단 정도 남아 있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05㎝, 너비 70㎝, 깊이 70㎝이며 직사각 형태를 띤다. 시신을 올리는 대인 시상(屍床)은 작은 판판한 석재를 활용하여 바닥에 1겹으로 깔았으며, 머리 고임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별도의 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시신의 가슴 부분에 위치하게 부장하였으며, 대부완(臺附椀, 굽다리가 달린 주발) 1점과 완(椀, 주발) 1점이 출토되었다.

이목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 등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목동 지역이 선사시대로부터 삼국 및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호 석곽묘는 수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로 주목받았으며, 2006년 수원시 향토유적(향토유산) 제7호에 지정되었다. 석곽묘는 2008년에 수원박물관으로 이전했으며 2023년 현재에도 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록 유적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이목동, 그리고 나아가서 수원의 고대 문화를 확인하는 데 이목동 유적이 갖는 의의가 작지 않다는 것을 잘 보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석곽묘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토기(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고려~조선시대 민묘 출토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 무문토기(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2호 석곽묘 출토 통일신라시대 유물(경기문화재단, 『수원 이목동 유적』, 200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전경(한울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2010)



2023년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일대(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여 주고 있다.

3)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은 장안구 이목동 305-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 전 시행된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조사지역은 광교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두 개의 가지능선 사이에 위치하며 경사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능선의 말단부이다. 조사는 한울문화재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2007년 지표조사에 이어 2008년 시굴 및 발굴조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장안STX-KAN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주거지 2동, 수혈 23개, 구상(溝想, 도랑형)유구 3개, 기둥구멍 3개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120점, 기와 9점, 금속 5점 등이며, 대부분 백제·신라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유적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토기는 앞서 조사된 수원 이목동 유적의 토기와 비슷한 형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유구를 살펴보면 2호 주거지는 장축 520㎝, 단축 480㎝의 방형 주거지이다.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남단 벽 상단부는 교란되어 파괴되었다. 벽면과 일정 폭을 두고 1열로 할석(割席, 깬돌)이 열을 지어 세워져 있고, 할석이 이어져 중앙부 남쪽에는 적갈색으로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아궁이시설이 확인되었다. 할석의 열은 중앙부의 아궁이에서 연기를 빼내는 쪽구들 시설로 추정되었으며, 이른바 'T'자형의 구들 구조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심발형토기와 동이, 주발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해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은 대부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와중에 형성된 취락의 일부로 판단되었고, 유적 북동쪽에 있는 수원 이목동 유적 석곽묘와의 관계성도 주



2호 주거지
(한울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2010)



2호 주거지 쪽구들
(한울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201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목되었다. 특히 유적이 수원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있던 것은 신라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유적은 수원 이목동 유적과 함께 당시 조사 사례가 많지 않았던 신라의 영역 확대 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 정조의 원행과 노송지대

1번 국도를 따라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가면 도로변에 소나무들이 서 있는 색다른 풍경을 만나게 된다. 소나무들이 있는 길목은 현재 삼풍공원-노송공원 등을 거쳐 송정초등학교 인근까지 점점이 이어져 있다. 이 근방이 200여 년 전 정조가 현륭원을 방문하기 위해 오갔던 길이고, 오늘날에는 '노송지대'라고 불리는 구간이다. 의왕과 수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1번 국도가 지나는 언덕은 그 유명한 '지지대고개'이며, 이곳에서부터 노송지대가 시작된다. 노송지대는 이목동과 파장동, 그리고 멀리는 송죽동까지 걸쳐져 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시 수원의 읍치였던 현재의 융건릉 일대로 옮기고, 그 북쪽에 새로운 도시와 성곽을 세웠으며,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이곳을 오갔다. 노송지대의 조성도 이러한 정조의 행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륭원, 즉 오늘날의 융릉으로 옮기고 정조는 13번의 능행차를 단행했는데, 그때 정조가 다녔던 길에 소나무를 위주로 나무를 심은 것이 오늘날의 노송지대가 되었다. 정조는 원행을 하기 전 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는데, 그것이 이어져 오늘날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1번 국도의 원형이 되었다.

일설에 따르면 정조가 아버지의 묘인 현륭원의 나무 심기를 담당하는 관리인 식목관에게 내탕금을 하사하여 노송지대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했다고 한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을 찾기는 어려우나 조선왕조실록에는 1790년 내탕고의 돈 1,000냥을 내려보내 현륭원의 나무 심는 비용에 대게끔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정조는 현륭원과 화성 신도시의 나무 심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790년에는 수원과 남양, 과천, 광주 등 인근 읍이 참여하여 현륭원에 소나무 45만여 주를 심었다. 『화성성역의궤』 재용(財用) 실입(實入)의 식목(植木) 부분에는 1794년부터 1797년까지 매년 봄과 가을에 7차례 성 안팎으로 나무를 심었으며, 단풍나무, 탱자나무, 뽕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오얏나무, 복숭아 살구 등 과일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 혹은 그 씨앗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1831년 편찬된 읍지인 『화성지』에서도 왕이 거동한 도로인 필로(蹕路)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길 좌우로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서로 연이어 심었다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 기유년(1789년) 현륭원을 옮긴 뒤에 조정과 왕실에서 값을 치르고 길 주변의 전답을 사들이고 길을 넓게 닦고 (중략) 길 좌우로는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서로 연이어 심었다.

이에 노송지대의 소나무들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하고 신도시를 건설했던 시기에 심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노송지대가 시작되는 지지대의 이름은 원래 사근현(沙近峴) 혹은 미륵현(彌勒峴)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정조가 이곳에서 현륭원을 바라보며 떠나지 못해 발걸음이 더디어진다고 하여 이름을 '지지대(遲遲臺)'로 바꾸었다. 이후에도 실록에는 정조가 수원에서 한양으로 돌아갈 때마다 지지대에서 머뭇거렸다는 대목이 빈번하게 나오곤 한다. 이러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어사 신현(申絢, 1764~1827)이 건의하여 1807년 지지대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외에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노송지대(현륭원이라는 설도 있음)에 송충이가 늘어나 소나무를 마구 갉아먹었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상금까지 내리며 송충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결국 마음이 아팠던 정조가 손수 송충이를 몇 마리 잡아 입에 넣고 씹어 버리니 그 많던 송충이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조의 효심, 그리고 조경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잘 보여 주는 일화가 아닐까 싶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노송지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00년대 초 경부철도 노선을 지지대고개를 관통하여 부설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 주민들은 대거 반발하였고, 수원 출신이었던 당시 철도원 총재 유기환(兪箕煥)의 중재를 통해 경부철도는 지지대와 팔달산을 통하는 노선 대신 서호 방향으로 부설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지대고개는 수원을 상징하는 명소의 하나로서 소개되었다. 일제강점기 수원에 정착했던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1915년 발행한 『발전하는 수원』에서는 지지대고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효성이 그지없는 정조가 해마다 봄과 가을에 화산릉을 참배하였다. (중략) 귀로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원 북방 약 1리 지점에 있는 고개에 다다르면 가마를 천천히 가게하고, 남쪽을 바라보기를 되풀이하였다. (중략) 이 고개를 '지지대'라고 부르고,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전하고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성도」 6폭 병풍에 그려진 지지현 표석과 이목동 일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지지현 표석(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지지현의 처음 이름은 사근현이었으나 1795년(정조 19) 미륵현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지지현으로 변경되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성도」에 그려진 지지대비와 이목동 일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경수산업도로 건설 이전 지지대비(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경수산업도로 건설로 지면이 낮아져 가파른 계단이 높인 지지대비(1978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장안구 이목동 산72번지에 자리한 지지대비(수원화성박물관 제공)



괴목정교 표석(수원박물관 제공)



수원박물관으로 이전하기 전 괴목정교 표석(2007년,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



1972년 괴목정다리 부근(수원박물관 제공)



대유평 거송 숲길(1978년, 윤한흠 作)



장안문 밖 거송(『조선의 임수』, 193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후 1930년대 발간된 『조선의 임수』에서도 노송지대에 500여 주의 소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제강점기까지 노송지대의 소나무는 대체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들 소나무 인근에는 딸기밭과 삼풍농원 등 여가공간이 조성되며 수원의 관광명소로서 자리 잡고, 1973년 7월에는 '노송지대'라는 이름으로 경기도기념물(제19호)에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름이 노송지대가 된 이유에는 인근 푸른지대를 비롯해 '지대'라는 명칭을 가진 딸기밭이 많이 생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한편 지지대고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73년 경수산업도로를 내면서 지지대고개 한 복판에는 넓은 자동차도로가 생겨났다. 특히 도로공사 과정에서 굴착을 단행하여 지지대비는 기존보다 훨씬 높고 가파른 계단 위에 두어진 형국이 되었다.

1974년에는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국방부 주도하에 경기도 일원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가 제막되었는데, 전쟁 중 부대가 처음 주둔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프랑스군 참전기념비가 수원 지지대고개에 세워졌다. 프랑스군 참전기념비와 지지대비에 남은 총탄 흔적을 통해 지지대고개는 정조의 효심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억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 정조의 효성을 부각하는 사업도 계속되어 1986년에는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남쪽에 효행공원이 조성되고 정조 동상이 세워졌으며, 1989년에는 정조 관련 자료들을 전시한 효행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노송지대는 점점 유명해졌으나 그에 반비례하여 소나무들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전쟁 등 혼란기도 겪었으나 특히 바로 옆에 자동차 도로와 매매단지, 공장 등이 들어서며 발생하는 매연과 진동으로 수원의 노송들은 점점 사라져 갔고, 오늘날에는 34주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노송의 고사 위기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신문기사 등에서 언급되어 있었고, 수원시에서도 영양제와 병충해 방제 주사를 놓는 등 나무를 살리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다. 1995년에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후계목을 심는 등 노송지대의 복원에 신경 썼다.

2010년대에는 삼풍가든 부근에 위치한 노송지대를 통과하는 자동차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해 녹지를 조성하고, 소나무와 각종 식물을 심는 등 복원 정비를 진행하여 2022년에 2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제 노송공원으로 불리는 이 구역은 매년 8월 개화한 맥문동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으며, 2023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모범 도시







1972년 노송보호구역 표지판(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1972년 노송지대(수원박물관 제공)

HUMA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노송지대를 오가는 차량(수원박물관 제공)



1976년 뿌리가 뽑힌 노송(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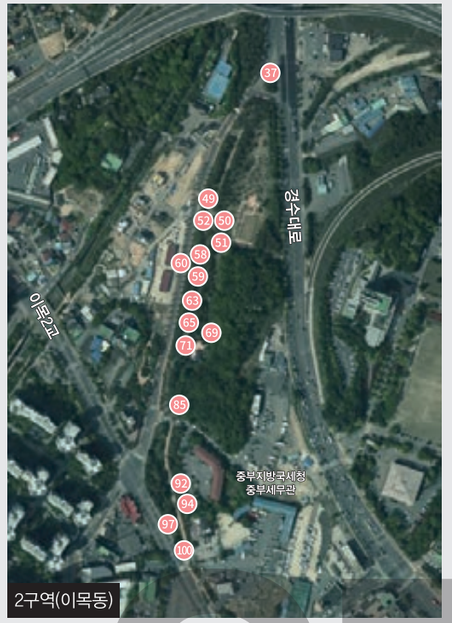
1984년 노송 관리(수원박물관 제공)



1984년 노송 관리(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
SUWON RESEA
수원학







수원시 노송지대 위치와 노송 분포

구분	지정 노송	구간 및 지정번호
제1구역 (파장동)	9	프랑스참전비–지지대쉼터 옆 2호, 11호, 14호, 15호, 17호, 18호, 22호, 27호, 28호
제2구역 (이목동)	19	삼풍농원–노송지구 대 37호, 49호, 50호, 51호, 52호, 54호, 58호, 59호, 60호, 63호, 65호, 69호, 71호, 81호, 85호, 92호, 94호, 97호, 100호
제3구역 (송죽동)	6	슬기샘도서관–송정초등학교 110호, 112호, 116호, 118호, 123호, 125호
계	34	



2023년 노송지대(수원시청 제공)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만 공원 옆 새로 낸 도로 건너편의 정비되지 않은 모습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지지대고개 구역은 2023년 현재 1번 국도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편의점과 화장실이 있는 지지대 쉼터가 운전자를 맞이하고, 동쪽에는 프랑스군 참전기념비와 효행공원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이전에 효행기념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은 2011년부터 어린이미술체험관으로 활용되었다가, 최근에는 북수원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작가들의 대관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효행공원 남쪽에는 2019년에 유명 빵집이 문을 열고 이 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금은 서측과 동측 간 통행이 불편하고 대형 차량들이 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구역의 문화콘텐츠를 잘 연계한다면 향후 이목동–파장동, 나아가서는 수원을 대표하는 명소로서 옛 딸기밭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73년 7월 경기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었던 노송지대는 2024년 7월 4일 경기도 자연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총 3구역에 614주(지정노송 34주, 후계목 580주)가 식재되어 있다.

3. 노송지대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진 선정비

선정비(善政碑)는 덕을 칭송한다는 뜻의 송덕비(頌德碑), 공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의 불망비(不忘碑) 등으로도 불린다. 고을을 위해 헌신한 관리의 공덕을 기리고자 백성들이 세운 비석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들도 마음대로 선정비를 세워서 그 폐단이 심각했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비를 부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벌인 학정의 상징물처럼 여겨져 왔던 선정비이지만,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해당 지역 지방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수원의 선정비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수원역대목민관 송덕비군'이라는 이름으로 향토유적 제3호에 등재되었다.

수원의 선정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목동과 파장동 사이에 걸쳐 있는 노송지대에 늘어서 있었다.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장안문 앞과 중동사거리, 구천동, 매교역(윗버드내) 부근 등 수원의 주요 지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으나, 노송지대가 보호구역으로 조성되면서 1972년경에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송지대의 소나무와 어우러진 선정비들은 수원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노송지대에 서 있던 선정비들은 옆을 지나가는 차량의 매연과 진동, 소음 등으로 훼손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고, 2008년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이 건립되며 분산 이전되었다. 이제 선정비들은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선시대 수원을 담당했던 목민관들의 면모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조성된 수원 선정비들은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고 있다. 수원박물관에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수원에 재임했던 관리들의 선정비 27기가 전시되어 있고, 수원화성박물관에 전시된 선정비 10기는 대체로 화성 축성 직후인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 수원에 재임했던 유수(留守) 및 판관(判官)들의 것이다.



장안문 밖 비석거리(1977년, 윤한흠 作,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중동사거리(1977년, 윤한흠 作,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구천동 비석거리(1977년, 윤한흠 作,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구천동 구도로의 옛 모습을 그린 것이다. 수원 역대 목민관들의 선정비들이 많이 있어, 이 지역을 비석거리로 불렀다고 한다.



1907년 대로변 선정비(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노송지대로 옮겨진 선정비(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역대 선정비군(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노송지대로 옮겨진 선정비(1972년, 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SK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1988년 노송지대 부국농원 앞에 세워져 있는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 노송지대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1988년 노송지대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수원의 선정비에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300여 년의 세월 동안 활동한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중에는 정묘·병자호란 때 활약한 인물도 있고 조선 후기 정조 대에 활동한 신하도 있었으며, 19세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고종 대 민씨 일족의 거두, 갑오개혁의 주역, 개화를 반대했던 인물, 그리고 일제의 강제 병합에 찬동한 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원 선정비를 통해 조선 중기로부터 말기까지 당시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박물관으로 이전 설치된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이시백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수원박물관 전시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① 이시백 선정비(1629년)
府使李公時白淸德撫軍善政碑
崇禎二年己巳五月 日



② 구인후 선정비(1638년)
府使具公仁垕撫軍淸德善政碑
戊寅二月 日



③ 임의백 선정비(1662년)
府使任公義伯愛民善政碑
壬寅正月 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④ 민진원 선정비(1704년)
府使閔公鎭遠淸德善政碑
甲申九月 日立

⑤ 이상진 불망비(1705년)
府使李公尙眞永世不忘碑
乙酉四月 日立

⑥ 권상유 선정비(1705년)
府使權公尙游永世不忘碑
乙酉四月 日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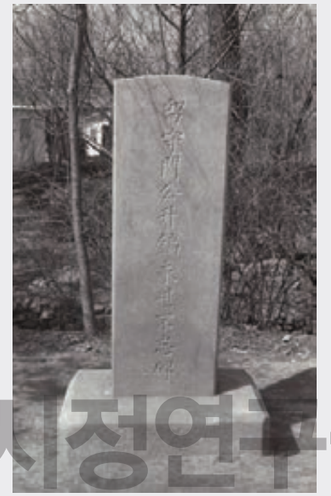
⑦ 김시근 불망비(1822년)
留守金公蓍根永世不忘碑
壬午八月 日

⑧ 남병길 선정비(1865년)
留守南公秉吉淸德善政碑
乙丑五月 日立

⑨ 이재원 불망비(1871년)
留守李公載元永世不忘碑
上之八年辛未七月 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⑩ 이재원 불망비(1871년)
留守李公載元永世不忘碑
兩歲重寄 金出五萬 一心大閱 兵簡三列
表裏京營 看我貞珉 矜式外臬 職公功烈
辛未八月 日立



⑪ 이재원 불망비(1871년)
留守李公載元永世不忘碑
我公至止 憐窮婚就 山斗景仰 量料月放
頌騰歌袴 屹彼石兮 恩深挾纊 百世瞻望
辛未八月 日立



⑫ 정기명 선정비(1873년)
判官鄭侯基命愛民善政碑
癸酉十一月 日立



⑬ 민승호 불망비(1874년)
留守閔公升鎬永世不忘碑
甲戌八月 日立



⑭ 민승호 불망비(1876년)
留守閔公升鎬永世不忘碑
丙子三月 日立



⑮ 민승호 선정비(1876년)
留守閔公升鎬清德愛民善政碑
試公表均 衆心浹洽 士勸民懷 萬口和諧
丙子三月 日立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







⑯ 민두호 불망비(1878년)
判官閔侯斗鎬永世不忘碑
戊寅六月 日

⑰ 민두호 불망비(1879년)
判官閔侯斗鎬永世不忘碑
己卯二月 日立

⑱ 송근수 불망비(1882년)
留守宋公近洙永世不忘碑
壬午十月 日立







⑲ 구완식 불망비(1885년)
中軍具公完植永世不忘碑
乙酉十月 日立

⑳ 정기세 선정비(1888년)
留守鄭公基世清德愛民善政碑
戊子五月 日立

㉑ 윤자덕 불망비(1890년)
留守尹公滋惠永世不忘碑
庚寅十月日 立石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㉒ 이헌직 선정비(1891년)
留守李公憲稙淸德愛民善政碑
辛卯四月 日立



㉓ 김홍집 선정비(1892년)
兼留守金相公弘集淸德善政碑
壬辰三月 日立



㉔ 김홍집 선정비(1892년)
兼留守金相公弘集淸德善政碑
壬辰三月 日 車慶麟幷謹書



㉕ 불망비(1893년)
留守閔公泳商永世不忘碑
癸巳三月 日 廳直廳 立



㉖ 윤영신 불망비(1893년)
留守尹公榮信永世不忘碑
癸巳八月 日立



㉗ 이재극 선정비(1901년)
觀察使李公載克淸德善政碑
辛酉二月 日 車時敏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화성박물관 전시 선정비(수원박물관 제공)



㉘ 박주수 불망비(1830년)
留守朴公周壽永世不忘碑
庚寅四月 日



㉙ 서유린 선정비(1831년)
留守徐公有隣愛民淸德善政碑
遞歸三十二年
道光十一年辛卯十二月立



㉚ 이헌기 선정비(1832년)
留守李公憲琦撫軍愛民善政碑
壬辰閏九月 日



㉛ 박기수 선정비(1844년)
留守朴公綺壽淸德愛民善政碑
甲辰五月日



㉜ 정원용 선정비(1844년)
留守鄭公元容淸德愛民善政碑
甲辰五月日



㉝ 이약우 선정비(1848년)
留守李公若愚愛民善政碑
戊申六月 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㉞ 김병기 선정비(1848년)
判官金公炳冀愛民善政碑
戊申六月 日



㉟ 이학수 선정비(1858년)
留守李公鶴秀永世不忘碑
上之八年戊午五月 日



㊱ 김병교 불망비(1862년)
留守金公炳喬永世不忘碑
同治元年壬戌三月 日



㊲ 서유구 선정비(1864년)
留守徐公有榘淸德善政碑
甲子十月 日立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참고자료

1.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2. 『수원 이목동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3. 『수원 이목동 생활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08.
4. 『세우다 새기다 쓰다』, 수원박물관, 2010.
5.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수원시, 2019.

제2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목동과 함께한 48년의 세월

정한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원예작물 연구와 우장춘 박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등 원예특작 농산물에 대한 품종 육성과 생산 및 가공 기술, 식·의약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원예특작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원예모범장은 1906년 8월 고종이 서울 뚝섬에 설치한 원예 연구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1910년 국권 침탈 이후 조선총독부 산하 권업모범장 뚝도지장으로 편입되었다. 식민지시기 원예 연구는 일본인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본격적인 원예 연구는 1948년 9월 1일 (재)한국농업과학연구소(부산 동래)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우장춘 박사가 귀국하여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한국농업과학연구소는 1953년 5월 20일 농림부 중앙원예기술원으로 개편되었고, 1962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시험장으로 변경되었다.

중앙원예기술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우장춘 박사는 품종 육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원예작물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오늘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된다. 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1대 원장인 강상조와 제3대 원장인 고관달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관달 : *우리 과학원 사람들이 열성적인 게 뭐냐 하면, 우장춘 박사가 이제 (과학원의 전신인원예시험장) 초대 원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그분이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세 명 중 한 명, 넘버원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있지.*



교배작업을 하고 있는 우장춘(농촌진흥청 제공)



강상조 : 제가 만든 플럼코트의 이론적 배경이 된 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세요. 저도 그분의 종의 합성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해 본 거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람들은 입 모아 우장춘 박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우장춘 박사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귀국한 후 일본에 의존하던 채소 종자를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학 양성에도 헌신하였다. 특히 그가 고안한 '종의 합성'은 종의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을 합성해내는 이론으로 현재에도 자연과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우장춘 박사는 그의 뛰어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끊임없이 차별받았고, 당시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의 업적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장춘 박사의 정신은 현재에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람들이 이어 가고 있다. 5월 2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개원기념일 행사에 우장춘 박사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우장춘 박사의 기일인 8월 10일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4년 부산 동래에 자리한 중앙원예기술원의 원종 생산 망실(농촌진흥청 제공)



1956년 동래 중앙원예기술원 화훼온실에서(농촌진흥청 제공)



1958년 우장춘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페튜니아 교배작업을 하는 동래 원예고등학교 실습생(농촌진흥청 제공)



1957년경 중앙원예기술원을 방문한 주한 미국 대사 다우링 내외에게 품종 개발에 대해 설명하는 우장춘 박사
(농촌진흥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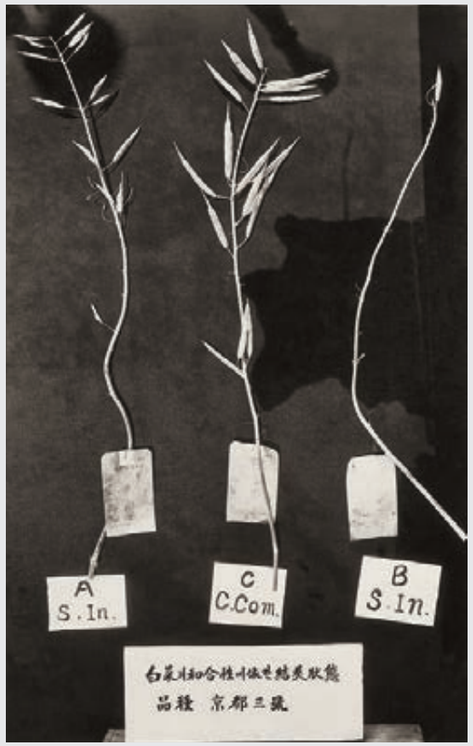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예 2호 배추(농촌진흥청 제공)



1956년 춘파야기 배추(농촌진흥청 제공)



배추자식 결실 불량한 2개체가 상호 간 임성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농촌진흥청 제공)



1955년 오이 도입 품종 재배 시험 장면(농촌진흥청 제공)

다양한 품종의 과일을 비교하며 먹고, 계절과 무관하게 소비하는 것이 당연해진 오늘날이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전쟁에 필요한 식량 조달처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서양의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사가 시작되었다. 전후에는 식량부족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장춘 박사를 필두로 품종 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관달 : 지금 품종이 개량되고, 계절성을 극복하고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건 기술의 힘이에요.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를 들어 그때 시험장이 생겼을 때는 배추도 거의 품종이 없었고 얼갈이배추라고 배춧잎이 한 10~15개 정도 되는 배추였고 포기 배추가 없었어. 우장춘 박사가 오면서 원예시험장에서 포기 배추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 도시락 못 싸온 애들은 절반이 넘었고 세끼 밥 먹기가 어려웠죠. (중략) 그래서 이목동에서 30년 생활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요.

이후 산업화로 농업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가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책임감도 드러났다.

강상조 : 1990년대 이후 농촌과 도시 근로자의 가구 당 소득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쌀은 지금도 가격이 정부 통제하에 있는데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과실은 좋은 품종을 만들고 소비자가 찾는 품종 생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농촌 소득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내가 맡은 일에서 빨리 결과를 내서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때 농업인들이 부자가 된다는 목적이 강했어요.

그렇다면 치열하고 열정이 넘쳤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람들의 연구 이야기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48년간 이목동에서 이루어냈던 주요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변화

1940년대



• 1948년 9월 재단법인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설립

1950년대



• 1953년 5월 농림부 중앙원예기술원 설립
(초대원장 : 우장춘)
• 1957년 5월 농사원 원예시험장 개편
• 원예 연구 태동기
- 채소종자 자급(배추, 무) : 채소종자 산업 태동 및 발전

1960년대



• 1962년 4월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개편
• 1967년 1월 수원시 이목동으로 이전
• 원예 품종 육성체계 구축
- 우리나라 최초 배추 품종 육성(원예 1호, 원예 2호)
- 우리나라 최초 과수 품종 육성(단배)

1970년대



• 김장채소 자급화 및 생산기반 확립
- 김장채소 자급화
- 접목재배 및 왜성대목 보급
- 녹색혁명 후 품질향상 주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0년대



• 2010년 4월 원예작물부 내 도시농업연구팀 신설
• 2015년 2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신성장동력 기술 개발
- 신수요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 품종 육성
- 유전체 기반 품종 육성
- 시설, 노지 스마트팜 작물맞춤형 제반기술 개발
- 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2000년대



• 2004년 1월 영남농업시험장 부산원예시험장을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으로 개편
• 2008년 10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개편
(원예작물부, 인삼특작부 신설)
• 시장·소비자 지향 연구
- 로열티 대응 품종 육성
- 생명공학기술 이용 육종 기반 구축
- 사과, 배 밀식 재배기술 실용화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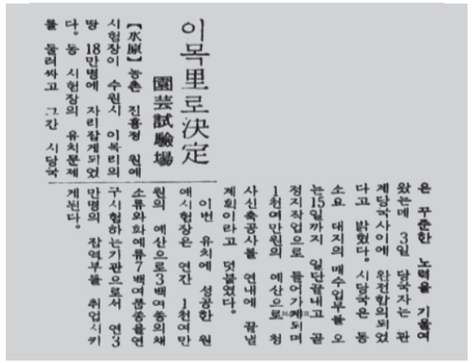
• 1991년 11월 과수연구소 신설
• 1994년 12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로 개편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 통합)
•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개발
- 양액재배기술, 표준하우스 모델 개발
- 고품질·노동력 절감형 품종 보급

1980년대



• 원예박물 연중 생산체계 확립
- 시설채소 재배로 연중 생산체계 확립
- 표준시비량 및 방제력 개발
- 원예산업의 백색혁명 성취

2. 원예시험장, 이목동 475번지에 둥지를 틀다



이목里로決定
園藝試驗場

【水原】농촌 진흥청 원예 시험장이 수원시 이목리의 구시험하는기관으로서 연구 방 18만평에 자리잡게되었 다。농 시험장의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그간 시당국

원예시험장의 이목리 이전 결정(『매일경제』 1966년 4월 5일)

1962년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개편될 당시 원예시험장은 동래본장(부산시)과 서울지장(서울시 휘경동), 과수과(원예2과, 수원시 서둔동)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원예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연구 부지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부산과 서울 지역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연구 부지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산하 시험장(작물시험장,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을 농촌진흥청이 소재한 서둔동 주변으로 분산 배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원예시험장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 부지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농촌진흥청 북쪽 지역인 수원시 이목동에 원예시험장 본장이 자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원시는 원예시험장 유치를 위해 부지 매수 및 청사 신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원예시험장 부지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1번 국도 인접 지역 토지의 매입을 건의하였다. 이 부지는 경수산업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비산먼지가 많고 소음공해가 심하였다. 이에 다양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이종린 장장은 1966년 1번 국도에서 떨어진 이목동 475번지를 이전 부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어 원예시험장 본관을 비롯한 각종 부속시설들이 건설되었고 마침내 1967년 원예시험장이 새로 개장되어 이목동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로가 확장되기 전까지 1번 국도에서 원예시험장 정문까지는 비포장도로였고, 원예시험장 앞 하천은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 외진 곳이었다.

원예작물 연구를 이끌어 가던 원예시험장은 1991년 과수연구소를 설치한 데 이어 탑동 청사를 신축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1994년 12월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 통합하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로 개편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개편(원예작물부, 인삼특작부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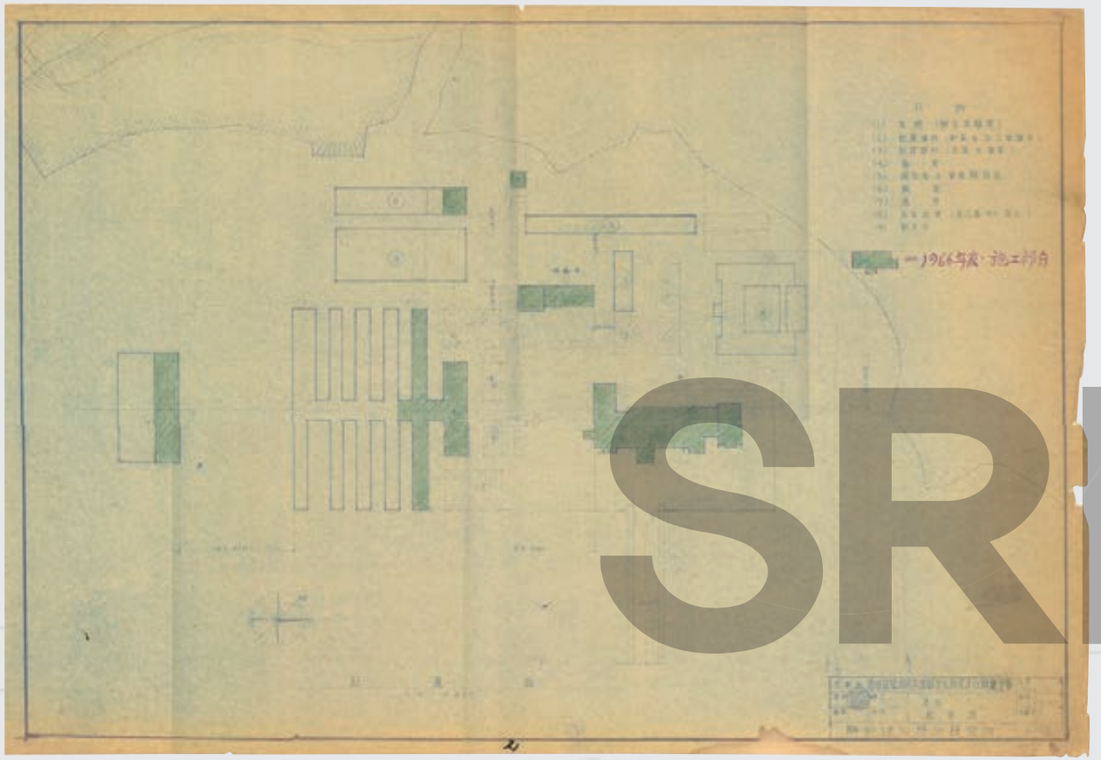


1967년 5월 20일 원예시험장 신축청사 낙성(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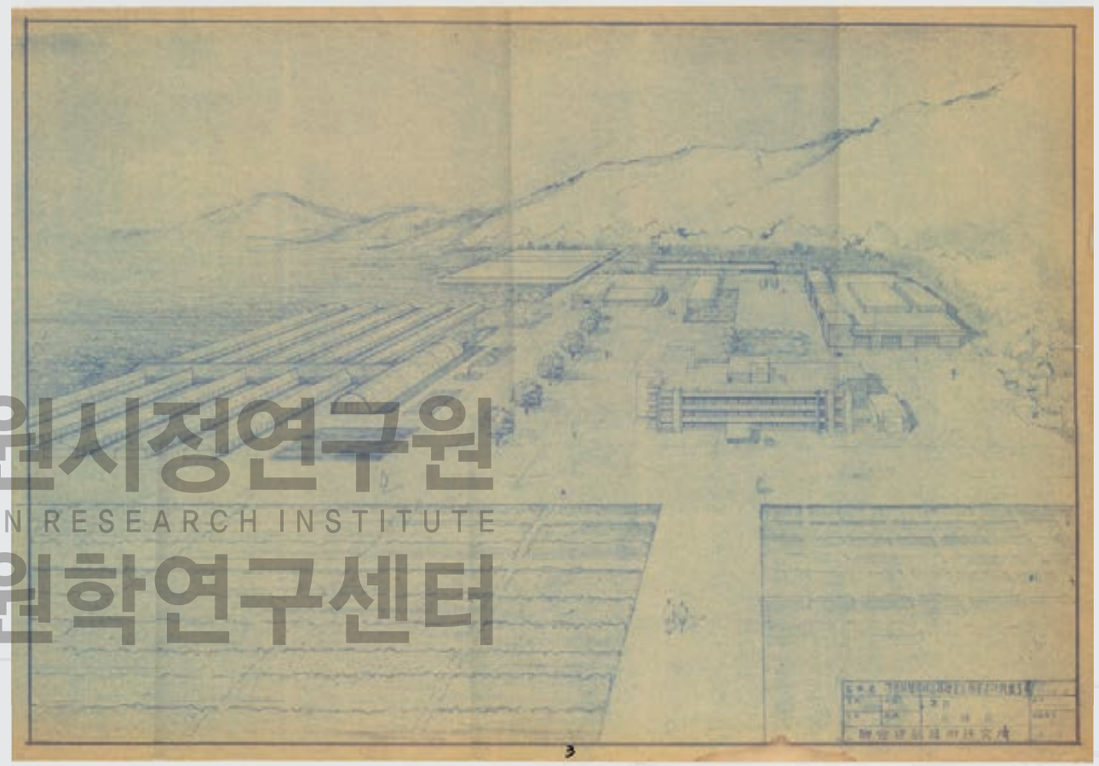


1967년 원예시험장 본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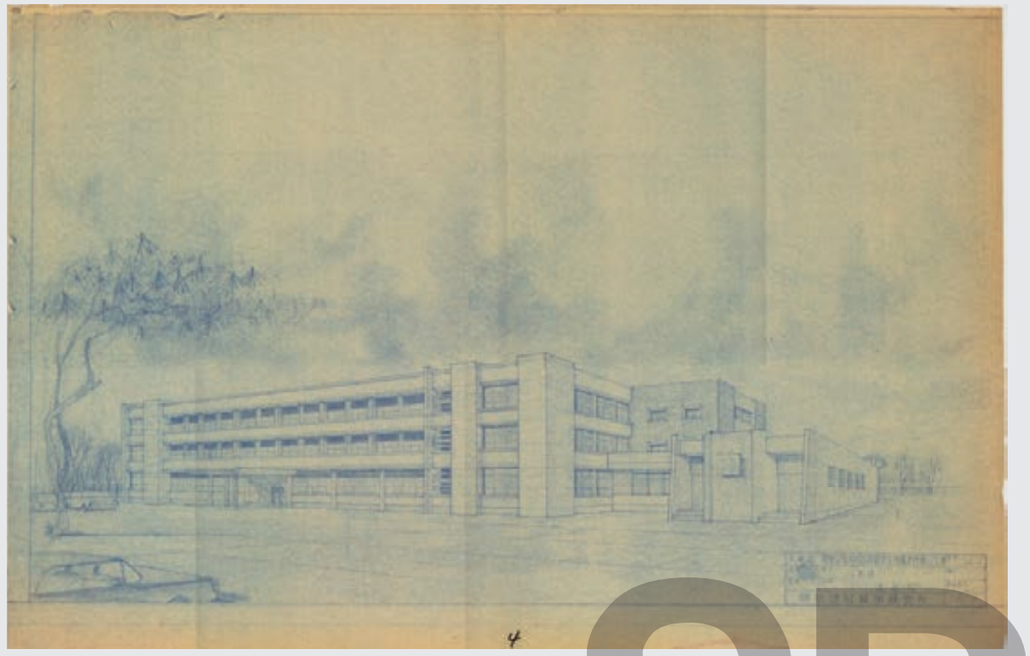


1966년 배치도(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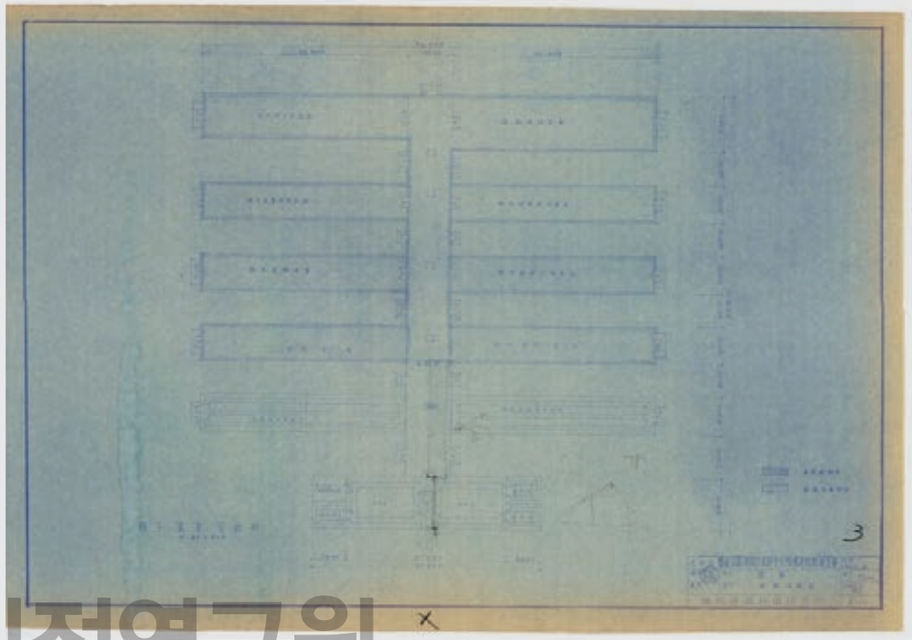


1966년 조감도(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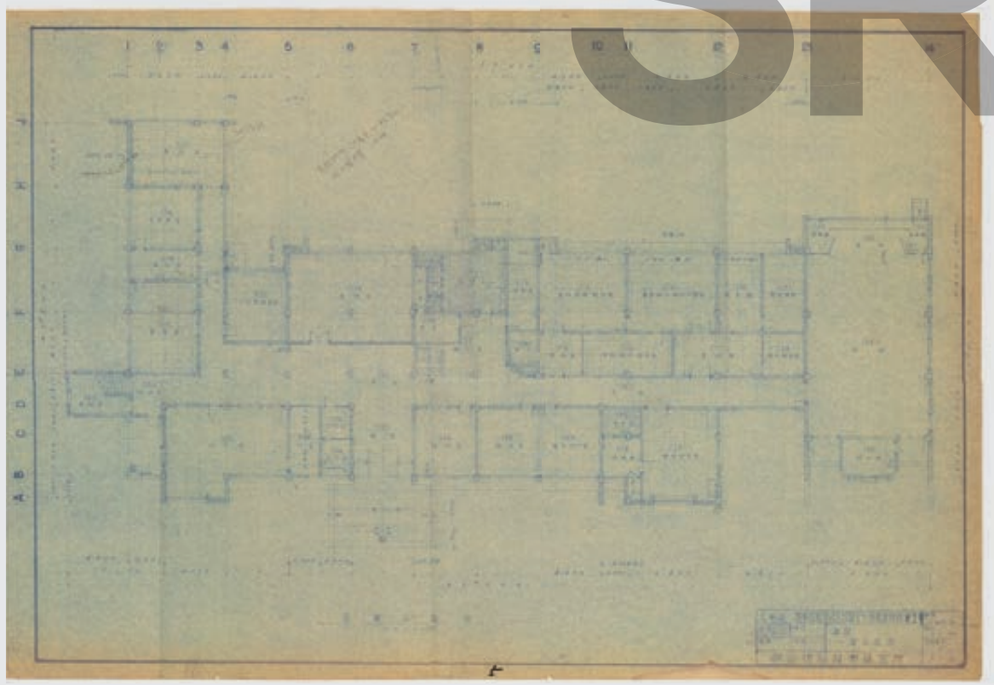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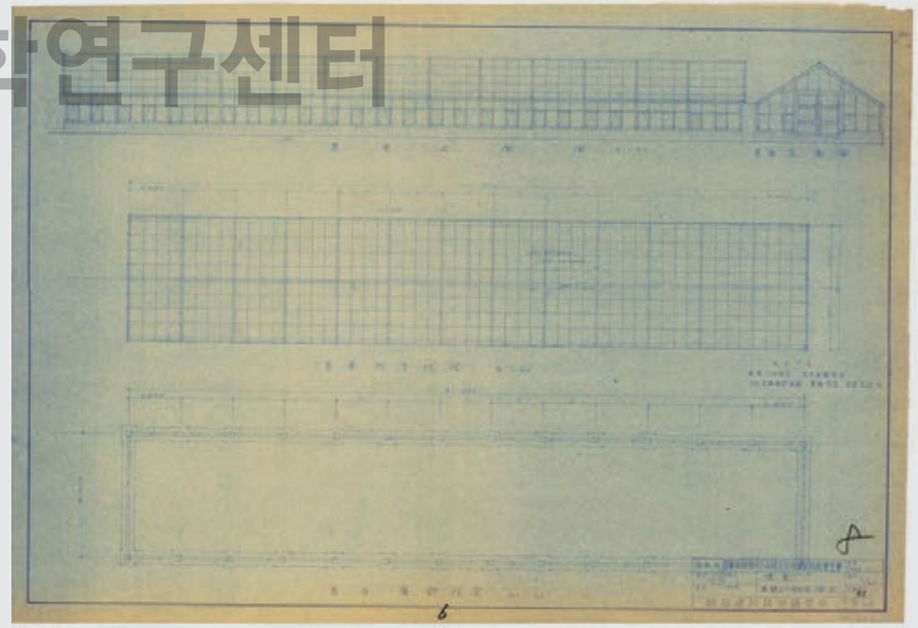
1966년 본관 투시도(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온실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본관 1층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온실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1년 설치된 과수연구소 전경(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992년 원예시험장 포장 전경(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2000년대 원예연구소 시험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0년대 원예연구소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2015년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신품종 개발 : 플럼코트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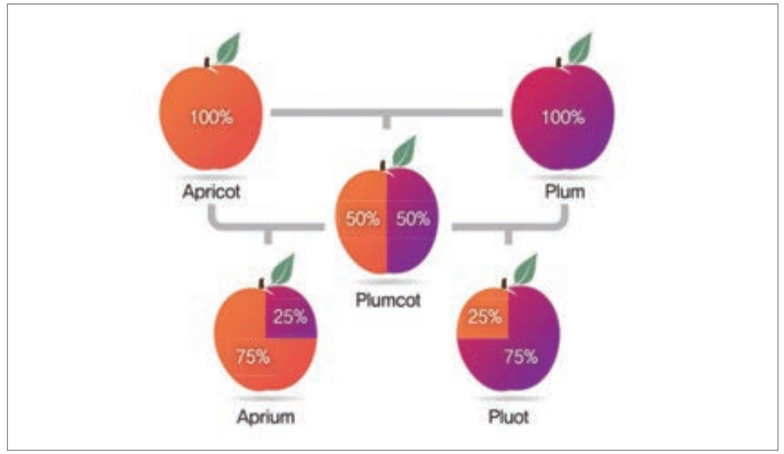
강상조 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신품종 개발 업무에 대해 원예작물부 과수과에서 장기 근속한 강상조 전 원장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강상조가 초창기부터 연구에 참여한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과일이다. 자두를 뜻하는 Plum과 살구를 뜻하는 Apricot에서 '-cot'를 따와 플럼코트(Plumcot)라는 이름을 탄생하였다. 강상조는 하나의 과일에서 살구 맛과 자두 맛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맛의 과일이 있다면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품종 개발을 시작하였다. 야심찬 시도였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성과를 보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품종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상조 :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엄청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품종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위에 상사들은 그거 하지 말고 외국에서 좋은 품종 들여다가 우리에 가장 알맞은 거 골라서 빨리 보급하는 도입선발을 하라고 했어요. 어른들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지금 당장 좋은 품종을 원하는데 어느 세월에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뚜렷하죠. 당시에는 로열티 개념이 없던 시절인데 저희같은 꾀보들은 언젠가는 도입선발은 로열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배 육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략) 시대 상황으로는 도입 육종에서 교배 육종으로 넘어간다는 게 어려운 시기에 그쪽으로 도전을 했죠.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도입선발을 했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믿었던 강상조는 상사들의 꾸중을 피해 혼자만의 실험을 계속해 나갔다. 초창기에는 "숨어서 하다시피"했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오면서 차츰 상사들을 설득하였다.

한편, 육종 과정에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플럼코트의 낮은 교잡률이었다. 자두와 살구의 교배에는 성공했지만, 불친화성으로 플럼코트의 종자가 생길 확률이 0.1%에도 못 미쳤다.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이 상황을 타파하였다.



플럼코트 품종 개발

강상조 : 어느 날 고민하다가 꾀를 내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암나무와 수나무를 인접해서 심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충실하게 자라게 되죠. 그걸 교배하기 위해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하우스 안에 모기장을 쓰우고 거기다 벌통을 갖다 놔 버리죠. 그러면 꽃이 한 그루에 수십만 개잖아요. "그래 되려면 되고 말 테면 말고 한번 해 봐라"하고 벌한테 일을 시켜놨더니 종자가 제법 나왔어요. 0.1% 교잡률이라고 하더라도 꽃이 워낙 많으니까.

처음에는 종자가 안 생긴다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에 교배를 통해 씨를 얻고 그 씨를 뿌려 나무를 키우고 다시 그 나무에서 씨를 얻는 일을 수년에 걸쳐서 하며 차츰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얻은 씨앗이 교배를 통해 얻은 씨앗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강상조 : 90년대 후반 그 당시 DNA를 검사하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기술이 한참 발전하는 중이라 찾아내는 것도 엄청 힘들죠.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는 자두 밴드도 있고 살구 밴드도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그래도 모르죠. 열매가 달린 걸 보니 이놈이 꽃은 자두 꽃인데 열매는 살구 같단 말이에요. 근데 꼭지는 또 자두 같아요. 그러니까 피노타입(phenotype, 표현형)하고 유전자 검사에 의한 제노타입(genotype,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거죠.

수년에 걸친 연구 끝에 플럼코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강상조는 플럼코트 1차 선발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 도맡았고 이후 후배들이 이어서 2차 선발, 현장 실증 실험 수행해 최종적으로 품종 등록에 성공하였다. 수십 년이 걸리는 작업이라 많은 사람의 협업이 필요한 공동 작업인 셈이다. 강상조는 이런 과도기를 거치며 현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도입 선발의 비중이 작고 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현재 한국은 품종을 수출하는 20개국 중 하나로, 우수한 품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4. 연구자와 농부 사이

앞서 언급했듯 이렇게 탄생한 품종은 신품종으로 등록되기까지 품종의 생산성과 지역적 응성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예작물부 채소과에서 장기 근속한 고관달 전 원장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일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고관달 : 당시 연구직 공원이 휴일도 없고 밤낮이 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작물이거든요. 작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육종(새로운 품종 개발)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이 품종이 물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존 품종과 비교해서 햇빛의 요구도는 어떤지, 비료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재배 전반의 매뉴얼을 농업인에게 줘야 농업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박을 키운다고 하면 하우스에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연휴면 물을 주러 가야 해. 대신 줄 사람은 없고 연구자인 내가 줍하니까. 그래서 뭐 정말 밤낮이 없죠. 당시만 해도 일반 농가는 1년에 농사를 한 번밖에 안 짓지만 우리는 하우스나 온실에서 지으니까 두 번도 짓고 세 번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쉴 때가 없어 365일. 농업인들은 쉴 때도 우리는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밤낮없이 일했어요.

연구 대상이 되는 작물의 특성상 연구자들도 몸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다. 고관달이 말하는 쉴 틈 없이 일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매일 옷을 2~3벌씩 챙겨 다녔다. 아침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하면 점심때에는 옷이 땀에 전부 젖어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점심을 못 먹을 정도였다. 오후 일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선풍기로 버티던 시절이었다. 또 일반 농가에 비해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아직 물 주는 시스템도 자동화가 되지 않았던 터라 주말에도 출근해 작물을 돌봐야 했다. 그럼에도 고관달은 그 시절을 즐겁게 일했던 시절로 기억한다. 일요일이면 예배 후 당연하게 가족들과 사무실로 향해 작물에 물을 줬던 것도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초기 독신자 숙소에 입속한 직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뒷줄 왼쪽부터 임열재, 이정식, 이돈군, 이동야, 앞줄 김유환이다.

한편, 온실 및 비닐하우스는 비교적 환경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온실 및 비닐하우스 밖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자연환경의 변화무쌍한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고관달 : 무 같은 근채류는 옮겨 심으면 뿌리가 예쁘질 않아 그래서 근채류는 다 직파하는 거야. 그게 8월 10일에서 8월 20일 사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여름 소나기가 자주 와. 장마는 지나고 소나기가 자주 오는데 무 심으려고 밭을 갈아놨는데 소나기가 오면 1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밭에 못 들어가요. 밭이 곤죽이 돼 갖고. 안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육중한 기계가 들어가면 떡이 돼요. 사람도 장화 신고 들어가면 푹푹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종 준비를 다 해놨는데 비 오면 난리가 나잖아. 그러면 천막지로 흙을 덮고 비닐도 덮고 두 줄이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비가 많이 오면 밭에 못 들어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관달 원장

이러한 상황은 일반 연구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품종 등록을 앞두고 품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품종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시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일례로 총수확물의 평균 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소나기 때문에 파종 시기가 연거푸 늦춰지면서 그해만 다른 해 대비 생산물 무게가 30%나 감소하는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큰 태풍을 앞두고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적도 있다.

고관달 : 온실은 태풍이 불어도 웬만하면 파손이 안 돼서 중요한 거는 온실로 옮기는데 그럼에도 못 옮기는 것들이 있죠. 문제는 비닐하우스인데 태풍이 심하게 불면은 비닐하우스가 풍압에 의해서 파이프가 휘어져서 옆으로 넘어져. 근데 이번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정도로 바람이 분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해야 해. 비닐을 찢으면 파이프 골격이 되는 건 살고, 비닐을 안 찢으면 운 좋게 비닐하우스가 버틸 수도 있지만, 만약 하우스가 무너지면 철거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안에 연구하던 것들도 다 죽는 거지.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을 찢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거야.

한 번의 선택이 한 해의 연구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팀마다 긴

회의 끝에 각자 최선의 결정을 내렸지만, 워낙 큰 태풍인 탓에 과학원 내 수십 개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농업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줄여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었다. 연구원 사람들끼리 종교가 없는 동료에게 "너희가 교회 다녀서 하느님에게 기도라도 해야지."라는 농담을 나눌 정도로 사람이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모든 기술 개발연구 프로젝트 상황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서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구를 통해 농산물 저장에 관해 기존에 민간에서 사용하던 방식의 원리를 밝히고 응용하기도 한다.

강상조 : 농산물이 다 생물이니까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니까 품질 변화가 쉽게 와요.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 농산물의 호흡을 어떻게 억제해서 품질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대표적인 방법이 공기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호흡할 때는 산소를 먹어야 하죠. 그런데 산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과일과 채소는 빨리 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호흡을 못 하게 하려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배합 비율을 작물마다 달리하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과수 저온저장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중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움이나 창고에 저장하는 게 기술인 줄 알았는데 사실 관건은 온도 조절이라는 식으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죠.

당시 대통령이 농작물 품질 유지를 과제로 제시하며 산을 파서 농작물 저장 굴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과거 배추나 무를 땅에 묻어 두고 먹었던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린 것이었지만 최신 기술을 다루는 연구자가 평가하기에는 다소 현실성이지 않은 제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지시사업을 아예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온도를 통제하는 저온저장고였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민간 지식의 원리를 밝히고 이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과학원은 민간의 필요와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한편 변화하는 현재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5. 국내 품종 딸기 보급기

한편, 이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된 신품종을 실제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이 압축적으로 담긴 것이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사례이다. 2002년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10년 후부터 외국 품종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한국 농가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2005년 기준 한국 품종 점유율은 9.2%에 불과하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외국 품종이고 특히 일본 품종이 95.9%에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딸기연구사업단을 만들어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도맡게 했다. 고관달도 경북대학교 이우승 교수와 팀을 꾸려 사업공모에 응모하였다. 때는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지도 이미 수년이 흘러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고관달은 당시 소장의 강한 권유로 5년 이내에 신품종 보급률을 50%에 도달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국내 품종 보급률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파격적인 목표였다. 실제로 공모 심사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고관달에게도 직을 거는 도전이었다. 놀랍게도 딸기연구사업단은 4년 이내에 신품종 보급률이 60%대에 이르며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

고관달 : 품종이 가진 성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재배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최소 7년에서 10



설향



아리향

년은 걸려요. 그런데 그때는 그만큼 시간을 소요해 매뉴얼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예산이 충분하면 팀을 나눠서 비료, 물, 햇빛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고 또 팀을 합쳐서 상호작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딸기 연구하는 인력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것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당시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일단 농가에 보급한다. 근데 농가들 중에도 실험 정신이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실험을 나름대로 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재배했더니 좋았다는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바로 그대로 재현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재현에 성공하면 바로 기술로 적용하는 거야.

원래 방식대로 하면 실험 설계에 3~4년이 소요되지만, 농가와 협업하고 민간의 데이터를 적극 수용한 덕에 재배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신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 직무육성품종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신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우월성, 독창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 설향 딸기의 품종선정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열렸고 이 자리에 고관달도 심의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하였다. 당시 설향은 재배 수량도 많고 비료 반응도 우수하고 재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탄저병에 취약한 편이고 쉽게 딸기가 물러져 유통성이 낮다는 단점이 지적되었고, 이 때문에 당시 심의 과정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였다. 그때 한 심사위원이 앞으로 생과일주스 시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판되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될 수 있다고 다른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며 품종으로 등록시켰다. 이후 신품종 보급 후 농가에 물 주는 방법을 바꾸고 과육을 단단하게 하는 비료를 사용하는 등 재배법을 개선해서 단단한 딸기를 만들어냈다. 재배법을 통해 기존의 단점이 개선된 후에는 급속도로 보급이 확대되었다.

한편 딸기연구사업단 연구 중인 2006년 일본과 딸기 로열티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국 측은 딸기 생산자 조회 회장이 협상대표로 나섰고 일본에서는 품종 개발자가 나왔다. 개인이 소유한 품종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협상이지만 한일 국가 간에 첫 품종 사용료 지급 협상이었기에 양 국가 공무원도 협상장에 참석하였다. 딸기사업단 출범 당시와 비교해 국내 품종이 보급되는 상황이라 한국 측도 협상력이 생긴 덕에 일본 품종 개발자 측에서도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로열티를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국내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협상 결과가 크게 실망스럽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현재 국내 육성 딸기품종 보급률은 2015년 90%, 2021년에는 96.3%에 다다랐고 현재는 해외에 국내 품종 딸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거둔 이례적인 성과에는 연구원, 학계, 농가의 협업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더불어 고관달은 국내 품종 보급 속도가 더딘 과수 분야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해살이 채소인 딸기와 달리 과수 분야는 묘목을 심어 열매가 맺히는데 3~4년, 순수익이 얻는 데까지는 평균 8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처음에 좋은 품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아무리 국내 신품종을 개발되어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현재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존 묘목을 베고 수년 후에 수익이 날지 불확실한 신품종을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란 쉽지 않다. 과수 분야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빛을 내길 바란다.

6. 찾아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품종 개발 및 보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가와 협업하게 되지만,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기술지원과에는 분야별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 방문해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고관달 : 연초에 설계 심의회를 해요.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건데 연구원과 보조원이 팀을 이뤄서 2~4개의 과제를 수행해요. 그러면 하나는 지금 당장 수요는 적지만 미래를 보고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를 하는 거고, 한 과제는 지금 시급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과제를 구성하죠. 과제 구성을 하려면 현장을 안 갈 수가 없어. 그 전에 1년에 몇 차례씩 현장에 가봐야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문제의 경중은 어떠하고 무엇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야 연구 과제를 설정할 수 있죠. (중략) 농가에서 SOS를 치면 우리가 가서 문제를 진단하고 관리법을 알려 주지만 기술지원과에서 당장 해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걸 가져다 과제화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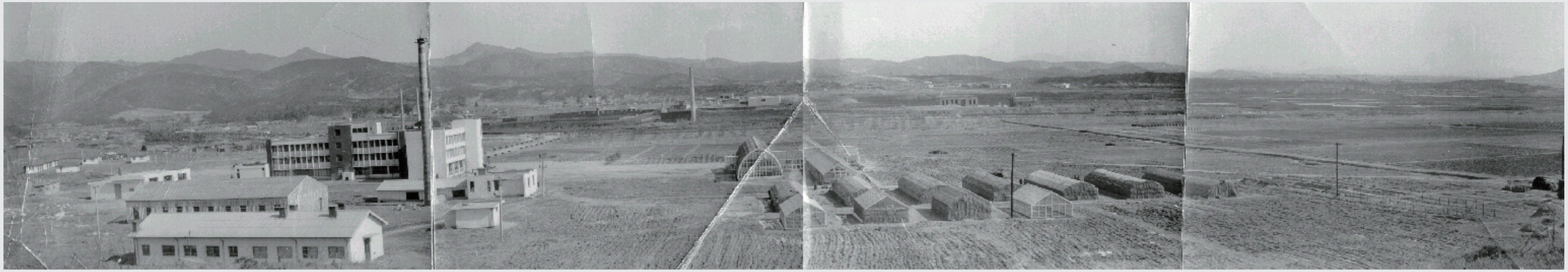
기술지원과가 처음 만들어질 될 당시만 해도 과학원 내부에서는 "이런 일까지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주요 업무였던 연구 대신 현장 지원을 도맡는 상황이 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생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려 섞인 시작과 달리 기술지원 활동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할 수 있게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기술지원 업무는 연구자가 가진 지식을 전달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연구자의 말 한마디가 한 해 농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에 큰 책임감이 따른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다만 때로는 농가가 가진 문제가 과학적 지식으로 명쾌한 답을 내릴 수만은 없는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 고관달은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했던 시기를 설명하며 자신이 '기분 좋은 뇌물'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였다.

고관달 : 한 번은 경상남도 남지에 풋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갔어요. 이분은 원래 계획은 겨울을 나면서 풋고추 농사를 지으려 했던 건데 당시 기름값이 크게 올라 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기름값을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이라도 고추를 베고 농사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를 묻더라고. 내가 그때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당장은 어려워도 참고 가는 게 낫겠다고 조언을 줬어요. 그러고 한 3~4일간 계속 밤 11시 넘어서 그분이 전화를 하는 거야. 낮에는 전화를 안 되니까. 휴대전화가 아니고 일반 전화기 쓰던 시절이니까. 전화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아내와 부모님이 도저히 동의를 못 해서 베어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이야.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주겠다고 해서 어르신들과도 통화를 하고 부인과도 통화를 해서 결국 안 베고 재배하는 걸로 했어. 그리고 그해에 3년치 소득을 한 번에 냈어. 그해 대부분 농가에서 다 뽑으니까 귀고추가 된 거야. 그래서 겨울 한 구정 막 지났을 때 같아, 풋고추가 한 박스에 10만 원도 더 하던 시절에 한 박스를 보내 줘서 전 직원이 조금씩 나눠 가져간 기억이 있거든. 그때 기분 최고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현장 지원 활동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고 재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농민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절박한 농민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했던 마음은 감사함이 담긴 고추 한 상자로 되돌아왔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7년 청사 준공과 함께 연구시설이 이목동으로 모이던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6년 이목동 연구설비가 포화상태에 도달했던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1997년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가 합쳐진 원예연구소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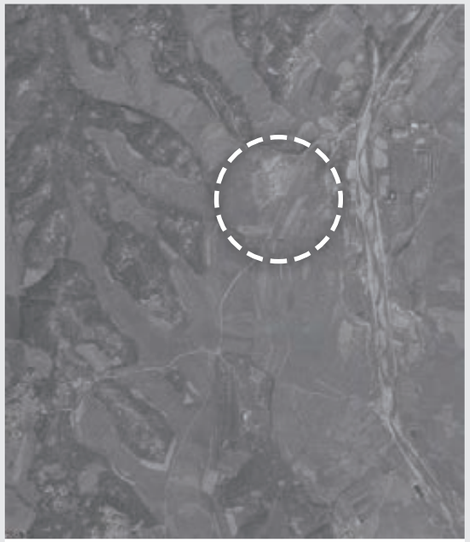


2003년 설립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던 시절(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015년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목지구(2024년, 김승일 제공)



1966년



1974년



2006년



2014년



1985년



1995년



2020년



2024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목동)의 변화(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7. 이목동 시대를 마무리하며

2015년 국가 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과학원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당시 원장으로 근무했던 고관달은 연구원 내부 반응은 대개 이런 변화를 반겼다고 기억한다.

고관달 : 이목동에 있으면서 연구원들의 욕심은 뭐였냐면 더 일을 벌이고 싶은데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온실도 더 짓고 싶고 과수원도 면적이 더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했죠. 품종을 교배하면 씨앗이 나오고 이걸 심어서 결과를 봐야 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사과나무에 접을 붙여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려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다들 이사 가면 부지가 넓어지니 다 좋다고 환영을 했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곳이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죠.

연구공간 부족 문제는 앞서 강상조가 플럼코트 품종을 개발할 때부터 맞닥뜨렸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특히 복숭아, 살구, 자두 등의 과수는 한 번 심었던 땅에 연작하면 기지현상으로 재배가 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강상조는 다음번 심을 땅을 찾는 것이 매번 곤혹이었다고 기억하였다. 넓은 부지와 최신 시설을 갖춘 새 건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연구원 대부분은 긍정적 반응이었다. 이후 대대적인 이전 작업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이목동에 있지는 않고 구술자들이 퇴직한 지도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원에 남아 농업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목동에서의 땀 흘린 시간들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강상조 : 당시에는 육종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사이클, 그러니까 교배해서 좋은 품종을 골라내고, 보급하는 데까지 30~40년 걸려요. 처음에는 불만이었죠. 나는 왜 이런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가? 불만을 가졌었는데 육종은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그거는 농업인이 최소 20년 30년은 쓸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 좋은 걸 만들면 그 기여도는 오래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여태께 없던 걸 만들어 가니까 (중략) 지금도 농업인들 만났을 때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품종 요새 잘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제 보람이죠.

고관달 : 제가 일을 하면서 감사패를 여러 개 받았는데 그게 농업인들이 주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해 줘서 실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농업인들이 준 거라 더 기분이 좋고 뜻깊죠.

'머나먼 길'이라는 강상조의 표현대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의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성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일이었다.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한 길이다. 그럼에도 사명감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시간이 지나면 후배들이 이어받아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오늘날 한국이 빠른 농업 기술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품종을 보유하기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임에도 사명감으로 연구에 몰두한 과학원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강상조는 이목동에서의 과학원 시기를 기념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에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이목동 475번지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기념탑 또는 기념비를 세우면 주민들에게도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더불어 수원시가 정조대왕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이를 근현대 농업 연구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옛 농업 연구 탐방길'이라는 이름으로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목천변→서호저수지→(우장춘 박사의 묘소가 있는) 여기산→국립농업박물관(옛 농촌진흥청 부지)→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옛 국립식량과학원 본원)를 잇는 둘레길을 구상하였다.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세울 때 식량을 생산할 둔전을 만들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 서호로부터 한국 원예연구 1세대 연구자 우장춘 박사, 그리고 현재의 농업 연구로 이어진 시간, 직접 걸으며 이 시간을 일상에서 다시금 떠올리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3장

농원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 이목동 농업공간의 재편과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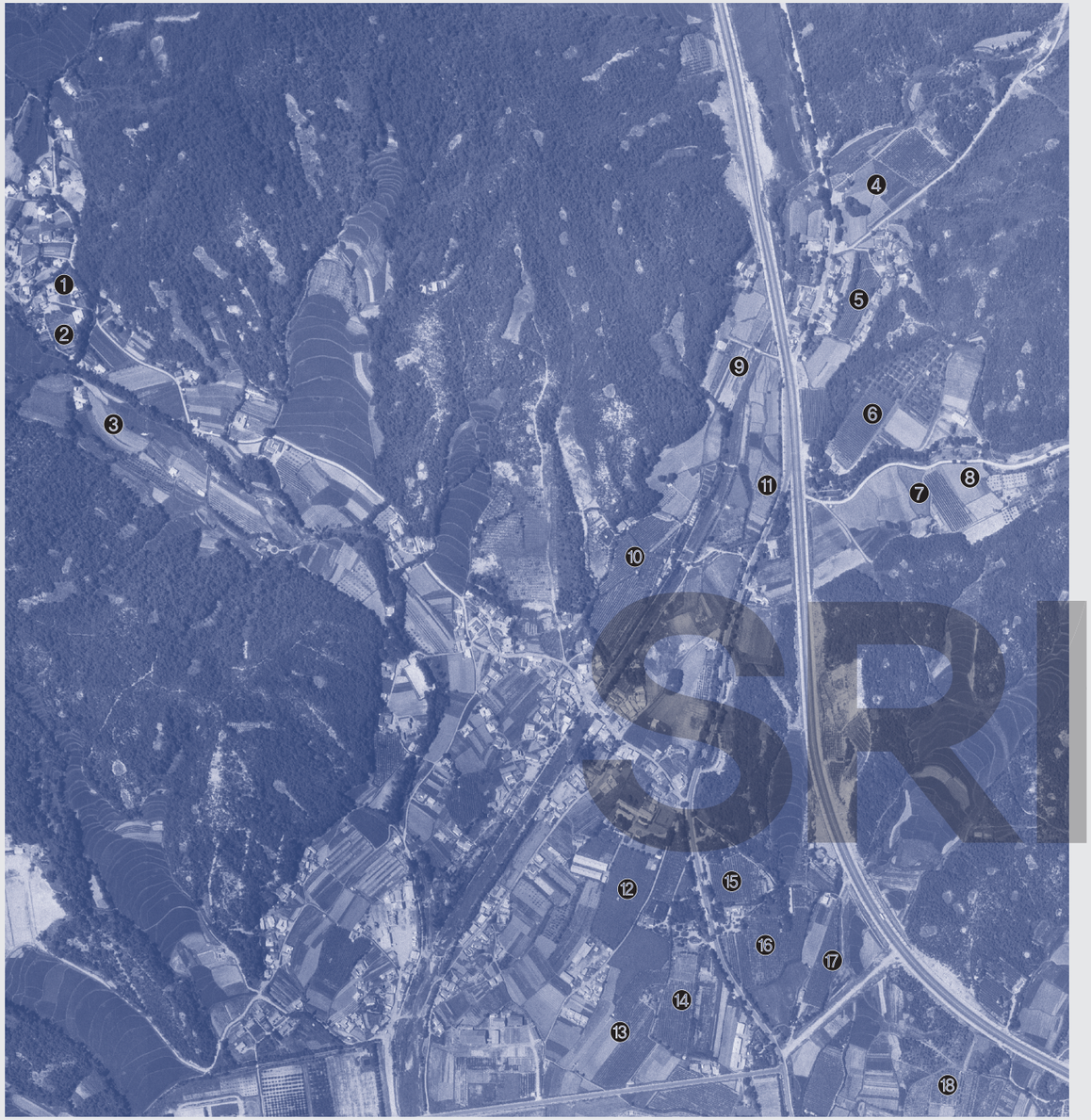
이승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의 북쪽, 장안구에 위치한 이목동은 수원에서 크게 주목받는 지역은 아니었다. 영통이나 광교 등의 신도시처럼 규모가 크거나 주민들의 숫자가 많지도, 직접 통과하는 전철·지하철 노선도 없기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목동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동네이다. 각종 편의시설과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며,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동네로, 다양한 장점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경수대로, 노송로, 서부우회도로, 북수원IC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지역이라 교통도 편리하다.

이목동은 수원을 비롯해 인근 경기도와 서울 주민들에게 많은 추억과 꿈을 안겨준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개발,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한때 이목동 일대에는 유명한 농원과 가든형 식당이 여럿 들어서 있었다. 가족 나들이, 집안 잔치, 직장 회식, 데이트, 결혼식, 외식, 학생들의 견학과 소풍 등 인생에서 기념할 만한 소중한 순간이 이곳에서 펼쳐졌다. 이목동의 가든형 음식점은 묘목, 꽃, 과일 등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원'에서 시작하여, 도심 속 전원을 누리며 식사할 수 있는 '가든형 식당'으로 변모한 곳들이다. 이목동 농원·식당의 특징과 변화상을 살펴보면, 이목동의 경관, 주민들의 삶, 여가와 외식 문화의 변천, 이목동이 수원에서 지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목동에서 농원을 창업한 1세대들이 모두 작고하였기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원과 가든을 운영하며 현대화·상업화시킨 2세대들의 경험과 기억은 이목동을 그려 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목동에 들어선 첫 번째 농원인 '청은농원'을 운영했던 김진남, '송정가든'을 운영했던 유용수, 현재까지 이목동에서 '삼풍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최창순과의 구술 인터뷰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신문자료, 각종 기록물 등의 문헌자료와 사진, 지도 등을 참고하여 이목동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이목동에서 농원·가든을 운영했던 분 중 인터



1979년 이목동 농원 위치(1974년 항공사진)

❶ 청은농원 ❷ 이목농원 ❸ 안성농원 ❹ 도아포도원 ❺ 흑장원 ❻ 평화농원
❼ 청산농원 ❽ 자연농원 ❾ 노송농원 ❿ 삼풍농원 ⓫ 화성농원 ⓬ 부국농원
⓭ 중앙농원 ⓮ 태극농원 ⓯ 대지농원 ⓰ 송정농원 ⓱ 종국농원 ⓲ 세일농원

뷰를 해 주신 구술자의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이목동에서 농원·가든을 운영한 구술자의 인적사항

구술자	주요 활동
김진남	– 1952년생. 수원 출생. 이목동 경주 김씨 집성촌에서 17대째 거주한 토박이 – 1960년대 후반 아버지 김인기(1915년생)가 아들들과 힘을 합쳐 허드레 땅을 개간하여 이목동에 처음으로 농원을 만들고, 관광사업화함 –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목동에 총 4,800평 규모로 '청은농원'을 운영함 – 1970년대에 4~5년간 이목동 통장 역임 –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개발 때 청은농원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1988년경 폐업
유용수	– 1952년생. 수원 출생 – 아버지 유성규와 이목동에 4,500평 규모의 '송정농원' 운영 – 1997년 IMF외환위기 직전 폐업하고, 경기대 후문 부근에서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광교신도시 개발로 폐업 –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블루베리, 오디 등을 재배하는 '송정농원' 운영
최창순	– 1953년생 – 건설부 차관이었던 아버지 최종성(1927년생)이 1969년 이목동에 삼풍농원 개원 – 가업을 물려받아 2024년 현재까지 삼풍가든을 운영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허드레 땅을 개간하여 만든 농원

이목동은 현재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이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는 농촌 마을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과거에는 다소 빈곤한 마을에 속하였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경제 수준이 크게 높아져 모범적인 마을로 손꼽혔다. 『조선일보』 1954년 10월 12일자 기사에서는 "농가 67호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으로 소가 45두, 돼지가 110두가 되는 부유한 유축농촌(有畜農村)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955년에는 "10년 전의 빈촌에서 모범농촌이 되었다."는 내용의 「모범농촌탐방기」(『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에서는 이목동 주민들을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목동은 변두리 농촌 마을로 논밭이 경사지고 메말라서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주민들의 자립 의지, 단결력, 공동체 의식, 향학열 등이 높아 빠르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목동에서 빈 땅을 일구어 개발한 최초의 농원은 김인기의 청은농원(靑隱農園)이다. 김인기는 1915년 일형면 이목리 139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이목리는 경주 김씨가 일찍부터 세거한 곳으로, 김인기는 선조 대부터 살아온 이목동의 터줏대감이다. 그는 수원공립보통학교(신풍초등학교의 전신),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 농과대학 전신) 부설 실업보습학교를 졸업하였다. 수원군 반월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경기도 지방 삼림



1970년대 청은농원 김인기 부부와 아들 김진남(김진남 제공)



주사와 서울대학교(수원) 농과대학 임업 기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하였다.

1960년대 후반 퇴임 후 생활을 설계하면서, 농사만 지어서는 큰 수입을 얻기 힘드니 농업 이외의 소득을 만들자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향인 이목동에 자신의 호인 '청은(靑隱)'을 넣어 개인 농장인 청은농원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산림과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국토를 보호하자는 산림녹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나무 심기 운동이 확산되었고, 산림감독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목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당시 이목동은 변두리에 해당되어 허드레 땅이 상당히 저렴했기에 그는 꽤 넓은 토지를 매입했고, 아들들과 힘을 합쳐 밭을 개간하여 농원으로 만들었다. 땅에 모래를 가져다 부어 길을 만들고, 묘목을 심었다. 빈 땅이 농원이 되고,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지기까지 다섯 부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생활을 지속하였다.

1952년생인 김진남은 당시 10대 학생 시절이었는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늘 농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청은농원과 백화농원(1982년, 수원박물관 제공)



원에서 일을 거들었다. 김진남의 가족들은 초창기에는 산수유, 회양목, 탱자나무, 꽃나무 등을 주로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꽃장사들, 조경업자들이 청은농원에 와서 이를 구입하였다. 훗날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 중국에 산수유를 한약재로 수출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특히 산수유나무를 많이 파종했다고 한다. 농업 외 소득 증대를 꾀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청은농원은 서울농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김인기의 경험과 기술, 젊은 아들들의 열정과 패기가 합세하여 점차 자리를 잡아 갔다.

삼풍농원은 이목동 농원 중 후발 주자였지만,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농원이 되었다. 1927년생인 최종성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고, 이후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건설부 차관, 민주공화당 정책연구실 차장, 제8대 충남 보령군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엘리트이다. 최종성은 서호천 하천부지 1만 평을 불하받아 1969년 삼풍농원을 개원하였다. 삼풍농원은 수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부지에 어린이 풀장, 테니스코트, 유료 낚시터, 작은 동물원, 양어장까지 갖추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대화의 광장' 등 공식적인 모임도 삼풍농원에서 진행되었다.

> 제3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겪으며 군인으로 제1의 인생을 살았고, 불철주야 국토건설의 건설관료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황무지(荒蕪地)나 다름없는 수원의 땅, 9,000여 평을 개간해 '삼풍농원(三豊農園)'을 만들어 가꾸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모래밭이나 다름없는 삼풍농원 땅 1만여 평을 마련한 때는 1969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는데 30여 년 동안 개간하고 가꾸어서 지금과 같은 나무숲을 만든 것이다. 원래는 하천부지였다.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아 내가 하천개수를 한 것이다. 풀이 나면 전부 깎아서 퇴비를 만들어 깔아 주니 배수도 잘되고 나무들이 쑥쑥 컸다. 나무 욕심이 많다 보니 어디에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면 구해 오고, 또 수목원에서 몇 주씩 사다 심었다. 처음에는 뒤에 산이 있었고 그곳에 내 묫자리도 봐두었는데 도로가 나는 바람에 산이 다 잘려 나간 것은 지금도 아쉬운 대목이다.〈최종성, 『금잔디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2013〉

2. 농원의 관광사업화 : 나들이와 데이트의 명소가 되다

1960~1970년대는 경기도 전역에서 농원이 설립되던 시기였다. 당시 수원 이목동 가까이에는 푸른지대와 노송지대가 있었다. '푸른지대'는 권선구 초입 서울대 농대 뒤편, 탑동 505번지 일대의 푸른 들판을 일컫는다. 1950년대부터 박준철이 딸기와 포도 등을 경작하던 과수원이 있었는데, 국내 최초 신품종 딸기인 '대학 1호' 딸기로 유명하였다. 이 과수원이 인기를 끌자 인근 농가도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21만여㎡에 달하는 일대가 딸기밭으로 성업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삼풍농원 전경(1977년, 수원시청 제공)





1973년 이목동 농원에서 딸기밭을 일구는 손길(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이목동 농원에서 딸기밭을 일구는 손길(수원박물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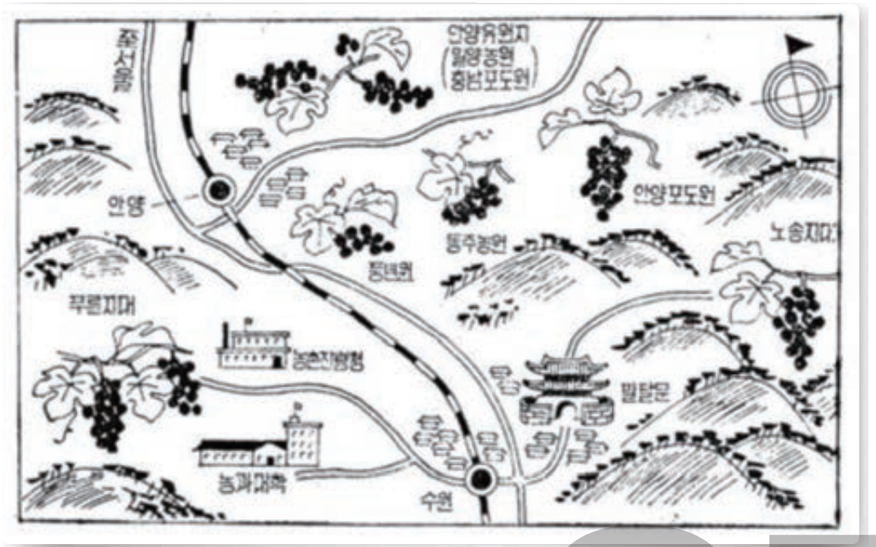
며 '푸른지대'라는 이름을 얻었다(『수원일보』 2023년 6월 13일). '노송지대'는 지지대고개 정상에서 경수국도를 따라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심겨 있는 약 5㎞의 구간으로, 정조의 효심과 사도세자의 슬픈 역사를 함축한 장소이다. 푸른지대는 골프장으로 바뀌었고, 노송지대는 노송과 화초가 많아 현재까지도 산책을 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곳이다. 푸른지대는 일간지 등을 통해 개장 소식과 교통편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었고,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장소였다.

> 푸른지대 등 금주부터 제철 수원에 자리 잡은 관광농원 「푸른지대」가 이번 일요일(6월 2일)에 개장한다.〈「수원 딸기밭」, 『조선일보』 1968년 5월 30일〉

> 5월이 오면 푸른지대의 딸기가 선을 보이기 시작한다. 수원까지의 교통은 버스, 기차 모두 이용하기 편하다. 을지로2가 쌍룡빌딩 앞에서 유신고속버스가 오전 7시부터 15분 간격으로 떠난다.〈「사적의 고장 수원 일대」, 『조선일보』 1971년 4월 9일〉

김인기의 가족은 경기도 일대의 다른 농원에도 종종 답사를 가곤 했다. 청은농원은 꽃과 나무를 재배하고 판매하면서, 한편으로는 딸기를 심어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딸기를 사 먹는 운영 방식을 시작하였다. 수원이 딸기 생산지로 이미 유명했기에 홍보하기에도 수월하였다. 판매 가격은 일반 시장보다 저렴했지만, 산지 직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상당한 수익이 되었다. 생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지 않더라도, 직접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된 것이다. 청은농원은 수목이 아름답게 우거져 경치가 훌륭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관광을 오게 되었다. 어른들, 가족 단위 나들이객뿐 아니라, 유치원생들의 견학 코스이기도 했다.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유치원생들이 도착하면, 당시 50대였던 김인기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꽃나무와 과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줬다고 한다. 1년 중 봄, 여름, 가을에는 나무와 꽃을 가꾸고, 여름 두 달간은 농원을 구경하며 딸기를 먹는 관광객을 맞이하였다. 관광객 숫자가 커지면서 농원의 규모도 점차 늘여서, 1농장, 2농장, 3농장까지 만들었고, 이를 합하면 총 4,800평 크기였다.



수원 푸른지대와 노송지대, 안양유원지 일대의 포도밭과 딸기밭(『조선일보』, 1970년 8월 8일)

청은농원을 시작으로 이목동 일대에 송정농원, 삼풍농원, 경남농원, 부국농원 등이 속속 생겼다. 청은농원과 송정농원은 수원 주민이 만들었고, 나머지는 농원 설립 붐을 타고, 이목동 일대의 입지와 경관을 보고 외지에서 들어와 시작한 사람들이다.

송정농원을 시작한 유성규는 수원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며 운전 및 자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퇴직 후 평당 7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허드레 토지를 3,000평 정도 구입하여 농원을 운영하다가, 이후 더 사들여 4,500평까지 규모를 늘렸다. 1960~1970년대 이목동은 버려진 허드레 땅, 주인 없는 토지들이 꽤 있었다. 습기가 많아서 벼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못했으나, 포도 농사를 짓기에는 상관없었다. 유성규는 소나무 정자가 있는 농원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에서 소나무 '송(松)'자에, 정자 '정(亭)'자를 써서 '송정농원'을 만들고, 포도밭을 운영하였다. 청은농원이 각종 나무, 꽃, 딸기를 함께 재배한 데 비하여, 송정농원은 포도 농사만 짓다가 수확량과 수익 증대를 고려하여 딸기 농사를 병행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치 좋은 농원에 와서 숲과 자연을 즐기며 갓 딴 싱싱한 딸기를 먹는다는 것에 매료되었기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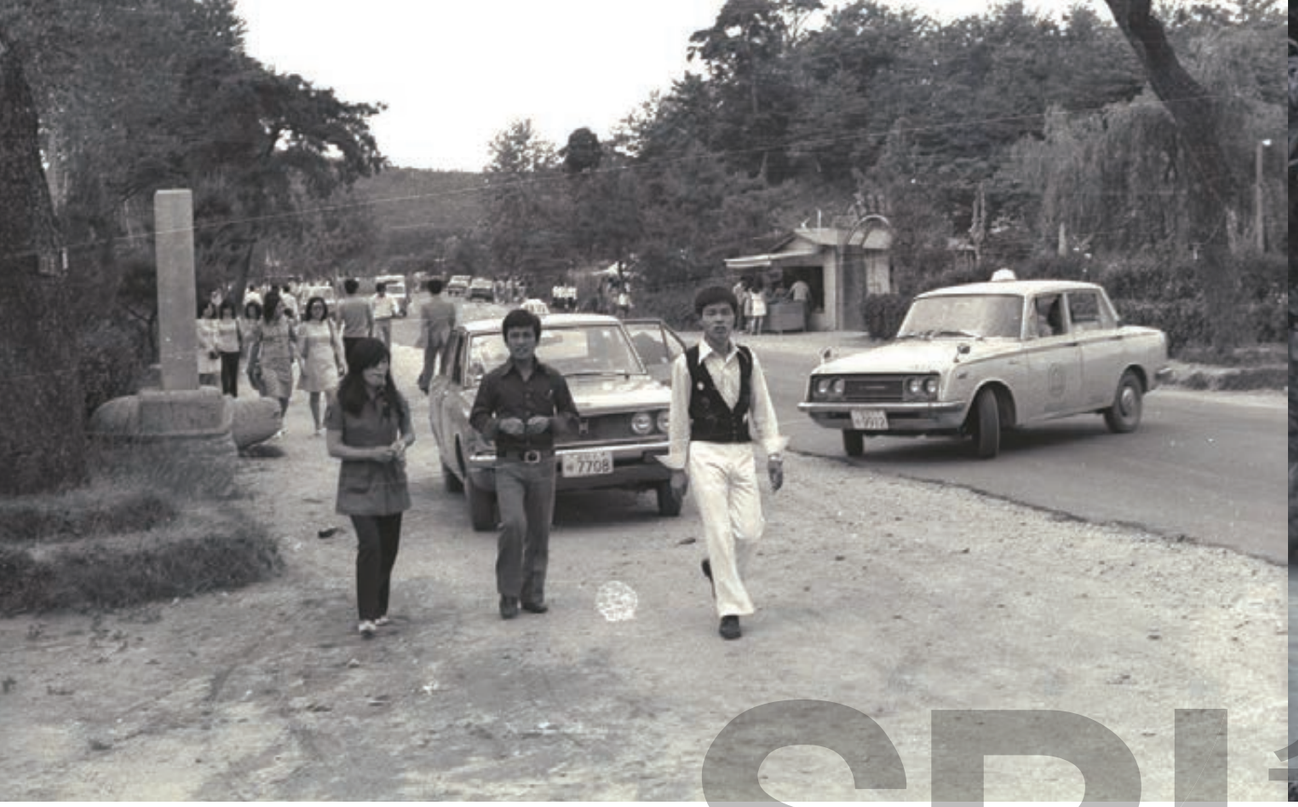


1972년 부국농원(수원박물관 제공)

유용수 : 아버지가 하루는 그러시더라구요. "야! 우리도 딸기(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러셨어요 "아, 포도밭도 힘든데 딸기까지 또 하냐?"고. 가을에만 수확이, 봄에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 수입, 가을 수입을 하자. 전적으로 그냥 딸기밭이 아니라, 포도나무 밑에다가 이모작을 하는 것을 심자!"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밑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세 줄, 세 줄 해서, 쭉 심었죠. 근데 그렇게 심으니까 딸기가, 그 당시만 해도 첫 과일로서 유리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딸기 심는 거죠. 손님들이 와서 사면 그걸 깎아서, 설탕 봉지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설탕하고 같이 갖다. 그럼 그게 도시에서는 하나의, 야외에 나와서 처음 먹는 과일이면서 생동감 있잖아요. 과일을 직접 농장에서 먹는다는 그런 생각, 그게 차이가 많은 거죠!

들판의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거나, 냇가 평상 위에 앉으면, 종업원들이 포도와 딸기를 씻어 작은 상에 설탕 그릇과 함께 내놓았다. 관광객들은 과일을 직접 따기도 하고, 근(斤) 또는 관(貫) 단위로 사서 귀가하기도 했다. 농원은 별도로 입장료는 없었고, 과일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나가도 무방하였다. 농원에는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 세척하여 쟁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3년 노송지대 딸기밭을 찾은 행락객(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노송지대 딸기밭을 찾은 행락객(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나 상에 담아 옮기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무게를 재는 사람 등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에 대부분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되었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가족 단위의 나들이 손님,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숲과 과일을 즐기고 싶은 이들, 직장인들의 회식과 야유회, 어린이들의 견학 등으로 이목동의 농원은 큰 사랑을 받았다.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청은농원은 버스에서 내려서 1㎞ 정도의 비포장도로를 걸어 들어가야 됐는데, 초여름이 되면 예쁜 옷과 화려한 양산을 든 멋쟁이 여성들의 행렬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농원 초입에 길게 늘어진 자두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운치가 가득하였다.

1970년대 중반쯤 되어 농원을 만든 아버지 세대가 고령이 되고 아들들이 20대 청년이 되고 제대하면서, 2세가 운영을 전담하게 되었다. 청은농원과 송정농원은 농원이 위치한 자연환경, 입지 등을 살려 인테리어와 특색을 갖추어 나갔다. 김진남은 농원 안에 연못을 만들어, 잉어가 노니는 것도 보고, 방문객들이 건빵도 던질 수 있도록 했다. 유용수는 농원 안에 풍차를 직접 만들고, 8인치 스피커 16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희망하는 팝송과 대중가요 등을 틀어 줬다.

삼풍농원은 초기에 포도와 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해 수익을 올렸는데, 양어장 시설 등이 있어 수원 일대 기업들의 야유회 장소로도 각광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중반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후, 복구작업을 계기로 수영장, 방갈로, 예식장, 피로연장, 카페, 연못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나갔다. 이에 1980년대 중반에 삼품농원은 다양한 시설과 각종 수목(樹木)이 우거진 경관의 휴식공간으로 변모하였다.

> 처음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농업을 했다. 포도, 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초창기만 해도 봄에는 딸기, 가을에는 포도농장으로 소문이 나고 양어장 등의 시설이 있다 보니 삼풍농원은 수원 근방 기업의 사원야유회 장소로 많이 쓰였다. 또 경치가 좋다 보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고 딸기나 포도를 먹으러 가족이나 단체들이 찾아왔다. (중략)
> 1970년대 중반에 큰 수해를 입었다. 대홍수로 양어장이 다 쓸려 나갈 정도로 피해를 입어서 두어 달 동안 문을 닫고 복구를 해야 했다. 마침 그때 내가 조경공사 사장을 했던 시기여서 농원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시설도 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수영장을 만들고 그다음으로는 예식장을 만들었다. 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방갈로도 지었는데 남녀가 와서 혼숙하는 일이 잦아지며 퇴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1970년 노송지대 농원 포도밭(경기도청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 노송지대 농원 포도밭(경기도청 제공)



1975년 삼풍농원(수원박물관 제공)

지금과 같은 수영장, 방갈로, 예식장, 피로연장, 식당, 연못, 야외예식장, 카페를 만들고 각종 수목(樹木)이 우거진 경관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것은 내가 퇴임하고 나서였다. 그렇다고 자금이 풍부해서 각종 시설을 지은 것은 아니다. 수영장을 지어 거기서 번 돈으로 본관을 짓고, 방갈로를 짓고, 그다음에 예식장 짓고, 이런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도 건축공사를 안 한 해가 없을 정도였다. 아마도 군인 시절의 공병, 행정관료로서의 건설, 조경 등으로 국토건설을 설계하고 만든 경험의 되새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때만 해도 수원시가 지원도 해 주었고 여름방학 때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체험 삼아 일도 많이 해 주었다. 특히 수해가 났을 때 학생들이 냇가도 복구하고 돌쌓기도 해 주었던 기억이 새롭다.〈최종성, 『금잔디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2013〉

1976년 신문기사를 보면, 이목동 일대 농원의 개수, 규모, 인기를 얻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깨끗하게 포장된 경부국도 좌우로 울창한 노송밭에 자리한 20여 개소의 포도농원은 딸기로 유명한 푸른지대와 함께 그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 광교산 깊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냇물소리와 쓰르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적시면서 여름내 알알이 영근 포도알을 깨물면 공해에 시달렸던 도시인의 가슴도 함께 트이는 상쾌감이 전신을 매료시킨다. 노송지대 내 삼풍·청은·종국·태극·경남·부국 등 20여 개 농원들은 이미 개장을 했거나 오는 주말부터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캠벨 품종 1만 평을 재배한 삼풍농원은 수원시에서 택시요금이 4백 70원, 시내버스에서 내려 도보로 5분 거리. 삼풍농원은 어린이 풀, 테니스코트, 유료낚시터, 작은 동물원, 양어장까지 갖추어 놓고 있다. 1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 농원은 30여 개소의 휴게소를 노송 그늘에 마련, 캠벨 품종 포도를 1관에 1천 6백 원씩 팔고 있다. 또 환경이 좋기로 이름난 청은농원은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포도와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 놓아 가족 동반의 휴게소로 인기.〈「싱그러운 늦여름의 미각 – 포도원에의 초대」, 『경향신문』 1976년 8월 26일〉


싱그러운 늦여름의 味覺

葡萄園에의 招待

낚시터·테니스코트 갖춰

老松밑 휴게소 萬명수용 水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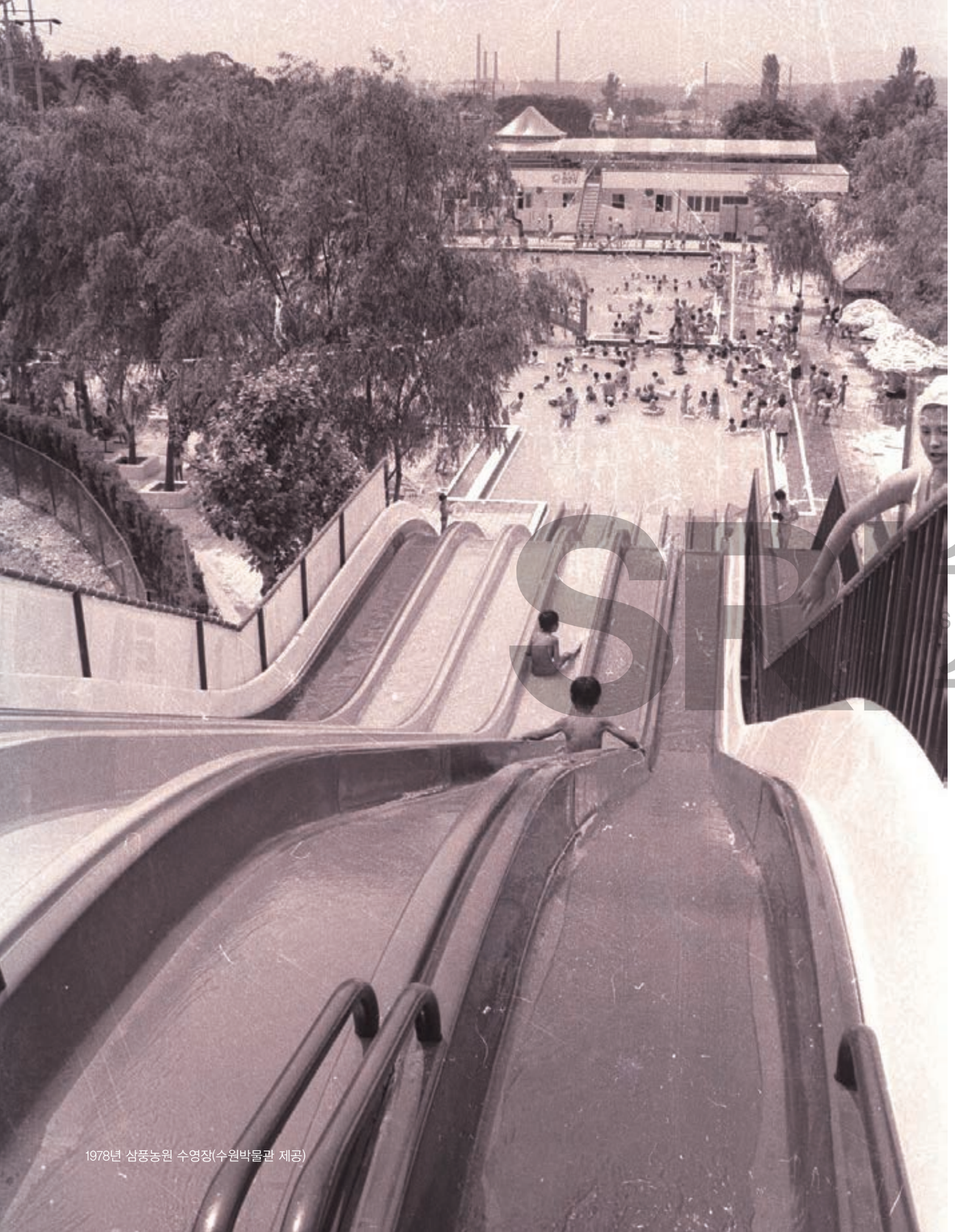
10여 佛품종 맛볼수있어 安城

이목동 포도밭을 소개하는 기사(「싱그러운 늦여름의 미각 – 포도원에의 초대」, 『경향신문』 1976년 8월 26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8년 삼풍농원 수영장(수원박물관 제공)



1978년 삼풍농원 수영장(수원박물관 제공)



1973년 농원을 찾은 손님(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농원, 도심 속 가든형 식당으로 변모하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꽃과 나무, 과일을 즐길 수 있는 나들이 명소인 이목동의 농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들어서며 단순한 농원에 머무르지 않고 여가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변해 갔다. 이 시기에 이목동 농원들은 하나둘씩 식당으로 바뀌었다. 농원이 음식점으로 변모한 데는 관광객들의 요구와 수원갈비의 대중화가 큰 몫을 했다.

김진남에 의하면, 청은농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상당수가 서울 등에서 온 사람들인데, 오전 일찍 집에서 출발하여 농원에 도착하여 산책 등을 하다가 점심 때가 되면 허기를 호소하곤 했다. 과일만 먹고 떠나기에는 아쉬웠기에, 식사할 거리가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진남의 어머니는 가족과 종업원들이 먹는 된장찌개, 고추장, 농원에서 갓 뜯은 상추, 깻잎, 비듬나물 등을 차려 관광객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곤 했다. 관광객들이 이를 매우 좋아하며 맛있다고 칭찬하자, 식사 메뉴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한식 백반 요리를 하다가, 닭볶음탕, 백숙 등 닭요리를 주요 메뉴로 취급하였다. 더위에 갈증을 해소해 줄 음료수와 술도 곁들였다.

식당으로 전환하면 수익이 훨씬 증가하기에, 이목동 농원들은 대부분 음식점으로 바뀌었

다. 송정가든도 처음에는 닭 요리를 했는데, 하루에 닭을 150~200마리씩 팔면서 손질과 조리가 힘들어지자 상대적으로 요리가 간단한 돼지갈비로 메뉴를 바꾸었다. 요리 방식은 당시 유행하던 수원갈비 스타일로 하였다. 영동시장 미전거리에서 시작한 '화춘옥' 갈비가 인기를 끌면서, 1980년대는 갈비에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내는 수원갈비가 대중화되는 시기였다. 농원이던 삼풍농원은 1984년 삼풍가든을 개원하였다. 삼풍가든은 한우등심, 양념갈비, 양념갈비정식, 갈비탕 등을 판매했고, 가족 모임 위주의 갈비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쳤다.원래 농원은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장사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한가한 시기였다. 운영자들은 손님이 오지 않는 가을, 겨울에는 이듬해 영업을 준비하면서, 잠시 휴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든형 식당으로 바뀌면서 포도와 딸기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도 장사를 지속할 수 있었고, 사계절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제적으로는 많이 윤택해졌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농원을 관리하면서, 야외 음식점도 운영하다 보니, 더욱 바쁘고 힘들어졌다.

농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의 테이블 혹은 냇가 평상에서 경치를 즐기며 편하게 식사를 즐겼지만, 운영자와 종업원들은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 식탁까지 뜨거운 음식, 반찬, 물을 일일이 운반해야 했기에 고된 일이었다. 특히 주말에는 단체 손님을 비롯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오갔기에 정신없이 분주한 일과가 펼쳐졌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2시간 이상 청소한 후, 점심 식사 준비를 시작하였다. 송정가든의 경우 점심때는 갈비 50인분, 저녁에는 150인분 정도까지 팔았다. 잡초를 뽑고 나무를 관리하는 이, 조리사,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 전기 등 시설을 관리하는 이 등 많은 직원이 필요하였다. 송정가든은 한때 직원을 47명까지 두고 운영했는데, 과장, 조장, 숯불 담당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기혼 직원들은 저녁 8시 전에 퇴근했지만, 미혼 직원들은 밤 10시까지 근무하였다. 이목동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들을 10여 명씩 고용하여 딸기밭 매는 일을 맡겼다. 주차장 크기가 1,000여 평에 이를 만큼 방문자와 차량이 많았다.

김진남 : 아침, 여름 같은 때는 5시, 뭐 이렇게 일어나지. 청소에는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9시나 돼야 밥을 먹어요. 어떤 때는 9시, 어떤 때는 넘어서도. 점심 되기 전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리 잡으려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손님 받으면 그냥, 그냥 하는 거야. 딴 일과도 없어. (중략) 이제 관리인 아저씨는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거기 풀 뽑고. 또 풀 뽑고, 이렇게 밭 매고. 그럴 때 또 동네 아줌마들을 얻어. 그 사람들이 와서 딸기밭 매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쓰는 관리 아저씨는 농장 들어가서 전기 이상 없나, 또 이런 데 가서 고치고, 또 일도 하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손님 받는 걸로 하는 거지. 하루일과가 그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정신없지. (중략) 육체적으로 힘든 건 뭐, 어쨌든 사람 상대니까 그게 힘든 거지. 사람들이 "빨리 가져와라!"그러잖아요. (중략) 우리 같은 데는 2천 평인데, 주방은 저기인데, 저 냇가에



1970년대 삼풍농원(최창순 제공)



1970년대 삼풍농원을 찾은 행락객들(최창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80년대 삼풍농원 정문(최창순 제공)



1988년 풍차 시설을 갖춘 아리랑농원(수원박물관 제공)



1980년대 삼풍농원을 가꾸고 있는 최종성(최창순 제공)



1988년 노송지대 농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



1985년 가든형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송지대 농원(수원박물관 제공)



1990년 백화농원(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서 부르면 물 하나 따로 가져가지. 또 삼계탕 시키면 뜨거운 거 탕 2개를 들고 가는 거 그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 애들 고생 많이 했어요. 나도 했지만, 그거를 저 냇가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

농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받은 것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노을을 보고,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농원 안, 혹은 농원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 거주하였다. 동창과 지인들은 경치 좋은 곳에서 일하는 그들을 보며 늘 부러워하였다. 이웃들은 김진남의 부인에게 "대통령 영부인이 부럽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담금주를 선호하여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와 포도로 술을 만들어 줬는데, 겨울에 손님이 뜸할 때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모두 마셔버려 바닥을 내기도 했다.

당시 수원 시내에 갈비집이 많이 있었으나, 이목동의 가든 식당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정취를 느낄 수 있기에 차별성이 있었다. 도시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고풍스런 건물, 연못, 우거진 나무를 보며 갈비와 닭 요리를 먹는 나들이 코스는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와 서울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었다. 삼풍가든은 내부에 결혼식장이 있어 야외 결혼식도 많이 진행하였다. 딸기밭, 포도밭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몇 년 후 이목동 숲속의 예식장에서 새출발하여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이목동 농원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였다. 그런데 이것이 이목동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일만은 아니었다. 김진남에 의하면 농원이 마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밭과 주택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다. 지금은 아파트와 멋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 온 신흥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지만,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목동은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한적한 변두리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농원은 생업과 휴식의 공간이었다. 농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모처럼 시간을 내어 야외에서 나들이하는 것이기에, 한껏 기분을 내기도 했고, 때론 일탈을 하기도 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일부 남성들은 계곡 옆이니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외지인이 몰려와 소음을 발생시키며 노는 것이었다. 이에 농원으로 찾아와 항의를 하는 이도 있었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했다. 청은농원 사람들은 이목동에서 오랫동안 세거하였고, 혈연으로 얽혀 있는 이들이 많기에, 주민들이 차마 겉으로 불평하거나 싫은 내색은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목동 농원들의 규모가 확장되고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해 내심 우려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김진남은 어떡해서든 농원을 통해 주민과 상생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다른 직업을 찾아 도시로 나간 형들을 대신하여, 군 제대 후 가업을 물려받아 아버지와 함께 청은농장을 운영하였다. 김진남은 1970년대 중후반에 4~5년간 이목동 통장을 지냈다. 농원 업무만으로도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고 고단했지만, 일부러 동네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였다. 동네 노인들이 농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술과 식사를 무료로 대접했고,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듬해에 돈 대신 쌀로 받았다. 농원에서 가든형 식당으로 전환하며, 밥을 지을 쌀과 식재료 등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왕이면 이목동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였다. 또 농원 일이 바쁠 때는 이목동 주민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여 식사 준비, 딸기 밭매기, 잡초 뽑는 일 등을 돕도록 했다. 주민들은 마을에 농원이 있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농산품을 판매하거나, 일자리를 얻었고, 젊은 통장인 김진남의 도움도 꽤 받았기에 점차 감정이 누그러졌다. 송정가든의 유용수는 수익이 커지자 지역사회에 기여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모집하여 매년 봄철에 한 번씩 합동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이목동 농원의 마지막 풍경

마을 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던 이목동 농원은 1990년대 들어 하나씩 폐업하였다. 농원과 가든이 있던 곳은 일반적으로 평수가 매우 넓었는데, 수원이 개발되면서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가족 단위로 경양식집에 가거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던 문화는 패스트푸드점, 피자집,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등의 확산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가든형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땅을 팔고 떠나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 유리하였다.

이목동에서 가장 먼저 개원한 청은농원은 농원 자리에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정리되었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988년 2월에 착공하여 1991년 11월에 준공했는데, 경기도 수원시·군포시·안산시·의왕시·화성시·용인시 등 주거 밀집지역인 6개 시를 통과하며, 총연장 23.2㎞이다. 김인기는 폐업하면서 손수 돌보던 나무들을 모교인 신풍초등학교를 비롯해 이목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매향고등학교, 수원대학교 등 인근 학교에 기증하였다. 수십여 종의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길 바라서이다. 특히 이목중학교는 당시 신설 학교였는데 황량했던 학교가 꽃과 나무로 우거지게 되었다.

송정가든은 IMF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직전 폐업하였다. 이 자리에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식당으로 바뀌었다. 유용수는 폐업 후 경기대학교 뒤편에 경매로 나온 한일농원을 인수하고, 상호를 '유일촌'으로 변경하여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였다. 해당 지역이 광교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어 다시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다. 현재는 강원도 횡성에서 오디, 블루베리 등을 취급하는 농원을 운영하면서 수원 자택과 횡성을 오가고 있다. 서호천 선경인더스트리(구 선경합섬) 부근에 있던 경남가든도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폐업하였다. 수원의 토지 개발, 신도시 조성이 이목동의 여러 농원에 큰 영향을 준 셈이다.

이목동의 농원들이 대부분 폐업한 가운데, 삼풍농원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삼풍농원 안에는 갈비 맛집이자 야외 결혼식장으로 유명한 삼풍가든, 야외수영장인 삼풍수영장, 다양한 조각품, 동요와 시조 등을 새긴 비석, 연못, 벚꽃, 은행나무, 맥문동, 등나무꽃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때 삼풍수영장은 원천, 광교 수영장과 더불어 수원의 3대 수영장으로 유명하였다. 현재까지 수영장 간판에 '삼풍농원 수영장'이라 표기되어 이곳이 농원을 기반으로 시작된 곳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삼풍수영장은 물놀이를 즐기며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삼풍수영장 인파 현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삼풍농원은 출입문을 개방하였기에 누구나 농원 안으로 들어가 자연을 즐기며 넓은 정원을 산책할 수 있다. 전성기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는 않지만, 호젓하고 여유롭게 계절의 변화와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수원에서 사진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도 꼽힌다.

그런데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춘 테마파크인 워터파크가 속속 생기고, 새로운 스타일의 식당이 많이 생기며 과거에 비해 찾는 이는 현저히 줄었다. 이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1980년대 들어서부터 음식점 위주로 농원을 운영하다 보니 수입에 비해 세금만 해도 몇 억을 내야 하고 유지가 벅찬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시장을 지냈던 김용래,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인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관광호텔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농원 내의 요식업, 예식업 등 서비스업이 성업할 때여서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호텔에 예식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서 우리 농원의 예식장 사용 수요가 급락하고, 요식업도 IMF 이후부터 관공서에서 외식을 자제하며 침체기를 맞았다. (중략)
> 이제 삼풍농원은 변화가 필요하다. (중략) 솔직히 땅 자체의 가치로 아파트나 빌라를 지었으면 좋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4년
삼풍농원







SRI
수원시정
SUWON RESEARCH
수원학연

2024년 삼풍농원 수영장(김승일 제공)



1970년대 이목동 일대 농원(국토지리정보원 제공)



2003년 이목동 일대 도시화와 농원의 폐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다고 하면서 가끔 투자자가 삼풍농원을 욕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손수 가꾸고 땀이 스민 나무들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릴 수는 없다. 또한 수도권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는 이만한 자연경관을 가진 곳도 없다. (중략) 국토를 건설하고 가꾼 내 인생이 녹아 있는 삼풍농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지은 건물과 시설물들. 그리고 목련, 살구나무, 매화, 등나무꽃들이 만발한 이 꽃동산이 새롭게 가꿔져서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아름다운 명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최종성, 『금잔디동산 수풀은 우거지고』, 2013〉

이목동 농원은 오랜 기간 수원 사람들에게 워낙 큰 사랑을 받은 추억의 공간이었기에, 폐업 후 이를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모와 함께 딸기와 포도를 따 먹거나 냇가에 발을 담그고 닭볶음탕을 먹던 어린 시절, 초여름 딸기밭에서 데이트를 즐기다 결혼까지 이르렀던 청년기, 직장 회식으로 모임을 가진 중장년기, 생일, 잔치 등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한 장소에 대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기억을 갖고 있다. 농원을 운영한 사람들도, 자의가 아닌 택지개발이나 도로공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중단한 경우가 많기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허드레 땅을 개간하여 잡초를 매고,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가족이 똘똘 뭉쳐 고생하여 유명한 농원과 가든으로 일구었다는 데 자부심도 크다. 그래서 농원을 기억하는 이들, 예전에 농원을 방문했던 손님들을 만나면 크게 반가워하고, 함께 옛날을 회상한다. 유용수는 강원도 횡성에서 농원을 운영하면서 간혹 수원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면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송정농원에 대한 추억을 공유한다. 한때 농원에 400~500평의 잔디밭을 만들어 낮에는 예식을 하고, 저녁에는 갈비 식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곳에서 결혼하거나 하객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김진남 : 고속도로 때문에 폐업하고 /년간은 계속 손님들이 전화했는데, 그만뒀다고 하니까 "그 좋은 데를 왜 그만뒀냐? 다른 데 옮겨서라도 계속하라!"며 아쉬워했어요. (중략) 우리는 묘목 하나도 우리가 심어서 다 했던 거고, 오 형제하고, 아버지, 육 부자가 리어카 끌고, 자갈 냇갈에 물 흐를 때 모래 같은 거 채취해 가지고, 그걸 메꾸고 그랬어요.

유용수 : 결혼식을 이제 많이 치르는 때가 하루에 세 팀까지는 받아 봤어요. … 여기 횡성에 제가 와 있는데요. 주변에 수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옛날 얘기하다가, "우리 노송지대 송정농원 아시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제가 일궜습니다." 했더니, 어제 온 손님들도, 수원분들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중략)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거기서 결혼했다고!

이목동은 도시인들에게는 꿈과 추억, 휴식의 공간이었고, 마을 주민들끼리는 상생을 도모하던 터전이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익숙했던 경관도, 정들었던 장소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구성도 달라졌지만, 나들이와 데이트, 외식을 즐기며 행복했던 기억은, 그 시절 농원의 포도와 딸기처럼 싱싱하게 생명력을 이어 가고 있다.

<표 2> 이목동 일대 농원의 변천

연번	농원명(1979년)	소재지	2024년 토지 이용 현황
1	청은농원	이목동 77번지 일대	영동고속도로 편입
2	이목농원	이목동 165번지 일대	임야
3	안성농원	이목동 170번지 일대	전
4	도아포도원	파장동 23번지 일대	북부버스차고지, 도로 편입
5	흑장원	파장동 95-2번지 일대	공장
6	평화농원	파장동 110번지 일대	도로 편입
7	청산농원	파장동 119번지 일대	도로 편입
8	자연농원	파장동 산147번지 일대	도로 편입
9	노송농원	이목동 626번지 일대	영동고속도로 편입
10	삼풍농원	이목동 715번지 일대	삼풍농원
11	화성농원	이목동 661번지 일대	삼풍농원
12	부국농원	이목동 916번지 일대	수원장안힐스테이트
13	중앙농원	정자동 581번지 일대	정자동성당
14	태극농원	정자동 578번지 일대	천주교 수원교구청, 주차장
15	대지농원	이목동 858번지 일대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세우관
16	송정농원	이목동 864번지 일대	제일단지자동차매매상사
17	종국농원	이목동 873번지 일대	주차장
18	세일농원	이목동 562번지 일대	주택, 아파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4장

대한식품회사에서 해태유업으로, 그리고 다시 동원F&B로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이목동에 들어선 우유 회사, 대한식품회사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 불리던 이목동은 1963년에 화성군 일왕면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의왕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타 지역과 경계를 이룬다는 것은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목동은 '이목리'라는 지명이 더 입에 붙을 정도로 수원시에서도 농촌 이미지가 강한 곳이었다. 1967년 수원시를 방문한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을 비롯한 방문단이 수원시장의 안내로 수원 시내의 고적들을 관람하고 이목동의 농가 경영 형태를 시찰했다는 신문 기사[1]가 있다. 이때까지도 이목동은 농촌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68년 봄부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장이 지어지더니 연말에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분유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대한식품회사(주) 수원공장이었다. 대한식품회사는 해방 직후 박자용이 설립한 개인 상사(商社)인 대한식품에서 출발하였다. 미도파백화점의 전신인 미우만백화점과 무역회사 미우만통상을 운영하고 있던 정진욱은 미우만백화점을 처분하고 자본



대한식품회사(주) 수원공장 가동 개시 및 비만우유 시판 (『매일경제』 1969년 8월 14일)

대한식품회사에서 동원F&B로

1963년 12월
대한식품회사(주) 설립

1968년 12월
대한식품회사(주) 수원공장(이목동 380번지) 준공

1969년 8월 15일
대한식품회사(주) 수원공장 가동 개시

1971년 4월
미국 비어트리스사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 체결

1971년 8월
메도골드대한식품(주)로 상호 변경

1972년 9월
메도골드코리아(주)로 상호 변경

1973년 8월
해태제과에서 인수

1974년 1월
해태유업(주)로 상호 변경

1989년
해태와 해태유업 분리

1992년 6월
해태제과와 해태유업 상표 분쟁 최종 타결

2006년
동원그룹, 해태유업 인수

2008년
동원데이리 푸드로 사명 변경

2014년
동원F&B로 사명 변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금 500만 원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박자용의 대한식품과 미우만통상을 합병하면서 1963년 12월 31일 대한식품회사(주)를 설립하였다. 미우만통상은 네덜란드 '리젬프' 유업사의 한국 대리점으로서 1957년부터 리젬프의 '비만'우유를 완제품으로 들여왔는데, 비만우유는 1957~1958년 우리나라 우유 시장의 60%를 점령했을 정도였다고 한다.[2]

새로 태어난 대한식품회사는 완제품의 수입·판매를 지양하고 반제품의 가공·판매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4년 초 서울 성동구 모진동에 연간 1,000톤의 분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 대한식품은 '대한'이라는 상표로 콜라와 사이다를 생산하기도 했으나, 대한식품회사으로 합병되고 모진동에 반제품 처리 공장을 세운 이후에는 유제품 생산에 주력하였다. 우유를 수입하여 분유를 만드는 방식으로 반제품 생산을 시작했던 대한식품회사는 2년 만에 100% 완제품 생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완전 가공시설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이때 선정된 지역이 수원시 이목동이었다.

대한식품회사는 이목동 380번지 일대 3,000평을 평당 5,000원에 매입하고 공장 건립에 착수하였다. 1968년 2월에 설립 허가를 받고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할 정도로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1,600평 규모의 공장에 연간 분유 1,314톤, 연유 2,781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설비에 필요한 기계는 대일청구권 자금 13만 달러로 일본에서 들여왔다. 공장을 짓는 데 약 2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위생시설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업종 특성상 건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설비의 대부분을 위생시설 설치에 투자했다는 것이다.[3] 자동 생산설비를 갖춘 수원공장 설립 이후부터 기술제휴를 통해 100% 국내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식품회사는 '낙농진흥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우유업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야심 차게 출발한 대한식품회사는 출발과 동시에 멈추고 말았다. 가공원료인 원유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준공한 지 7개월이 지난 1969년 8월 15일에야 비로소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마저도 원유를 공급받을 때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원유처리 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남양분유), 대한연유, 한국비락 등이 있었는데, 이들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하루 8시간 가동 기준으로 2만 6,000톤 정도였다. 가동 시설 규모에 비해 연간 3,500톤의 원유가 부족한 실정이었는데,[4] 여기에 대한식품회사가 합류하였으니 국내의 원유 부족 상황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소비자의 분유에 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국내산보다는 외국산 분유가 시장에서 더 많이 유통되었다. 미우만통상은 네덜란드 리젬프사, 한국비락


大韓食品
(牛乳처리加工공장)
財閥登記
70
粉·軟乳年間4천餘톤생산
請求權자금13만弗로 시설
和蘭「리젬프」社와기술제휴
原乳모자라稼動저조

대한식품회사의 변화상을 소개한 신문기사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주)는 미국 골든스테이트사, 신성산업은 일본 명치 분유, 영본상사는 일본 모리나가(森永)유업의 분유를 수입하거나 원료를 들여와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남양유업, 한국낙농유업 등의 국내 분유 생산업체가 있었으나, 범람하는 외제 분유와 경쟁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1963년 정부의 낙농진흥5개년계획에 의거, 낙농가공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뒤이어 외제 분유 수입금지, 원료 수입금지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나옴에 따라 분유 수입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서울우유조합, 남양분유 등 국내 분유 업체는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5] 1960년대 말에는 대한식품회사가 우유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 원유 수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대한식품회사는 후발주자였던 만큼 원유 수급에 불리함이 있었다. 당국에서는 경쟁자인 서울우유조합이 대한식품회사에게 원유를 분양해 주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서울유유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식품회사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우유조합은 1937년 창립된 경성우유협동조합의 후신으로 볼 수 있는데, 196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개편했다가 이해 3월 28일자로 농협중앙회에 가입하여 산하 특수조합이 되었다. 우유 관련 업계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서울우유조합과 대한식품회사는 원유의 공급량과 공급가격에서 이견을 보였다. 대한식품회사의 주장은, 서울우유조합이 조합원인 낙농가를 통해 원유를 전량 집유하고 있으므로 대한식품회사도 필요한 양의 원유 공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가받은 처리시설 규모가 연간 7,884톤이므로 하루 8시간 조업 기준 1일 평균 20톤의 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급가격에서도 서울우유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매하는 원유 1㎏당 50원을 제시하였다. 이 가격에는 이미 운반비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우유조합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우유조합은 대한식품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향후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원유처리량이 늘어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원유를 나눠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공급가격도 원유 보관에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 등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원유 1㎏당 54원 80전을 주장하였다.[6]

당시 우리나라의 원유처리량은 일당 3,000㎏, 약 300두(우리나라 젖소 총수 1만3,000두) 분에 불과하였다.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식품회사는 대구와 부산에도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이미 17만 달러의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정부가 10년 내에 젖소를 10배 이상으로 놀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으나,[7] 원유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1972년 7월부터 미국의 구호분유 원조가 종식됨에 따라 우리나라 분유업체들은 시설 확장과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후발주자였던 대한식품회사도 연간 7,800톤을 생산하는 수원공장의 생산시설을 배가(倍加)하는 한편 미국 기업과 기술제휴를 추진하였다.[8] 1971년 4월 미국 비어트리스사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하여 8월에 상호를 메도골드대한식품(주)로 변경하였고, 1972년 9월에는 상호를 다시 메도골드코리아(주)로 변경하였다.



1972년 메도골드대한식품주식회사(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해태제과의 인수와 해태유업의 성장

1963년에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대한식품회사는 10년 만인 1973년에 자산평가액 7억 6,287만 3,000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1970년대 이르러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1973년 8월 31일 6억 2,800만 원에 해태제과에 인수되었고, 1973년 10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해제되었다. 그리고 1974년 1월 해태유업(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9]

해태제과는 1973년 4개의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종합식품회사의 면모를 갖추었다. 미국의 음료 메이커인 '선키스트'와 기술제휴로 해태식품공업을 발족하여 천연 오렌지주스 생산계획을 세웠고, 농개공으로부터 한국산토리를 인수하고 해태주조를 발족하여 양주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감귤냉장을 인수하여 해태감귤냉장을 세웠고, 메도골드코리아를 인수하여 해태유업을 발족시킨 것이다. 이로써 해태는 종합식품회사 체제를 일단락시켰다.

해태유업은 본사와 공장은 수원시 이목동에 두고 서울 양평동5가 86번지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해태유업의 사업종목은 ① 각종 낙농제품 및 식품의 제조, 가공과 국내판매, 군납 및 수출 ② 전항(前項)의 생산품을 위한 식품 원료의 생산, 판매 ③ 축산업 및 각종 축산물의 처리, 가공 ④ 각종 사료의 생산, 가공, 판매 ⑤ 수출입업 ⑥ 앞의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소개되었다.[10]

해태유업은 메도골드코리아 인수 초기에는 메도골드와 기술제휴로 분유를 생산하였으나, 주력 제품을 우유로 바꾸고 점차 생산품목을 늘려 나갔다. 1975년에는 커피나 홍차에 타서 먹는 인스턴트 크림파우더인 '커픽스'와 버터를 생산하였다. '커픽스'는 100% 해태유업의 기술로 동서식품에서 1974년 12월에 출시한 '프리마'와 경쟁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버터는 서울우유에서 생산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나 당시는 버터보다 마가린의 수요가 더 많았다. 해태유업은 버터를 출시하면서, 생우유를 원료로 하는 '해태메도골드버터'가 필수 지방분을 골고루 함유한 천연제품으로서 영양과 건강을 고려할 때 마가린보다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버터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해태유업은 선두주자였던 서울우유를 위협할 정도로 시장을 확보하였고, 서울우유·비락유업과 함께 국내 3대 버터 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해태모닝버터'는 시판된 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다.

해태유업은 원유의 가공·처리 과정에서 영양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딸기우유, 초콜렛우유, 바나나우유 등이 개발되었고 제품의 포장도 다양화하였다. 1977년에는 수원공장을 증축하고 유산균 발효유 생산시설을 확장하여 1일 30만 본이던 생산량을 1일 100만 본으로 증산하였다.[11] 해태유업의 유제품은 이목동에 있는 수원공장에서 생산하였지만, 영등포구 양평동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총괄하게 하였다. 전국에 해태유업 유제품센터를 설치하고 통해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각 유제품센터에서 가정과 소매점, 제과점, 해태의 집에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특히 매일 아침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는 사원을 고용하였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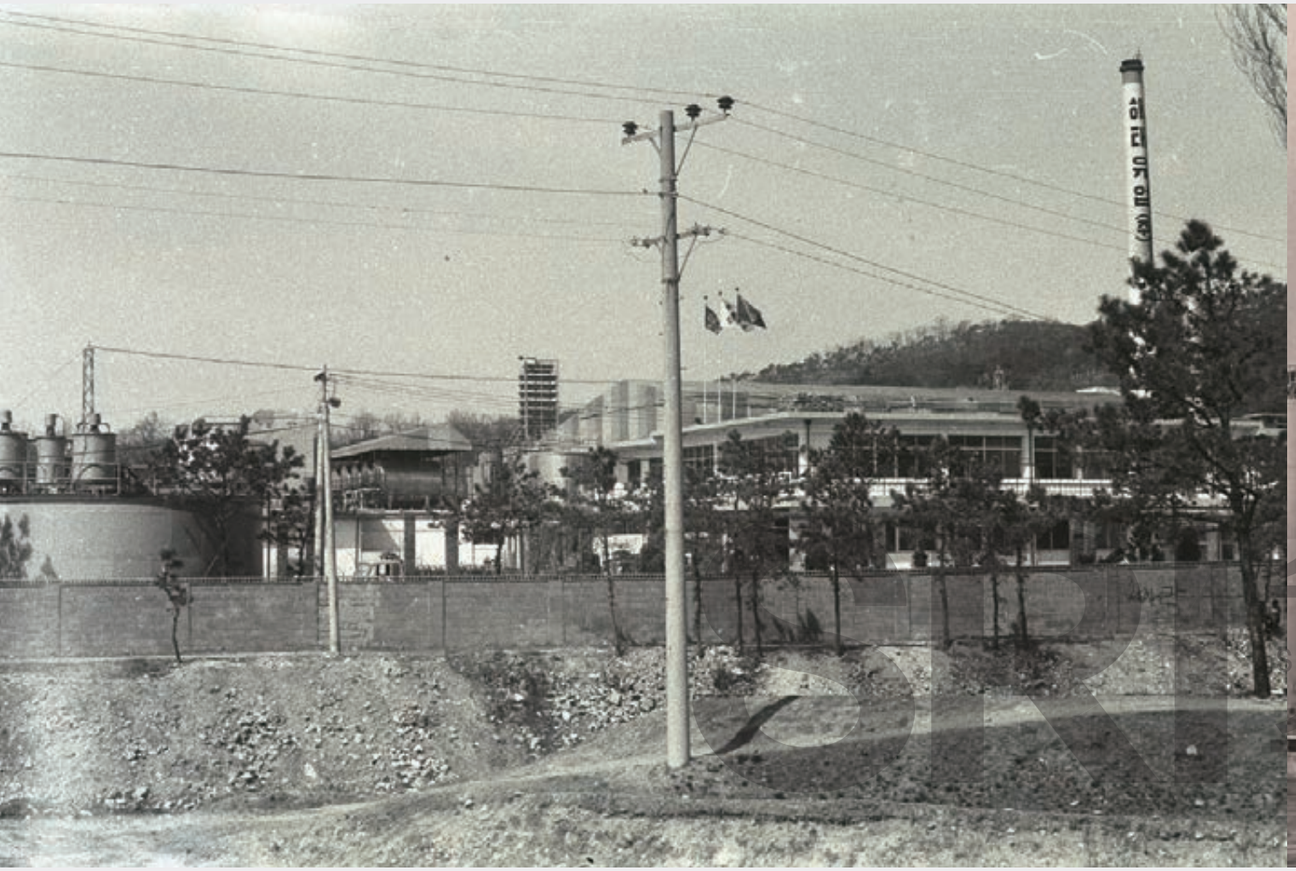


1974년 해태유업(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서울우유와 남양분유 등 기존 업체에 비해 늦게 우유업계에 뛰어들었기에, 해태유업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신문광고를 보면, 해태우유의 우수성과 제품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매일 마시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해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 해태우유가 나왔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오늘부터 온 가족이 해태우유를 마시세요. 해태우유는 미국 우유업계의 명문 메도골드와의 기술제휴로 생산되는 위생적이며 영양가 높은 고급 우유입니다.

SRI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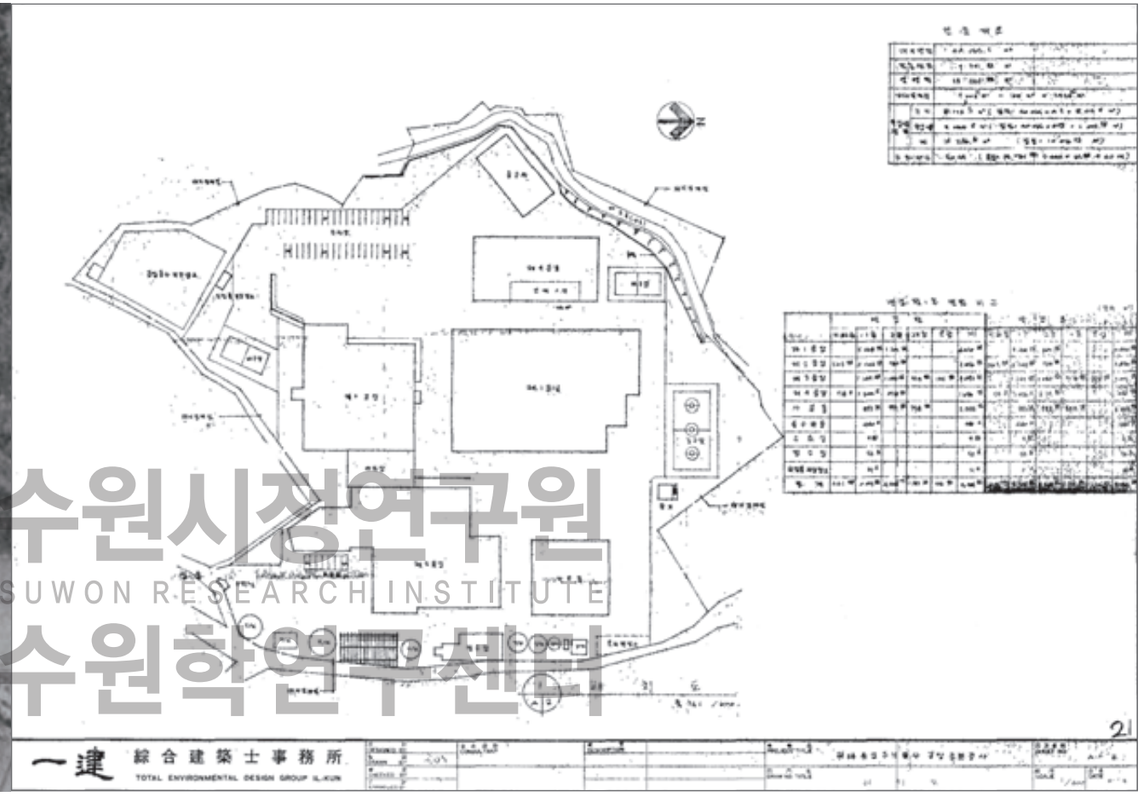
1977년 해태유업 전경(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 해태유업 공장 시설(수원박물관 제공)



1987년 해태유업 수원공장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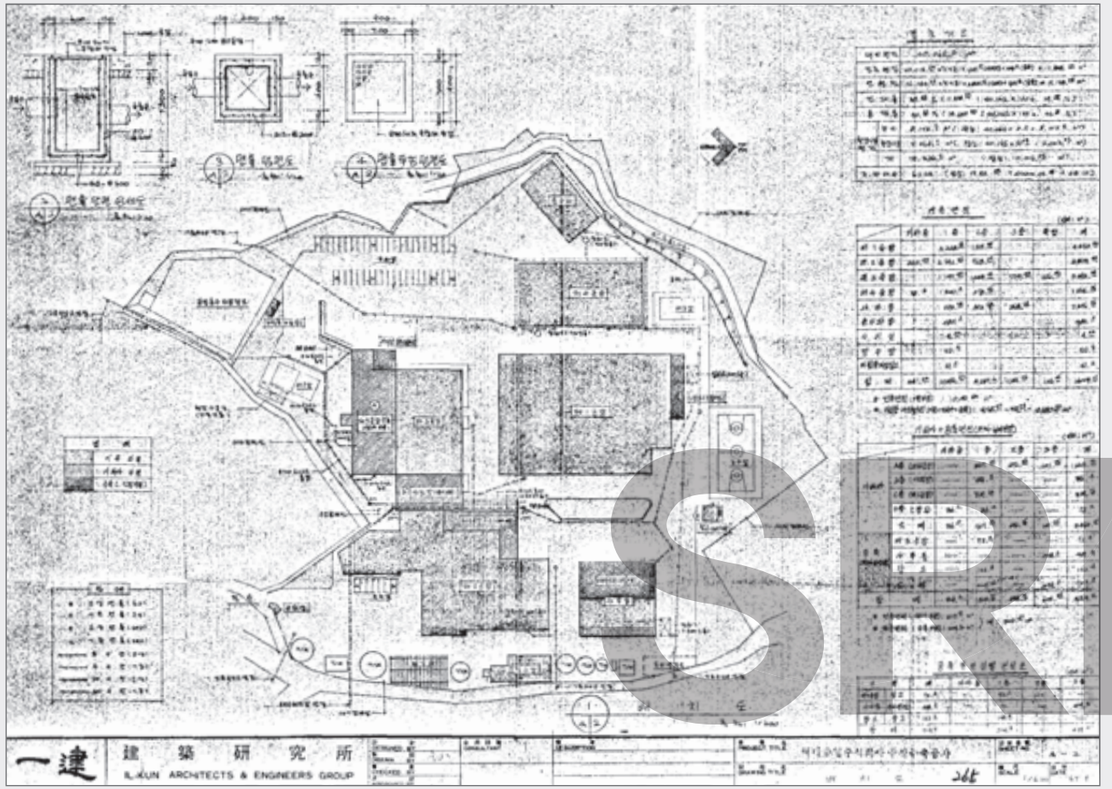
1987년 해태유업 수원공장 설계도면(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1> 1987년 해태유업 기존 면적

(단위 : ㎡)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옥탑	계
제1공장		3,268.79	1,201.59			4,470.38
제2공장	363.64	2,742.55	768.69			3,874.88
제3공장		1,147.47	1,044.99	774.98	125.95	3,093.39
제4공장	78.00	1,300.00	278.25			1,656.25
사무동		993.59	993.58	358.78		2,345.95
운수과동		480.00				480.00
수위실		9.92				9.92
정수장		52.50				52.50
위험물저장창고		21.00				21.00
합계	441.64	10,015.82	4,287.1	1,133.76	125.95	16,004.27



1988년 해태유업 증축 설계도면(수원시청 제공)



1990년 증축 후 해태유업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연구원



해태의 해태우유 광고(『경향신문』 1974년 1월 10일)

해태우유에는 목장우유, 쵸코렡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가 있으며 버터와 전지분유도 생산됩니다. 해태우유로 우유 마시는 생활을 시작하세요. 매일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오늘부터 해태우유로 시작하세요」, 『경향신문』 1974년 1월 11일〉

한편 해태제과는 메도골드코리아를 인수하고 해태유업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해태'를 상표등록하고 해태제과와 해태유업 간에 공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해태제과의 요구가 있을 시 해태유업은 즉시 상표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1990년에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은 상표 사용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945년 해태제과를 설립한 민후식·박병규·신덕발은 공동경영을 하다가 1977년 박병규가 사망하자, 민후식과 신덕발도 2세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계열분리를 단행하였다. 이때 해태유업은 민후식의 아들 민병헌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분리 당시 해태제과는 사이다와 주스, 해태유업은 발효유크림과 유산균요구르트로 각자의 영역을 보장하기로 하며 별도의 법인으로 재출발하였다.[13]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양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1970년대부터 이미 해태유업에서 생산하는 유산균음료 '쿨피스'와 해태음료의 '조아'가 겹쳤고, 해태가 호남우유를 설립하며 우유를 주력으로 하는 해태유업과 일부 지역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해태유업이 피자와 우유탄산음료를 생산하면서 해태에 도전장을 던졌다. 해태는 해태유통이 직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해태유업 제품을 제외하고 서울우유와 매일우유 등 타사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해태유업이 소유하고 있던 해태제과 주식을 전부 매각함에 따라 해태제과 측에서 해태유업에 상표공유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14]

8년간 계속된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의 상표 분쟁은 1992년 6월에 법정화해로 최종 타결되었다. 해태유업은 2000년 6월까지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에만 '해태' 상표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해태제과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15] 그러나 해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찾아온 유동성 자금난의 여파로 2001년 완전 해체되었고, 해태와 무관했음에도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해태유업은 역설적이게도 소송 끝에 확보한 '해태'라는 상표로 인해 해태그룹의 계열사로 인식되어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해태유업 요쿠르트 광고(『경향신문』 1976년 7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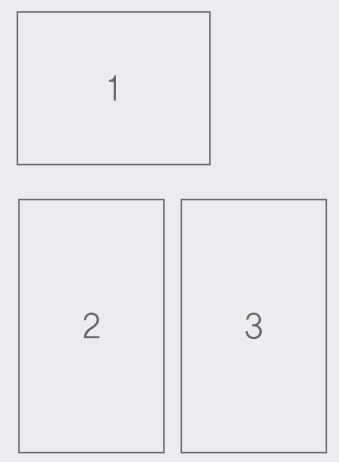
해태 이유식 광고(『매일경제』 1977년 6월 2일)



해태유업 제품 광고(『조선일보』 1990년 3월 27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해태유업 요쿠르트 광고(『조선일보』 1990년 4월 27일)
2 해태우유 광고(『조선일보』 1981년 10월 21일)
3 해태유업 광고(『동아일보』 1999년 12월 30일)







京鄕 일요저널

해태제과 옛食口끼리 商標權다툼 해태유업

「해태」상표의 소유권을놓고 독점권을 주장하는(주)해태제과와 공유를 주장하는 (주)해태유업간의 상표권다툼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법정다툼에서 해태제과가 승리할 경우 해태제과는 명실상부한 독립과 사세확장을 꾀할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될 것이지만 해태유업은「해태」라는「얼굴」을 상실해 상품판매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이싸움은 특히 해태유업에게 社運을 건 생존확보투쟁이라 할 수 있다.

「해태」그룹의 계열사로한솥밥을먹던 해태제과와 해태유업간의 이번 싸움은 지난10월16일 해태제과가 『주식분할이 모두 끝나 계열기업관계가 끝났다』며 해태유업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시작됐다.

재판부는 해태제과의 신청을『이유있다』고 받아들였고 해태유업은「해태」상표를 사용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무방비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당한 해태유업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반대로해태제과를 상대로 상표사용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해태유업의 피해가 너무커 상표사용금지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며 해태유업의 주장을받아들였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재판부에의해 그 타당성이 한차례씩인정돼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먼저 싸움을걸었던 해태제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게됐다.

이 때문에 해태제과측은 이에 다시 불복,본안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상표권싸움은 전초전을 마치고 곧 본게임에 들어설 전망이다.

사회부 수첩

株式분할 끝나자 불붙어

「제과」측 금지訴에 「유업」반대訴로 1勝1敗

양측의 상표권 다툼의 발단은 직접적으로는 창업2세들이 그룹을 분리,독립적운영을 표방한데에서 비롯되지만 따지고보면 창업세대의 합명회사설립때부터분쟁의 싹은 자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태」그룹의 시작은1945년10월 신덕발,민후식,박병규씨등 3명이 해태제과합명회사를 설립하면서 부터.

이들중 민씨는 일본에서 제과업을 배워 1939년부터 국내에서「삼우당」이라는 과자도매상을 경영해 오던중 「영강제과」근무때알게된 기관담당기사 신덕발씨, 사무직원 박병규씨와 함께 해태제과를 설립했다.

3인은 서로 협조해 꾸준히 회사를 키웠고 70년대에는 그룹대열에 낄수 있을정도로 사세를 확장시켰다.

해태제과는 73년 외국합작기업체(주)메도골드 코리아의 주식 1백%를 인수,74년 상호를 현재의 해태유업으로 하고 유제품 사업에 진출했다.

해태그룹내의 창업2세들은 최근들어 각자의 독립을 위해 명실상부한 단절을 꾀하고있다. 사진은 법정싸움으로 번진「해태제과」와「해태유업」의 상표들.

이어 해태제과는 74년「해태」상표를 등록시키고 계열사인 해태유업과 상표 공유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는▲해태제과의 요구가 있을때 해태유업은 즉시 상표 사용을 중단한다 ▲공유계약의 해지 또는 모자관계 소멸때에는 계약이 소멸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었다.

이계약에 따라 해태제과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요구를 할수있는근거를 마련했던것.

양측의 상표공유계약에따라 해태유업을「해태요구르트」「해태마요크림」등으로연합상표등록을 하고 상품을 생산해왔다.

해태그룹은 77년 창업자인 박병규씨가 사망하고 다른창업자들이 일선에서 퇴진하게되자 본격적으로 그룹내 계열사의 정리가 진행됐다.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의 상표권 분쟁(『경향신문』 1990년 12월 22일)



해태그룹 "해태유업과 무관해요"

계열사 오인 자금난연루 주가 폭락

루머유포업체 고발

설진훈 기자

「해태유업은 해태그룹과 무관합니다」

21일 증권시장에서 유제품 생산업체인 해태유업이 영업 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해태그룹이 계열관계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관계로 해태유업이 계열사로 오인돼 재계순위 20위대에 드는 해태그룹이 금명간 부도방지협약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으로까지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증권시장에서도 당사자인 해태유업은 물론 해태제과 해태전자 해태유통 등 해태그룹 계열 상장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일제히 하한가까지 곤두박질쳤다.

해태그룹은 그러나 『해태유업이 89년 해태그룹에서 분리돼 지금은 완전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채무보증이나 자금거래 내용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해태그룹의 자금악화설이나 부도방지협약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해태는 45년 故 박병규(朴炳圭)그룹 회장, 민후식(閔厚植)씨, 신덕발(申德鉢)씨 3인이 공동으로 창업했으나 2세 경영체제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분리됐다.

故 朴회장 타계 후 장남인 현 박건배(朴健培)회장이 그룹 총수직을 물려받은 다음해인 78년 閔씨 일가는 해태유업을, 申씨 일가는 해태관광을 각각 떼어내 분가한 것이다.

한편 해태그룹은 이날 미확인 루머를 근거로 계열사의 자금악화설을 유포한 사설 투자자문업체 컴퓨터정보통신과 한국증권방송의 대표 김상우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다.



해태유업 올이익 10억 예상

치즈 판매등 안정적 자금사정 양호

설진훈 기자

6월 결산 법인인 해태유업은 상반기에 8백66억원의 매출을 올려 1억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올 들어 5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판매가 늘어 6월 결산기 때는 매출액 2천15억원에 경상이익이 1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사는 고급 우유, 유산균 발효유, 치즈 등의 판매 호조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품 성수기인 현재 자금 사정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해태유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급 유제품을 출시하고 자체 유통 체인점인 밀코마트를 연내에 4백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회사측은 밀코마트는 유제품을 비롯해 정육 제품과 냉장·냉동 제품을 취급하는 차세대 점포로 기존의 할인매장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략하기 어려워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해태유업은 지난 21일 증시에서 나돈 일부 기업의 자금난 설과 관련해 이 회사와는 78년 완전 분리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해태그룹과 무관하며 자금사정이 양호한 상태임을 알리는 기사
(좌 : 『매일경제』 1997년 5월 22일)
(우 : 『매일경제』 1997년 5월 23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해태유업의 생산조직과 생산공정

1975년 당시 해태유업은 총무부, 경리부, 관리부, 생산부, 영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산부는 검사과·생산과·공무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평에 있던 집유소도 생산부 소속이었다. 사무실과 생산공장은 수원 본사에 있었지만, 영업부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두었다. 생산부는 다시 제품별로 세분하여 팀을 나누었다. 이정재가 재직하던 1980~1990년대 생산1과는 시유(市乳)인 해태우유, 생산2과는 발효유·가공유, 생산3과는 멸균유, 생산4과는 요러브, 생산5과는 분유, 생산6과는 치즈·버터를 생산하였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해태우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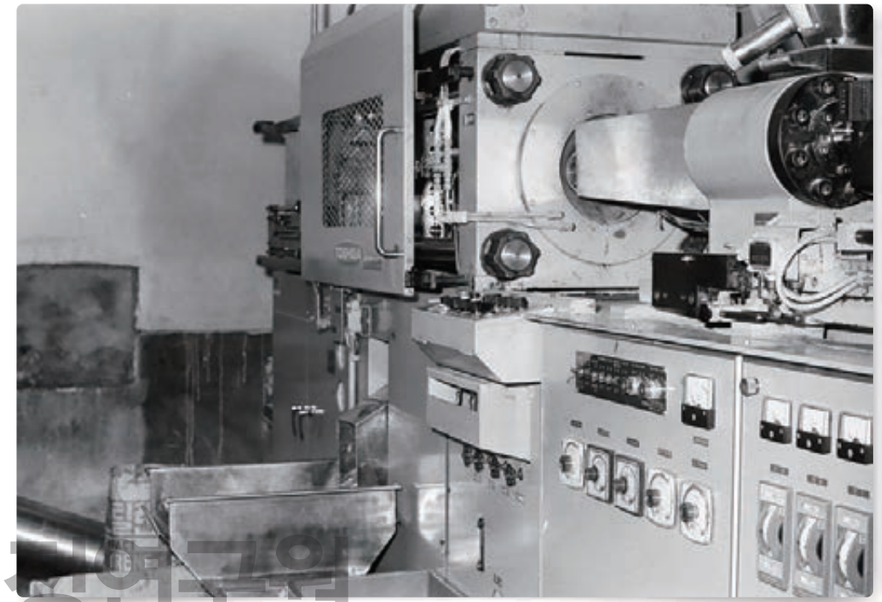
1982년 해태유업은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스웨덴에서 기계를 들여와 멸균유 생산을 시작하였다. 입사 이후 줄곧 생산1과에서 일을 하던 이정재는 멸균유를 생산하는 생산3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생산3과에 배정된 직원들은 멸균유 생산공정과 기계설비 등에 대해 2주 정도 특별교육을 받았다.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업계의 특성상 신입사원 교육이나 현장 관리는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멸균유 공장은 말 그대로 멸균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갈 때 가운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에어샤워를 거쳐 무균 상태로 들어가야 했다. 시유는 보통 70~80℃ 정도의 살균을 하는데, 멸균유는 142℃의 파이프라인을 지나면서 멸균되는 방식이어서 작업장 내부는 열기로 인해 덥고 습한 환경이었다.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쓴 상태에서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다 보면 땀이 흐르고 숨을 쉬기가 조금 불편했다고 한다.

유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몸에 우유 냄새가 배게 되는 모양이었다. 통근버스는 해태유업 직원들만 타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일반 버스를 타면 주위 사람들이 냄새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 **이정재** : 일반 버스를 타고 가면은 옆에 있는 분이 "우유 냄새가 난다." 갈아입는 데도, 씻고 다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도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퇴근을 하고 안양에 볼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그래. "어? 젖 냄새가 나네?"

해태유업은 통근버스를 운행했다고 한다. 해태유업-수원역-남문을 왕복 운행하는 노선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운행구간이면 셔틀버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출퇴근 시에만 운행하는 통근버스였다. 남문은 수원을 지나는 거의 모든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었고, 수원역은 기차와 전철을 탈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곳만 운행하는 셈이었다. 이목동에 거주하는 유영홍과 이정재는 퇴근 후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통근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1970년대 해태유업의 생산시설(수원박물관 제공)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하는데, 유영홍은 해태유업 노동조합이 1976년 이후에 결성된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해태노동조합 산하에 제과·음료·유업이 각각 지부로 있다가 지부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각 지부가 단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한 것으로 보인다. 해태유업 노동조합은 1980년대 들어와서 단독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노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거의 전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한다.

유영홍의 구술에 의하면, 대한식품회사에서 메도골드코리아로 넘어갈 때, 다시 해태로 넘어갈 때 새로운 기업주는 직원의 구조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주는 회사조직을 재편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였을 수 있겠으나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직원은 반갑지 않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태유업은 1989년에 해태그룹에서 분리하였다. 민후식 공동창업주 장남 민병헌의 몫으로, 1989년에 지분을 매각하여 그룹에서 분리하였으나 회사명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당시 계열을 분리한 해태관광은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해태'라는 이름을 유지하였던 해태유업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태그룹이 위기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해태그룹 계열사로 인식되어 1998년 부도 위기에 처하는 불운을 겪었다. 회생절차를 밟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2006년 동원그룹에 인수되었다.

유영흥 : 해태유업이 잘 되다가 90년도서부터 회사의 경영진 난이지. 형제지간의 난. 전부 뿔뿔이 헤어지니까. 이 동생이 형도 따로 놓고. 형은 동생들을 빨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 있는 형은 또 이 사람한테 뜯기고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뜯기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장사 안 되니까 부도도 나기 직전에 있었고. 월급은 그냥 다달이 안 나오고 몇 달씩 그냥 이렇게. 회사가 그런 날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월급을 기다리는데 월급이 늦어지는 거야. 오늘 나와야 되는데,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며칠 있다 나온다. 이것이 허구한 날 있다시피 하니까 직원들이 항상 스트레스야.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면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우유를 주어 팔아서 쓰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직원들 중에는 거래처를 두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럴 경우, 우유를 구매하는 측에서는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대리점과 회사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노동자도 월급이 일정 부분 깎이게 되는 셈이므로 회사로서도 직원으로서도 손해 보는 셈이었다.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먹는 것은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으나,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통제하였다고 한다. 대신에 구내매점에서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매점에서 구매하였다고 한다.

이정재 : 혹시라도 먹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반출은 일단 철저히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먹는 거는 뭐 먹기 싫을 정도로.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 당시에 우유 못 먹던 사람들이 거든. 우유 먹고 막 배탈 나고. 장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그랬던 그 경험은 있습니다. 반출은 그때 절대 못하고 그 대신 매점에서 직원들한테 저렴한 판매를 했어요. 전 제품을 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태우유 생산라인



해태유업 슬라이스치즈 생산라인

4. 해태유업의 노동자 구성

해태유업이 대한식품회사를 인수할 당시 직원 수는 100명 정도였다. 그런데 1975년 6월 30일 현재 사원 118명, 공원 109명으로 총 227명이 재직하고 있다는 기록을 보면,[16] 2년 만에 직원 수가 2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해태유업은 인수 초기부터 생산 품목을 늘리면서 설비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부의 직원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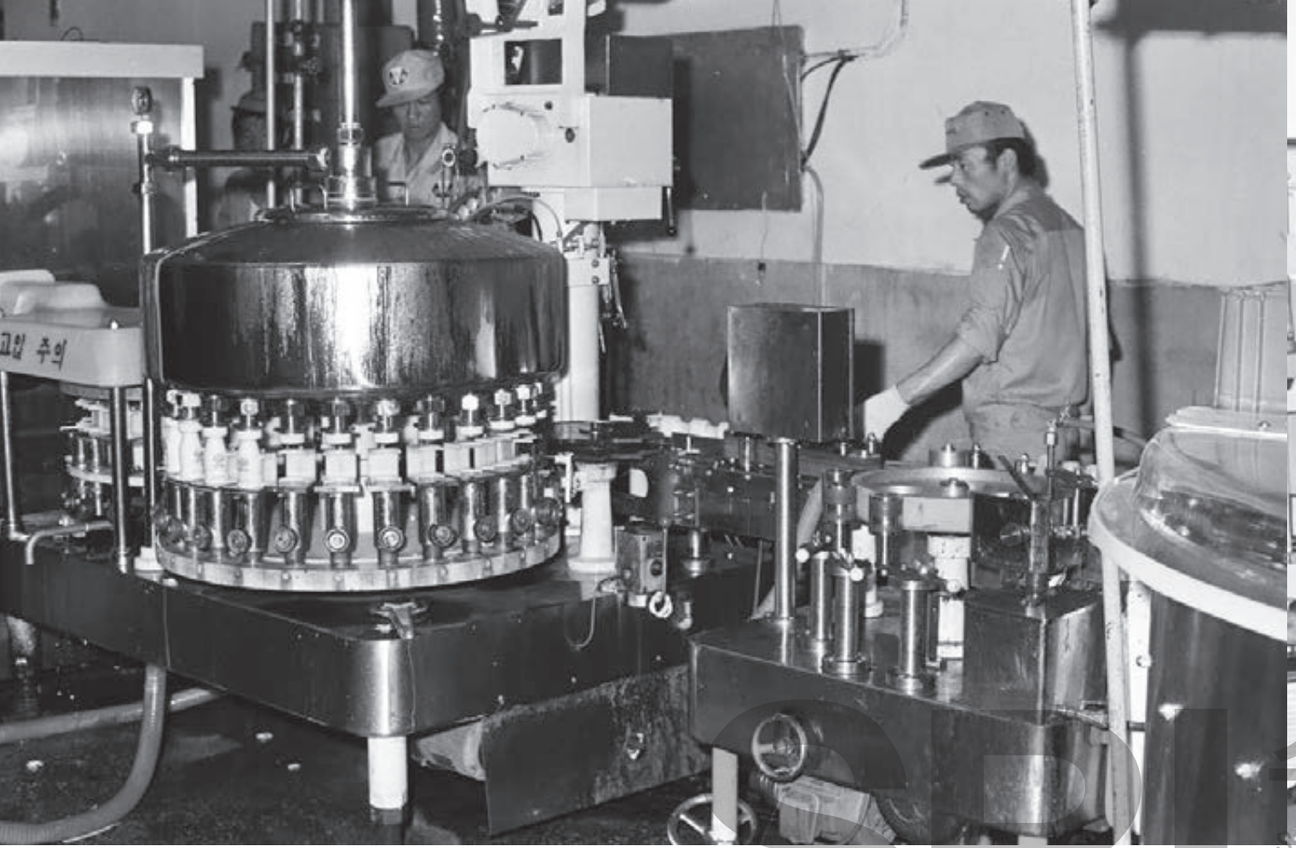
해태유업 노동자들은 출신지가 다양하였다. 가깝게는 수원 출신부터 멀리 영남과 호남에서 올라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해태유업만의 특징이 아닌, '이촌향도'라는 당시의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와 울산, 포항 등의 공업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농촌의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평택 안중면이 고향인 이정재는 1979년 해태유업 생산직 공채로 입사하였다. 고향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이정재는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했다. 마침 수원에 살고 있던 누나와 매형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고 한다. 매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정재에게 북수원에 위치한 두 곳의 회사를 소개했다고 한다. 정자동의 선경과 이목동의 해태유업이었다. 두 곳에 모두 지원하여 두 곳에 모두 합격한 이정재는 해태유업을 선택하였다. 두 회사를 비교해 보니, 급여나 직원복지 등에서 해태유업이 선경보다 더 좋았다고 한다.

이정재는 어머님을 모시고 수원으로 이사하였다. 집은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목동에서 찾았는데, 마침 방 두 개짜리 독채 전세 매물이 있었다고 한다. 개량 한옥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정재의 조건에 맞는 집이었다. 당시 전세가가 60만~70만 원이었다고 하며,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다고 한다.

이목동 토박이 유영홍은 해태유업의 전신인 대한식품회사에 입사하였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집 근처에 공장이 들어온다면서 공사를 시작하기에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한다. 대한식품회사가 서울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목동에 짓기 시작한 공장이었다. 농사가 주업이던 이목동에 공사장이 생기니 동네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이긴 하나 좋은 일자리가 생긴 셈이었다. 유영홍은 자신이 공장 건설에 참여하였던 대한식품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다. 입사 3년 3개월 만에 반장이 되었는데, 메도골드코리아로 바뀔 때도 해태유업으로 인수합병될 때도 정년퇴직할 때도 여전히 반장이었다. 생산부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이 반장이었다고 한다. 유영홍은 해태유업이 동원그룹으로 인수합병되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0년대 해태유업 노동자(수원박물관 제공)



1970년대 해태유업 노동자(수원박물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인 2003년에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유영홍이 대한식품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소위 '직주근접(職住近接)'이었다. 집과 회사가 1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 밥이 먹기 싫으면 집에 가서 먹고 올 정도였다. 회사 선택의 조건이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해고되지 않는 한 다닌다는 생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신지가 다양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는 향우회가 조직되었다.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온 직원들은 소속 시군별 인원이 적어서 호남, 충남, 영남처럼 도별로 모임을 조직했다고 한다. 경기도 출신들은 삼남 지방에 비하면 인원이 많아서 시군별로 모임을 결성하였다고 하며, 수원 출신들도 별도의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정재는 평택 출신 직원들의 친목회인 '평우회(平友會)'에 가입하였다. 평우회를 비롯한 지역 향우회는 대부분 매월 한 번씩 모임을 했다고 한다.

직장 내의 향우회는 타지에서 동향 사람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했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도 유용하였다. 비정기적으로 생산직 사원을 충원할 때는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직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이정재** : 연결 연결해서 다들 입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고는 거의 안 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당시에는 인사과에서 모든 것을 반영해서 그 인원 문제는 이제 노조, 노조에다 통보하면 노조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인원 몇 명 차출하고 추가로 뽑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생산량이 늘어도 생산공정이 점차 자동화되면서, 생산부의 직원 수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생산부는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달랐지만 전체적인 성비는 남녀가 비슷했다고 한다. 제품을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이는 포장 라인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담당했고, 원료를 기계에 투입하거나 하는 전



평택 출신 직원 친목회 평우회

처리실은 근력이 필요하므로 남성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했고, 기계를 조작하는 공무부도 남성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20대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이정재는 1996년에 퇴직한 이후 함께 명예퇴직한 32명의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교류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고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도 줄었다. 이제는 특별한 모임을 계획하기보다 서로 안부나 묻는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5. 해태유업 노동자들의 여가 생활

해태유업에는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사내 동아리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아리라는 표현 대신 동호회라고 지칭한 듯하다 산악회와 낚시회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동아리였던 것 같다. 회사에서는 산악회에서 산행을 하거나 낚시회에서 출조를 할 때면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는 정도였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했다고 한다. 낚시회에 가입하면 낚시 장비를 하나씩 마련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한다. 테니스회도 있었는데, 회사에 테니스장 시설이 없었으므로 회사 근처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임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호회가 직원들의 기호에 따른 선택근무시간 외의 여가생활은 해태유업은 회사 경비로 지출하는 부서 회식이 있었다. 가끔 하는 부서 회식은 주로 삼겹살집에서 하는 행사였고 개인적으로 여럿이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해태유업 직원들은 주로 파장동의 식당이나 술집을 이용했다고 한다. 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했고, 이왕이면 이웃 동네 물건 사주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뜻이기도 했다고 한다. 주머니 사정이 다들 넉넉지 않은 터라 개별적인 모임은 대부분 조촐하게 했던 것 같다.

파장동은 수원 북쪽에서 유흥가로 이름난 곳이었다. 파장동이 유흥업으로 소문나게 된 데에는 1977년 파장동에 개원한 내무부 종합연수원이 역할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파



해태유업 낚시동호회



해태유업 축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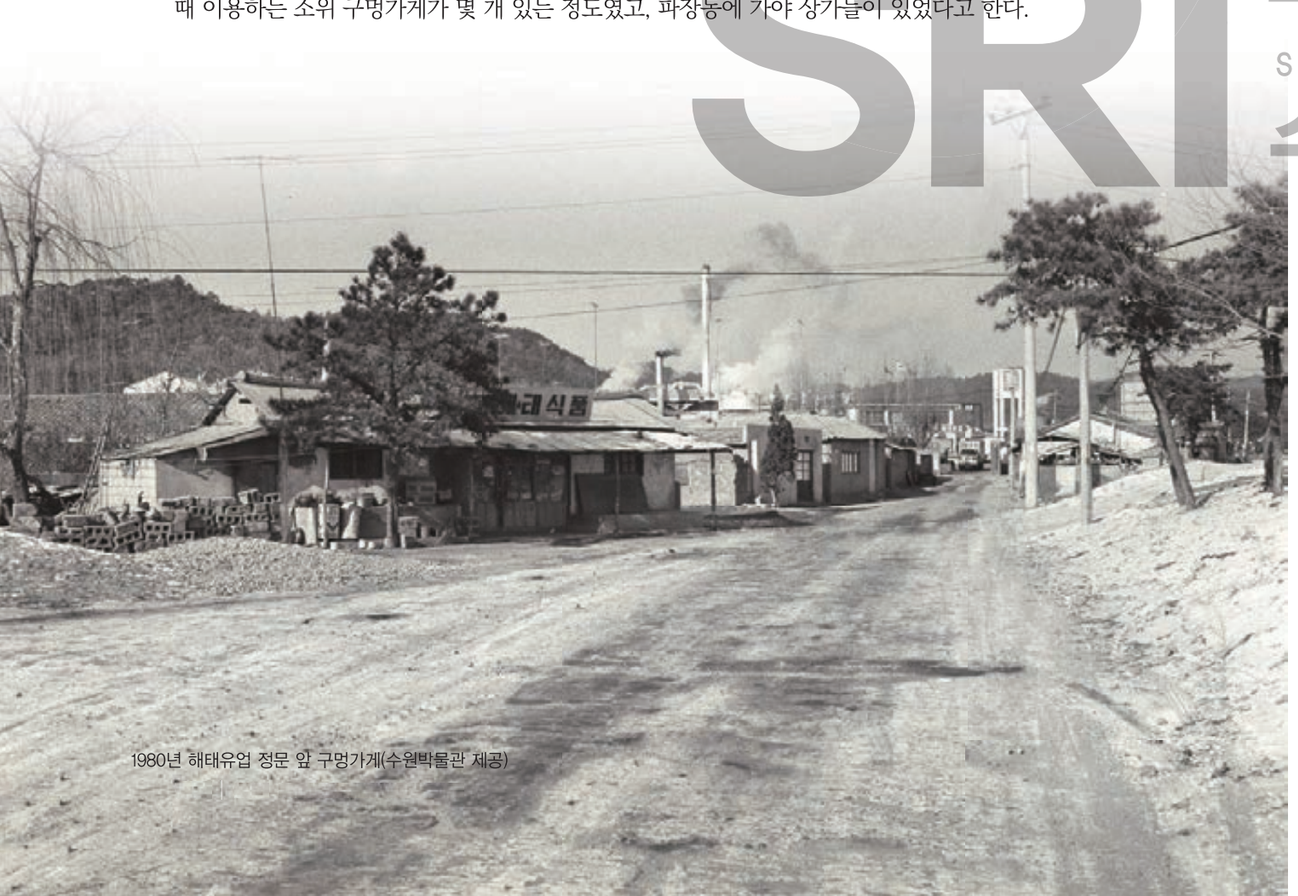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장동 산8번지 경수대로 주변에 들어선 내무부 종합연수원은 내무부 지방공무원연수원, 경기도 지방공무원연수원, 임업연수원, 소방학교 등 4개의 연수원을 한 캠퍼스에 모은 것으로 한 번에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연수받는 동안 기숙사에서 지내는 공무원들이 일과를 마무리하고 인근의 식당이나 술집을 찾는 일이 많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파장동과 인접한 정자동의 SK케미칼 공장의 역할도 컸다. 3교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고, 퇴근하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파장동 유흥가를 찾았고 간판의 불은 새벽 5시까지 꺼질 줄 몰랐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장이 울산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489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파장동 일대를 찾는 발걸음도 점차 줄어들었다.[17]

이정재 : 유흥업이 많다는 건 세무대학이 생기고 나서. 그때 하숙하는 분들이 많았었어. 지방에서 공무원들 다 여기 연수받으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파장동의 하숙촌이 엄청 잘 됐어. 그들 때문에. 그리고 술집도 그때 부지기수로 막 늘어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태유업이 자리 잡고 있는 이목동은 당시에 점포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급할 때 이용하는 소위 구멍가게가 몇 개 있는 정도였고, 파장동에 가야 상가들이 있었다고 한다.



1980년 해태유업 정문 앞 구멍가게(수원박물관 제공)

그래도 해태유업에서 파장동 유흥가까지 걷기에는 먼 거리였다. 그래서 해태유업 직원들은 회식을 할 때면 통근버스를 타고서 파장동에 내렸다고 한다. 이목동 입구에도 시내버스가 운행하였으므로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면 시내버스로 파장동까지 이동하였다.

해태유업 앞에도 간단한 안주와 술을 파는 구멍가게가 몇 개 있었는데, 퇴근 전 통근버스 출발 전에 구멍가게에서 가볍게 술 한 잔씩 하는 즐거움도 있었다고 한다. 교대근무를 하면 주간 근무자는 퇴근 시간 10분 전에 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샤워 후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통근버스는 퇴근시간 20~30분 정도 후에 출발하므로 좀 서두르면 통근버스 출발 전에 정문 앞의 구멍가게에서 소주나 맥주 한 병을 사서 한 잔씩 나눠 마시는 정도의 짧은 휴식을 취하는 셈이다.

이정재 : 이제 내가 하나의 얘기를 좀 하면, 통근버스 타는 시내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한 10분이면, 20분이고 여기 이제 있다가 출발할 거 아닙니까. 회사 앞에서 출발을. 빨리 나와서 카드 찍고 그 앞의 집으로 가서 그 몇몇이 삼삼오오, 그냥 오버타임이라고 그러지. 한 잔 짝 하고 그러구 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즐거움도 있었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6. 해태유업 노동자, 이목동 통장이 되다

이목동에는 선경과 해태유업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노동자들은 버스비도 아끼기 위해 회사 근처에 방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목동 주민들은 창고나 축사 등의 유휴공간을 부엌 딸린 방으로 개조하여 이들에게 임대하였다. 조용한 시골에 공장이 들어와서 좋은 건 매달 방세로 들어오는 현금이었을 것이다.

이정재 : 해태, 선경 거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월세방이 잘 나갔고. 회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집은 다 그냥 이렇게 방 부엌, 방 부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집에도 몇 개씩 이렇게 임대를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영흥 :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세를 얻어 살고 했으니까, 셋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늘어나니까 좋았겠지. 다른 건 뭐.

부엌 딸린 방 한 칸에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내 집을 마련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았



해태유업 기우회 회장 이정재(이정재 제공)



해태유업 노동자 이정재(이정재 제공)



이목동 통장 이정재(김진흥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지만, 이목동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다. 입사 초기부터 가족과 함께 이목동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한 이정재는 이목동이 좋아 퇴사 후에도 이목동 주민으로 살고 있다.

이정재 : 한 /년 반 정도 살았어요. /년 반 살고 그러고 마침 내가 이제 가을에 일과 끝나고 자전거 타고 그 때 여기를 한번 오르다 보니까 그때 해가 뉘엇뉘엇했는데 이 동네가 그냥 그 감이 엄청. 감의 고장이거든. 근데 그 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저런 동네에서 한번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수시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기로 올라왔던 거죠. 자전거 타고 올라와서 돌다 보니까 마침 내가 지금 사는 집에 그 터에 그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다 진짜 쓰러져가는. 근데 그 집이 나왔다 그러길래 그거를 전세 빼고 누님한테 돈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대충 그냥 수리만 하고 그러고 올라와서 살았죠.

허름한 초가집이라서 싸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서 바로 옆에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 '브로크'로 벽을 쌓고 '스레트'로 지붕을 얹어서 집을 지었는데, 동네의 다른 집들처럼 방과 부엌을 더 들여서 임대하기도 했다. 이정재는 1996년에 퇴직하고 나서 집을 다시 지었고 현재까지 그 집에 살고 있다.

이목동 윗배나무골은 강릉 유씨와 경주 김씨가 오랫동안 세거한 마을로, 다른 지역 출신에 배타적인 편이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탓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마을이었는데, 이정재는 이목동에 들어온 지 5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토박이 모임인 선봉회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이목동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른 동네로 떠나는 대부분의 외지인과 달리 이정재는 이주 초기부터 이목동에 내 집을 마련하였는데, 이정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뜨내기가 아닌 '우리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다.

이정재 : 집 회사 이것만 내가 전념을 했기 때문에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는 못했어요. 어울리지 못했는데, 여기 토박이들이 하는 그 모임에 한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고심 끝에 어차피 내가 이 동네에서 살 바에는 그네들하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수락을 해서 그분들하고 모임을 계속해 오다가 코로나 전에 이제 나이들이 다 드셔 가지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다 해체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정재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여 년 전부터 통장을 맡고 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외지인을 동네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 마음들이 고맙고, 수십 년 동안 이웃으로 살며 받은 정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통장을 수락했다고 한다. 통장으로 일하는 10년 동안 이정재는 마을에 도시가스와 상수도를 들였고, 마을버스도 운행하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해태유업의 '평우회' 소속이었던 이정재는 지금 이목동 '통장'으로 살고 있다.



이목동에 정착한 이정재

7. 동원F&B로 거듭나다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태유업은 2000년 롯데햄-롯데우유에 영남공장을 매각하였고 2004년 6월에는 상장이 폐지되었다. 그 후 2006년 9월 동원그룹은 해태유업을 인수한 데 이어 2007년 5월 동원데어리푸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동원데어리푸드는 2014년 (주)동원F&B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해태유업과 투자계약을 체결, 사실상 인수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수금액은 400억 원선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덴마크우유로 유명한 디엠푸드를 인수한 데 이어 해태유업까지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유가공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며 "덴마크우유와 구매와 물류 등을 통합해 공동 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0년 해태유업(주) 전경

수원세적여자대학
SUWON RESEARCH INSTITUTE

2024년 동원F&B 전경(김승일 제공)

SRI 수원지역연구원
SUWON REGIONAL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케팅을 펼치고 동원F&B의 유통망을 활용, 유가공사업을 그룹의 핵심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유업과 덴마크우유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540억 원, 447억 원이고 올해 목표는 840억 원, 800억 원이다.〈「동원, 해태유업 인수」, 『한국일보』 2006년 8월 6일〉

한편 지역에 득이 되는 영향과 반대로 해를 주기도 했다. 대한식품회사가 들어온 1968년 당시만 해도 이목동은 조용한 농촌이었고 공장이 자리 잡은 곳은 민가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우유를 생산하는 업체였기에 악취가 발생하라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문제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수원시의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폐수처리장 소음과 악취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서면서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까지 제기되었다.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점검했지만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며 노후화된 폐수처리장은 대책 없이 미움을 받으며 이전 요구까지 빗발쳤다.

수원시는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나섰으나 암모니아 농도 허용치 등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2019년 모니터링 장비 설치 등 악취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자체 기준을 마련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악취관리지역을 벗어나도 시 차원에서 악취 관리와 저감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해당 기업과 주변 지역 주민을 모아 공청회도 열었다.

수원시의 전방위적인 조치에 해당 기업도 움직였다. 동원F&B는 2021년 초 67억 원을 투자해 폐수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고, 약속대로 그해 5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3월 공사를 마쳤다. 하루 2,400톤의 폐수처리 과정에 첨단기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한 데 이어 악취 발생 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공간에는 나무 등을 심어 도시 경관을 개선하였다.[18]

註

1. 「미 대사관 직원 등 수원시 고적 관광」, 『매일경제』 1967년 10월 27일.
2. 「대한식품, 우유처리가공공장」,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3. 「대한식품, 우유처리가공공장」,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4. 「우유싸움, 절대량 부족이 불씨」, 『경향신문』 1969년 7월 7일.
5. 「산업인물, 식품공업 유유업계」, 『매일경제』 1975년 7월 7일.
6. 「우유싸움, 절대량 부족이 불씨」, 『경향신문』 1969년 7월 7일.
7. 「대한식품, 우유처리가공공장」,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8. 「분유회사 시설 확장」, 『매일경제』 1971년 6월 10일.
9.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46쪽.
10.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47쪽.
11. 「유산균 발효유 판매전 치열할 듯」, 『매일경제』 1977년 9월 29일.
12.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50~351쪽.
13. 「해태제과 옛 식구끼리 상표권 다툼 해태유업」, 『경향신문』 1990년 12월 22일.
14. 「직매장서 해태유업 문전박대」, 『매일경제』 1990년 5월 16일.
15. 「해태 상표싸움 타결 제과-유업 법정화해」, 『매일경제』 1992년 6월 3일.
16. 해태제과, 『해태 삼십년사』, 1976, 348쪽.
17. 「스카이데일리」 2016년 12월 23일.
18. 「수원시, 40년 묵은 악취 민원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한국일보』 2023년 11월 1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5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하여”

: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解憂齋)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배나무골이란 마을이 있다. 이목동은 말 그대로 배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이목동에는 배나무골 말고 쑥이 많이 자라는 마을인 쑥뎅이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그냥 이목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이목동의 마을 형태가 많이 변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옛 전통의 마을 형태는 남아 있다.

배나무골은 이목동의 근간이 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특별한 문화공간이 있다. 바로 해우재(解憂齋)이다. 해우재는 ‘근심을 푸는 집’이란 뜻이며,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회장(세계화장실협회 초대 회장)이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WTA) 창립 즈음에 우리 삶에 화장실이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변기 모양으로 지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이다.

해우재를 건립한 사람은 수원문화원장을 역임하고, 민선 1~2기 수원시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역임한 고(故) 심재덕(1939~2009)이다. 심재덕 사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족은 이 집을 2009년 7월 수원시에 기증하였고, 수원시는 세계화장실문화운동의 열정을 이어 가고자 해우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2010년 10월 30일 화장실박물관으로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해우재는 특이한 외형뿐만 아니라 집안의 한 가운데 화장실을 두어 생활의 중심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해우재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심재덕 회장의 철학과 신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공간이다. “화장실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을 정도로 생활공간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통념을 뒤집은 해우재의 중앙화장실은 평상시 전면 유리를 통하여 정원을 감상하거나 홀로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용변을 볼 때 스위치를 켜면 전면 유리가 불투명유리로 변하여 외부와 차단되게끔 장치한 흥미로운 화장실이다.

2015년 해우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1 2
3

1 2015년 해우재 문화센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 2010년 해우재 전시공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3 2015년 해우재 화장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우재는 수원 이목동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해우재는 단순한 화장실박물관이 아니라 국제적인 명소로 전 세계 화장실문화의 보급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곳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 화장실문화뿐만 아니라 미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의 교육공간이기도 한다. 이제부터 해우재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해우재의 건립과 공간 그리고 교육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심재덕, 깨끗한 화장실의 중요성을 알리다

"진정한 문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화장실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7년 3월, 심재덕은 수원시청에 화장실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름이 특이하였다. '화장실문화계'이다. 화장실 '관리계'가 아니라 '문화계'인 것이다. 화장실에 위생, 청결, 수리라는 단어는 잘 갖다 붙여도 문화라는 말을 붙인 사람은 아마 수원에서 심재덕이 처음일 것이다. 심재덕은 문화시민, 문화도시, 문화국가의 기본이 바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화장실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하였다. 예를 들어 "처가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말 자체가 그런 단면을 잘 보여 준다. 더러운 화장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어야 좋은 것, 그것이 우리의 정서였다. 그런데 심재덕은 누군가 더럽게만 생각해서 피하려는 화장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꿈을 꾸었다.

심재덕이 본격적으로 화장실 정화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 때문이었다. 1996년 심재덕은 수원에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수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회의 도중 UN 기관에서 근무하던 한 외국인이 "당신네 나라의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원의 화장실을 꼭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그가 엄청난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화장실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세계적인 경기를 치르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말이었다.

심재덕은 이 소리를 듣고는 창피하면서도 너무나 놀라 귀까지 빨개지는 것 같았다. 사실 이 회의를 하기 일주일 전 수원 시내에서 너무도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다. 그때 심재덕은 '시장인 자신도 이렇게 불결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수원에서 월드컵 경기를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원의 화장실은 더럽다."라고 평가한다면, 과연 월드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한·일 공동 개최인데 깔끔한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그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날 이후 심재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순간의 깨달음이 전 세계 화장실문화를 바꿀 원동력이 된 것이다.

심재덕은 화장실 문제를 지적한 외국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회의 다음 날 심재덕은 수원시 전체 간부회의를 열어 수원시의 모든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시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원시 공무원들은 심재덕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였다. "아니 무슨 화장실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거야?"라며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화장실이라면 그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이고,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찔러도 그냥 좀 참으면 그만인 곳이었다.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수원시 내 공중화장실은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군데군데 침을 뱉어도, 화장지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 특히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공무원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던 심재덕은 우선 수원시 내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지적받고 있던 공중화장실을 골라 우리나라에서 최상의 환경을 갖춘 유쾌한 곳으로 개조·관리하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수원시청 직원들은 1996년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의 타워호텔, 보라매공원, 장충단공원, 남산공원 등의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화장실의 내부 시설물과 위생용품, 관리실태 등을 비교·조사하였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또 화장실문화계 직원들은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였다. 휴지걸이의 높이는 얼마나 하는 것으로 좋을지, 화장실에서 듣기 좋은 음악은 무엇인지 조사하러 다닌 것이다. 심지어 심재덕은 담당 직원들을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으로 파견해 공중화장실을 견학하게 했다. 그의 화장실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9년

2월 19일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심포지엄

6월 29일





화장실문화협의회 활동

8월 27일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발족식

8월 27일





(사)한국화실문화협의회 창립총회

11월 30일





전망 좋은 화장실 준공식

12월 20일





화장실 시티투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2000년

5월 9일





화장실용품전시회

9월 28일





제1회 한일화장실포럼 2000

2001년

12월 21일





제1회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한 표어공모전

11월 29일





제3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

2002년

2월 28일



전국화장실담당자교육

5월 4일



독일 2DF-TV 화장실 취재

5월 13일



화장실문화캠페인

5월 18일



영국 BBC에서 수원 화장실문화 취재

2. '화장실 전도사'가 만든 '유쾌하고 만족스런 화장실'

심재덕은 1997년 수원역,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공원, 전통시장, 주유소 등에 설치된 8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하기로 했다. 변기는 최대한 고급형으로 바꾸고 벽면과 바닥은 콘크리트 대신 타일 등으로 교체해 호화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심재덕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냄새'였다. 화장실은 냄새나는 곳이라는 고정 관념을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계획이었다. 화장실 안에 방향제를 두거나 향수를 뿌려 악취를 억제하고, 소독을 수시로 했다. 또 조화(造花)를 배치하고 화장실에 잔잔한 음악도 흐르게 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놀라운 발상이었다. 심재덕이 강하게 추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심재덕은 1997년 4억 원을 들여 화서문 화장실 등 5개의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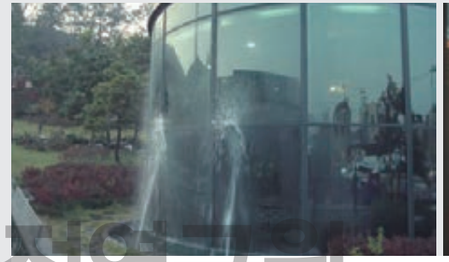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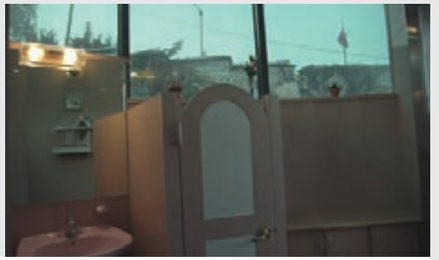
반딧불이 화장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지지대 화장실(1999년)





팔달문 화장실(1999년)





장안공원 화장실(1999년)





연무대 화장실(2000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1998년에는 5억 9,000만 원을 들여 반딧불이화장실 등 5개, 1999년에는 5억 3,000만 원으로 5개의 공중화장실을 지었다. 1997년부터 3년간 모두 15개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총 15억 1,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1개 화장실에 평균 1억 원씩을 들인 셈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수원의 화장실은 모두 이때 지은 것이다. 반딧불이화장실의 경우 43평 규모에 2억 1,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평당 500여 만 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당시 분양되던 고급 아파트 단가보다 비싼 편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화장실을 건립하느냐고 아우성이었다. 언론에서도 "화장실 건립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한다."고 공격하였다. 하지만 심재덕은 꾹 참고 이를 견뎌냈다. 지저분하기만 했던 배설의 장소를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해우(解憂)'의 공간으로 바꾸면 시민의식도 자연스레 성숙하리라 믿고 수많은 비난을 참았던 것이다.

광교산 진입로의 절개지를 이용해 만든 반딧불이화장실은 화장실 내부 어디서나 광교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화장실 안에 들어서면 새소리와 음악이 들리고, 공간마다 꽃이 놓여 있다.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들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심재덕은 수원 시민들에게 세련된 화장실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감동은 배가 되었다. 당시 신설된 화장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예산은 이렇게 쓰는 거야."

심재덕은 새로 짓는 화장실에는 반드시 여성 공간을 남성 공간보다 3배 늘리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읽은 글 때문이었다. 일본화장실협회 회장 니시오카 히데오(西岡秀雄)가 쓴 기고문을 읽게 됐는데, 그는 남녀의 화장실 점유시간은 3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남자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31.7초, 여자는 1분 32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로공단은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보다 3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재덕은 이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아닐 이후 신설 화장실에는 여성의 변기를 남성의 것보다 3배 이상 만들게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수원의 공중화장실에서는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여성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심재덕은 1999년 2월 1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때 그는 화장실문화 만들기의 동반자를 만났는데, 바로 전영상 세계화장실연구소장이었다. 전 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연 친화적 환경설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심재덕은 전 소장의 발표를 듣고, 만찬 자리에서 '한국화장실협회(Korea Toilet Association)'를 설립해 화장실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만들고 국제화장실 세



1999년 2월 19일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1999년 8월 27일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창립총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미나 및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화장실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전 소장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실제로 심재덕은 전영상과 함께 1999년 8월 27일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를 수원에서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심재덕은 초대 한국화장실협회 회장이 됐고, 정부기관으로 발송하는 월간지를 통해 수원 화장실의 깨끗함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였다.

1999년 11월 29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유쾌하고 만족스런 수원 화장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한 외국인의 부끄러운 지적에 화장실문화 개선을 시도했던 심재덕이 이제는 외국 신문에까지 '깨끗한 화장실 전도사'로 소개된 것이다. 그 후로 수원시는 '화장실 관광'이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관광문화를 전개하였다.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화장실문화를 배우기 위해 수원을 방문한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드는 관광객들을 화성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하며 "오늘 우리는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잘 디자인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화장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며 화장실을 안내한다.

이에 관광객들은 한옥 양식의 화장실로 들어가 따뜻하게 데워진 좌변기에 앉아보고, 세면대를 살펴보며 사진을 촬영한다. 비발디의 '사계', 한국 궁중음악, 자연의 새소리 등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최첨단 자동 수도꼭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태양열 난방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저마다 감탄하곤 한다. 수원의 각 공중화장실 문에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엘리트 시민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심재덕은 화장실문화 개선 하나만으로 수원 시민을 엘리트 시민으로 만든 것이다.

3.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는 본래 민선 1·2기 수원시장이었던 심재덕의 자택이었다. 2007년 3월 심재덕이 '세계화장실협회(World Toilet Association, 약칭 WTA)'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그전에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변기 모양의 집을 지었으며, 이 집의 설계는 건축가 고기웅이 맡았다.

2009년 1월 심재덕 시장이 죽고 난 후 그의 유지에 따라 해우재는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이란 "국가가 아닌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세계 유일의 변기 모양 건축물을 심재덕 시장이 전개했던 '화장실문화운동'을 알리기 위한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2009년 해우재 기부채납 협약 체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5년 제1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원시 대통령상 표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지렛대로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년여의 리모델링을 거쳐 2010년 10월 30일 정식 명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로 개관하게 되었다.

수원시에 있는 박물관들이 수원시청 산하 박물관사업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 반해, 해우재의 경우 수원시청 내의 환경국 산하 화장실문화팀의 관리 책임하에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초로 운영 및 관리된다.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7일 제2947호로 제정되었으며, 2차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2021.5.12. 조례 제4165호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이르게 되었다. 이 조례에는 수원시 화장실 문화전시관이 "지역 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문화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례 제17조와 제18조는 해우재가 고(故) 심재덕의 집으로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다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우재 운영은 심재덕의 유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관련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제17조를 보면 수원시장이 해우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원시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 수탁자의 자격에서 해우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하였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심재덕 전 수원시장 사후 설립된 사단법인 미스터토일렛 심재덕기념사업회가 2010년 해우재 개관 직후부터 지금까지 관리 및 운영을 맡아 오고 있다.

해우재는 크게 해우재전시관, 해우재문화센터, 화장실문화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우재전시관은 2010년 심재덕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오픈하였고, 2012년에는 전시관 뒤편으로 화장실문화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2015년 해우재문화센터가 개관함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먼저 해우재전시관은 대지면적 5,190㎡(1,569.9평)에 연면적 480.27㎡(지상 2층, 지하 1층)로 건설되었으며, 한국기록인증서에 '가장 큰 화장실 조형물'로 기록되어 있다. 해우재는 본래 일반 가정집으로 건축된 건물이 박물관으로 리모델링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립박물관과 비교해 본다면 규모가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실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공간임을 알리고자 했던 심재덕의 철학과 신념이 녹아, 변기 모양으로 설계되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화장실문화 전시관으로서의 개성은 건물 외관에서부터 확실하게 드러난다. 즉,













2010년 10월 30일 해우재 개관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정연구원
RESEARCH INSTITUTE
수원연구센터



2011년 10월 30일 개관 1주년 해우재음악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변기 모양 건물 그 자체를 통해 화장실문화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우재전시관은 220.47㎡ 규모의 1층 상설전시실과 138.73㎡ 규모의 2층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상설전시실 외에도 안내데스크 겸 기프트숍, 수유실이 자리 잡고 있다.

상설전시실 내부에서는 해우재 안의 화장실 '중앙화장실'이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평가되는데, 중앙화장실의 경우 변기 모양 해우재 건물의 가운데 움푹 들어간 위치 바로 아래쪽, 해우재 건물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심재덕이 해우재에서 거주했을 당시엔 실제로 사용되었던 화장실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현재 전시공간으로 용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중앙화장실의 형태만큼은 심재덕이 사용했던 그대로 두어, 화장실을 단순히 배설의 장소가 아닌 음악과 향기, 예술이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집안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심재덕의 철학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였다.

해우재전시관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문화공원은 2012년 5,190㎡의 면적에 조성된 야외



2012년 7월 4일 화장실문화공원 개장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E FOUND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센터





2012년 7월 4일 화장실문화공원 개장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전시장이자 공원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한민국의 화장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형물은 물론, 서양 고대 로마의 수세식 변기부터 현대미술 영역의 프랑스 예술가 '마르셀 뒤샹'의 1917년 작 '샘'이라는 작품까지 동·서양 화장실과 관련된 다양한 모형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화장실 변기 변천사에 대한 전시가 두드러지는데, 신라시대 귀족 여성이 사용했던 노둣돌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을 통해 뒤처리를 해 왔음을 보여 준다.

또 공원 한쪽에는 왕궁리 대형 뒷간 터가 재현되어 있다. 2004년 백제의 궁궐터로 유명한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대형 뒷간 터가 발굴되었는데 7세기(백제 무왕 600~641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화장실로 알려졌다. 이 왕궁리 유적 변소 유구를 재현하여 고대의 공중 화장실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왕궁리 유적에서 발굴된 대형 화장실 유적 연구를 통해 각종 기생충과 기생충 알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분석 결과 고대의 사람들이 채식 위주의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식사했음을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화장실 유구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식문화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제주도의 통시변소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현무암으로 변소가 꾸며져 있으며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 돼지 우는 소리가 나는 음향장비를 설치해 놓았다. 비록 모형이지만 통시변소를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실제 통시변소를 이용해 보는 듯 실감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분뇨의 자원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해 두고 있다.

세미나실(139.21m²)은 해우재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해우재 교육 프로그램 똥놀이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화장실 관련 교육이나 화장실과 관련된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대관이 가능하다. 문화센터 옥상에 위치한 전망대는 건너편 해우재전시관이 변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우재전시관 뒤쪽 화장실문화공원까지 시설 전반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한편 해우재는 해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해우재를 알게 된 경로를 분석해 보면 언론 보도나 TV와 같은 전통적인 일방향성 매체보다 SNS(Instagram, 블로그)와 같은 소통형 창구를 통해 해우재를 접하고 방문하는 경우 응답자 61명(43.3%)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혹은 지인들의 추천, 즉 '입소문'을 통해 듣고 오는 경우도 39명(27.7%)이 있었는데, 이 두 경로가 모두 소통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묶어 본다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5년 화장실문화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2015년 화장실문화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8년 9월 4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일행 방문(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9년 해우재 관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해우재를 방문하는 횟수는 109명(77.3%)이 첫 방문이라 응답하였으며, 2회 이상 재방문하는 경우 또한 전체의 2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첫 방문이라 응답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로 첫 방문 이후 재방문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우재가 화장실을 소재로 하고 있는 특수박물관이기 때문에 해우재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확실한 목적을 갖고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수원의 유명한 관광지라서 10명(7.1%),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73명(51.8%), 동반인의 추천 7명(5%),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48명(34%),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명(1.4%), 기타 1명(0.7%)로 집계되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로 해우재를 선택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해우재를 방문하는 목적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한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우재 상설전시실은 2017년 전시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약간의 개·보수를 거쳐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설전시실의 전시 구성은 크게 화장실의 역사, 수원시 화장실문화운동의 연혁, 중앙화장실, 화장실 과학까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설전시실의 관람 방향은 입구에서 좌측으로 간단한 해우재 소개와 함께 정하고 있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매주 토요일 일회성 단기로 진행되는 똥놀이터가 있으며, 장기간 꾸준히 진행되는 어린이 토리기자단이 운영 중에 있다. 똥놀이터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해우재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크게 똥과 화장실, 해우재와 수원의 화장실문화운동, 식습관과 배변 훈련, 환경과 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공예, 미술, 원예 등의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매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체험관은 신비로운 몸속 여행으로 시작된다. 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몸속에서 소화되어 어떻게 똥이나 오줌으로 나오는지 보여 주고 뽕뽕 방귀의자, 뿌글뿌글 똥 제조기, 똥뿌리자 똥똥 등의 재미있는 게임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익한 똥 이야기로 만들어진 재미있는 영상을 통하여 똥이 거름이 되어 귀한 자원이 된다는 똥의 순환 이야기와 옛날에 똥을 나르던 도구들을 살펴보는 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화장실 이야기와 화장실 예절을 체험하도록 하여 똥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아름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 똥글똥글 어린이 세상(해우재 홈페이지 제공)



2018년 9월 4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일행에게 해우재 해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답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본래 해우재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단기로 진행되었던 상반기·하반기 세미나와 장기 SNS서포터즈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삭감으로 현재 상·하반기 세미나는 폐지되었고 SNS서포터즈만이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SNS서포터즈는 앞서 어린이 토리기자단과 비교하여 연령과 기사작성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우재와 함께 수원시 화장실문화운동에 대해 홍보를 한다는 점에서 활동 목적이 유사하다.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타 박물관의 성인 교육을 보면 '박물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가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 등 성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제5부

이목동의 주거공간과 주거문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장 윗배나무골 유영유 가옥과 주생활
제2장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운영과 주민생활
제3장 '도심 속 작은 숲', 이목파인힐스



제1장

윗배나무골 유영유 가옥과 주생활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이목동 윗배나무골의 입지

이목동은 수원시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쪽으로 의왕시와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 파장동, 남쪽으로 정자동·천천동, 서쪽으로 율전동과 연접해 있다. 마을의 서북쪽으로 청계산이 흘러 모락산과 오봉산·덕성산으로 이어지며 봉우리와 자락을 만들고, 동북쪽으로는 백운산 자락이 흘러 지지대고개를 만들면서 덕성산과 지지대고개 사이의 길쭉한 골짜기를 따라 이목동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마을은 북에서 동남향을 따라 내려오는 입지 조건을 지녔으며 전통가옥도 동남향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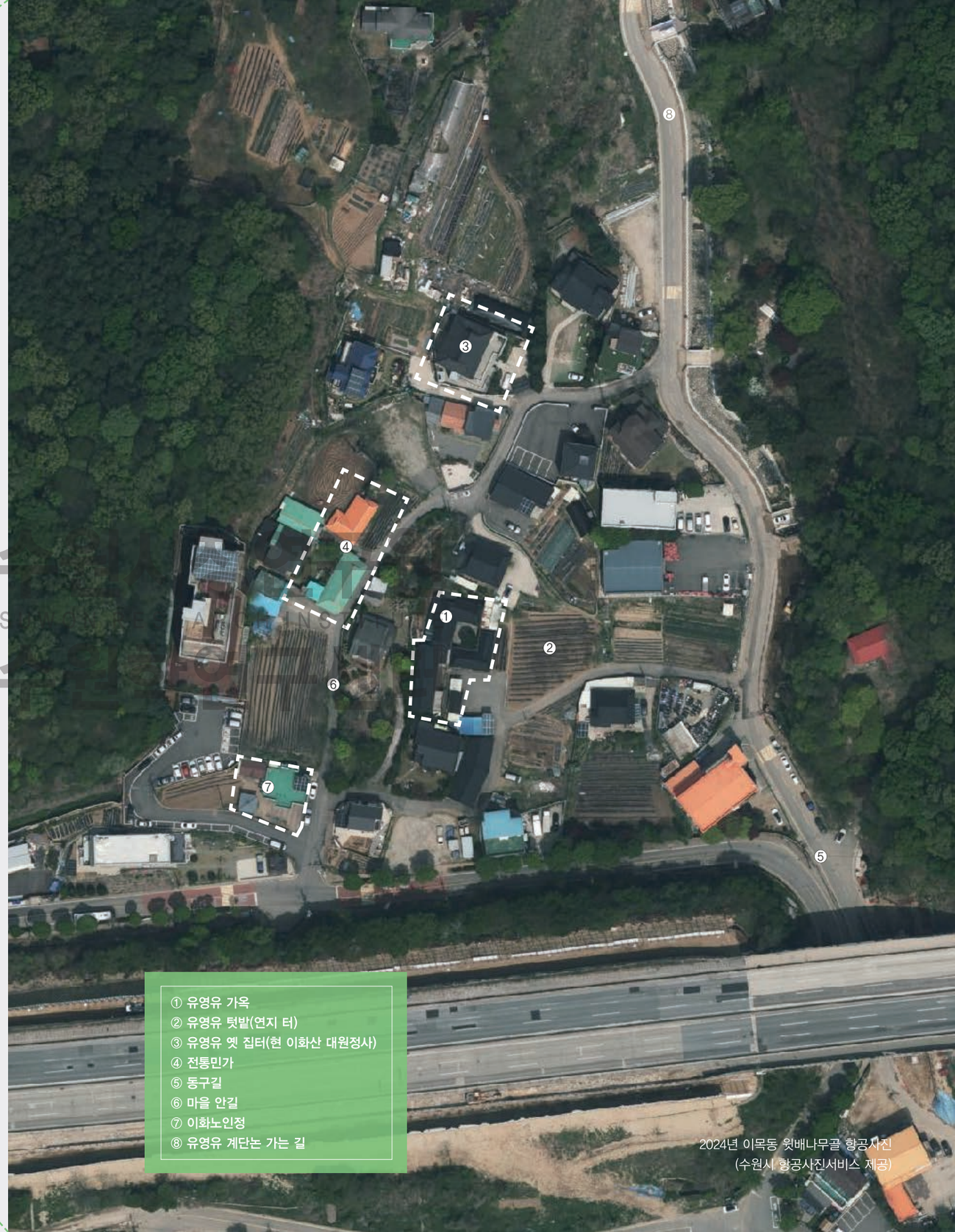
마을의 지명인 이목(梨木)은 예전부터 마을에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이라 불린 데서 유래하였다. 지금도 마을에는 배꽃을 표기한 '이화(梨花)○○' 등의 상점 간판을 볼 수 있다. 또한 2015~2017년 '이목동 한마음 배꽃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의 유래와 정체성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이목동은 전통적인 농업과 공업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현대적인 주택이 혼재한 도농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을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이목천을 따라 형성된 계단식 논과 마을 내 텃밭 등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시설인 해우재(解憂齋)는 수원시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많은 방문객이 마을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마을 동남쪽 안주골에는 삼성그룹의 선영이 있어 풍수적 관점에서 흥미를 준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가 마을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며 놓여 있고, 이목동 남쪽으로 이목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마을의 환경과 주민생활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목동에서 민가의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전통가옥은 마을의 북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화경로당 부근 세 채의 가옥이다. 그 중에 안채 내부는 변형되었으나 외형이 유지



2024년 이목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2024년 이목동 윗배나무골 항공사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이목동 윗배나무골 전경(2024년, 김승일 제공)

SRI 순천시정연구원
SUNCHEON RESEARCH INSTITUTE



윗배나무골의 계단식 논



윗배나무골 전통민가(이목동 65번지)



윗배나무골 진입로



윗배나무골 전통민가(이목동 66번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되어 구조와 규모, 배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영유 가옥이 한 채 있고 나머지 두 채는 부분적으로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영유 가옥을 중심으로 전통가옥과 주생활을 파악하였다.

2. 이목동 유영유 가옥의 건축과 변천

유영유(1943년생) 가옥은 경기도의 전형적인 '튼ㅁ'자 구조를 지닌 민가이다. 유영유는 이목동 토박이로 본래 살던 집은 현재의 이화산 대원정사 자리이다. 1950년대 부친이 현재의 집터로 이사하였고, 그 후 1964년에 새롭게 건축하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이 집터 주인은 수원경찰서에 근무하던 한우교였으며 집터가 풍수와 좌향이 좋고 집 앞에 연지(蓮池)가 있어 마을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집터"로 알려져 있었으며 '연못집'으로 불렸다. 그러한 이유인지 몰라도 집은 산자락 아래쪽 널찍한 평지에 여유롭게 앉아 있고 집의 좌측으로는 이목천이 감싸고 있다. 넓은 타작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고 가지런하게 정돈된 농기구의 보관 창고와 건조실, 그리고 텃밭에는 속이 여물게 가득 찬 배추가 자라고 있어 집주인의 깔끔함과 부지런한 성격을 잘 보여 준다.

타작마당의 배추밭 옆에 땅을 고른 200여 평의 밭은 원래 연지(蓮池) 자리였는데, 1963년에 못을 메웠다. 자연적인 못이 아닌 인공적으로 축조된 이 연지는 사방에 석축을 두른 방형(方形)에 형태를 이루고 연지 가운데 바위를 세운 조경물이 있었다고 한다. 유영유는 어렸을 때 수영도 하였으며 어른들은 연지 주변에서 유흥을 즐겼다고 한다. 연지의 배수는 이목천으로 연결되어 서호천으로 흘러 나갔다. 연지에서 주목되는 점은 방형(方形)에 석가산(石假山)이 있는 인공 연지라는 점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개인과 관아의 조경문화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동양적 우주론적 사고가 20세기 중후반까지 농촌 민가에서도 나타나는 민가 조경의 사례로 주목되는 내용이다.

유영유는 군대 제대 후 부친을 도와 집을 지었다. 1964년 이른 봄에 시작하여 약 두 달을 지었으며 안채 목재의 경우 수원화성의 북문 근처, 수원천 변에 '중선재'라는 목재상에서 구입하였는데 집에서 우마차를 끌고 가 목재를 구입하여 운반하였으며 거의 한나절이 소요되었다. 문간채는 당시에 살았던 집의 자재를 해체하여 활용하고 그 밖에 서까래와 초석 등은 선산에서 가져와 사용하였다. 고등동에 사는 외삼촌이 지었는데 인근에서 잘 알려진 목수였다. 집안 식구와 동네 어른 등이 집을 지을 때 도움을 주었고, 터다지기는 돌 지경을 하였으며 안채와 행랑채를 함께 지었다. 집이 완성되고 상량문은 부친이 직접 쓰셨으나 현재는 거



이목동 유영유 가옥과 연지(蓮池)를 메워 만든 밭

<표 1> 유영유 가옥의 기본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장안로 478번길 58-15(이목동 63-2)
시기	1964년(상량은 거실 천장에 반자가 있어 확인되지 않음)
규모	안채 ' ㄱ'형, 10.75칸, 행랑채 'ㄴ'형, 9칸
칸잡이	동남향, '튼ㅁ'자 형태로 타작마당과 행랑채 그리고 안마당에서 안채로 연결되며 뒤란으로 이어진다. 안채와 행랑채는 단 차이를 두었다.
구조	일고주 4량의 전면에 퇴가 있는 우진각 납도리 초가집
터와 칸살이	마을 입구 동구길에서 인접하여 터를 닦았다. 동남향인 까닭에 배산임수를 하고 있으며 집 앞에 문전옥답은 예전에 연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밭으로 쓰인다. 평균 칸살이는 안채 8자 2,400㎜이며 툇간은 4자 1,200㎜ 규모이다. 행랑채의 경우 평균 7.5자 2,320㎜로 안채에 비하여 조금 길이가 작다.
부재	소나무이며 안채는 각재로 120×120㎜에 길이는 도리 밑으로 2,450㎜이다. 서까래 내밀기는 평균 650~700㎜에 지름은 120㎜이다. 행랑채도 각재로 140×140㎜에 길이는 도리 밑으로 2,440㎜이며 서까래 내밀기는 평균 650~700㎜에 지름은 90㎜이다

<표 2> 유영유 가옥의 토지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이목동 63-2	대	787	건축면적 112.92㎡, 연면적 108.11㎡
이목동 70-5	대	251	창고 및 건조실
이목동 61-2	전	430	연못을 메워 만든 밭
이목동 70-1	전	264	연못을 메워 만든 밭



유영유 가옥의 변천

1950년대 — 부친이 대지 구입 후 이사



1963년 — 연못을 메워 밭으로 일굼

1964년 — 가옥의 안채와 행랑채 신축

1971년 — 초가지붕을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교체



1974년 — 사용승인인가

1970년대 중반 — 마루와 분합문 교체



1980년대 후반 — 흙벽과 마당의 시멘트 포장, 바깥채 신축



2010년대 초반 — 플라스틱 기와지붕으로 교체

SU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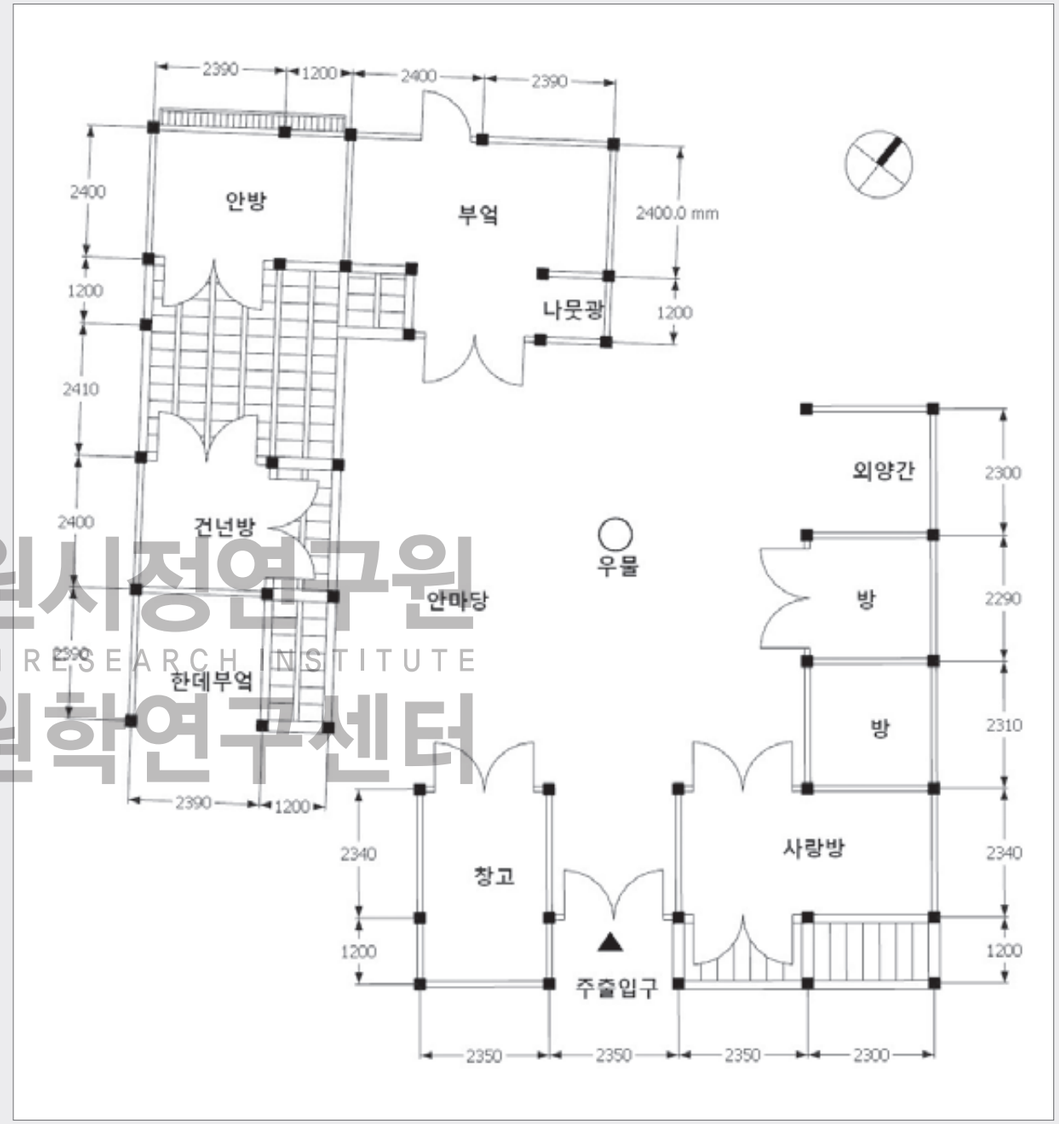


이목동 유영유 가옥

실에 반자가 설치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집이 완공되면서 안마당에 우물은 유영유가 직접 파고 돌을 쌓았다. 마을에는 물이 넉넉하여 집마다 거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물 공사는 2~3명이 일주일을 공사하였다. 마당에 땅을 깔때기처럼 파 내려가 샘이 확인되면 아래로 돌을 내려 자연석축 방식으로 원을 그리듯 돌을 쌓아 올렸다. 돌은 서호천에서 호박돌을 가져와 쌓고 돌 뒤로 흙을 부어 다짐을 한 후 올라가면서 완공하였다. 마당에 우물(수심 깊이 2.8m, 수면 위로 지면까지 2m, 통관 지름 0.9m 높이 0.9m)은 지금도 남아 있어 콘크리트 통관에 덮개를 열면 아직도 많은 물이 고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채 내부는 예전에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편리성에 따라 방과 거실, 입식 부엌 등으로 바뀌었으며 판재 벽과 플라스틱 이중창호, 그리고 천장에는 반자가 설치되었다. 반면에 안채 외형은 옛 형태가 남아 있으며 행랑채도 원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방 배치는 안채의 경우 우물마루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건넌방과 소죽을 끓이던 한데부엌이 있고 대청과 연결되는 전면 툇마루가 있다. 대청 우측으로는 꺾여서 안방과 부엌이 있다.

부엌에는 다락이 있었고 안마당에서 뒤란으로 연결되는 여닫이문이 있었으며 나무광과 찬장 공간이 있었다. 부엌의 경우 대청마루와 연결되는 별도의 반쪽 문이 없어 음식상을 안



유영유 가옥 배치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현대식으로 개조된 유영유 가옥 안채



유영유 가옥 행랑채와 안마당 내 우물과 향나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향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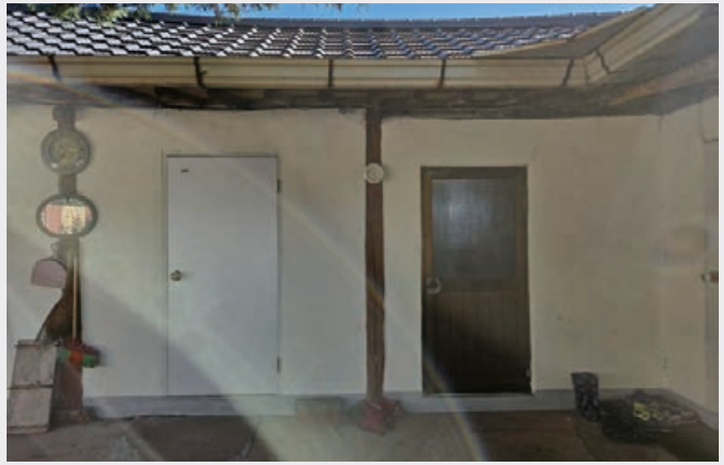














안채와 행랑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유영유 가옥 안마당

마당으로 나와 대청과 방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부엌과 마루 또는 안방으로 연결되는 반쪽 여닫이문은 노동력의 감소와 겨울철 음식상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데, 유영유 가옥에는 별도의 문이 없었다고 한다.

행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광이 있고 좌측으로 문간방이 있으며 문간방에는 전면에 툇간 널마루가 있었다. 그리고 문간방에서 꺾여 안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한 칸 규모의 방 두 개와 이어서 외양간이 있다. 외양간이 집안으로 깊게 들어온 이유는 일소가 지닌 경제적 재산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집은 안채와 행랑채가 단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집의 자연 배수와 위계를 고려한 배치 방식이다. 가구 구조는 안채와 행랑채가 일고주 사량으로 초가의 민가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가구 구조이며 초석의 경우에도 약간의 외형만 가공을 거친 산돌의 덤벙주초를 사용하였다.



산돌 덤벙주초

집의 가구 부재와 간살이 규모에서 안채와 행랑채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안채는 새로 구입한 신재를 사용하여 기본 칸살이를 8자로 한 반면, 행랑채는 기존에 부재를 활용하면서 간살이가 원래 짧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길이가 짧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집의 수리와 보수는 1971년에 초가에서 지붕의 볏단을 걷어내어 시멘트 기와를 얹히고 지금의 플라스틱 기와는 10년 전에 교체하였다. 전반적인 집의 개·보수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마루와 분합문이 교체되었으며, 흙벽과 마당의 시멘트 포장은 1980년대 후반에 보수·정비되었다.

널찍한 대문 앞 타작마당 한켠으로 가지런하게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와 그 옆으로 건조장이 있다. 타작마당은 곡물의 수확과 타작, 알곡 고르기와 말리기, 저장에 따른 갈무리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충분하다. 대문을 지나 안마당에는 우물과 함께 정원수로 심어진 향나무가 잘 다듬어져 보기 좋게 서 있다. 향나무는 유영유가 수원북중학교 1학년 봄철에 심은 나무이다. 안마당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집을 처음 지을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경사면에 터를 잡은 이유도 있으나 안채 기단을 충분하게 높여 별도로 깊은 마당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뒷마당 즉, 뒤란은 한데부엌과 행랑채의 광 사이, 그리고 외양간과 부엌 사이로 연결된다. 산석으로 막돌 쌓기 축대가 있으며 감나무와 도장나무, 소나무와 화초를 잘 가꾸어 조성하였다. 장독대는 부엌과 거리가 있는 외양간 뒤쪽에 있으나 예전에 부엌에서 뒤란으로 출입할 당시에는 부엌 뒷문으로 가깝게 장독대가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 대청 뒷마당 장독대
2 부엌 뒷마당 전경
3 바깥채와 창고
4 농기구 보관창고
5 건조실
6 농기구
7 농기계

3. 북수원 전통민가의 특성

1) 이목동 유영유 가옥의 구조와 공간 활용

경기 중남부에 위치한 이목동 지역의 전통민가는 기본적으로 서해안에서 내륙을 따라 나타나는 경기 지방의 곱자(나무나 쇠로 만든 'ㄱ'자 모양의 직각자) 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명 중부형 가옥이라 불리며 곱자의 'ㄱ'자형 또는 'ㄷ'자형에서 'ㄴ' 또는 'ㄴ'자형의 바깥채가 후대에 증축되며 'ㅁ'형의 가옥으로 형태가 변화된다.

유병유 가옥도 이와 같으며 곱자 집의 안채는 몸칸이라 불리는 건물에 날개채가 이어진 건물로 몸칸에는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날개채에는 부엌과 끝방 또는 창고가 조성된다. 이러한 유형은 경기 지방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 충청도 일부에 고루 분포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같은 곱자 집에서도 대청이 남향을 향할 경우 부엌의 방향은 'ㄱ'자형의 경우 서향인 반면, 'ㄷ'자형은 동향으로 가옥의 배치에 따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전통민가에서 나타나는 집터와 배치의 양상은 1960년대 말까지도 풍수 이론을 적용한 터잡이와 칸잡이를 통해 집짓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대개 남향 또는 남동향이거나 동향이며 산을 등지고 농경지나 물을 바라보는 곳에 집이 앉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전저후고(前低後高), 전착후관(前窄後寬) 등의 기본적인 풍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즉, 집을 지을 때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며, 앞은 낮고 뒤는 높되, 출구는 좁고 들어오면 넓어지는 공간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계절 변화와 공기의 순환에 따른 일조량과 바람(통풍), 탁 터진 시야가 확보되는 안락한 집의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의 향(向)은 거주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기대는 곳과 바라보는 대상을 중시한다. 보편적으로 남향이 선호되며 이는 계절의 순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칸잡이는 칸살의 배치 방법을 통해 각각의 방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평면적인 공간 구조를 짜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모와 자연환경의 영향에 따라 칸잡이에는 일정한 양식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목동과 파장동의 전통 민가 모두 평면 유형은 'ㄱ'자와 'ㄴ'자가 함께 있는 '튼ㅁ'자 형태이다. 유병유 가옥의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몸채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부엌은 날개채에 붙어 있어 서북향을 취한다. 따라서 공간 배열은 대청의 좌측으로 안방과 부엌이, 우측으로 건넌방과 한데부엌이 배치되고 있다. 칸살은 기둥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건물 1칸의 길이가 된다. 또한, 칸살은 전후좌우의 방향을 갖게 되므로 좌우를 간(間), 전후를 가(架)로 구분하고 1간(間)×1가(架)의 면적을 1칸이라 한다. 따라서 칸



1966년 이목동 윗배나무골 가옥구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은 길이의 단위이자 면적의 단위이다. 유영유 가옥의 경우 19.75칸으로 아주 큰 집은 아니나 작은 규모의 집도 아니다. 그리고 뒤에 서술할 파장동 광주 고택은 헛간까지 포함하면 22.75칸으로, 중농의 경우 평균 20칸 내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칸살은 기둥의 굵기 및 길이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보통 살림집인 경우 1칸의 칸살은 8자, 기둥의 길이는 8자 전·후의 비례를 갖는다. 유영유 가옥의 평균 칸살은 2,400㎜로 8자이며 행랑채는 2,320㎜로 칸살 길이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재의 재활용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다. 반면 광주 이씨 고택은 평균 2,400㎜를 전후로 하여 칸살이가 나타나며 좌·우칸이 넓고 전·후칸이 좁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초(柱礎 또는 礎石)는 기둥의 기초인 밑받침이다. 민가에서는 산석을 주로 쓰며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방형의 화강석 주초도 사용한다. 유영유 가옥은 산석을 주어 와 다듬고 윗면에 기둥의 밑면을 그레질(또는 그렝이질)하여 밀착시켰다. 기둥의 경우 이목동의 경우 4치와 5치 사이에 각주로 민흘림을 두고 있다. 기둥 모서리를 '실모'로 모죽임을 했으며 모서리에 쇠살 대패로 다듬은 쇠시리 모양을 내지는 않았다. 기둥의 높이는 보머리 아래로 평균 8자를 유지한다.

유영유 가옥의 안채는 내부 시설의 변화로 보와 도리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행랑채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평사량의 구조를 지니며 안채와 행랑채 모두 전면으로 반 칸 규모의 툇간이 형성되어 있다. 지붕 처마는 산자를 엮어 깔고 진흙으로 치받이를 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전후한 초가집의 지붕개량도 나타난다. 이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부르는 모호함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슬레이트나 함석으로 번듯한 기와집을 모방하고자 했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유병유 가옥에서 안채의 경우 흙벽을 볼 수 없으나 행랑채에서는 흙벽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다. 흙벽은 먼저 벽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중깃을 중방 아래와 위 사이에 끼우고, 중깃에 기대어 가로 방향으로 목재살과 수수깡을 새끼줄로 묶어 외엮기를 하고 흙 반죽을 쳐서 마감하였다. 창호의 경우 예전에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새시(sash)문으로 교체되고 실내 출입문은 외짝 여닫이문으로 바뀌었다. 특히 새마을운동 이후 대청 끝은 미닫이문이 설치되었다. 유영유 가옥도 건물의 몸통과 날개채가 만나는 부분의 마루 고삽 자리에 외짝 여닫이문이 있고 건넌방 방향으로 두 짝 미닫이문이 설치되었다.

유병유 가옥의 수목은 안마당에 향나무가 있고 뒷마당에는 감나무와 화초가 심겨 있다. 향나무는 관상수의 가치가 크며 감나무는 감의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크다. 타작마당은 별도의 수목이 없으나 예전에는 연지가 있어 어울리는 수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지는 민가의 조경문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는 민가의 수목 종류와 심는 위치에 따라 길흉을 부여하고 연지의 조성 방법과 입수, 배수를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이 개량된 윗배나무골 가옥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영유 가옥의 옛 연지는 풍수와 조경이라는 전통적 문화 양상과 미의식의 한 사례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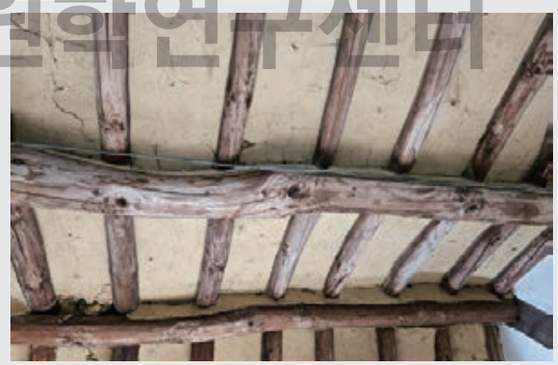
유병유 가옥은 1964년에 안채와 행랑채를 함께 지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의 증가와 경제력의 향상에 따른 살림의 확대를 의미한다. 주생활은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유기성이 반영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집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은 주변 환경에 따른 지형의 배치, 공간의 짜임, 구조 등의 특징이 거주자의 경제와 식구, 의식주의 변화와 함께 반영되며 생활에서는 하루나 월, 평생 동안 연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이목동의 전통민가에서도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새마을운동과 생활환경 개선(지붕 및 부엌, 화장실 등의 개량) 그리고 1976년도 농어촌 주택 개량에 따른 양상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또한 내부 공간 변화는 1960~1970년대 경제력 증가에 따른 살림살이 규모와 종류의 다양성, 수입원의 다변화, 산업사회의 핵가족화 등이 연관된다. 또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소득 증대와 함께 가족 수의 증가는 주택공간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 건물의 골격을 살린 채 벽을 처마 끝까지 확장해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다. 유영유 가옥이 외형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는 변형되었지만, 가옥의 외형은 보수를 하면서 처마 끝까지 실내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나거나 변형된 내부 공간은 용도와 쓰임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특히, 부엌의 변화는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 입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구부린 허리에서 해방되게 된다. 더불어 부엌 가구도 허리 높이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연료의 사용과 전기밥솥, 수도시설이 설치되고 부엌은 별도 공간이 아닌 거실과 직접 연결되는 휴식공간으로 함께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엌에서 마루를 거쳐 안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지닌 유교적 관점의 남성과 여성의 공간, 웃어른과 아랫사람의 수직적 공간에서 부엌에서 식사하고 마루에서 함께 여가를 즐기는 수평적 공간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외에 아이들의 공부방과 화장실이 실내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대청에는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마당과 연결되는 동선을 차단하게 되었다. 이는 대청의 실내화와 함께 안마당을 더 이상 내부와 연결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여 준다. 반면 안마당은 생업을 위한 중심 공간에서 가족 간에 친목과 단란을 위한 공간으로 그 사용을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행랑채는 농업과 관련된 생산물의 저장과 도구의 보관, 집안의 주요 재산인 가축의 사육을 위한 필요 공간에서 허드렛 물건을 보관하거나 외지인의 월셋방 또는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며 본래의 기능과 멀어지게 된다.








1 2
3 4

1 안채 처마와 서까래
2 안채 처마 기둥머리
3 행랑채 가구 구조
4 처마 흙받침과 산자 엮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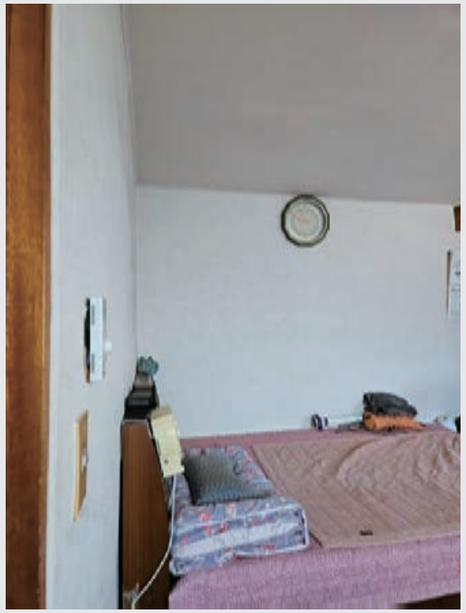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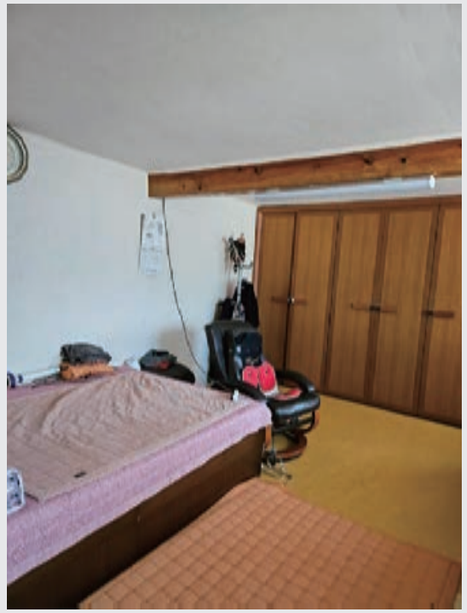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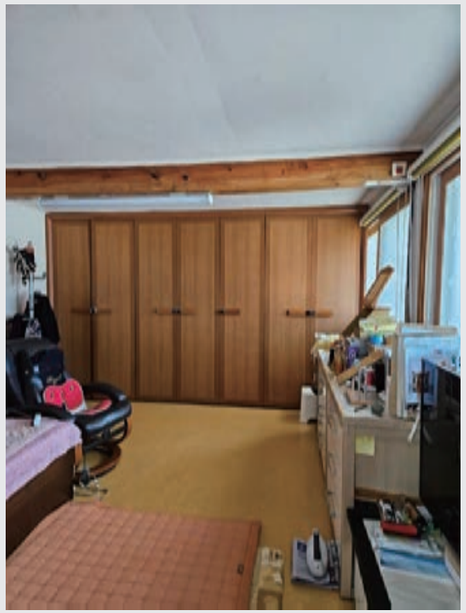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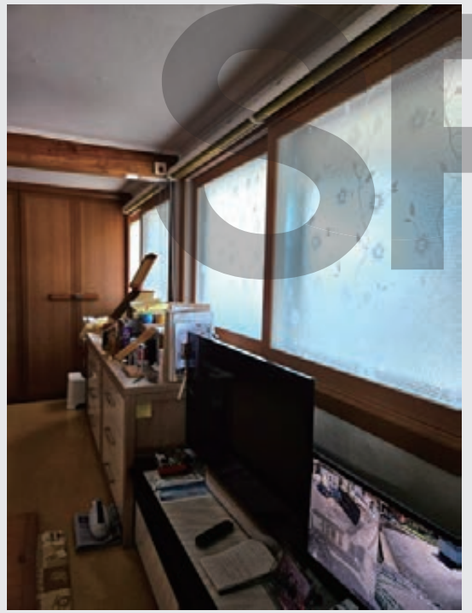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 3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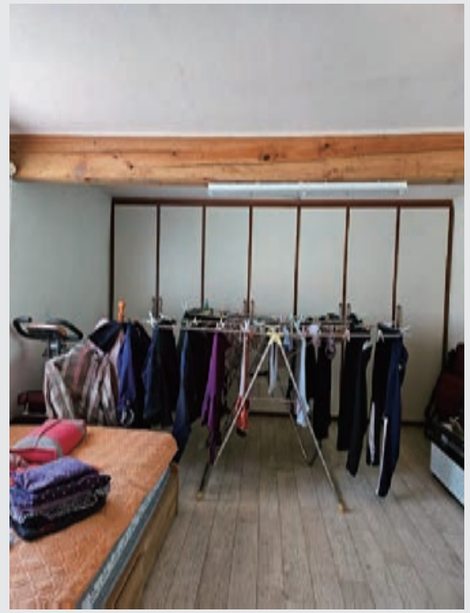
1 안방을 개조하여 만든 입식부엌
2 유리문을 단 대칭
3 거실로 개조된 안채 대청
4 대청에서 바라본 건넌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1
1 1

1 안방



2 2
2 2

2 건넌방



단란공간으로 활용되는 입식부엌



대청 부적



입식부엌



화장실 및 세탁실

2) 파장동 광주 이씨 고택의 구조

현재 유영유 가옥 외에 이목동 마을에 남아 있는 두 채의 전통민가는 안채가 없는 행랑채로, 변형이 심하고 외형만 일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목동과 연접한 파장동의 광주 이씨 고택(국가민속문화재)을 참고로 북수원 지역 전통민가의 특성을 파악고자 한다. 광주 이씨 고택(파장천로 56-9)은 대청의 상량문(光緖十四年三月十八日酉時立柱上梁家主戊申生)을 통하여 1888년 3월 18일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립 당시는 초가지붕에서 1970년대 안채를 제외하고 행랑채는 양기와, 헛간은 슬레이트 지붕, 사랑채는 양식기와로 변경하였다. 이후 문화재 지정과 함께 원형을 복원하였다. 규모는 안채는 삼량구조에 'ㄱ'형 8.75칸, 사랑채도 삼량구조에 'ㄴ'자형으로 9칸이며 헛간은 'ㅡ'자형에 5칸 규모이다. 가옥의 배치는 서남향으로 튼 미음자 형태이며 바깥마당의 전면에 헛간채가 있고 울타리는 돌담으로 되어 있다. 안채·바깥채·헛간·광이 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초가집이다.

안채는 부엌·대청·안방·건넌방으로 되어 있다. 동편의 끝칸이 부엌이고 이어 안방이 있다. 바깥채와 안채는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ㅁ'자형으로 배치되었다. 경기도의 서해안 지역



파장동 광주 이씨 고택의 안채(경기관광공사 제공)



파장동 광주 이씨 고택의 사랑채(국가유산포털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파장동 광주 이씨 고택 평면 배치도



파장동 광주 이씨 고택 전경(국가유산포털 제공)

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배치 형태이며, 이 마을의 대부분 집도 여기에 속한다. 사랑방은 위아랫방을 안채와 직각으로 배치하였고 대문만이 부엌을 향하였다. 마당 앞에는 헛간·외양간이 있다. 부엌 가까이 우물이 있고 뒷동산 쪽으로 감나무·단풍나무 등을 심어 운치를 살렸다.

4. 이목동 유영유 가족의 주생활

유영유(2023년 81세)와 김기순(78세) 부부는 1969년에 혼례를 치른 후 2남 1녀를 두었고 2023년까지 54년을 지금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지금은 자녀가 출가하여 부부만 살고 있지만 김기순이 시집올 당시에는 신랑 식구를 포함하여 9식구가 함께 살았다. 유영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는 잠시 선경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업을 꾸려 나갔다. 김기순은 농사를 지어 수확한 야채를 수원 북문 근처에서 행상을 하며 판매하기도 하였다.

농사 규모는 논농사 2,500여 평에 밭농사가 600여 평이었다. 논은 산간 마을의 특징상 계단식 논이고, 한 마지기는 200여 평이었다. 밭작물로 예전에는 보리와 들깨, 콩과 팥을 많이 심었으나 지금은 무와 배추, 고추와 파, 감자와 고구마를 주로 경작한다. 근래에는 농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수월해졌지만, 예전에는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끼리 품앗이를 하였고, 별도의 인부를 잠시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유영유의 기억으로 1970년대 인부의 경우 숙식을 제공하고 한 해 품삯으로 쌀 두 가마를 주었다고 한다.

가족 구성원의 방 배치를 살펴보면, 1980년 이전에 유영유 내외는 건넌방을 쓰고 부모님은 안방을, 행랑채는 시집 식구가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문간방은 마을에 들어와 물건을 파는 등짐장사에게 2~3일간 제공되는 숙식공간이면서 겨울철에는 마을 사람이 모여 소설도 읽고 여가를 즐기는 마실공간이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는 부모님이 안방에서 행랑채 문간방으로 옮기면서 안방은 유영유 부부가 사용하고 건넌방은 자녀가 사용하였다.

주생활에서 이러한 방 물림은 가족 구성원과 집안 살림의 책임자가 경제적 주권을 지니고 공간으로 이동하는 순환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집안을 꾸려 나가고 지키는 가장과 며느리에게 수고로움의 대가와 책임을 곳간 열쇠와 함께 넘기는 상속적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집에 머무르며 생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 물림에 개념은 없고 상속적 의미만 남아 있다. 유영유 경우도 비어 있는 안채의 건넌방은 빨래를 말리거나 별도의 내실 겸용 공간으로 사용되며 행랑채는 자녀들이 모이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0년대 유영유 가족 잔치(김기순 제공)
전통가옥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가족의 큰 행사가 치러졌다.



유영유 가옥 대문 앞(1970년대, 김기순 제공)



유영유의 가족과 친지(1970년대, 김기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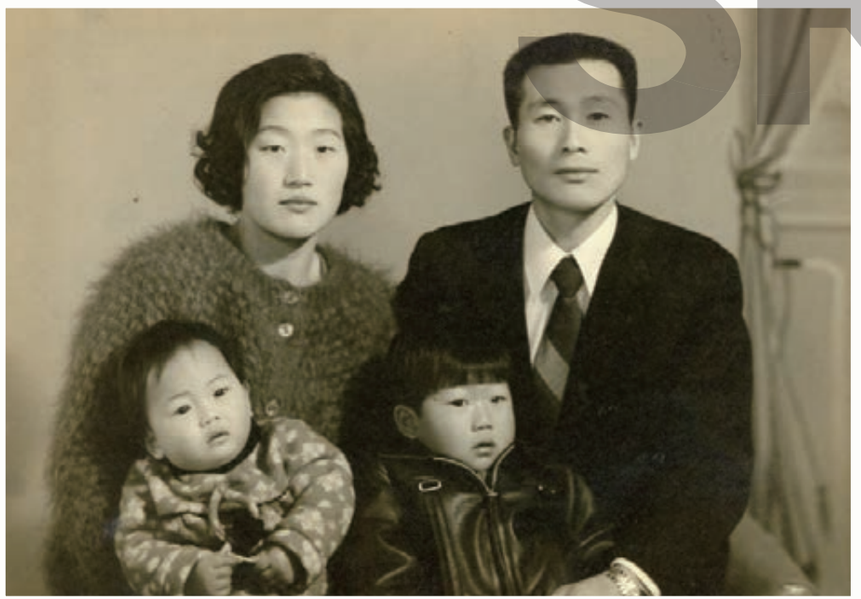
연구원
H INSTITUTE
구센터



가옥의 첫 주인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1970년대, 김기순 제공)



돌잔치(1970년대, 김기순 제공)



가옥의 두 번째 주인인 유영유와 김기순(1970년대, 김기순 제공)



지인들과의 식사(1970년대, 김기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3년 2월 1일 입춘축을 다는 김기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4년 유영유 가옥 터줏가리(김진흥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추 말리는 풍경(2002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유영유와 김기순의 손때가 묻은 가옥

명절과 휴가철에 사용되는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다. 집안 의례에서도 2년간의 코로나 사태 이후 가족 간에 합의하여 연간 4번 지내던 제사를 2번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생활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이목동의 가옥과 주생활을 유영유 가옥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가옥의 특성에서는 이목동의 일부 흔적이 있는 가옥과 파장동 광주 이씨 고택을 참고로 함께 살펴보았으며 주생활은 유영유 가옥의 집과 생활의 변화를 함께 찾아보았다. 수원이라는 큰 도시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목동의 전통민가는 언제까지 그 생명을 유지할지 모르겠다. 이목마을의 변화 과정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전통민가의 생명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2장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운영과 주민생활

임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이목동 아파트 단지의 형성

이목동(梨木洞)은 수원시 장안구에 속해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면 파장동(芭長洞)에 속한다. 3.52㎢의 토지 면적으로 이루어진 이목동에는 6,304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장안구 내에서 이는 산림이 토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광교동, 하광교동 다음으로 적은 인구수에 해당하며, 인구밀도는 약 1,791명/㎢로 수원시 법정동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섯 번째로 적은 수이다. 한편, 인구 대비 세대수도 적은 편에 속해 수원시 내에서 가장 높은 세대당 인구수(2.78명)를 보인다.[1] 이 기본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우선 액면 그대로 이목동이 상대적으로 인구 저밀지역에 속한다는 것, 나아가 면적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도시 인프라를 갖추어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원시 내 지역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이목동은 의왕시와 접한 수원시 북서 측 끝 자락에 위치한다. 서울에서 이목동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당역에서 광역 직행버스를 타는 것이다. 그리고 이목동 내에 어느 곳을 향하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건물 형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아파트이다. 그것이 건축적으로 화려하다거나 독특한 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낮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작은 동네에서 아파트가 규모면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이곳 이목동에는 두 개의 '커다란' 아파트인 '수원장안STX칸아파트'와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가 자리해 있다. STX칸아파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는 각각 13개 동 947세대, 15개 동 927세대로 총 1,874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목동 전체 2,264세대의 약 83%를 차지하는 이 아파트라는 지배적인 주거 형태는 이 동네를 이해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굵직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호천을 사이에 두고 건립된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좌측)와 수원장안STX칸아파트(우측) 전경(2024년, 김승일 제공)



2000년경 이목동 아랫배나무골(최호운 제공)
골프연습장과 운전면허연습장이 들어서 있는 곳에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가,
서호천 좌측 주택가에 수원장안STX칸아파트가 건설되었다.

당연하게도 이 아파트들이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이목동은 본래 1960~1970년대 이후 해태유업(현 동원F&B), 선경합섬(현 SK케미칼)을 비롯한 다수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다. 시의 외곽지로 여겨졌던 이 공장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온 아파트 개발의 바람 속 2010년대에 들어 장안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 및 서둔동을 잇는 북수원 주거 축을 형성한다는 수원시의 방침이 있었다. 착공 및 분양이 시작된 시점은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와 수원장안STX칸아파트 각각 2009년, 2010년부터이다. 당시의 분양 광고 기사를 통해서는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던 SK케미칼(49만㎡), 동원데어리푸드(5만㎡), CY뮤지텍(2만 5,000㎡) 등의 대규모 공업단지를 이전시킴으로써 일대를 쾌적한 주거문화공간을 갖춘 '미니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12년 3월 힐스테이트아파트, 2013년 3월 수원장안STX칸아파트를 순으로 준공이 완료되었고 입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 개발 및 부동산 거래가 그러하듯, 위와 같은 계획과 비전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실현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당시 동원데어리푸드(현 동원F&B) 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가 이루어진 해에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계열사의 연쇄적 타격으로 건설·시공사인 STX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당시 아파트 단지 내 947가구 가운데 350여 가구가 미분양되자 채권단이 미분양 물량의 가격을 1억 원 가까이 낮춤으로써 전량 처분하려 나서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분양·입주자들은 건설사를 향해 재산권을 떨어뜨리는 '떨이판매'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현재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스스로 이 아파트의 1호 입주자로 소개한 김대철은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김대철 : 입주 초기에 여기가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분양이 다 안 됐어요. 일부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할인분양, 건설사에서 할인분양 이슈가 있었어요. 기존 분양자들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 분양자들이 반발을 했었고, 저 역시 기존 분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 같은 비슷한 활동을 했었죠 /년간. 건설사 규탄하고 시 규탄하고. 할인분양 반대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그게 이슈였죠 입주 초기 때 (중략) 할인분양이 진행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건설사가 STX 그룹 뭐 부도 같은 게 나고 그랬잖아요. 건설사도 안좋아졌죠. 파산, 회생? 이런 절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브랜드는 STX를 달고 출범을 했는데 건설사가 안 좋아진 상황이 됐죠.

이목동의 아파트 단지는 이와 같은 다소간의 잡음 속에서 출범하였다. 이는 하나의 '사회'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00년경 주택가 전경(최호운 제공)
현재 이 자리엔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가 들어섰다.

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치게 된 특수한 종류의 진통이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동네에 전에 볼 수 없던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의 골격이 갖추어지고 그곳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들어와 터를 잡음으로써 이제 이곳에 새로운 경관과 생활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어서 이목동의 새로 구축된 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그 전체적인 윤곽을 수원장안STX칸아파트를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아파트라는 작은 사회의 작동 방식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과정은 곧 새로운 주거 터가 닦이고 상당 규모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목동의 그것에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 살펴보았듯 동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곧바로 지역의 지배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다는 점 따라서 지역을 기준으로 인구학적으로 나타나는 생활패턴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로써 다수의 이주민들로 구성된 하나의 '작은 사회'가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이목동은 변모하게 되었다.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대철은 이전 아파트에 살 때부터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동대표 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타고난 "리더 기질"을 갖고 있다. 2013년 입주 초기에 구성된 비대위 기구 참여를 시작으로 동대표 활동을 하며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대소사를 다양하게 경험해 온 그는 아파트를 하나의 '사회'로 비유하며 동대표의 기본 업무와 역할 구분을 설명하였다.

김대철 : 아파트라는 어떤 한 사회는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가와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많은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원래 국가라는 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법부는 없어요. 아파트라는 조그만 사회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존재를 하고 행정부는 관리사무소 및 관리소 직원들이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표회의는 입법부라고 보시면 돼요 (중략) 동대표 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그 규약을 조정할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의결을 하는 기구예요. 의결.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그거를 집행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대표회의가 "이번에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 "이번에 규약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번에 어떤 공사를 해줘야 된다."고 의결을 해 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아파트를 두고 일정한 체계를 갖춘 하나의 사회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2년 수원장안STX칸아파트와 수원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 전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장안STX칸아파트 정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위와 같은 설명대로, 그 작동의 기초적 심급은 국가의 체제를 이루는 기관들에 빗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기관의 역할을 그대로 대입시키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소(小)사회'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주체들의 활동 내지 특정한 역할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작동 및 유지된다는 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따르는 법률 적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과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성문화된 법적 토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큰 틀 안에서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른 세부사항들이 '관리규약'에 담기게 되는데, 각각의 동대표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러한 세부 규약들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각종 시설관리, 공사, 행사 등에 대한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입법 및 의결의 심급으로 기능한다면,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의 기본 업무는 아파트 기반시설의 모든 영역을 관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장안STX

칸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황대학은 그 업무란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황대학 :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관리사무소 없으면 사실 돌아가지가 않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역할들은 그런 것들. 전기도 보면 여기는 고압이 들어와요 아파트는. 22.9킬로볼트. 그런 고압이 들어오면 그 변전소가 있어요. 변압기에서 220볼트, 380볼트로 다운시켜 가지고 각 세대에다가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수도. 시에서는 그걸 시수라고 하는데. 시에서 들어오는 관이 엄청 커요. 그걸 받아서 저수조에 물을 담아서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각 세대로 다 보내주고. 난방도 마찬가지. 난방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에서 더운 물을 받아서 그걸 데워서 각 세대에 보내주고 그런 식이죠. 그걸 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매일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배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그런 배관들이 잘 통하고 있는지. 그게 이상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뭐 아파트 내에서 모든 설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들은 못 느끼죠. (웃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아니까.

총 8명으로 구성된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소장, 과장, 경리, 서무, 기전직)과 18명의 경비 및 미화 외주 근로자들은 이처럼 주민 생활편의의 하부구조를 안 보이는 곳에서 지탱하고 있다. 이곳의 업무는 매일 아침 9시에 회의를 가짐으로써 시작된다. 매일 진행되는 기반시설 점검과 관리, 필요할 때마다 진행되는 각종 시공·공사 집행, 주민들의 민원 처리 등의 기본 업무 외에도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고지하는 일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일이다. 세대마다 다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관리비 항목에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는 만큼 활성화될 수도 제 기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꽤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동네 그리고 이 아파트 생활이 돌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있다. 바로 통장이다. 이목동은 행정구역 단위 상 총 7개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7명의 통장이 있다. 이들은 정확하게는 장안구청 소속으로,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여 파장동행정복지센터에 속해 일을 한다.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일종의 '준공무원'으로서 통장은, 앞에서 살펴본 아파트 운영 주체들과 달리, 지방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공무들을 수행·보조하거나 봉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수원장안STX칸아파트 101동부터 106동까지를 포함하는 41통의 통장 김옥희는 그 일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원장안STX칸아파트 편의시설
왼쪽부터 경로당, 놀이터 및 휴게공간, 체육시설, 주차장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옥희 : 저희는 주로 업무가 동에서 주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사항, 서류라든가. 전입을 하게 되면 위장전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주로 해드려야 되고. 동에서 무슨 경로잔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마을에 급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일차적으로 동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긴급하게 동에 가서 받아와야 될 서류들 받아다가 아파트 관리소에 전달하기도 하고 (중략) 첫째, 셋째 주에 가서 회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동에서 조를 지정해주면 봉사활동, 마을 가꾸기라든가, 마을 정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하차장 이런 거 소각장 방문.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등등등등.

이곳 통장들은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두 번씩 동 단위 공무 조직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이나 전달사항을 공유 받는다. 상주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을과 밀착하여 활동하는 통장들은 공무조직의 손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며, 시나 구나 동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복지 사업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회의와 상황에 따라 내려지는 요청 그리고 총 42명의 같은 소속(이목동 및 파장동) 통장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이들의 활동은 관할 통을 넘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곳을 무대로 삼는다. 수원장안STX칸아파트 107동부터 113동까지를 포함하는 42통의 통장 이지아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기동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이지아 : 초등학교 들어가면 입학통지서 있잖아요. 직접 전달해줘요. 세대 방문으로. 전입신고도 세대 방문이에요. 경로잔치 초대장도 다 우리 아파트도 직접 방문해서 다 전달하는 거에요. 전입신고사후조사서는 거주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하는 거고 (중략) 그 일이 구에서 동으로 내려오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동의 기동력이라고 봐야죠. 공무원들이 다 세대에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기동력이라고 봐야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아파트 자체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성격을 갖는다면, 통장은 동에 속해 있는 마을 봉사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서는 STX칸아파트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역할·기능의 측면들, 말하자면 메커니즘의 측면과 공무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아파트라는 하나의 소사회가 작동되는 데에 있어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는 것, 즉 단지에 이사를 와 전기와 물을 쓰고 편의시설을 사용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에 적응하는 등의 행위 하나하나는 앞서 살펴본 역할 수행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의 대표 격 구술자들은 모두 이 아파트에 대한 애정과 일종의 책임감 그리고 각각의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들어가며 설명한 입주 초기의 잡음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생활상의 문제가 별달리 지적되지 않은 만큼 이 소사회의 내적인 질서는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듯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주요한 이슈로 거듭 언급된 사항이 있었으니, 바로 수원장안STX칸아파트 바로 앞에 자리해 있는 동원F&B 공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각자의 지위나 배경, 성별 등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생각은 엄밀히 따져보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거나 자신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등 최소한 그 공장이 이곳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눈엣가시'임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아파트 주민의 생활 영역과 부정 영역

모든 사회는 성스러운 것/부정(不淨)한 것 혹은 순수/오염을 구분하는 인식 체계를 갖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주거 형태가 된 아파트의 생활세계에서, 감각의 측면에서든 물질의 측면에서든 특정한 종류의 폐기·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생산 기지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무균적' 상태와 안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정(不淨)', 구체적으로는 '혐오시설'로 분류되곤 한다. 이는 우리의 생활이 점차 도시로 이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식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장안STX칸아파트 생활에서 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동원F&B는 그러한 '혐오시설'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원F&B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훨씬 전 시점인 1970년대 '해태유업' 시절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파트 단지들이 일대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시점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소문이 과장 섞인 분양 광고를 타고 떠돌았던 만큼 그 공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입주자들 입장에서 중대한 것이었다. 공장이라는 요소는 우선 그 존재 자체로 혹은 미관적으로 주민들의 아파트 생활세계에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였다.

김옥희 : 여기 저희 아파트 바로 입구 쪽에 동원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미관적으로도 앞에 공장이 있으니까 안 좋고, 그리고 수증기여서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하얀 연기 같은 그게 계속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막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혹시 이게 사람 몸에 공장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안 좋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장안STX칸아파트 산책로

은 게 혹시 뿜어져 나올까 그것 때문에 항의도 하고 공장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공장 측에서 식품이다 보니까 인체에 무해하고 우유 만들 때 나오는 수증기라고 사람들 견학도 시켜 주고.

단순히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실제로 매일 가동 중인 이 공장은 일부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 것이기도 했다. 동원F&B 공장의 이전 소문을 참고하여 분양·입주를 결정했다고 한 42통 통장 이지아는 공장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지아 : 동원이 좀 험오스럽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또 동원이 이전한다는 소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했죠. 이전하겠지 하고 (중략) 낮에도 차들이 다니니까 시끄러워요. TV 소리도 볼륨을 올려야 되고 저녁에 자면은 소음이 심해서 좀 예민한 사람들은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냉장고, 에어컨, 대형이다 보니까 그게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제가 여기 바로 앞에 108동이거든요 집이. 그러면 같은 (STX)칸에서도 저쪽 김옥희 통장 네가 안쪽 104동이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제 통 같은 경우는 108동 ///동, ///0동 이쪽으로는 소음이 심해요.

당연히 이러한 소음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러저러한 아파트 사정을 꿰뚫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황대학에게도 익숙한 사안이었다.

황대학 : 에어컨 실외기가 지붕에 보면 있잖아요. 옥상에 그거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트럭들 물건 싣는 소리 또 특히 차가 이제 보면 후진할 때 '삐삐'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경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트럭 상차 작업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소음이 낮에는 덜하겠지만 밤 9시, 10시 되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여기 보면 저 동원F&B하고 마주 보고 있는 ///동, 107동, 108동은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음 때문에 수원시로 진정을 또 엄청 많이 넣었어요.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동원 F&B도 나름대로 그럼 몇 시 이후로는 작업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팬 소음을 안 나게 하는 공사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요즘은 많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주민들은 동네에서 공장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이는 김대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일반 동대표를 맡았던 2015년에도 제기되었던 문제로, 당시 그는 공장장들과의 미팅을 통해 공장 측이 소음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공장 소음 이슈는 주민 민원 및 의견수렴과 시정 작용을 거치며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기계가 가동되고 물자가 오가는 곳인 이상 기본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사정, 구체적으로 거주하는 동, 생활패턴, 개인적 거부감, 이해관계 등에 따라 민감함의 정도와 수용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공장은 구술자들 중 여성이었던 두 통장들에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한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다. 주민으로서 두 통장은, 여러 사업체와 취미 활동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달리, 바로 앞에 나 있는 서호천 길을 따라 산책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하루 일과로 삼고 있었다. 이들은 팔달구 화서동 서호(축만제)까지 이어지는 이 서호천 산책길을 걷다 보면 특정 구간, 정확히는 동원F&B의 폐수처리장이 위치한 구간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설명하였다.

김옥희 : 악취가 굉장히 그 썩은 냄새 같은 굉장히 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는 게 아니고 중간쯤 지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에 가면 이렇게 하수 이렇게 나오는 통로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쯤 가면은 그냥 못 지나갈 정도로 마스크를 쓰거나 막아야지 갈 정도로 속이 막 정말 화장실 냄새보다 좀 더 지독할 정도로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다가 사람들이 항의를 엄청 많이 계속 했어요. 거기에서 폐기물 정화하는 정화처리시설 그것을 동원에서 하천 중간쯤에 지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좀 덜해지긴 했는데 지금도 안 나는 날도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지금도 한 번씩 냄새가 나거든요. 하루 종일 나는 건 아니고 바람에 따라서 나는 건지 중간 중간 가다 보면 날 때가 있어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호를 둘러싼 하천 문제는 오늘날의 지역 윤곽이 있기 전부터 간혹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아일보』는 1973년 6월 22일자로,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시험포의 수원 서호 날로 폐수에 오염"이라는 기사를 실은 바 있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향신문』(1979년 4월 7일)이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본산인 농촌진흥청을 비롯, 서울대 농대 시험답에 물을 주는 수원시 서호가 상류에 위치한 공장에서 버린 유독성 폐수로 크게 오염돼 10만 평의 시험답 등 30만 평의 논농사

2000년 해태유업 전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장안STX칸아파트 단지 내에서 눈에 띄는 공장 굴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가 위험을 받고 있다. (중략) 서호에는 상류의 이목천 변에 위치한 H유업, S합섬 수원 연초제조창 등에서 버리는 하루 3천 5백t의 폐수와 수원시 이목, 정자, 파장, 율전, 영화동 등 5개 동에서 버리는 생활하수 4천t 등 하루 7천 5백t의 폐·오수가 흘러들어 해마다 오염도가 짙어지고 있다.(「공장 유독성 폐수에 오염 수원 서호가 신음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9년 4월 7일)

이처럼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에 신음했던 이력을 지닌 서호천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됨으로써 2006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1㎎/L(매우 나쁨, V등급)에서 2017년 2.8㎎/L(약간 좋음, Ⅱ등급)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었다.[2] 나아가 수질 개선과 생물 생태계 복원 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서호천은 2018년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복원 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3] 한편으로, 2018년부터 동원F&B의 공장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호천 특정 구간의 악취 문제가 다수의 민원과 함께 주민 및 환경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동원F&B의 협의 끝에 최신 폐수처리공법 도입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이 실시되어 2022년 최종적으로 완공된 바 있다.

서호천은 이처럼 다소간의 진통을 겪으며 공들여 가꾸어져 온 만큼 지역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매일 같이 산책을 하는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감각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악취라는 '불결'의 감각을 발생시키는 동원F&B 공장은 이들에게 분명한 '부정'의 요소이자 골칫거리인 셈이다. 실제로 타당한 기술적 조치로 폐수공법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실제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등의 여부는 이 글 밖의 주제이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히려 공장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협의와 시정 등의 과정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경과를 보



서호천 인근에 위치한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악취측정기



아파트 옆 서호천 생태하천길

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이 아파트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이며 이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의 생활세계상 이것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일 것이다.

4. 이목동 아파트 단지의 도시학적 의미

주민들의 입에서 공장의 존재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언급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에 덧대어지는 이미지에 비추어 이 아파트를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상술했듯, 그 규모가 어떻든 모든 사회에서는 인식 체계상 '부정'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과 신성한 것 또한 함께 존재하며, 그러한 것들이 이루는 질서가 곧 각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 주민들은 이 아파트, 이 동네를 매우 쾌적한 환경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당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대로 서호천은 이목동의 쾌적한 환경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자산 중 하나로, 두 통장은 모두 이 동네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으로 서호천을 꼽았다. 매일 같이 서호천을 걷는 이지아 42통 통장은 이곳에서의 산책을 '보약'이라고 표현하였다.

> **이지아** : 저녁에는 제 배우자 남편하고 저녁 식사 하고, 서호천 쭉 따라가는데 갔다 오면 1시간 40분. 왕복하면 1시간 40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약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호 저수지까지. 거기도 저수지 있으면서 공원이에요. 처음에는 더 걸렸는데 매일 다니다 보니까는 시간이 더 단축되고. 거의가 아니라 매일 가는 거예요. 비가 장대비면 그때는 못 가지. 영하 15도에도 가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있어서 이사를 못 가요. 너무 좋아서. 어디 가면은 이런 산책길 없어요.

한편, 이목동이 갖는 교통의 편리성은 꼭 '장점'을 묻는 딱딱한 질문으로부터가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구술자들로부터 한결같이 등장했던 이목동의 자랑이었다. 특히, 서울, 인천, 김포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1년에 대략 10만 ㎞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록할 만큼 왕성하게 이동하는 김대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였다.

> **김대철** : 이목동은 수원에서 제일 좋은 동네라고 나는 봐요. 왜냐면 관문이잖아요. 지방으로 나가는 관문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하고의, 수원과 수도권하고의 소통 창구잖아요. 이목동은 조그만 동네지만 전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동네예요. 도심 생활권과 전원 생활권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수원장안STX칸아파트의 아이들



수원장안STX칸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는 주민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수원장안STX칸아파트 1층에 위치한 상가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일단 교통이 좋고 조용하고 생활패턴이 안정적인. 뭔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 전원생활도 누릴 수 있고 도시의 편의성, 교통 같은 편의성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업이나 이런 동선도 좋기 때문에,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중략) 전망을 떠나서 나는 여기 사는 게 좋아요. 불편한 걸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태적 공간과 편리한 교통, 넓은 수준에서 '쾌적한' 도시 환경의 핵심이라 설명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이목동 아파트 단지는 갖추고 있고, 주민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쾌적한 동네가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조사자나 주민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곳 이목동 특유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는, 아파트라는 '인공물'과 하천 등의 '자연물'이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 구조 그리고 지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가 적정 수준에서 결합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은 아니지만 누구 못지않게 이곳 아파트를 아끼는 관리사무소장 황대학의 말에는 이러한 맥락이 잘 담겨 있다.

황대학 : *지상에 안 올라가 봤죠? 여기 위에 보면 참 조용해요. 이제 여기가 이 아파트가 특히 공용 부지가 넓은 편이에요. 공용 부지가 넓다는 얘기는 좀 쾌적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오밀조밀하지가 않고 좀 넉넉하다는 얘기지. 그것도 그렇고 나무도 지금 10년밖에 안 됐지만 나무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참 조용하고 쾌적하고.*

앞서 설명했듯 무엇보다 이와 같은 주민 생활이 유지되는 데에는 비단 이 글에서 소개되는 특정 역할들뿐만 아니라 보이는 곳이든 안 보이는 곳이든 여러 층위에서 작동·수행되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드나드는 이목사거리와 서부로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일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뿌듯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흥미롭게도 구술자들은 모두 '특별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운을 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대철 : 특별하게 뭐 잘했다 하는 건 별로 없는데 그냥 아파트 산책을 했을 때 내가 동대표 회장 하기 전과 후가 (다르고) 아파트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아파트가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기분이 좋죠.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많이 보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경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 좋죠. 이게 내가 동대표를 안 하더라도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황대학 : 내가 안 만져본 설비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도 '그거는 어디가 뭔가 이상할 것이다.' 거의 답이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내가 이게 되니까 이제 뭐 설비가 고장이 나더라도 금방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좀 자부심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 모든 게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중략) 저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아파트에 내가 애착이 생기는 거지.

김옥희 : 보건소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건소 직원들 간호사라든가. 그분들만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검사받고 하는데 이게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봉사단처럼 조를 짜 갖고 두 명씩 계속 그거를 계속 2년 가까이를 했었어요. 다들 그거가 저희도 사실 그러면서 조심한다고 해도 그러면서 저희도 걸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 못한다 소리 안 하고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지아 : 가장 뿌듯했을 때는 아무래도 2019년도에 그때는 잠깐 경로잔치 갔을 때. 부모님들 같은 분들 한테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취약계층 봉사활동, 마을 가꾸기, 꽃을 심는다든지, 가을 되면 미화원 분들이 치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통장들이 전부다 가서 동원돼서 낙엽 같은 거 작업했을 때 깔끔했을 때 뒤돌았을 때 말끔했을 때 그런 거. 봉사활동 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지금 현재도 봉사, 통장 일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봉사직이더라고요. 동의 손발이 되는 거잖아요.

조사자가 면담한 STX칸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통장의 업무들은 심층부, 표면, 접촉면 등에서 작동되는 아파트 사회의 작동 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파트 단지 운영과 주민생활의 밑바탕에는 바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동반하는 이러한 역할 수행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동네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과 맞물리며 이목동 특유의 차분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안정적인 질서를 형성해낸다. 이 중 어떠한 요소가 부재하거나 어떠한 변수라도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곳의 아파트 문화는 또 다른 모양새를 띠었을 것이다.

이목동의 아파트가 조성해내는 분위기가 기능적으로 내적 완결성을 갖춘 일부 신도시나 베드타운의 그것과 일면 비슷하면서도 그 특유의 몰개성성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바로 특정한 물리적 기틀 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임계거리(Critical Distance)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적정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한민국에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지배적이며, 한편으로 그러한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편리한 교통과 '자연·생태적' 요소를 자랑거리로 꼽는 곳도 많다. '빠름'과 '느림'이라는 이항대립적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는 것, 즉 자연과 가까이 있는 동시에 도심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은 오늘날의 도시 생활에서 추구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이목동의 아파트 단지는 바로 이것이 매우 작은 규모에서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아파트 사이로 흐르는 서호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현재 수원시는 이목동에 위치했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생긴 부지(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 47만 4,021㎡)에 주거시설(연립주택 및 아파트) 및 업무시설, 상가, 공원 등을 갖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목동을 조금만 걷다 보면 기반시설 공사에 한창인 해당 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준공되고 나면 이곳은 4,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될 예정이다. 이 도시개발을 통해 새로 갖추어질 인프라와 편의시설은 일면 곧 기존 이목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큰 규모인 만큼, 동시에 이 글에서 적어내려온 이목동 특유의 문화적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세계도 상당 정도 재구성될 터이니, 그 또한 오늘날과 같이 '적정 수준'이기를 희망해 본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2023년 10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 「[사설] 생태복원사업의 성공적 사례가 된 서호천」, 『수원일보』 2021년 10월 8일.
3. 「주민과 함께 가꾼 수원 서호천, 최우수 생태하천에 선정」, 『환경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2일.

제3장

‘도심 속 작은 숲’, 이목파인힐스

: 이목동 전원주택단지의 조성과 주민생활

박성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전공 박사과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전원주택단지 이목파인힐스의 조성

이목동(梨木洞), 즉 배나무가 많다 하여 붙여진 ‘배나무골’이라는 이름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원적인 느낌을 준다. 이목동의 상징이자 자부심인 노송지대는 동네가 지니고 있는 전원적인 감성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감성을 지닌 동네에 ‘도심 속 작은 숲’을 표방하는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목동의 북동쪽 끝에 형성된 전원주택단지, 이목파인힐스에 대한 이야기다.

“숲속의 향기를 누리는 도심형 전원주택타운,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이라 불리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소나무와 자작나무, 메타쉐콰이어로 둘러싸인 친환경마을”
〈이목파인힐스 부동산 홍보자료에서 발췌〉

이목파인힐스는 주택 45필지와 편의시설 4필지로 구성된 전원주택단지로, 2014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였다. 파인힐스(Pine Hills)라는 단지 명칭은 마을에 있는 노송지대에서 영감을 얻어 정한 것이다. 단지를 홍보하면서 건설사 측은 명칭에 들어있는 ‘배나무’와 ‘소나무’를 부각시켜 이목파인힐스가 ‘도심 속 작은 숲’이자 ‘자연 속의 친환경마을’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다.

‘도심 속 작은 숲’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목동은 실제로 도시에서 완전히 분리된 전원주택단지는 아니다. 마을 남쪽으로는 서부로가, 동쪽으로는 1번 국도가, 북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목파인힐스는 1번 국도를 통해 안양과 평촌



2000년경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기 전 임야 상태였던 이목파인힐스 부지

을 거쳐 금천구 쪽으로 서울과 이어지며, 의왕IC에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과천을 거쳐 사당과 강남으로도 연결된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통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다 내려온 주민들도 교통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이렇듯 전원생활을 표방하면서도 도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목파인힐스가 지니는 장점 중 하나이다.

이목파인힐스가 있던 자리는 원래 동우여자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이목중학교 세 개의 학교 뒤편에 있던 야트막한 구릉지였다. 2003년, 이 구릉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동우여고 및 동원고 측과 갈등을 빚었다. 학부모와 교사 300여 명으로 구성된 '동우여고 골프연습장반대대책위원회'는 골프연습장 조성이 5,000여 명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골프연습장 건립 과정에서 당초 수원시에서 허가된 3,000평보다 2배 넓은 6,000평의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1]



이목파인힐스 분양 광고('정오의 빛' 블로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파인힐스 건설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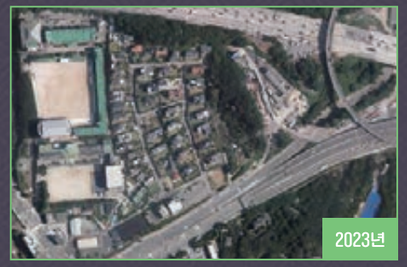












학부모와 교사들은 민원을 제기한 후 수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수원시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수원시의회는 민원 관련 내용을 학교 측과 완전히 합의한 이후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수원시에 제출하였다.[2] 이 사건을 비롯하여 주거지역 내 골프연습장 건설 관련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는 관련하여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지역 외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때도 주거지역으로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에는 학교 인근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민원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교육청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3] 결국 이목동 골프연습장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이곳은 산림이 훼손된 헐벗은 구릉지로 방치되었다.

2010년, 방치된 채 일부 밭으로 개간되고 있던 이 구릉지를 대흥건설에서 매입하였다. 건설사의 사장은 평소 전원주택에서의 거주를 생각하고 있었고, 교통이 좋으며 도로를 통해 도심지와도 어느 정도 분리된 이 구릉지에 본인이 앞으로 거주할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목파인힐스의 건축 철학은 이목파인힐스의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14년에 수록된 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전원주택단지처럼 획일화된 집이 아니라 본인 취향대로 건축이 가능해 단순하게 '사는 곳'의 개념보다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싶다."[4]는 것이다. 이렇게 '도심 속 작은 숲', 이목동의 전원주택단지 이목파인힐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이목파인힐스의 구성

2023년 기준으로 이목파인힐스의 분양은 종료된 상태이다. 2014년 분양을 시작한 이목파인힐스가 현재와 같이 거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2016년만 하더라도 단지 내에 지어진 주택은 불과 20여 채에 불과하였다.

1) 이목파인힐스의 주민

이목파인힐스의 주민들은 소유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연령층에 해당한다. 직종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절반 정도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공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이목파인힐스 전경(2024년, 김승일 제공)

나서 전원주택단지로의 이주를 결심한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 위치한 도시 외곽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비교하여 학군이나 교육, 자녀의 뒷바라지 등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원주택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대학을 가고 난 이후로 시기를 미루게 된다. 간혹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원주택단지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의 뒷바라지가 필요 없거나 혹은 고등학교 진학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5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되며 대개 전원주택단지 거주민 중에서 '막내'가 된다.

가구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2인에서 4인 가구이다.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인이 되면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주민들의 경우 자녀가 결혼해서 다른 곳에 가정을 이룬 경우도 많다. 이들은 주말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러한 이유로 이목파인힐스는 평일에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지만, 주말이 되면 주민들의 자녀들이나 친인척들로 인해 북적거린다. 이때 주민들은 주택의 테라스나 넓은 마당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 주민 중에서는 간혹 노부모를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도시 아파트보다는 넓은 마당을 갖춘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목파인힐스의 주민 구성은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이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목파인힐스가 형성된 이후 이곳에 입주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가구는 단 한 집뿐이며, 그마저도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난 경우다. 더군다나 이러한 전원주택들은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비하여 재산으로서의 투자가치도 훨씬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변동에 의한 이주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2) 이목파인힐스 이주

주민들이 이목파인힐스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집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부부 중에서 남편이 먼저 전원주택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부인을 설득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원주택에서의 거주를 선호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3년에 수행된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향후 전원주택 거주의향이 가장 높은 계층은 '남성'과 '40대 초반'으로 대표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전원주택으로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이유를 손꼽았다.[5] 정동훈·정경호·한균은 2014년 수행된 아파트 거주자의 단독주택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가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거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6] 즉, 운전이 가능할수록 아파트에 비해 근린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전원주택 이주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에 비해 더 많다는 사실과도 직결된다. 이목파인힐스로 이주한 사람들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황창원 : 근데 이게 이렇잖아요. 젊을 때는, 젊을 때는 누구나 활동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나 뭐. 그런 편의를 찾아서 살 수 밖에 없지. 애기들도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남자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남한테 들여다보이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택이지. 그것도 시골 쪽으로 가면 널널할 때, 시간이 남을 때 땅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그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들 졸업하면. 마음 같아서는 (애들이) 고등학교만 나오면 이사갈까 했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에서 살았죠.

이목파인힐스에 2017년 입주한 황창원은 수원 토박이로, 고등학교와 군대에 있던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수원에서 거주하였다. 동수원사거리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던 그는 퇴직한 이후 교외 전원주택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 왔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 황창원은 퇴근길에 우연히 이목파인힐스 단지 공사현장을 보게 되었다. 마을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은 그는 7~8개월 정도면 부지 매입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까지 땅이 비어 있으면 이곳으로 이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8개월 후에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황창원은 부지를 매입한 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건축하였다.

이목파인힐스가 다른 전원주택단지와 비교하였을 때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은 위치와 교통이다. 사실, 이목파인힐스가 위치한 이목동은 교외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다. 단지 뒤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마을 앞으로는 서부로가 지나간다. 대부분이 남향인 이목파인힐스 주택들의 창 밖에는 남쪽에 위치한 수원장안STX칸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완전한 교외 지역은 아니라는 점이 이목파인힐스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황창원은 이목파인힐스 부지를 구입하기에 앞서 용인과 양지 일대의 전원주택단지도 둘러보았다. 그는 땅값이 훨씬 싸고 경관도 좋다는 점에서 이곳으로 이주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완전한 교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목파인힐스에 입주하였다. 가뜩이나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았고, 본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퇴근도 고려해야 했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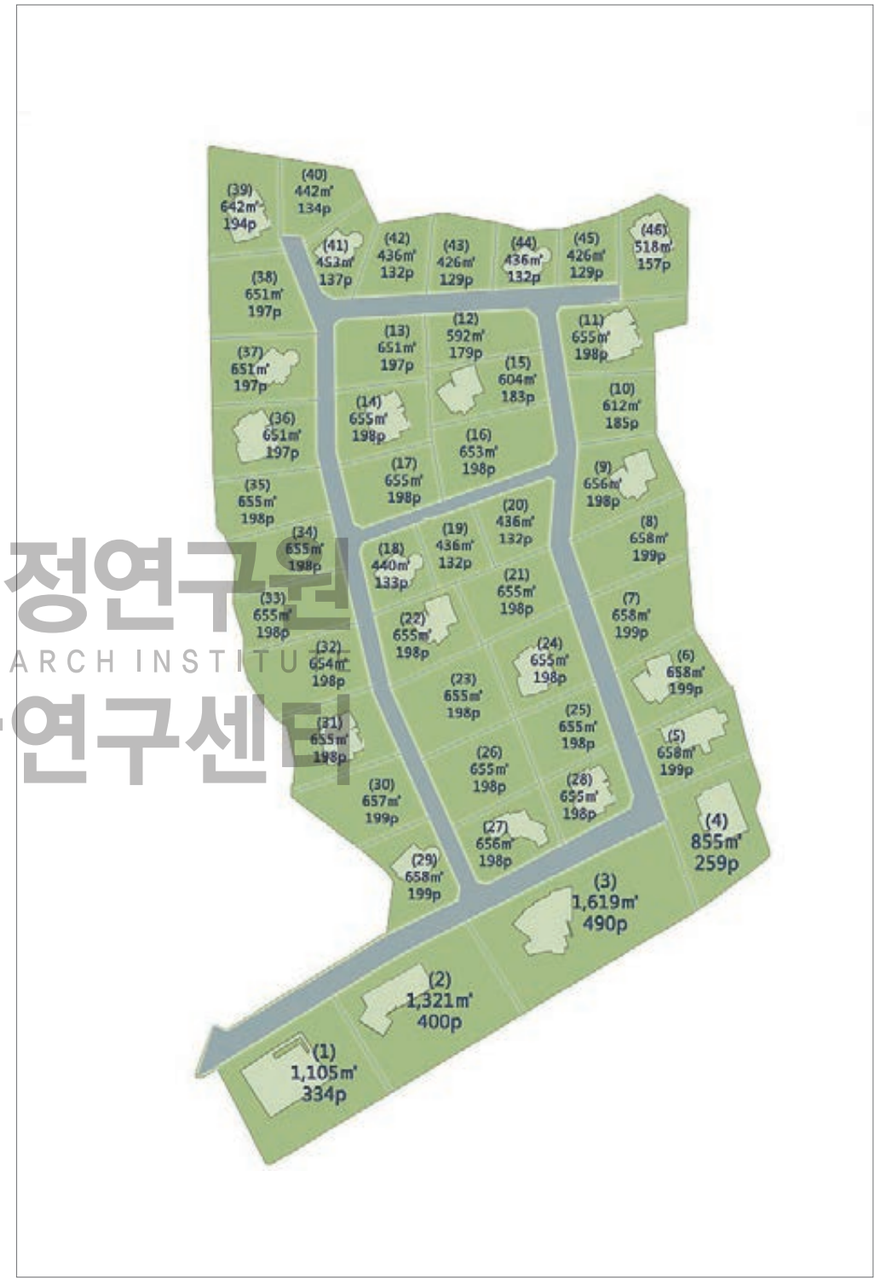
때문이다. 나이든 노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울 필요도 있었다. 이와 같이 도심 단독주택과 교외 전원주택의 중간에 놓여 있는 이목파인힐스의 특성은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양면성이 이목동에 도심형 전원주택단지인 이목파인힐스가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실시된 전원주택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에 따르면 전원주택이 수도권과 가까이에 생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척도는 5점 만점에 4.06점을 기록했지만, 전원주택이 수도권에 멀어져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3.39점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비슷하게 노년기에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척도는 4.00점이었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주하여 귀농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척도는 3.39점으로 낮아진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원주택 이주를 꿈꾸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지거나 귀농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7] 따라서 이목파인힐스는 전원주택에서의 거주를 꿈꾸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이주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인 것이다.

3) 이목파인힐스의 주택

이목파인힐스는 주민들이 필지를 구입한 후 그곳에 직접 집을 짓는 형태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땅값은 다른 전원주택단지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지만, 대신 기초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 그리고 용도변경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그에 따라 필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바로 주택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현재 45개 필지는 모두 분양이 끝났으며, 그 중 43개 필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다. 각 필지의 규모는 327㎡(98.9평)부터 658㎡(199평)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건폐율은 20% 미만이다. 보통 2층 높이의 집을 짓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택의 건평은 대략 40평에서 80평 정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집은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다. 필지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마을 언덕을 그대로 살린 도로 때문에 일부 필지는 부정형의 형태를 갖춘다. 이러한 필지들은 비교적 가격이 더 저렴한 편이다.

이목파인힐스에 집을 지을 때는 "뒷집 시야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다. 이 때문에 경사진 단지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2층 높이의 집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주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곳에 평생 거주할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목파인힐스 배치도('정오의 빛' 블로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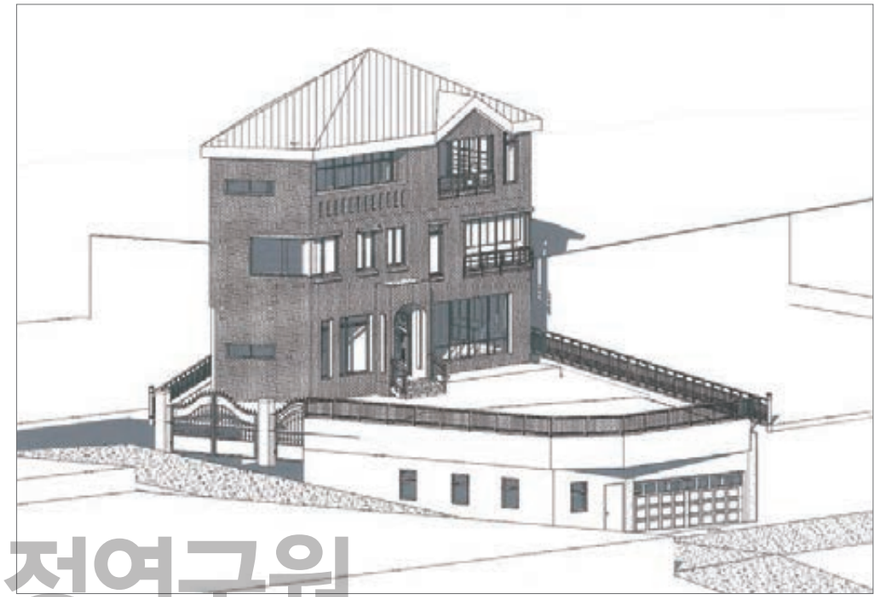
이목파인힐스에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설계도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마을 대표 및 주변 주민들과 상의해야 한다. 시야를 막는 부분은 없는지, 사생활 보장은 되는지, 일조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 여러 문제점을 따진다. 이목파인힐스의 집들 대부분이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를 잘 조정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잘 중재하는 것이 마을 대표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사생활 보호 및 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마당의 시야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주택들은 높은 축대를 갖추고 있다. 축대 아래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차고 및 창고로 활용된다. 이목파인힐스에서 차량이 없으면 여러모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에는 필수적으로 넓은 규모의 차고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축대 위쪽으로는 마당, 그리고 마당을 둘러싼 담장이 놓인다. 축대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담장은 보안 및 차단보다는 마당에서의 시야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는 형태로 제작된다. 따라서 담장의 높이가 낮고, 창살이나 통유리 등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담장 주변으로는 CCTV를 설치해 보안을 확보하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건축설계소에서 제공하는 단독주택 표준설계에 따라 집을 짓는다. 따라서 이목파인힐스의 주택들은 건축 당시에 유행하던 단독주택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곳곳에 요철을 갖춘 복잡하고 다양한 평면형태, 석재를 활용하여 마감한 축대, 베이지톤 혹은 그레이톤의 스타코(stucco)를 활용한 외벽 마감 등은 2010년대에 유행한 단독주택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8]

태양광 패널을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면 태양광 패널이 있어야 한다."는 건축주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사에서도 설계 및 공사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가정에서 소요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발전량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주기적으로 표면을 닦아 주고 관리하여야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지만, 이목파인힐스의 주택들은 대부분 옥상을 갖추지 않고 지붕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르는 전기세 이익은 많지 않다.

건축주가 주택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설계 및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에 특별한 테마가 부여되거나, 주택구조에서 예술성이 더 강조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부품 소재 기업을 운영하는 황창원



황창원 주택의 설계도(황창원 제공)

은 캐드(CAD)를 활용하여 집을 직접 설계했으며, 건축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들의 선정에도 관여하였다. 외관에서도 그는 보다 '전원주택다운 모습'을 원했고, 그에 따라 축대와 주택의 외벽재로 스타코나 석재 대신 적색벽돌을 선택하였다. 이 외벽에 담쟁이덩굴이 자리 잡으면서 황창원의 주택은 그가 원하는 전원주택다운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집을 꾸미는 재미'는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한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이목파인힐스의 주택 곳곳에서 주민들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의 개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공간은 마당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정원을 꾸미기도 하고, 테라스를 꾸미기도 하고, 화단이나 텃밭을 만들기도 한다. 화단이나 텃밭은 대부분 주부들에 의해 가꾸어진다. 반려동물들이 머물거나 뛰어노는 공간도 마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황창원은 마당의 정원수로 소나무를 선택하였다. 단지의 이름이 '파인힐스'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를 접한 다른 주민들도 마당에 점차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목파인힐스에 있는 대부분의 집에는 소나무가 적어도 한 그루씩은 있다. 이목파인힐스가 주민들의 자발적 조경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나무 언덕'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집의 문패나 주소판, 우편함 등을 직접 만들어 꾸미는 경우도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파인힐스 집 짓기

('정오의 빛' 블로그 및 김은영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정책연구센터

이목파인힐스의 주택
2010년대에 유행한 단독주택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예술성을 강조한 주택 외형(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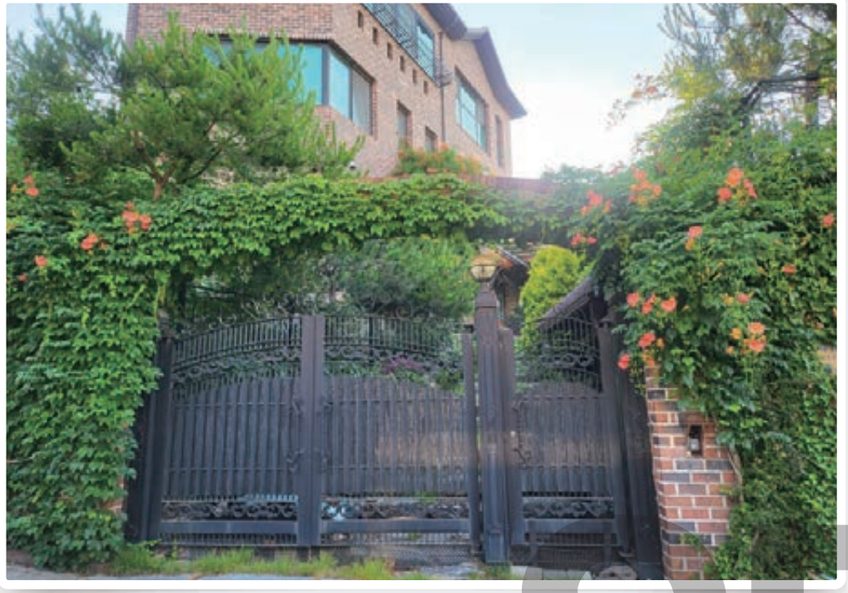


높은 축대와 낮은 창살 담장, CCTV(2023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택 상단의 태양광 패널(2023년)









설계부터 자재 선정까지 직접 신경 쓴 황창원의 주택(황창원 제공)

집주인의 취향이 반영된 주택 내부 인테리어('정오의 빛' 블로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집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문패와 주소판



이목파인힐스 집들이('정오의 빛' 블로그)

3. 이목파인힐스의 주민생활과 마을 운영

1) 이목파인힐스의 주민생활과 생활권

이목파인힐스를 비롯하여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여러 모습 중 하나가 '이웃이 있는 삶'이다. 그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고밀도 아파트의 삭막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웃과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은 새로운 주민이 오면 빈터나 마당에서 환영식을 연다. 서로 오고 가며 인사하기 위해 안면을 트는 것이다. 반면, 농어촌과 같이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혹은 강제되는) 공동체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목파인힐스의 단체 활동은 주민들 중에서 서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소모임을 이루는 경우에서 그친다. 여행 모임이나 술자리 모임, 혹은 간단한 취미생활을 위한 모임 등이다.

이목파인힐스 주택들의 높은 축대와 그를 둘러싼 여러 대의 CCTV가 입증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생활 보장이다. 보장된 사생활은 이목파인힐스를 비롯한 전원주택단지로 이주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들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반강제적인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렸을 적 거주한 시골 마을의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도시 생활을 거쳐 몸에 익은 개인적 생활방식을 무엇보다 선호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모순점은 서로 교류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목파인힐스의 '느슨한 공동체'로 구현화된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교류하는 시간은 저녁 식사 이후의 산책 시간이다. 넓은 마당을 갖춘 전원주택이라는 특성상 이목파인힐스의 주민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높다. 이목파인힐스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담장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강아지들과 마당에 조성된 예쁜 개집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마당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큰 견종을 키우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저녁식사 후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의 주요 일과 중 하나이다. 산책을 나가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고 근황을 묻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일정을 맞춰서 함께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 산책 코스는 주로 서부로의 북쪽, 즉 이목중학교에서 해우재박물관을 지나 윗동네로 향하는 코스를 선택한다. 산책을 하면서 이목동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안면을 트고 인사를 하기도 한다.

이목동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번 국도는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서부로 및 수원북부순환로와 1번 국도를 통해 형성되는 광대한 교통망은 이목파인힐스의 주민들의 생활권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 넓혀 준다. 실제로 이목파인힐스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사당까지는 25분, 강남까지는 48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주지하였던 바와 같이, 이는 생활권이 이목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목파인힐스로 이주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이목파인힐스 주민들 중에서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생활권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25분 만에 서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서울 시내로의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보를 통한 생활권 형성에서는 이 도로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목파인힐스에서 도보를 통해 수원 시내 쪽으로 나가는 길은 이목사거리에서 서부로 밑으로 형성된 작은 터널을 지나는 길밖에 없다. 이 외에는 서부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도, 육교도 존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하지 않는다. 이는 이목파인힐스뿐만 아니라 서부로 북쪽에 사는 모든 이목동 주민들의 도보 생활권을 크게 제약한다. 이렇게 도보 생활권이 제약된다는 것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생활권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황창원** : 어느 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안사람하고 여기로 이사 온 거에 대해서 투닥투닥, 반대 의견이 있어. 남자는 좋다 그러고 여자는 불편하다 그러고.
> **조사자** : 사모님들께서는 어떤 걸 주로 불편해 하실까요?
> **황창원** : 아니 여기서 하다못해 마트만 가려고 그래도 차 가지고 가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러 나갈 땐 우스갯소리로 읍내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기, 저기 앞쪽(아파트)에 살면 집 바깥에만 나가도 갈 수 있으니까. 뭐 병원, 약국, 영화 보러 가도 몇 블록, 한 블록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여성들한테 더 불편하다고 봐야겠죠."

이목파인힐스의 홍보자료에는 "대형할인점, AK백화점, 북수원CGV 등의 문화시설과 구청 및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가 인접되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원활"하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이목파인힐스에서 장안구청과 홈플러스, 북수원CGV 등이 밀집한 장안구 조원동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2.5~3㎞ 정도 떨어져 있다. 도보로 왕복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로, 이곳을 이목파인힐스의 도보 생활권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이목파인힐스가 '도심형 전원주택'이라는 사실은 주로 도보 생활권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주부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서 이목파인힐스는 버스를 타고 "읍내"를 가야 하는 다른 전원주택단지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이목파인힐스의 생활권 구성은 이목파인힐스가 지닌 '전원주택단지'와 '도심지'의 양면성을 잘 보여 준다.

서부로는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을 도로 남쪽 지역과 차단한다. 같은 이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은 도로 남쪽 지역, 즉 수원장안 STX칸아파트와 그 일대 마을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코스로도 도로 건너편의 노송공원 일대보다는 해우재박물관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더욱 선호한다. '파인힐스'라는 단지명이 무색하게 주민들 중에서는 노송지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 서부로가 오늘날의 이목동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는 형국이 된 것이다.

2) 이목파인힐스의 마을 운영

마을 관련 업무는 '대표'와 '총무' 두 사람이 전담하고 있다. 대표는 남성이, 총무는 여성이 담당하며 임기는 2년이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대표를 선정했지만, 아무도 대표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와 총무를 선출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에 따라 작년에는 당시 대표와 총무의 집에서 시계방향에 있는 옆집이 대표와 총무를 맡았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돌아가면서 마을의 대표와 총무를 맡기로 했다.

대표가 하는 일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 그때그때 마을 현황에 맞추어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하곤 한다. 황창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목파인힐스의 대표를 맡았는데, 당시는 이목파인힐스로의 입주 및 주택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라 그와 관련된 일이 많았다. 인부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마을 시설을 파손하지 못하게 감독하는 일, 차량의 입출입을 통제하고 소음·분진 등에 관한 민원을 가지고 건축주 및 건설사와 합의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대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마을 주민들 이름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대표의 일이다.

이목파인힐스의 주택들은 '부유층 전원주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섭외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많게는 1년에 5~6번의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마을 대표는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작 업체와 협의하는 일을 맡는다. 주민들은 수많은 스태프들이 드나들고 촬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장소 섭외로 받는 수입이 상당한 편이고, 또 자신의 집도 언제 촬영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협조하는 편이다. 주민들은 장소 섭외로 받는 수익 중 일부를 일종의 보상금 개념으로 마을 공동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또 경비실을 대여해 주고 제작사로부터 얻는 대관료도 일부 있다. 따라서 드라마 촬영은 마을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재정을 관리하고 대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지출을 수행하는 것은 총무의 일이다.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은 1년에 2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며, 총무는 이 관리비를 바탕으로 마을 재정을 운영한다. 도로를 보수하거나 반사거울을 세우는 등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을 주민들에게 추가금액을 걷기도 한다.

그러나 추가금액을 걷는 일은 거의 없다. 관리비가 쓰일 일이 별로 없으며, 또 드라마 촬영 등으로 벌어들이는 부수입도 있기 때문에 마을 재정이 넉넉한 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목파인힐스에는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업체를 직접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비교적 싼 가격에 마을 시설을 보수 및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목파인힐스의 마을 조직도 이목파인힐스 주민들이 추구하는 '느슨한 공동체'에 기반한다. 이목파인힐스에는 별다른 마을 조직이 없으며, 1월 1일을 전후로 하여 1년에 한 번 마을 총회를 여는 것이 이목파인힐스의 유일한 단체 활동이다. 이때조차도 총회 참석은 의무사항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파인힐스 마을총회(황창원 제공)



이목파인힐스 내 주민 골프모임 'PGA'(김은영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아니다. 총회에서는 대표와 총무가 1년간 시행한 마을 사업, 마을 예산을 보고하고, 차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총회는 이목동에 있는 한 커피숍 2층을 대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비실이라는 마을 공용공간이 있지만, 황창원은 "맛있는 커피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모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공용공간이 필요 없는 것 자체가 '느슨한 공동체'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소통이나 마을 차원에서의 공지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 밴드는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이자 주민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온라인 마을회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이 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을에는 경비실이 있지만 상주하는 경비원은 없다. 마을에 여러 채의 집이 지어지면서 수많은 인부들이 드나들던 시기, 외부인의 출입에 민감해진 일부 주민들은 경비원을 두고 차단막과 펜스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자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전원주택 단지처럼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차단된 마을, 즉 일종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마을 대표를 맡고 있던 황창원은 이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그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목파인힐스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립주택이 아닌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마을 규모에 비해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 안건에 대해 당시 그가 워낙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현재 경비원을 고용하고 차단 시설을 설치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황창원 : 경비실을 하나 운영하려면 정규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노사문제도 있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야. 원래 고용을 하고 그러려면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근무한다 그러면 하루 8시간밖에 근무가 안 돼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면, 사실 관리해야 하는 저녁에는 아무도 없는 꼴이 되잖아. 그러면 둘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빈 시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최소한 3명이 서야 되고 그다음에 휴일도 따로 운영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인력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마을 현실에 안 맞는다. 아예

집 앞 도로 눈을 치우는 이목파인힐스 주민들(김은영 제공)





김치를 함께 담그는 이목파인힐스 주민들(김은영 제공)

SH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는 식으로 딱 못을 박아 버렸지. 이거 절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또 아무래도 법에 대한 것도 잘 몰라서 그래. 노동법에 대해서.

마을에는 공용 분리수거장이 있고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분리수거장 관리인은 이목동 바로 옆에 위치한 파장동에 거주하는 노인이다. 마을의 분리수거장이 생긴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원래 파장동에 거주하던 노인이 단지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집 앞에 내놓은 폐품을 가져가곤 했는데, 그것을 본 당시 대표가 “마을 차원에서 수고비를 드릴 테니 마을의 폐품을 관리하고 폐품을 수거해 가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경비실 옆에 별도의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였다. 관리인은 1주일에 3~4번 분리수거장을 찾아 이곳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액을 받는다. 수고비는 마을 회비로 지급하고 있다. 수고비 이외에도 관리인은 수거한 폐품을 분리수거업체나 고물상에 넘겨 별도의 부수입을 벌고 있다. 분리수거장 외의 마을 미화는 주민들이 각자 집 앞 구역을 청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4. 이목파인힐스의 향후 과제와 전망

이목파인힐스는 만들어진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단지이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도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목파인힐스는 현재에도 주민들에 의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전원주택단지이자 공동체이다. 예를 들어 경비실의 존재는 이목파인힐스가 단지 계획 당시에는 여느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경비실과 경비원을 갖출 것이라 생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 보니 경비실을 유지하고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결국 경비실은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경비실은 마을의 공용 자산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양로원이나 모임 장소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 중이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목파인힐스는 향후 주민들 주도로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가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목파인힐스의 가장 중요한 향후 과제는 도로로 고립된 마을의 도보 생활권을 넓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에서는 교차로 위로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 기존의 지하터널을 넓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민원이나 지역 의원 등의 경로를 통해 수원시에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비단 이목파인힐스뿐만 아니라, 1989년에 실시된 서부로 착공 이후 남북으로 분리되어버린 이목동 전체의 생활권을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마을 뒤쪽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에서 넘어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로가 주는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도로가 주는 이점은 극대화함으로써, 이목파인힐스는 향후 주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목파인힐스는 이목동 내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공동체이다. 이목동의 정체성인 노송지대의 이름을 계승한 이 공동체는 향후 이목동의 지역 사회에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목파인힐스는 이목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바꿀 것이며, 이곳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웃끼리의 교류가 있는 따뜻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향후 이목동에 활기와 따뜻함을 불어넣어 갈 ‘도심 속 작은 숲’, 이목파인힐스의 변화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목파인힐스 전경(김승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이목파인힐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학교 옆 골프연습장허가 철회하라」,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17일.
2. 「수원시의회, "학교 옆 골프연습장 문제 있다"」, 『오마이뉴스』 2003년 6월 26일.
3. 「주거지역 골프연습장 허가 제한」, 『문화일보』 2003년 7월 9일.
4. 「[MK분양 현장리포트] 이목파인힐스」, 『매일경제』 2014년 11월 17일.
5.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해 수행된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 조사』로 2013년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목적적 할당표본 추출법에 의해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6. 정동훈·정경호·한균, 2014, 「아파트거주자의 단독주택에 대한 인식 및 특성연구=안산 신길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도시설계』 15-3, 한국도시설계학회.
7.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해 수행된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 조사」로 2013년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목적적 할당표본 추출법에 의해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8. 유복희, 2022, 「2010년대 이후 신축된 도시단독주택의 건축 및 외관 형태 특성에 관한 연구: 우정혁신지구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0-4, 가정과삶의질학회 참조.

집필

권희정　한국구술사연구소 연구원
김세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용환　수원문화재단 주거복지센터 단장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김　혁　고문서 연구가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박성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전공 박사과정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지영　전남대학교 글러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유중현　수원시 학예연구사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이태영　전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임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정아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수료
정한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기획·편집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자료조사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21 –

이목동

활기차고 정겨운 배나무골

발　행　일 : 2024년 12월 15일
발　행　처 :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031-220-8058,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디자인 및 인쇄 : 경인M&B(전화 031-231-5522~7)
ISBN 979-11-6819-194-5
ISBN 979-11-90343-99-2 (세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